국어음운론

최명옥 崔明玉

경남 사천시(구 삼천포시)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동 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문학박사
영남대학교 교수 · 천리대학 및 동경대학 객원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저서: 『慶北東海岸方言硏究』(1980)
『月城地域語의 音韻論』(1982)
『國語音韻論』(공)(1977)
『국어음운론과 자료』(1998)
『한국어 방언연구의 실제』(1998)
『경주 속담 · 말 사전』(2001)
『함북 북부지역어 연구』(공)(2003)
논문: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國語 움라우트의 硏究史的 考察」
「語幹의 再構造化와 交替形의 單一化方向」
「現代韓國語의 子音群單純化에 대한 對照方言學的 硏究」
외 다수



국어음운론

초판 인쇄 2004년 8월 28일 ‖ 초판 발행 2004년 8월 30일 ‖ 지은이 최명옥 ‖ 펴낸이 지현구 ‖ 펴낸곳 태학사 |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7-42 | 전화 (02) 584-1740 (代) | 전송 (02) 584-1730 | 전자우편 thaehak4@chol.com | 홈페이지 www.thaehak4.com | 등록 제 22-1455호

값 15,000 원

ISBN 89-7626-927-6 93710

☞ 잘못된 책은 구입한 곳이나 본사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 지은이와 협의하여 인지를 생략합니다.

한 영 균 교수께
저자 드림.

국어음운론

최 명 옥

태학사

머리말

개론서는 함부로 집필할 수 있는 성질의 책이 아니다. 그 내용이 그 분야의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진리로 각인(刻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에 '국어음운론' 개론서를 집필하겠다고 전체 개요와 세부 사항을 작성해 놓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때 작성해 둔 내용은 그 후 대학에서 국어음운론 강의 노트가 되어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다. 그러다가 저자는 1997년에 이병근 교수와 함께 한국방송대학교 교재로 『國語音韻論』을 출판했다. 이 책은 그 중 제1장에서 제4장까지를 다시 쓰고 제9장과 제10장을 추가한 것이다. 전체 내용은 대학과 학부 과정의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했다.

이 책에서는 표준어를 주된 논의 대상 언어로 삼았으며 생성음운론 중에서도 구체음운론을 배경 이론으로 했다. 표준어는 '국어'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언어이며, 구체음운론은 국어에 존재하는 음운현상을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음운 이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직도 저자가 가지고 있는 국어음운론에 대한 소양(素養)이 20년 전보다 크게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생각을 종합하여 감히 이 책을 출판하기로 한다. 이 책이 국어음운론 연구에 뜻을 두는 사람들과 국어음운론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

끝으로 초고를 읽고 수정하는 한편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준 김옥화, 김봉국(이상 문학박사), 임석규, 이상신(이상 박사과정 수료), 하신영(박사과정 재학) 선생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하신영 선생은 책의 간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정 작업을 도맡아 주었음을 밝혀 그 수고에 답하고자 한다. 그리고 '말소리'의 스펙트럼과 스펙트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언어학과의 이호영 교수와 어려운 출판 사정에도 불구하고 책의 간행을 흔쾌히 수락해준 태학사의 지현구 사장과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준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4년 8월

저자 씀

차례

머리말 4

제1장 서론 11
1.1 음운론의 목적과 개념 11
1.2 음운론의 기술 영역 15
1.3 국어음운론의 목적 · 개념 · 대상 19
1.4 이 책에서 논의되는 음운론의 대상 22
요약 23
연습문제 24

제2장 음소목록 25
2.1 자음소목록 28
2.2 유음소목록 33
2.3 활음소목록 34
2.4 모음소목록 40
2.4.1 단(單)모음소목록 40
2.4.2 이중모음소목록 45
요약 48
연습문제 49

제3장 음소목록과 변별적 자질 51
3.1 자음소목록과 변별적 자질 55
3.2 유음소목록과 변별적 자질 57
3.3 활음소목록과 변별적 자질 58
3.4 모음소목록과 변별적 자질 58
요약 64
연습문제 66

제4장 음절 69
4.1 음절의 구조 70
4.2 음절의 구조제약 73
4.3 음절의 구조조정 75
요약 77
연습문제 80

제5장 음운과정 83
5.1 교체 87
5.1.1 자음소교체 90
평파열음소화 ‖ 자음소동화 ‖ 경음소화
5.1.2 모음소교체 97
활음소화 ‖ 모음소동화 ‖ 비원순모음소화 ‖ 단(短)모음소화
5.2 탈락 105
5.2.1 자음소탈락 107
/ㅎ/ 탈락 ‖ 자음소군단순화
5.2.2 유음소탈락 109
5.2.3 활음소탈락 110
5.2.4 모음소탈락 112
5.3 삽입 113
5.3.1 자음소삽입 114
/ㄴ/ 삽입
5.3.2 활음소삽입 115
5.4 축약 116
5.5 도치 117
요약 119
연습문제 122

제6장 음운과정과 음운규칙 125
6.1 교체규칙 128
평파열음소화규칙 ‖ 자음소동화규칙
6.2 탈락규칙 140
6.2.1 자음소탈락규칙 141
/ㅎ/ 탈락규칙 ‖ 자음소군단순화규칙

6.2.2 유음소탈락규칙 149
6.2.3 모음소탈락규칙 152
/으/ 탈락규칙
6.3 축약규칙 158
요약 161
연습문제 164

제7장 음운과정과 형태음운규칙 165
7.1 교체규칙 165
7.1.1 자음소교체규칙 166
경음소화규칙
7.1.2 모음소교체규칙 170
활음소화규칙 ‖ /어/ 순행동화규칙 ‖ 단(短)모음소화규칙
7.2 탈락규칙 179
7.2.1 자음소탈락규칙 179
자음소군단순화규칙
7.2.2 유음소탈락규칙 182
7.2.3 모음소탈락규칙 183
어간말의 /으/, /어/, /아/ 탈락규칙 ‖ 어미초의 /으/ 탈락규칙
7.3 삽입규칙 188
7.3.1 자음소삽입규칙 188
/ㄴ/ 삽입규칙
7.3.2 활음소삽입규칙 192
/j/ 삽입규칙
요약 195
연습문제 197

제8장 음운론의 기술방법 199
8.1 자료 수집 200
8.2 자료 분석과 정리 206
8.3 기저형의 설정 211
8.4 규칙의 설정 222
8.5 음운과정의 설명 226
8.6 음운론 기술의 실제 228

8.6.1 자료 분석과 정리 230
8.6.2 기저형의 설정 231
8.6.3 규칙의 설정 239
8.6.4 활음소화 과정의 설명 241
요약 243
연습문제 245

제9장 음운론적 변화 247
9.1 음소목록의 변화 247
9.1.1 자음소목록의 변화 247
9.1.2 모음소목록의 변화 249
단(單)모음소목록의 변화 ‖ 이중모음소목록의 변화
9.1.3 운소목록의 변화 251
9.2 음소분포의 변화 251
9.3 음운규칙의 변화 257
요약 265
연습문제 267

제10장 표기형 · 음성형 · 기저형 269
10.1 문자 · 음성 · 음소 270
10.2 표기형 · 음성형 · 기저형 274
요약 280
연습문제 281

참고논저 285
찾아보기 295

범 례			
C	자음(소)	σ	음절
V	모음(소)	$	음절경계
G	활음(소)	F.E	종결어미
N	명사	PRE.F.E	선어말어미
I.N	불완전명사	[,]	형태범주표시
Ad	부사	X, Y	변항
W	단어	→	변동표시 예. A→B 또는 B←A (A에서 B로 변동함)
Vst	동사어간	〉	변화 표시 예. A〉B 또는 B〈A (A에서 B로 변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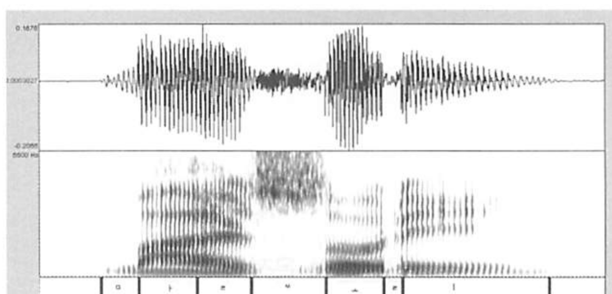
제1장 서론

1.1 음운론의 목적과 개념

일반적으로 '음운론'이란 언어음(linguistic sounds)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라고 말한다. 이러한 음운론의 개념은 음운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 '언어음'이 무엇인가. '언어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어음을 대상으로 무엇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운론'이 무엇이며 무엇을 연구하는 분야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언어음'이란 언어를 말하는 데에 사용되는 음이다. 사람이 낼 수 있는 음은 여러 가지이다. 손뼉을 쳐서 내는 소리, 발을 굴러서 내는 소리, 코고는 소리, 트림하는 소리, 신음소리, 말소리 등. 이러한 소리들은 모두 음의 연속체이다. 이 점에서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말소리만을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다시 말하면 '[말소리]'는, 〈그림 1〉과 같이, 실제로 음의 연속체로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ㅁ, ㅏ, ㄹ, ㅅ, ㅗ, ㄹ, ㅣ'로 분해한다. 이처럼 사람의 음성기관을 통해서 나온, 자음이나 모음으로 분해할 수 있는 음[소리]이 '언어음'이다.



〈그림 1〉 /말소리/의 스펙트럼과 스펙트로그램

그러면 언어음을 대상으로 음운론에서 연구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음운론의 목적이다. 그것은 연구 대상 언어에 존재하는 음형(音型, sound patterns)을 연구하는 것이다. '음형'이란 대체로 다음 네 가지를 포함하는 술어이다.

(1) 대상 언어에 존재하는 음운목록
(2) 형태소 내에서 그들 음운의 가능한 배열
(3)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이 통합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음운과정
(4) 음운목록, 음운배열, 형태음운의 변화

첫째로, 대상 언어에 존재하는 음운목록이란 단어의 뜻을 구별시킬 수 있는, 즉 변별적 기능을 가지는 음의 집합이다. 단어의 뜻을 구별시킬 수 있는 음에는 자음이나 모음으로 분해될 수 있는 음(분절음, 分節

音, segment)도 있고 영어의 [rikɔ́:d]와 [rékɔ:d](record)에서 볼 수 있는 '악센트'나 명사 '말'과 주격어미 '-이'가 통합한 동남방언의 [마'리](馬), [마'리'](斗), [마ˇ리'](경북)/[마리'](경남)(語)에서 볼 수 있는 '성조'와 같이, 구조가 동일한 형태소 내의 모음소나 음절에 얹히는 강약이나 높낮이와 같은 음도 있다. 앞의 것을 '음소', 뒤의 것을 '운소'라 하며, 그 둘을 합하여 '음운'이라고 한다.

언어의 존재 이유가 의사소통, 즉 정보전달에 있다고 할 때, 언어에서 음운은 매우 중요하다. 전달하려는 정보(情報)는 최종적으로 음운을 수단으로 하여 표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쌀 반 되만 보내 주세요/라는 정보는 [쌀 반 되만 보내 주세요]라는 글이나 말로써 표현된다. 그런데 그것을 [쌀 만 되만 보내 주세요]라고 쓰거나 말할 경우,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전달된 정보의 표현은 비록 'ㅂ'와 'ㅁ'의 차이뿐이지만, 그 정보 내용의 차이는 엄청나다. 이 점에서 왜 음운론이 중요한지, 음운론에서 왜 제일 먼저 대상 언어의 음운목록을 밝히고자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형태소 내에서 그들 음운의 가능한 배열이란 음운들의 분포제약을 뜻한다. 음운목록 속의 음운들은 형태소 내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분포되는 것은 아니다. 음소의 경우, 형태소 내부에서 어떤 음소와 음소는 나란히 배열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음소와 음소는 절대로 나란히 배열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민들레, 방망이, 먼지' 등에서 보듯이, 'ㄴㄷ, ㄹㄹ, ㅇㅁ, ㄴㅈ' 등의 연결은 가능하다. 그러나 'ㄴㄹ, ㅂㄴ, ㄷㄴ'이나 'ㅂㅁ, ㄱㅁ, ㄷㅁ' 등의 연결은 형태소 내부에서 불가능하다.

이러한 음소들 상호간의 배열뿐만 아니라 개별 음소의 분포에도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순수 국어에서는 어두(語頭)에 'ㄹ'가 분포될 수 없으며(알타이어의 공통 특질) 고유어에서는 명사의 말에 'ㅇ'가 분포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사의 어간말에 'ㅃ'나 'ㄸ' 등이 분포되지 않는다(국어의 특질). 이러한 제약도 형태소 내에서 음운들의 분포 제약에 포함된다.

그런데 형태소의 기저형에는 이미 음운의 분포 제약이 적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음운론에서는 형태소 내에서의 음운 배열을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셋째로,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이 통합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음운과정이란 어간의 기저형과 어미의 기저형이 통합하는 경우에 어간말이나 어미초의 형태음소가 교체, 탈락, 통합되거나 어간말과 어미초 사이에 새로운 음소가 첨가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간 '믿-(信)'과 어미 '-는다'가 통합하면, [민는다]에서 보듯이, 어간말의 'ㄷ'가 'ㄴ'로 교체되며, 어간 '밀-(推)'과 어미 '-은다'가 통합하면, [민다]에서 보듯이, 어간말의 'ㄹ'와 어미초의 'ㅡ'가 탈락한다.

이러한 음운과정은 공시적인 것으로서 정보전달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불-(吹), 밀-(推)' 등의 어간과 '-은다, -은, -니, -는지' 등의 어미가 통합하면, 그것은 [분다, 분(사람), 부니, 부는지], [민다, 민(사람), 미니, 미는지] 등의 음성으로 실현된다. 이 음성형에는 어간말의 'ㄹ'나 어미초의 'ㅡ'가 탈락되어 있다. 음소는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ㄹ'나 'ㅡ'가 탈락되면 그로 인해 단어의 의미파악이 어렵게 된다. 이것은 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에게서 쉽게 확인된다.

그러나 본토박이 한국 사람에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은 그 경우의 음운과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음운현상의 수는 매우 많지만, 그 음운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음운과정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시적인 음운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음운과정을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로, 음운목록, 음운배열, 형태음운의 변화란 어떤 시기와 다음 시기 사이에 일어난 음운목록의 변화, 음운배열의 변화 및 형태음운의 변화를 말한다. 이런 것들은 통시음운론의 문제로서, 해당 언어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로써 음운론의 목적이 어느 정도 뚜렷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음운론의 개념을 규정하면 음운론이 무엇인가를 처음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음운론**'이란 언어음을 대상으로 해당 언어에 존재하는 음형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음운론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음형은 해당 언어에 존재하는 음운목록, 형태소 내에서 그들 음운의 가능한 배열,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과정 그리고 음운목록과 음운배열과 형태음운의 변화이다.

1.2 음운론의 기술 영역

생성문법에 의하면, 말은 의미 · 통사부에서 추상적인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음운부를 거쳐서 구체적인 문장으로 실현된다. 의미 · 통사부에는 어휘부와 통사규칙(구절구조규칙과 변형규칙)이 있어서, 먼저 구절구조규칙과 어휘삽입규칙에 의해 기본문장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의미 · 통사부의 심층구조가 된다. 이 심층구조에 변형규칙이 적용되어 기본문장이 다른 기본문장으로 되거나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본문장이 결합되어 길고 복잡한 문장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이 의미 · 통사부의 표면구조다.

예를 들어 국어의 경우, '개가 생선을 먹다'나 '사냥꾼이 개를 쓰다듬다'와 같은 기본문장은 구절구조규칙과 어휘삽입규칙에 의해서 만들

어진 것이다. 이들 기본문장은 현재변형규칙, 과거변형규칙이나 의문변형규칙과 같은 변형규칙에 의해 '개가 생선을 먹는다', '개가 생선을 먹었다'나 '개가 생선을 먹니' 등과 같은 다른 기본문장이 된다. 그리고 삽입규칙이나 동일명사구 탈락규칙과 같은 변형규칙에 의해서 그 두 기본문장은 '사냥꾼이 쓰다듬는 개가 생선을 먹었다', '사냥꾼이 생선을 먹은 개를 쓰다듬는다'와 같은 하나의 문장으로 된다.

의미 · 통사부에서 만들어진 기본문장이나 둘 이상의 기본문장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문장은 아직 발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즉 '개가 생선을 먹었다'는

/ [[kɛ] ka] [[sɛŋsʌn] ɯl] [[[mʌk] ʌs'] ta] /

로 표시된다. 의미 · 통사부의 표면구조는 음운부로 가면 음운부의 심층구조 또는 기저형이 된다. 이 심층구조 또는 기저형에 음운규칙이나 형태음운규칙이 적용되어 음성으로 실현된 것이 음운부의 표면구조 또는 음성형이다. 즉 위의 기저형에 대한 음성형은 '[kɛga sɛŋsʌnɯl mʌgʌt'a]'이다. 음운부의 기저형과 음성형을 단어를 단위로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① /kɛ] ka/	② /sɛŋsʌn] ɯl/	③ /mʌk] ʌs'] ta/	기저형
[kɛga]	[sɛŋsʌnɯl]	[mʌgʌt'a]	음성형

이들 기저형과 음성형을 대조하여 보면, ①에서는 두 번째의 /k/가 [g]로, ③에서는 /k/가 [g]로 되고 /s'/와 /t/가 각각 /t/와 /t'/로 된 다음 [t']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①과 ③에서 k와 g는 음소와 그 이음의 관계이다. 그러나 ③에서 s'와 t나 t와 t'는 서로 다른 음소의 관계이다. 음소와 그 이음의 관계는 비음운론적 관계, 즉 음성적 관계이며 서로 다른 음소의 관계는 음운론적 관계이다. 음운론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음성형으로 실현되기 전까지에 일어나는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음소가 음운론적 관계를 가지는 다른 형태음소로 바뀌는 것, 즉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음소의 교체와 그 교체를 지배하는 음운규칙이다. 〈그림 2〉를 이용하여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 Xa ㅣ bY /	기저형	
Xa1 b1Y	규칙1	음운규칙
Xa2 b2Y	규칙2	
Xan bnY	규칙n	
Xan' bn'Y	이음규칙	음성규칙
[Xan' bn'Y]	음성형	

〈그림 2〉

〈그림 2〉에서, 기저형 / Xa ㅣ bY / 속의 Xa는 어휘형태소, 즉 어간이며 bY는 문법형태소, 즉 어미이다. 그리고 ㅣ는 그 앞 형태소의 범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앞의 형태소가 동사어간이면 ㅣ$_{Vst}$로, 명사이면 ㅣ$_{N}$으로, 단어이면 ㅣ$_{W}$로, 그리고 그 앞의 형태소가 과거시제 어미이면 ㅣ$_{pst.end.}$로, 종결어미이면 ㅣ$_{fnal.end.}$ 등으로 표시한다. 또 X와 Y는 변항이고 a와 b는 각각 어간말의 형태음소와 어미초의 형태음소이다. 그리고 {a, a1, a2, an}과 {b, b1, b2, bn}에서 각 집합 속의 요소들은 서로 음운론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an과 an', bn과 bn'는 서로 음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Xa1 b1Y는 기저형에 음운규칙1이 적용된 결과이고 Xa2 b2Y는 Xa1 b1Y에 음운규칙2가 적용된 결과이다. 더 이상 음운규칙이 적용될 수 없는 단계, 즉 Xan bnY를 최종단계라고 하며 기저형과 최종단계 사이에 있는 것을 중간단계라고 한다.

따라서 음운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저형에서 최종단계까지가

된다. 그런데 중간단계와 최종단계는 음운규칙이 적용된 결과이므로 음운론의 기술 영역은 기저형과 음운규칙이 된다.[쉽]

참

●구조주의 음운론과 생성음운론(1)

구조주의 음운론과 생성음운론은 이론적 배경, 목적, 방법, 언어학적 연구영역과 그들 상호간의 관계, 기본단위, 두 층위의 단위 등에서 서로 다르다. 구조주의 음운론이 즉물주의나 경험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데 반하여 생성음운론은 심리주의나 합리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구조주의 음운론은 연구대상 언어에 존재하는 음운체계를 확립하거나(프라그 언어학)나 음소목록을 발견하는 것(기술언어학)을 목표로 하는데 반하여 생성음운론은 기저형들(형태소들)의 결합이 음성으로 실현되는 음운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조주의 음운론은 치환검증(置換檢證, commutation test)(프라그언어학)이나 분포(distribution))와 분류(classification)(기술언어학)라는 방법을 사용하며 생성음운론은 체계적인 곡용형과 활용형을 조사하여 그것을 분석하고 정리한 다음 기저형과 음운규칙을 설정한다.

이 서술에 의하면 음운론에서 음성형은 별로 중요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저형'은 음성으로 실현되기 이전 단계에 있는 추상적인 실재다. 그것의 실재는 구체적인 음성형으로부터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기저형'을 설정하려면, 기저형이 구체화된 음성형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국어의 동사 '찾-(索)'이 어간말 자음소 '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동사가 어미 '-는다, -지, -소, -어도'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은 각각 [찬는다], [찯찌], [차쏘], [차자도]이며, 이 음성자료를 분석하면 이 동사의 어간은 '찬-, 찯-, 차C-, 찾-'으로 나타난다.[쉽]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索'의 의미를 가진 동사 어간의 교체형이다. 그리고 이들 모습을 서로 대조하고

다른 동사들의 음성형과 관련지어서 찾아낸 실재가 바로 /찾-/이다.

㉑

어미 '-소'의 'ㅅ'이 'ㅆ'으로 되는 것은 결합된 어간이 자음으로 끝날 때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자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어간을 '차C-'로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음성형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기저형을 설정할 수 없다. 음운론의 기술영역에서는 음성형이 덜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기저형 설정을 위한 핵심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참으로 크다.

1.3 국어음운론의 목적 · 개념 · 대상

1.1과 1.2는 일반언어학으로서의 음운론에 대한 서술이지만, 이는 개별언어학으로서의 국어음운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먼저 국어음운론의 목적은 국어에 존재하는 음형(音型, sound patterns)을 연구하는 것이다. 즉 (1) 국어에 존재하는 음운의 목록, (2) 국어의 형태소 내에서 그들 음운의 가능한 배열, (3) 국어의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이 통합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음운과정 그리고 (4) 국어의 음운목록, 음운배열, 형태음운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국어음운론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국어음운론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국어음운론**'이란 국어의 언어음을 대상으로 국어에 존재하는 음운목록과 형태소 내에서 그들 음운의 가능한 배열과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과정 그리고 국어의 음운목록, 음운배열, 형태음운의 변화를 연구하는 국어학의 한 분야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국어음운론의 대상이다. 국어음운론은 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음운론이므로, 그 대상은 당연히 '국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어음운론의 대상이 무엇인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어'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문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국어(또는 한국말)'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그것은 본토박이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간단히 답할 수 있다. 이 답은 '국어란 한국 전역에서 사용되는 말이다'로 그 표현을 바꿀 수 있다(물론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해외 동포들의 한국말도 넓은 의미의 국어에 포함된다). 그런데 한국 전역에서 사용되는 국어는 모두 같다고 할 수 없다.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충청도 말, 제주도 말, 평안도 말, 함경도 말 등은 서로 다르다. 그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말이라고 해도 한강 이북의 경기도 말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말이 서로 다르다.

이것은 구체적인 국어가 크고 작은 방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방언은 그 자체가 독립된 언어체계를 가지므로, 국어의 어느 한 방언을 대상으로 한 음운론을 국어음운론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크고 작은 국어의 방언을 모두 대상으로 한 음운론을 국어음운론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음운론은 국어음운론에 합당하다고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음운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방언을 대상으로 음운론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경비와 노력이 필요하며, 그렇게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여도, 수집된 자료들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자료들로부터 국어음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성을 포착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국어음운론의 대상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그림 3〉의 인물화를 예로 들어보자.



(a) (b) (c)

〈그림 3〉

(a)는 전체적으로는 사람의 얼굴이라 할 수 있으나, 눈, 코, 입, 눈썹, 귀 등을 생략한 것이므로, 지나치게 추상적인 얼굴이다. 이 점에서 (a)는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c)는 눈, 코, 입 등은 물론 잔 주름과 털, 그리고 표피의 죽은 세포막까지를 정밀하게 나타낸 얼굴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괴수의 얼굴이다. 이 점에서 (c)도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다. 이들 얼굴과는 달리, (b)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구체적이지도 않은 정상적인 얼굴이다.

국어음운론의 경우, 어느 한 방언을 대상으로 한 음운론을 국어음운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a)의 얼굴과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국어음운론이 될 것이다. 반대로 크고 작은 모든 방언을 대상으로 한 음운론을 국어음운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c)의 얼굴과 같이 국어음운론이라고 할 수 없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국어음운론이 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정상적인 국어음운론이 되기 위한 대상은, (b)의 얼굴을 구성하는 눈, 코, 입, 귀 등에 해당하는 지나친 추상성과 구체성을 배제한 방언들이라야 한다. 그것들은 국어를 구성하는 여섯 개의 일반화된 대단위 방언이다.[십]

설

① 이러한 국어음운론의 대상은 국어학의 대상이기도 하다.

② 여섯 개의 일반화된 대단위 방언이란 국어를 구성하는 대단위 방언, 즉 동남방언, 서남방언, 제주방언, 중부방언, 동북방언, 서북방언의 각 대단위 방언을 일반화한 것을 의미한다. 모음소목록을 예로 들면, 동남방언은 크게 /i(이), E(에/애), Ǝ(으/어), u(우), o(오), a(아)/의 6모음소목록을 가진 하위방언(대부분)과 /i, e(에), ɛ(애), Ǝ, u, o, a/의 7모음소목록을 가지는 하위방언(경남의 서남방언의 일부), /i, E, ɯ(으), ə(어), u, o, a/의 7모음소목록을 가지는 하위방언(경북의 동북방언의 일부)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7모음소목록을 가지는 하위방언은 동남방언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일반화된 동남방언의 모음소목록은 6모음소목록이다. 이와 같이 여섯 개의 일반화된 대단위 방언의 모음소목록을 다시 일반화하면(대단위 방언들의 차이가 대등하다면 일반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 결과가 국어 모음소목록이 된다.

1.4 이 책에서 논의되는 음운론의 대상

1.3에서 서술된 국어음운론의 개념과 목적에 합당한 국어음운론을 서술하려면, 서술의 대상을 여섯 개의 일반화된 대단위 방언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책과 같이 국어음운론을 개설(槪說)하는 경우에, 국어를 구성하는 여섯 개의 일반화된 대단위 방언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면, 논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국어음운론의 대상을 표준어로 한다면, 설명하기도 간단할 뿐만 아니라 본토박이 한국 사람이나 국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외국인이라도 그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에서 논의되는 음운론의 대상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표준어이다.

요약

[1] 음운론의 목적

음운론의 목적은 한 언어에 존재하는 음형(音型, sound patterns)을 연구하는 것이다. '음형'에는 대체로 다음 네 가지가 포함된다. (1) 대상 언어에 존재하는 음운목록, (2) 형태소 내에서 그들 음운의 가능한 배열, (3)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이 통합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음운과정 그리고 (4) 음운목록, 음운배열, 형태음운의 변화가 그것이다.

[2] 음운론의 개념

'음운론'이란 언어음을 대상으로 한 언어에 존재하는 음형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3] 음운론의 기술 영역

음운론의 기술 영역은 기저형과 음운규칙이다(〈그림 1〉 참조).

[4] 국어음운론의 목적 · 개념 · 대상

국어음운론의 목적은 국어에 존재하는 음형(音型, sound patterns)을 연구하는 것이다. 음형에 포함되는 것은 (1) 국어에 존재하는 음운목록, (2) 국어의 형태소 내에서 그들 음운의 가능한 배열, (3) 국어의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이 통합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음운과정 그리고 (4) 국어의 음운목록, 음운배열, 형태음운의 변화 등이다. 이 점에서 국어음운론이란 국어의 언어음을 대상으로 국어에 존재하는 음형을 연구하는 국어학의 한 분야이다. 그리고 국어음운론의 대상은 국어를 구성하는 여섯 개의 일반화된 대단위 방언이다.

[5] 이 책에서 논의되는 음운론의 대상

이 책에서 논의되는 국어음운론의 대상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표준어이다.

연습문제 1

1. 음운론의 목적은 무엇이며 국어음운론의 목적은 무엇인가?

2. 음운론의 개념과 국어음운론의 개념은 무엇인가?

3. 음운론의 기술 영역은 무엇인가?

4. 음운론의 기술에서 음성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5. 국어음운론의 대상은 무엇이며 그것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2장 음소목록

이 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국어의 음소목록과 이음이다. 1.1에서 우리는 단어의 뜻을 구별시키는 음 중에서 자음이나 모음으로 분해될 수 있는 음(분절음, 分節音 segment)을 '음소'라 하고, 구조가 동일한 형태소 내의 모음소나 음절에 얹히는 음(강약이나 높낮이)을 '운소'라 하며, '음운'이란 그 둘을 합하여 부르는 술어라고 했다. 종래에 음장(音長, length)을 국어의 '운소'로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생성음운론적 관점으로는, 장모음소를 기저모음소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음장'을 국어의 운소로 취급하지 않는다.[1]

설

●구조주의 음운론과 생성음운론의 술어

구조주의 음운론: 음소(phoneme), (변)이음(allophone), 형태소(morpheme), 이형태(allomorph) 등.

생성음운론: 분절음(segment), 음운론적 분절음(a phonological segment = 음소), 음성적 분절음(phonetic segment = (변)이음), 체계적 음소표시(systematic phonemic representation)(예. /čhač l nɯn/(찾는), 체계적 음성표시(systematic phonetic represent[tion)(예. [čhannɯn](찾는), 기저형(underlying form)=기저표시underlying representa

tion)=심층구조(deep structure), 음성형(phonetic form)=음성표시(phonetic representation))=표면구조(surface structure), 형태음소(morphophoneme), 교체(alternation), 교체형(alternant) 등

'음소'를 설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최소대립쌍(minimal pairs)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의 분포(分布)에 의한 것이다. 최소대립쌍에 의한 방법은 '의미'를 중시하는 프라그언어학의 음운설정 방법이다. 주로 첫 음절의 동일 위치에 있는 하나의 음만이 다르고 나머지 음의 구성이 동일한 단어들이 있으면, 차이가 나는 음들은 모두 서로 다른 음소로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tal](달, 月), [t'al](딸, 女息), [tʰal](탈, 假面)은 단어초의 음성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세 단어의 의미차이는 단어초의 자음 [t], [t'], [tʰ]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그 세 자음은 단어의 뜻을 구별시키는 기능을 가지므로, 국어의 자음소가 되며 /t, t', tʰ/로 나타낸다. 그리고 [sin](신, 履), [sʌn](선, 線), [sun](순, 荀), [son](손, 手), [san](산, 山)은 모음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그들 단어의 의미 차이는 모음 [i], [ʌ], [u], [o], [a]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그 다섯 모음도 단어의 뜻을 구별시키는 기능을 가지므로, 국어의 모음소가 되며 /i, ʌ, u, o, a/로 나타낸다.

한편 음의 분포에 의한 방법은 '의미'를 배제하는 미국 기술언어학의 음운설정 방법이다. 이 방법은 둘 이상의 음이 동일 위치에 분포되는 것과 서로 다른 위치에 분포되는 것으로 구별하여, 동일 위치에 분포되는 음들은 서로 다른 음소로 설정하고 서로 다른 위치에 분포되면서 음성적으로 유사한 음들은 어떤 음소의 이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어에서 '보리(麥), 다리(脚), 가루(粉), 하루(一日)'의 [p(ㅂ)], [t(ㄷ)], [k(ㄱ)], [h(ㅎ)] 등은 단어초에 분포된다. 이 경우 그들

음들은 모두 국어의 자음소 /p(ㅂ), t(ㄷ), k(ㄱ), h(ㅎ)/로 설정된다. 한편 '바다(海), 바람(風)' 등에서의 'ㅂ'인 무성 양순 파열음 [$p^{<}$]는 단어초([w __)에만 분포하고 '아버지(父), 담배(煙草)' 등에서의 'ㅂ'인 유성 양순 외파음 [$b^{<}$]는 유성음(모음과 유성자음)과 모음 사이(Vo __ V)에만 분포하며[Vo=voiced] '입(도)(口), 집(조차)(家)' 등에서의 'ㅂ'인 무성 양순 폐쇄음 [$p^{>}$]는 단어말이나 자음 앞(__ {]w, C})에만 분포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분포위치 / 음성	[w __	Vo __ V	__{]w, C}
[$p^{<}$]	√		
[$b^{<}$]		√	
[$p^{>}$]			√

〈'ㅂ'의 이음 분포〉

이들 음처럼 어떤 둘 이상의 음이 실현되는 분포가 서로 배타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일 때, 그들 음은 상보적 분포(相補的 分布, complementary distribution)를 이룬다고 한다. 위에 서술된 음성 [$p^{<}$], [$b^{<}$], [$p^{>}$]는 국어에서 상보적 분포를 이루며 그들 음은 음성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므로 그들 음성은 국어에서 독립된 음소로 설정될 수 없고 음소 /p(ㅂ)/의 이음으로 취급된다.

지금까지 국어음운론에서는 '음성'과 '음소'를 구별하지 않고 그 둘을 모두 동일한 명칭으로 불러왔다. 즉 [ ]로 표시되는 음성 [k(ㄱ)]나 / /로 표시되는 음소 /k(ㄱ)/를 모두 자음 'k(ㄱ)'로 불렀다. 이렇게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음운론적인 것과 음성학적인 것이 혼동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서, '구개음화'를 들 수 있다. 동사 '다니-(行)'가 어미 '-어도'와 통합하면 [다녀도(taɲʌdo)]로 실현된다. 이때 'ㄴ(n)'가 ɲ로

되는 것을 'ㄴ'구개음화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중세국어 동사 '디-(落)'와 '뎍-(記)'이 근대국어에 와서 '지-(落)'와 '적-(記)'으로 되는데, 그것을 'ㄷ(t)'구개음화라고 한다. 명칭만 보면 두 종류의 '구개음화'가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실제로 앞의 구개음화는 음성학적인 것이고 뒤의 구개음화는 음운론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ㄴ(n)'가 ɲ로 되는 것은 이음으로 되는 것이므로 음성학적인 것이고 'ㄷ(t)'가 'ㅈ(č)'로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음소로 되는 것이므로 음운론적인 것이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음성과 음소를 구별하기로 한다. 음성에 대해서는 '파열음, 연구개음'이나 '전설모음, 고모음' 등으로, 음소에 대해서는 음성명칭에 접미사 '소(素)'를 붙여서 '파열음소, 연구개음소'나 '전설모음소, 고모음소' 등과 같이 부르기로 한다.

국어의 음소는 크게 네 부류로 구분된다. 자음소, 유음소, 활음소, 모음소가 그것이다.

2.1 자음소목록

자음소목록은 19개의 자음소로 구성되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ㅂ(p), ㅃ(p'), ㅍ(p^h); ㄷ(t), ㄸ(t'), ㅌ(t^h); ㅅ(s), ㅆ(s'); ㅈ(č), ㅉ(č'), ㅊ($\check{c}^h$); ㄱ(k), ㄲ(k'), ㅋ(k^h); ㅎ(h), ㆆ(ʔ); ㅁ(m), ㄴ(n), ㅇ(ŋ)/

이들 자음소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다음의 최소대립쌍에서 확인된다.

/ㅂ(p) : ㅍ(p^h)/ [발(足) : 팔(臂)]
/ㅃ(p') : ㅍ(p^h)/ [빨고(吮) : 팔고(賣)]
/ㄷ(t) : ㄸ(t')/ [달(月) : 딸(女息)]
/ㅅ(s) : ㅆ(s')/ [살(脂) : 쌀(米)]
/ㄸ(t') : ㅌ(t^h)/ [따고(摘) : 타고(乘)]
/ㅈ(č) : ㅉ(č') : ㅊ($č^h$)/ [자고(眠) : 짜고(織) : 차고(蹴)]
/ㄱ(k) : ㄲ(k')/ [갈고(磨) : 깔고(席)]
/ㄲ(k') : ㅋ(k^h)/ [끄고(消) : 크고(育)]
/ㅎ(h) : ㅂ(p)/ [하늘(天) : 바늘(針)]
/ㆆ(ʔ) : ㅈ(č) : ø/ [징-(作) : 짖-(吠) : 지-(負)]
/ㅂ(p) : ㄷ(t) : ㅅ(s)/ [발(足) : 달(月) : 살(脂)]
/ㅅ(s) : ㅈ(č) : ㄱ(k)/ [사고(買) : 자고(眠) : 가고(去)]
/ㅁ(m) : ㄴ(n) : ㅇ(ŋ)/ [놈(者) : 논(畓) : 농(籠)]

그리고 이들 자음소는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음으로 실현된다.

① /ㅂ(p)/, /ㄷ(t)/, /ㄱ(k)/: 이들 음소는 단어초에서는 각각 무성 파열음 [p], [t], [k]로 실현되며 유성음(모음이나 유성자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각각 유성 파열음 [b], [d], [g]로 실현되고 음절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각각 무성 폐쇄음 [p], [t], [k]로 실현된다(〈그림 4〉 참조).[쉽] 특히 /ㅂ(p)/와 /ㄱ(k)/는 모음과 [이], [우] 사이에서 각각 유성 마찰음 [β]와 [ɣ]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 환경에서 [β]는 [b]와, [ɣ]는 [g]와 자유변이를 보인다.

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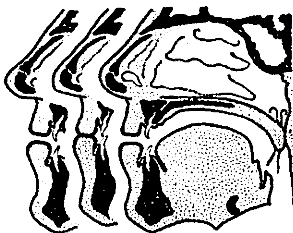
무성 파열음은 [p˺], [t˺], [k˺]로, 무성 폐쇄음은 [p̚], [t̚], [k̚]로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그런 구별을 하지 않는다.

예.

/ㅂ(p)/: [pɛ](배, 梨), [pubu]/[puβu](부부, 夫婦), [ip(t'o)](입( ] 도), 口)

/ㄷ(t)/: [tɛ](대, 竹), [pada](바다, 海), [naːt(t'o)](낟( ] 도), 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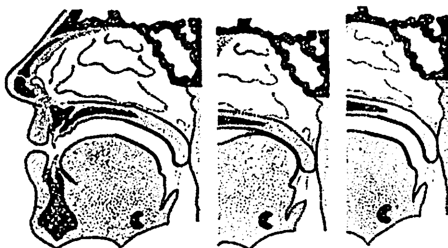
/ㄱ(k)/: [kɛ](개, 浦), [kogi]/[koɣi](고기, 肉), [pak(t'o)](박( ] 도), 朴)



[ㅂ]



[ㄷ]



[ㄱ]

〈그림 4〉

② /ㅃ(p')/, /ㄸ(t')/, /ㄲ(k')/: 이들 음소는 단어초에서나 유성음소와 모음소 사이에서 각각 무성 파열음 [p'], [t'], [k']로 실현된다.

예.

/ㅃ(p')/: [p'uri](뿌리, 根), [op'a](오빠)

/ㄸ(t')/: [t'aŋ](땅, 地), [it'agum](이따금)

/ㄲ(k')/: [k'ori](꼬리, 尾), [ʌk'ɛ](어깨, 肩)

③ /ㅍ(p^h)/, /ㅌ(t^h)/, /ㅋ(k^h)/: 이들 음소는 단어초에서나 유성음소와 모음소 사이에서 각각 무성 파열음 [p^h], [t^h], [k^h]로 실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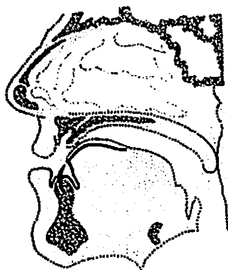
예.

/ㅍ(p^h)/: [p^hado](파도, 波濤), [ip^hari](이파리)

/ㅌ(t^h)/: [t^hoŋ](통, 筒), [pat^haŋ](바탕)

/ㅋ(k^h)/: [k^hoŋ](콩, 豆), [$kj\Lambda lk^h$o](결코)

④ /ㅅ(s)/, /ㅆ(s')/: 이들 음소는 단어초에서나 유성음소와 모음소 사이에서 각각 [s], [ʃ]/[š], [ɕ]와 [s'], [ɕ']로 실현된다. 이 중에서 [ʃ]/[š]는 단모음소 /위(ü)/나 이중모음소 /위(wi)/ 앞에서, [ɕ]와 [ɕ']는 /이/ 앞에서 실현되며 [s]와 [s']는 그 외의 모음소 앞에서 실현된다(〈그림 5〉 참조).


〈그림 5〉 [ㅅ]

예.

/ㅅ(s)/: [sa:ram](사람), [ʃü:pt'a](쉽다), [ɕinmun](신문);

[isa](이사, 移徙), [aʃwipt'a](아쉽다), [miɕin](미신, 迷信)

/ㅆ(s')/: [s'aum](싸움), [ɕ'irum](씨름);

[is'uɕigɛ](이쑤시개), [öɕ'i](외씨)

⑤ /ㅈ(ǯ)/, /ㅉ(ǯ')/, /ㅊ($ǯ^h$)/: 이들 음소 중 /ㅈ(ǯ)/는 단어초에서는 무성 파찰음 [ǯ]로, 유성음소와 모음소 사이에서는 유성 파찰음 [ǰ]로 실현된다. 그리고 /ㅉ(ǯ')/와 /ㅊ($ǯ^h$)/는 단어초에서나 유성음소와 모음소 사이에서 무성 파찰음 [ǯ']와 [$ǯ^h$]로 실현된다.

예.

/ㅈ(č)/: [čamǰari](잠자리, 蜻)

/ㅉ(č')/: [č'ada](짜다, 鹹); [kač'a](가짜)

/ㅊ(čʰ)/: [čʰada](차다, 冷); [kičʰa](기차, 汽車)

⑥ /ㅎ(h)/, /ㆆ(ʔ)/: 이들 음소 중 /ㅎ(h)/는 단어초에서는 [h], [ç], [x], [x], [ɸ], [ʍ]로 실현된다. 이 중 [ç]는 /이/나 /j/ 앞에서, [x]는 /으/ 앞에서, [x]는 /워/나 /와/ 앞에서 실현되며 [ɸ]는 /유/나 /위(wi)/ 앞에서, [ʍ]는 /우/ 앞에서 그리고 [h]는 그 외의 모음소 앞에서 실현된다. 또 [ɦ]는 유성음소와 모음소 사이에서 실현되지만 대체로 탈락되어 실현되지 않을 때가 많다. 한편 /ㆆ(ʔ)/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 자체가 실현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어간말에서 /ㄱ/, /ㄷ/ 등 경음소를 대립짝으로 가지는 자음소와 통합하면 그 자음소를 경음소화함으로써 그 존재가 인정된다.

예.

/ㅎ(h)/: [hanɯl](하늘), [çim](힘)/[çʌ](혀), [xɯk](흙), [xwʌlɕ'in](훨씬)/
[xwan(ɦ)ada](환하다), [ɸjuga](휴가)/[ɸwipʰaram](휘파 람),
[ʍuʎʎuŋ(ɦ)ada](훌륭하다)

/ㆆ(ʔ)/: [čiːk'o](짛] 고, 作) cf. [čiʌdo](짛] 어도)

⑦ /ㅁ(m)/, /ㄴ(n)/, /ㅇ(ŋ)/: 이들 음소 중 /ㅁ(m)/는 어떤 환경에서도 [m]로 실현되므로 이음이 없다. 그러나 /ㄴ(n)/는 단어초에서나 유성자음소와 모음소 사이에서 [n], [ɲ]로 실현되고 단어말이나 자음소 앞에서는 [n]로 실현된다. 그리고 /ㅇ(ŋ)/는 단어초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유성음소와 모음소 사이에서, 단어말이나 자음소 앞에서 [ŋ]로

실현되며 이음이 없다(〈그림 6〉 참조).

예.

/ㅁ(m)/: [mal](말, 馬), [ima](이마, 額), [čim(do)](짐(ㅣ 도), 荷物)

/ㄴ(n)/: [na](나, 我), [ɲʌsʌk](녀석); [ɕiːnɛ](시내, 溪), [toːŋnaŋ](동냥);

[san(do)](산 ㅣ 도, 山) cf. [sane](산 ㅣ 에)

/ㅇ(ŋ)/: [iːŋʌ](잉어); [kaŋ(do)](강(ㅣ 도), 江)



[ㅁ]



[ㄴ]



[ㅇ]

〈그림 6〉

2.2 유음소목록

유음소목록은 1개의 유음소 /ㄹ(l)/로 구성된다 /ㄹ/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다음의 최소대립쌍에서 확인된다.

/ㄹ(l) : ㅁ(m)/ [날(日) : 남(他)]

유음소 /ㄹ/는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음으로 실현된다.

/ㄹ(l)/: 이 음소는 단어초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유성음소 사이에서는 [ɾ]과 [ʎ]로 실현되는데, [ɾ]는 두 모음소 사이에서, [ʎ]는 /ㄹ/와 /이/ 또는 /ㄹ/와 /j/ 사이에서 실현된다. 그리고 음절말에서는 [l]로 실현된다(〈그림 7〉 참조).


〈그림 7〉 [ㄹ]

예.
[uɾi](우리)/[naɾa](나라, 國),
[taʎʎʌk](달력)/[[taʎʎinda](달린다, 走); [khal](칼, 刀)

2.3 활음소목록

활음소목록은 2개의 활음소 /j/와 /w/로 구성된다. 이들 활음소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다음의 최소대립쌍에서 확인된다.

/j : ø/ [연어(jʌnʌ, 魚) : 언어(ʌnʌ, 言語)]
/w : ø/ [관(kwan, 冠) : 간(kan, 鹽)]

활음소 /j/와 /w/의 실현 환경은 다음과 같다.

/j/, /w/: 이들 음소는 단어말에서는 실현되지 않으며 단어초나 단어내에서는 자음소 뒤나 음절초에서 언제나 [j]와 [w]로만 실현된다. 따라서 이음을 가지지 않는다.

예.

/j/: [kjʌul](겨울), [jaŋ](양, 羊); [hak'jo](학교), [kojaŋi](고양이)

/w/: [kwa:il](과일), [waŋ](왕, 王); [sagwa](사과, 沙果), [so:wʌn](소원, 所願)

지금까지 논의된 음소들은 '조음위치'와 '조음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조음위치란 윗입술, 경구개와 같이 자음소를 조음할 때에 폐쇄나 협착이 일어나는 성도(聲道, vocal tract) 내의 위치를 말하며 조음방식이란 자음소를 조음할 때에 기류(氣流, airstream)가 성도를 통과하면서 조음위치에서 일으키는 폐쇄, 협착, 운동 등의 종류를 말한다.

앞에서 논의된 음소들이 조음되는 위치는 윗입술, 치경, 경구개, 연구개, 성문이며 그 음소들은 그들 조음위치에 조음체(調音體, 아랫입술, 혀와 같이 능동적인 발음기관)가 작용하여 조음된다.

앞에서 논의된 음소들을 조음위치와 조음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음소의 이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41)]

조음위치를 기준으로,

① 양순음소(兩脣音素): 아랫입술과 윗입술에서 조음되는 음소로서 해당 음소와 그 이음은 다음과 같다.

/p(ㅂ)/: [p], [b], [β] ※ [β]는 [b]으로 실현되기도 함

/p'(ㅃ)/: [p'] 이음 없음

/p^h(ㅍ)/: [p^h] 이음 없음

/m(ㅁ)/: [m] 이음 없음

② 치경음소(齒莖音素): 설첨(舌尖, 혀끝)과 치경에서 조음되는 음소로서 해당 음소와 그 이음은 다음과 같다.

/t(ㄷ)/: [t], [d]

/t'(ㄸ)/: [t'] 이음 없음

/t^h(ㅌ)/: [t^h] 이음 없음

/n(ㄴ)/: [n], [ɲ]

/s(ㅅ)/: [s], [š], [ɕ]

/s'(ㅆ)/: [s'], [ɕ']

/l(ㄹ)/: [ɾ], [l], [ʎ]

③ 경구개음소(硬口蓋音素): 전설(前舌)과 경구개에서 조음되는 음소로서 해당 음소와 그 이음은 다음과 같다.

/č(ㅈ)/: [č], [ǰ]

/č'(ㅉ)/: [č'] 이음 없음

/$č^h$(ㅊ)/: [$č^h$] 이음 없음

④ 연구개음소(軟口蓋音素): 후설(後舌)과 연구개에서 조음되는 음소로서 해당 음소와 그 이음은 다음과 같다.

/k(ㄱ)/: [k], [g], [ɣ] ※ [ɣ]는 [g]로 실현되기도 함

/k'(ㄲ)/: [k'] 이음 없음

/k^h(ㅋ)/: [k^h] 이음 없음

/ŋ(ㅇ)/: [ŋ] 이음 없음

⑤ 성문음소(聲門音素): 성문에서 조음되는 음소로서 해당 음소와 그 이음은 다음과 같다.

/ʔ(ㆆ)/: [ʔ] 이음 없음

/h(ㅎ)/: [h], [ɦ]

조음방식을 기준으로,

① 파열음소(破裂音素): 성도(聲道) 내의 어딘가에서 완전한 폐쇄가 이루어지고 구개범(口蓋帆)이 인두벽에 붙은 상태에서 조음되는

음소이다. 폐쇄의 안쪽에서 기압이 올라가고 파열하듯이 폐쇄가 개방되면서 조음된다. 이러한 파열음소는 다음과 같다.

무성 양순 파열음소: /p/, /p'/, /pʰ/

무성 치경 파열음소: /t/, /t'/, /tʰ/

무성 연구개 파열음소: /k/, /k'/, /kʰ/

무성 성문 파열음소: /ʔ/

※ 이음은 조음위치를 기준으로 한 음소의 이음 참조. 이하 동일.

② 마찰음소(摩擦音素): 두 개의 조음기관을 접근시켜 그 사이를 통과하는 기류가 귀에 들리는 마찰적 조음(噪音)을 일으키며 조음되는 음소이다. 이러한 마찰음소는 다음과 같다.

무성 치경 마찰음소: /s/, /s'/

무성 성문 마찰음소: /h/

③ 파찰음소(破擦音素): 구강 내의 어딘가에서 완전한 폐쇄가 일어나고 구개범이 인두벽에 붙은 상태에서 파열과 마찰의 단계를 순간적으로 연속시켜 조음되는 음소이다. 이러한 파찰음소는 다음과 같다.

무성 경구개 파찰음소: /ʧ/, /ʧ'/, /ʧʰ/

④ 비음소(鼻音素): 구강 내의 어딘가에서 완전한 폐쇄가 일어나고 구개범이 후설에 닿아 기류가 비강으로 통과하면서 조음되는 음이다. 이러한 비음소는 다음과 같다.

양순 비음소: /m/

치경 비음소: /n/

연구개 비음소: /ŋ/

⑤ 유음소(流音素): 설첨이 치조를 가볍게 치거나 치조에 붙어 부분적인 폐쇄를 일으키지만, 그 폐쇄의 옆으로 기류가 통과하면서 조음되는 음소이다. 이러한 유음소는 다음과 같다.

유음소: /l/

⑥ 활음소(滑音素): 조음체가 조음위치를 폐쇄하지는 않지만, 고모음소 /이/나 /우/보다 혀의 높이가 높은 상태에서 조음되는 음소이다. 반모음소(半母音素) 또는 반자음소(半子音素)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활음소는 다음과 같다.

경구개 활음소: /j/

연구개 활음소: /w/

쉼

앞에서 논의된 음소와 음을 조음위치와 조음방식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음위치 / 조음방식			양순음소	치경음소	경구개음소	연구개음소	성문음소
자음소	파열음소	평(平)	ㅂ(p)	ㄷ(t)		ㄱ(k)	ㆆ(ʔ)
		경(硬)	ㅃ(p')	ㄸ(t')		ㄲ(k')	
		격(激)	ㅍ(p^h)	ㅌ(t^h)		ㅋ(k^h)	
	마찰음소	평		ㅅ(s)			ㅎ(h)
		경		ㅆ(s')			
	파찰음소	평			ㅈ(ʧ)		
		경			ㅉ(ʧ')		
		격			ㅊ($ʧ^h$)		
	비음소		ㅁ(m)	ㄴ(n)		ㅇ(ŋ)	
유음소				ㄹ(l)			
활음소					j	w	

[평=평음소, 경=경음소, 격=격음소]

〈국어의 자음소〉

조음방식 \ 조음위치		양순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파열음	평(平)	p	b	t	d			k	g	ʔ	
	경(硬)	p'		t'				k'			
	격(激)	p^h		t^h				k^h			
마찰음	평	(ɸ)	(β)	s		(š) ɕ ç		(x) (χ ʍ)	(ɣ)	h	(ɦ)
	경			s'		ɕ'					
파찰음	평					č	ǰ				
	경					č'					
	격					$č^h$					
비음			m		n		ɲ		ŋ		
유음	탄설음				ɾ						
	설측음				l		ʎ				
활음							j		w		
š(=ʃ), č(=ʧ), ǰ(=ʤ), č'(=ʧ'), $č^h$(=$ʧ^h$)											

〈국어의 자음〉

자음소나 자음의 명칭은 '조음위치 성대진동 조음방식' 순으로 나타낸다.
예. /ㄱ(k)/: 연구개 무성 평 파열음소, [ㄱ(k)]: 연구개 무성 평 파열음

2.4 모음소목록

국어의 모음소목록은 단모음소목록(單母音素目錄)과 이중모음소목록(二重母音素目錄)으로 구분된다.

2.4.1 단(單)모음소목록

단모음소목록은 다시 단(短)모음소목록과 장(長)모음소목록으로 구분된다. 먼저 단(短)모음소목록은 10개의 단모음소 /이(i), 에(e), 애(ε), 위(ü), 외(ö), 으(ɯ), 어(ʌ), 우(u), 오(o), 아(a)/로 구성된다.[쉼] 이들 모음소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다음의 최소대립쌍에서 확인된다.

/이(i) : 위(ü)/ [기(旗) : 귀(耳)]
/에(e) : 애(ε)/ [테(圍) : 태(胎)]
/으(ɯ) : 어(ʌ)/ [틀(機) : 털(毛)]
/에(e) : 외(ö)/ [메(鎚) : 뫼(진지)]
/오(o) : 우(u)/ [곡(曲) : 국(湯)]
/오(o) : 아(a)/ [봄(春) : 밤(夜)]

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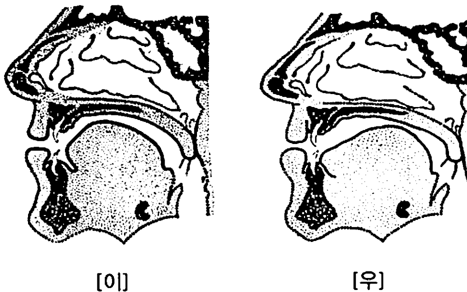
그러나 40대 이하의 말에서는 /에/와 /애/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며 /위(ü)/와 /외(ö)/가 각각 이중모음소 /위(wi)/와 /웨(we)/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40대 이하 세대의 말에 존재하는 단모음소목록은 7개의 단모음소 /이(i), 에/애(E), 으(ɯ), 어(ʌ), 우(u), 오(o), 아(a)/로 구성된다.

이 모음소들은 그 앞에 오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 이음을 가진다. 예를 들어, 전설 비원순 고모음소 /이/의 경우, [디], [지], [기]를 발음하면서 혀의 위치를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앞에 치경음이나 경구개음이나 연구개음이 오면, 치경음 뒤의 '이'는 경구개음 뒤의 '이'보다는 앞에서 실현되며 연구개음 뒤의 '이'는 경구개음 뒤의 '이'보다는 뒤에서 실현된다. 그리하여 경구개음 뒤의 '이'를 [i]라고 한다면 치경음 뒤의 '이'는 [i^{+}] 또는 [i˧], 연구개음 뒤의 '이'는 [i^{-}] 또는 [i˫]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이'는 '칙칙(하다)'의 첫음절에서는 무성음 [i̥]로 실현된다.

이처럼 모음소의 이음들은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경우가 없다. 이 점에서 자음소의 이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음운론적인 설명에서는 모음소에 대한 이음을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즉 '아'는 모음소도 되고 모음도 되는데, 모음소로는 /아/로 표시하고 모음으로는 [아]로 표시한다.

모음(소)들은 혀의 위치, 혀의 높이, 입술의 모양을 기준으로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모음(소) '이'와 '우'를 천천히 그리고 빨리 되풀이 발음하면서 혀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면, 혀의 구부러진 부분이 앞과 뒤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참조). 혀의 위치란 모음이나 모음소를 발음할 때에 혀의 구부러진 부분이, '이'를 발음할 때 혀의 구부러진 부분과 '우'를 발음할 때 혀의 구부러진 부분 사이의 중앙을 기준으로, 그보다 앞에 있으면 전설모음(소), 그 부분에 있으면 중설모음(소), 그보다 뒤에 있으면 후설모음(소)라 한다.

이와는 달리, 모음(소) '이'와 '아', '우'와 '아'를 천천히 그리고 빨리 되풀이 발음하면서 혀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면, 혀의 구부러진 부분이 '이'와 '우'를 발음할 때에는 위로, '아'를 발음할 때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입 열림(개구 開口)이 '이'와 '우'를 발음할 때에는 좁아지고 '아'를 발음할 때에는 넓어지는 것도 확인할



[이] [우]

〈그림 8〉

수 있다. 혀의 높이란 모음이나 모음소를 발음할 때에 혀의 구부러진 부분의 고·저의 높이를 말한다([이]나 [우]의 조음도를 참고하여 [아]의 조음도를 그려보자).

모음(소) '우'와 '아'를 발음할 때, 혀의 구부러진 두 부분 사이를 3등분하거나 4등분하여 혀의 높이를 셋이나 넷으로 구별한다. 혀의 높이를 셋으로 할 때에는 '우'를 발음할 때와 대등한 혀의 높이를 가지는 모음이나 모음소를 고모음(소), '아'를 발음할 때와 대등한 혀의 높이를 가지는 모음이나 모음소를 저모음(소)라 하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것을 중모음(소)라 한다. 혀의 높이를 넷으로 할 때에는 '우'를 발음할 때와 대등한 혀의 높이를 가지는 모음이나 모음소를 폐모음(소), '아'와 대등한 혀의 높이를 가지는 모음이나 모음소를 개모음(소)라고 하며, 그 사이에 있는 두 모음이나 모음소를 각각 반폐모음(소), 반개모음(소)라고 한다.

한편 모음(소) '이'와 '우'를 발음하면서 입술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면, '이'를 발음할 때에는 입술의 양쪽 끝이 뒤쪽으로 당겨지면서 입술이 평평해지고 '우'를 발음할 때에는 입술이 앞으로 나오면서 동그랗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입술의 모양이란 모음이나 모음소를 발음할 때에 입술이 평평해지거나 동그랗게 되는 모양을 말한다. 입술이

평평해지는 모음이나 모음소를 평순모음(소) 또는 비원순모음(소)라 하고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 모음이나 모음소를 원순모음(소)라 한다.

다음으로 국어의 장모음소목록은 단모음소와 같은 10개의 장모음소로 이루어진다. /이(i):, 에(e):, 애(ɛ):, 위(ü):, 외(ö):, 으(ɯ):, 어(ʌ):, 우(u):, 오(o):, 아(a):/가 그것이다.[쉼1, 2)] 구조주의 언어학적 관점에 의하면, 이들 장모음소는 단모음소(短母音素)와 음장(音長, length)으로 분석되므로, 기저 장모음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저형에서 단모음소와 음장이 결합하여 장모음소가 도출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생성음운론적 관점에 따라, 장모음소를 기저음소로 인정한다. 이들 장모음소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다음의 최소대립쌍에서 확인된다.

쉼 *1*

국어에서 이들 장모음소는 60대 이상 세대의 말에 존재하며, 40대 이하 세대의 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i) : 이(i):/ [일(一) : 일:(事)]

/위(ü) : 위(ü):/ [뉘(籾) : 뉘:(誰)], [쉬(蠅卵) : 쉬:(易)]

/에(e) : 에(e):/ [제기(毽) : 제:기(祭器)]

/외(ö) : 외(ö):/ [되고(升) : 되:고(硬)]

/애(ɛ) : 애(ɛ):/ [매(鞭) : 매:(鷹)]

/으(ɯ) : 으(ɯ):/ [등(背) : 등:(等)]

/우(u) : 우(u):/ [눈(眼) : 눈:(雪)]

/어(ʌ) : 어(ʌ):/ [벌(罰) : 벌:(蜂)]

/오(o) : 오(o):/ [볼(頰) : (버선)볼:]

/아(a) : 아(a):/ [밤(夜) : 밤:(栗)]

/이(i): : 어(ʌ): : 오(o):/ [실:(糸) : 설:(元日) : (옷)솔:]

/어(ʌ): : 으(ɯ):/ [건:실(健實)하다 : 근:실(勤實)하다]

/아(a): : 오(o):/ [감:(柿) : 곰:(熊)]

/에(e): : 애(ɛ):/ [게:(蟹) : 개:(犬)]

/우(u): : 오(o):/ [굴:(窟) : 골:(谷)]

/에(e): : 외(ö): : 위(ü):/ [세:고(强) : 쇠:고(過歲) : 쉬:고(休)]

쉼2

장모음소 중에서 특히 /어:/는 혀의 높이가 단모음소 /어/보다는 높아 [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강하다. 예. /정:말/[증:말], /거:짓말/[그:진말].

이들 장모음소는 단어의 첫 음절에만 분포한다. 그리하여 단어의 첫 음절에 장모음소를 가진 단어가 복합어 속에 포함되어 둘째 음절 이하로 가면, 원래의 장모음소는 단모음소로 되고 만다. 다음 예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다.

시:(市) : 시:장(市長) : 서울시(市)

밤:(栗) : 밤:나무: 생밤(生栗)

혀의 위치 / 입술의 모양 / 혀의 높이	전설모음(소)		후설모음(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소)	이(:)	위(:)	으(:)	우(:)
중모음(소)	에(:)	외(:)	어(:)	오(:)
저모음(소)	애(:)		아(:)	

〈국어의 단(單)모음(소)〉

모음소나 모음의 명칭은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순으로 나타낸다.
예. /이/: 전설 비원순 고모음소, [이]: 전설 비원순 고모음

2.4.2 이중모음소목록

단(單)모음소목록과 마찬가지로, 국어의 이중모음소목록도 단(短)이중모음소목록과 장(長)이중모음소목록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단이중모음소는 10개이며 장이중모음소는 11개이다. 이중모음소는 j로 시작되는 'j시작 이중모음소'(또는 'j-이중모음소')와 w로 시작되는 'w시작 이중모음소'(또는 'w-이중모음소') 그리고 j로 끝나는 'j끝 이중모음소'(또는 '-j이중모음소')로 나눌 수 있다.[쉼]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 단(短)이중모음소목록: /예(je), 여(jʌ), 유(ju), 요(jo), 야(ja); 웨(we), 왜(wɛ), 워(wʌ), 와(wa); 의(ɯj)/
- 장(長)이중모음소목록: /예:(je:), 얘:(jɛ:), 여:(jʌ:), 유:(ju:), 요:(jo:), 야:(ja:); 웨:(we:), 왜:(wɛ:), 워:(wʌ:), 와:(wa:); 의:(ɯj:)/

쉼

'j시작 이중모음(소), w시작 이중모음(소), j끝 이중모음(소)'에서 '{j, w}시작 이중모음(소)'와 'j끝 이중모음(소)'는 종래에 '상향(上向)이중모음'과 '하향(下向)이중모음'이라고 불러오던 것이다. '상향이중모음'과 '하향이중모음'은 청각음성학 용어이며, 오늘날 대부분의 음운론 책에서 이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j와 w의 청각음성학적 특성은 모음에 비하여 공명도(degree of sonority)가 낮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ju)'나 '와(wa)' 등 〈활음+순수모음〉의 결합체는 공명도가 낮았다가 높아지므로 상향이중모음(일반적으로는 상승이중모음, rising diphthong)이라 한다. 그리고 '애(aj)'나 '의(ɯj)' 등 〈순수모음+활음〉의 결합체는 공명도가 높았다가 낮아지므로 하향이중모음(일반적으로는 하강이중모음, falling diphthong)이라 한다.

그러나 그 명칭을 조음음성학적으로 이해하여 '유(ju)'나 '와(wa)' 등은 혀의 높이가 높았다가 낮아지고 '애(aj)'나 '의(ɯj)' 등은 혀의 높이가 낮았다가 높아지므로 두 이중모음(소)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는 학생들도 많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상향'이나 '하향' 대신 'j/w 시작 이중모음(소)' 또는 '활음시작 이중모음(소)'이나 'j끝 이중모음(소)' 또는 '활음끝 이중모음(소)'과 같은 조음음성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이 책에서는 그들 용어를 사용한다.

단(短)·장(長)이중모음소목록의 차이는 장이중모음소 /얘:/와 대립되는 /얘/가 단이중모음소목록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 이중모음소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최소대립쌍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단이중모음소

/여(jʌ) : 요(jo) : 야(ja)/ [역(驛) : 욕(辱) : 약(藥)]

/유(ju) : 요(jo)/ [유리(琉璃) : 요리(料理)]

/워(wə) : 와(wa)/ [권리(權利) : 관리(官吏)]

/요(jo) : 와(wa)/ [용(龍) : 왕(王)]

/여(jʌ) : 의(ɯj)/ [여자(女子) : 의자(椅子)]

/이(i) : 위(wi)/ [이(齒) : 위(胃)]

☐ 장이중모음소

/여:(jʌ:) : 야:(ja:)/ [여:당(與黨) : 야:당(野黨)]

/야:(ja:) : 요:(jo:)/ [양:(胖) : 용:(勇)]

/요:(jo:) : 와:(wa:)/ [교:장(校長) : 과:장(誇張)]

장이중모음소도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실현되며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단이중모음소로 된다.

예.

예:(例) / 실례(實例), 야:당(野黨) / 여:야(與野)

☐ 단이중모음소와 장이중모음소

/예 : 예:/ [예(禮) : 예:(例)]

/여 : 여:/ [경로(經路) : 경:로(敬老)]/[경기(京畿) : 경:기(競技)]

/유 : 유:/ [유선(乳腺) : 유:선(有線)]/[유정(油井) : 유:정(有情)]

/요 : 요:/ [용(龍) : 용:(勇)]/[교감(交感) : 교:감(校監)]

/야 : 야:/ [양(羊) : 양:(胖)]

/왜 : 왜:/ [괭이(钁) : 괭:이(猫)]

/워 : 워:/ [원시(原始) : 원:시(遠視)]

/와 : 와:/ [광부(狂夫) : 광:부(鑛夫)]

/의 : 의:/ [의지(依支) : 의:지(意志)]

이중모음 /웨/와 /웨:/는 '퀭하다, 휑하다'와 '궤:(櫃, 軌)'에서 확인된다.

혀위치 / 혀높이	j 시작		w 시작	
	전설	후설	전설	후설
고모음(소)		유(:)		
중모음(소)	예(:)	여(:) 요(:)	웨(:)	워(:)
저모음(소)	얘:	야(:)	왜(:)	와(:)

〈활음시작 이중모음(소)〉

혀위치 / 혀높이	j 끝		w 끝	
	전설	후설	전설	후설
고모음(소)		의(:)		
중모음(소)				
저모음(소)				

〈활음끝 이중모음(소)〉

요약

[1] 국어의 음소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자음소목록: 19개의 자음소(/ㅂ, ㅃ, ㅍ; ㄷ, ㄸ, ㅌ; ㅅ, ㅆ; ㅈ, ㅉ, ㅊ; ㄱ, ㄲ, ㅋ; ㅎ, ㆆ; ㅁ, ㄴ, ㅇ(ŋ)/)

② 유음소목록: 1개의 유음소(/ㄹ/)

③ 활음소목록: 2개의 활음소(/j, w/)

④ 모음소목록:

㉠ 단(單)모음소목록: 단(短)모음소 10개(/이, 에, 애, 위, 외, 으, 어, 우, 오, 아/)
장(長)모음소 10개(/이:, 에:, 애:, 위:, 외:, 으:, 어:, 우:, 오:, 아:/)

㉡ 이중모음소목록:
단(短)이중모음소 10개(/예, 여, 유, 요, 야; 웨, 왜, 워, 와; 의/)
장(長)이중모음소 11개(/예:, 얘:, 여:, 유:, 요:, 야:; 웨:, 왜:, 워:, 와:; 의:/)

[2] 자음소, 유음소, 활음소는 조음위치와 조음방식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조음위치를 기준으로,

① 양순음소(兩脣音素): /ㅂ, ㅃ, ㅍ, ㅁ/
② 치경음소(齒莖音素): /ㄷ, ㄸ, ㅌ, ㄴ; ㅅ, ㅆ; ㄹ/
③ 경구개음소(硬口蓋音素): /ㅈ, ㅉ, ㅊ; j/
④ 연구개음소(軟口蓋音素): /ㄱ, ㄲ, ㅋ, ㅇ; w/
⑤ 성문음소(聲門音素): /ㅎ, ㆆ/

ⓑ 조음방식을 기준으로,

① 파열음소(破裂音素):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ㆆ/
② 마찰음소(摩擦音素): /ㅅ, ㅆ; ㅎ/
③ 파찰음소(破擦音素): /ㅈ, ㅉ, ㅊ/
④ 비음소(鼻音素): /ㅁ, ㄴ, ㅇ(ŋ)/
⑤ 유음소(流音素): /ㄹ/
⑥ 활음소(滑音素): /j, w/

연습문제 2

1. 다음 보기에서 '최소대립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모두 찾아 번호로 답하라.

보 기
① 호박(南瓜): 고막(鼓膜), ② 힘(力) : 밤(夜), ③ 가루(粉) : 노루(獐) ④ 다리(脚) : 파리(蠅), ⑤ 뒤(後) : 뛰다, ⑥ 참치 : 상치 ⑦ 보리(麥) : 보라(色名), ⑧ 발(足) : 범(虎), ⑨ 날(日) : 달(月) ⑩ 다리(橋) : 소리(音), ⑪ 보리(麥) : 노래(歌)

2. 아래 보기에서 적합한 자음소를 찾아 다음 물음에 답하라.

보 기
ㅂ(p), ㄲ(k'), ㅍ(p^h), ㄸ(t'), j, ㅌ(t^h), ㅆ(s'), ㄴ(n), ㅊ($\check{c}^h$), ㄱ(k), ㅋ(k^h), ㄹ(l), ㅈ(č), ㅎ(h), ㅅ(s), ㆆ(ʔ), ㅁ(m), ㄷ(t), ㅃ(p'), ㆁ(ŋ), w, ㅉ(č')

(1) 양순음소를 모두 찾아 쓰라.

(2) 치경음소를 모두 찾아 쓰라.

(3) 비음소를 모두 찾아 쓰라.

(4) 파열음소를 모두 찾아 쓰라.

(5) 유기음소를 모두 찾아 쓰라.

(6) 마찰음소를 모두 찾아 쓰라.

(7) 경구개음소를 모두 찾아 쓰라.

3. 'ㅂ'와 'ㅁ'의 조음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조음도 참조).

4. 'ㅂ'와 'ㄱ'의 조음상의 차이점을 서술하라(조음도 참조).

5. 아래 보기에서 적합한 모음소를 찾아 다음 물음에 답하라.

보 기
오(o), 으(ɯ), 이(i), 외(ö), 어(ʌ), 애(ɛ), 우(u), 에(e), 아(a), 위(ü)

(1) 후설모음소를 모두 찾아 쓰라.

(2) 고모음소를 모두 찾아 쓰라.

(3) 중모음소를 모두 찾아 쓰라.

(4) 전설 평순모음소를 모두 찾아 쓰라.

6. 다음 중 물음에 적합한 것을 고르라.

(1) 조음 위치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① ㄱ ② ㄷ ③ ㅅ ④ ㄹ

(2) 다음 중 /ㅂ, ㄷ, ㄱ/의 공통 속성이 아닌 것은?

① 폐쇄 ② 파열 ③ 평음 ④ 마찰

(3) 다음 중 이음으로서 경구개음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① 시조 ② 달력 ③ 흙 ④ 힘

(4) 다음 중 '이음'의 관계에 있는 것은?

① '발(足)'의 'ㄹ'과 '다리(脚)'의 'ㄹ' ② '하루'의 'ㅎ'과 '하품'의 'ㅎ'

③ '가루(粉)'의 'ㄹ'과 '노루(獐)'의 'ㄹ' ④ '치다(打)'의 'ㅊ'과 '대추'의 'ㅊ'

(5) 단모음(單母音) 중 '이 : 위', '으 : 우'의 대립은 무엇에 의한 것인가?

① 후설성 ② 원순성 ③ 고설성 ④ 저설성

7. 다음 단어의 발음을 음성기호로 표기하라.

(1) 잡는다 (2) 훑는다 (3) 찾고 (4) 휴가 (5) 꽃향기

제3장 음소목록과 변별적 자질

한 음소가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다른 음소로 변동하는 경우에, 그것은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의 음소가 다른 하나의 음소로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의 음소 전체가 다른 음소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소가 가진 속성의 일부가 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사 '잡-(執), 묻-(埋), 막-(防)'이 어미 '-는다'와 통합하면, 그것은

① /잡] 는다/ → [잠는다](執)
② /묻] 는다/ → [문는다](埋)
③ /막] 는다/ → [망는다](防)

에서와 같이, 어간말의 'ㅂ', 'ㄷ', 'ㄱ'는 어미초의 'ㄴ' 앞에서 각각 'ㅁ', 'ㄴ', 'ㅇ'로 변동한다.[쉽] 그리고 명사 '집(家), 낟(粒), 국(湯)'이 어미 '-만'과 통합하면, 그것은

④ /집] 만/ → [짐만](家)

⑤ /낟] 만/ → [난만](粒)

⑥ /국] 만/ → [궁만](湯)

에서와 같이, 어간말의 'ㅂ', 'ㄷ', 'ㄱ'는 어미초의 'ㅁ' 앞에서 각각 'ㅁ', 'ㄴ', 'ㅇ'로 변동한다.

이것을 자음소동화에서 비음소화(鼻音素化)라고 하는데, 음소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단위라고 할 경우에, 비음소화에 직접 관계되는 음소만 남기고 나머지를 X와 Y로 하여 규칙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 ㅂ → ㅁ / X __] ㄴY

② ㄷ → ㄴ / X __] ㄴY

③ ㄱ → ㅇ / X __] ㄴY

④ ㅂ → ㅁ / X __] ㅁY

⑤ ㄷ → ㄴ / X __] ㅁY

⑥ ㄱ → ㅇ / X __] ㅁY

쉼

어미 /-는다/ 앞에서 /ㅁ/로 되는 것은 동사 /잡-/의 /ㅂ/만이 아니다. 동사 /입-/(着衣), /깁-/(縫) 등의 /ㅂ/도 [임는다], [김는다]에서처럼 /ㅁ/로 된다. 따라서 비음소화하는 것은 어간말의 /ㅂ/며 그 앞은 어떤 것이라도 좋다. 또 어간말의 /ㅂ/가 /ㅁ/로 되는 것은 어미 /-는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잠니], [잠는데] 등에서 보듯이, 어미 /-니/나 /-는데/ 앞에서도 그렇게 된다. 이것은 어미가 /ㄴ/로 시작되면 그 뒷부분은 어떤 것이라도 좋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점에서 규칙에 있는 X와 Y는 '어떤 것이라도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규칙을 통해서는 비음소화가 가지고 있는 일반성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음소를 일정한 속성의 집합이라고 할 경우에는 사정이 다

르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국어의 음소들의 속성인 변별적 자질(辨別的資質, distinctive feature)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위에서 변별적 자질을 음소들의 속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매우 대체적인 개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별적 자질이란 언어에 사용되는 언어음들(speech sounds)을 구별하는 데에 필요한 자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언어음들 중에서 단어의 뜻을 구별시키는 음소들의 목록은 언어에 따라 다르므로 변별적 자질의 내용이나 수는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언어의 음소목록을 구성하는 모든 음소를 구별시키는 데에 필요한 변별적 자질에는 모든 언어에 공통되는 보편적 자질과 해당 언어에만 한정되는 개별언어 특수자질이 있다.

국어의 음소목록을 구성하는 자음소 19개, 유음소 1개, 활음소 2개, 단모음소 10개를 모두 구별하는 데에는 약 15개의 변별적 자질이 필요하다.

① 주요부류자질 2개: [±모음성(母音性, vocalic)],
[±자음성(子音性, consonantal)]
② 조음위치자질 3개: [±구강성(口腔性, oral)],
[±전방성(前方性, anterior)], [±설정성(舌頂性, coronal)]
③ 조음방식자질 5개: [±연속성(連續性, continuant)],
[±치찰성(齒擦性, strident)], [±비음성(鼻音性, nasal)],
[±경음성(硬音性, glottalized)], [±유기성(有氣性, aspirated)]
④ 혓몸자질 3개: [±후설성(後舌性, back)], [±고설성(高舌性, high)],
[±저설성(低舌性, low)]
⑤ 입술모양자질 1개: [±원순성(圓脣性, round)]
⑥ 길이자질 1개: [±장음성(長音性, long)]

이 중에서 조음방식자질에 속하는 [±경음성], [±유기성]과 ⑥에 제시된 [±장음성] 자질은 개별언어 특수자질이고 그 외의 것은 보편적 자질이다. 그리고 ①은 음소의 대부류인 자음소, 유음소, 활음소, 모음소를 구별하는 자질이고 ②와 ③은 자음소들을 구별하는 자질이며 ④~⑥은 모음소들을 구별하는 자질이다.

그러면 주요부류자질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 [±모음성]: '모음성'이란 모음소가 조음될 때와 같이 기도(氣道)를 거쳐 구강으로 들어온 기류(氣流)가 폐쇄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음되는 소리의 자질이다. 모음소와 유음소는 [+모음성]을 가지며, 그 외 부류의 음소들은 [-모음성]을 가진다.
- [±자음성]: '자음성'이란 자음소가 조음될 때와 같이 기도를 거쳐 구강으로 들어온 기류가 폐쇄과정을 거치면서 조음되는 소리의 자질이다. 자음소와 유음소는 [+자음성]을, 그 외 부류의 음소들은 [-자음성]을 가진다.

음소의 네 부류와 그것들을 구별하는 두 자질과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를 통하여 네 부류의 음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음소란 모음의 성질은 전혀 없고 자음의 성질만 있는 음소이며, 유음소는 모음의 성질도 있고 자음의 성질도 있는 음소이다. 그리고 활음소는 모음의 성질도 자음의 성질도 없는 음소이며 모음소는 모음의 성질만 있고 자음의 성질은 전혀 없는 음소이다.

분류 자질 \ 음소 부류	자음소	유음소	활음소	모음소
모음성	−	+	−	+
자음성	+	+	−	−

〈음소의 네 부류와 주요부류자질〉

3.1 자음소목록과 변별적 자질

국어의 자음소목록을 구성하는 19개의 자음소 /ㅂ(p), ㅃ(p'), ㅍ(p^h); ㄷ(t), ㄸ(t'), ㅌ(t^h); ㅅ(s), ㅆ(s'); ㅈ(č), ㅉ(č'), ㅊ($č^h$); ㄱ(k), ㄲ(k'), ㅋ(k^h); ㅎ(h), ㆆ(ʔ); ㅁ(m), ㄴ(n), ㅇ(ŋ)/는 3개의 조음위치자질과 5개의 조음방식자질에 의해 서로 구별된다.

(1) 조음위치자질

- [±구강성]: '구강성'이란 입안에서 조음되는 소리의 자질이다. 이 자질은 종래에 활음소로 인정해 온 국어의 'ㅎ'를 자음소로 인정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자음소의 경우, 양순음소, 치경음소, 경구개음소, 연구개음소는 [+구강성]을 가지며 성문음소는 [−구강성]을 가진다.
- [±전방성]: '전방성'이란 설첨(혀끝)의 폐쇄에 의하여 조음되는 소리의 자질이다. 자음소의 경우, 양순음소와 치경음소는 [+전방성]을 가지며 그 외의 음소들은 [−전방성]을 가진다.
- [±설정성]: '설정성'이란 전설면(前舌面, 혀의 앞 부분)의 폐쇄에 의해서 조음되는 소리의 자질이다. 자음소의 경우, 치경음소와

경구개음소는 [+설정성]을 가지며 그 외의 음소들은 [-설정성]을 가진다.

(2) 조음방식자질

- [±연속성]: '연속성'이란 폐쇄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음되는 소리의 자질이다. 자음소의 경우, 마찰음소는 [+연속성]을 가지며 그 외의 음소들은 [-연속성]을 가진다.
- [±치찰성]: '치찰성'이란 조음체가 조음위치를 완전히 폐쇄하지 않은 결과 기류가 그 사이를 통과함으로써 s(ㅅ)음을 동반하면서 조음되는 소리의 자질이다. 자음소의 경우, 치경 마찰음소와 파찰음소는 [+치찰성]을 가지며 그 외의 음소들은 [-치찰성]을 가진다.
- [±비음성]: '비음성'이란 폐에서 올라온 기류가 비강을 통과하면서 조음되는 소리의 자질이다. 자음소의 경우, 비음소는 [+비음성]을 가지며 그 외의 음소들은 [-비음성]을 가진다.
- [±경음성]: '경음성'이란 성문의 강한 폐쇄과정을 동반하면서 조음되는 소리의 자질이다. 자음소의 경우, 경음소는 [+경음성]을 가지며 그 외의 음소들은 [-경음성]을 가진다.
- [±유기성]: '유기성'이란 강한 h(ㅎ)음을 동반하면서 조음되는 소리의 자질이다. 자음소의 경우, 유기음소는 [+유기성]을 가지며 그 외의 음소들은 [-유기성]을 가진다.

위에 제시된 변별적 자질과 자음소목록을 구성하는 음소들과의 관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강성					-구강성	
	+전방성 -설정성	+전방성 +설정성		-전방성 +설정성	-전방성 -설정성	-전방성 -설정성	
-경음성 -유기성 -비음성	ㅂ(p)	ㄷ(t)	ㅅ(s)	ㅈ(č)	ㄱ(k)	ㆆ(ʔ)	ㅎ(h)
+경음성 -유기성 -비음성	ㅃ(p')	ㄸ(t')	ㅆ(s')	ㅉ(č')	ㄲ(k')		
-경음성 +유기성 -비음성	ㅍ(p^h)	ㅌ(t^h)		ㅊ($č^h$)	ㅋ(k^h)		
-경음성 -유기성 +비음성	ㅁ(m)	ㄴ(n)			ㅇ(ŋ)		
	-연속성 -치찰성		+연속성	-연속성	-연속성 -치찰성	-연속성	+연속성
			+치찰성			-치찰성	

3.2 유음소목록과 변별적 자질

국어의 유음소목록을 구성하는 1개의 유음소 /ㄹ(l)/는 [+모음성]과 [+자음성]을 가지는데, 이 두 자질만으로 그 밖의 음소와 구별된다. 자음소를 구별하기 위한 8개의 자질이 유음소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강성	전방성	설정성	경음성	유기성	비음성	연속성	치찰성
ㄹ(l)	+	+	+	−	−	−	+	−

3.3 활음소목록과 변별적 자질

국어의 활음소목록을 구성하는 2개의 활음소 /j, w/는 [-모음성]과 [-자음성]을 가지는데, 이 두 자질만으로 그 밖의 음소와 구별된다. 자음소를 구별하기 위한 8개의 자질이 활음소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강성	전방성	설정성	경음성	유기성	비음성	연속성	치찰성
j	+	–	–	–	–	–	+	–
w	+	–	–	–	–	–	+	–

3.4 모음소목록과 변별적 자질

국어의 모음소목록을 구성하는 10개의 단(單)모음소 /이(i), 에(e), 애(ɛ), 위(ü), 외(ö), 으(ɯ), 어(ʌ), 우(u), 오(o), 아(a)/는 3개의 혓몸자질과 1개의 입술모양자질 그리고 1개의 길이자질에 의해서 구별된다.

- [±후설성]: '후설성'이란 '이'를 조음할 때와 '우'를 조음할 때에 각각 혀의 구부러진 부분을 이은 선의 중앙보다 뒤에 위치하여 조음되는 소리의 자질이다. 그러므로 모음소의 경우, 후설모음소는 [+후설성]을 가지며 그 외의 모음소들은 [-후설성]을 가진다.
- [±고설성]: '고설성'이란 '이'를 조음할 때에 혀의 구부러진 부분과 같은 높이에 위치하여 조음되는 소리의 자질이다. 그러므로

모음소의 경우, 고모음소는 [+고설성]을 가지며 그 외의 모음소들은 [-고설성]을 가진다.

• [±저설성]: '저설성'이란 '애'를 조음할 때에 혀의 구부러진 부분과 같은 높이에 위치하여 조음되는 소리의 자질이다. 그러므로 모음소의 경우, 저모음소는 [+저설성]을 가지며 그 외의 모음소들은 [-저설성]을 가진다.
• [±원순성]: '원순성'이란 '우'를 조음할 때의 입술처럼 둥글게 하여 조음되는 소리의 자질이다. 그러므로 모음소의 경우, 원순모음소는 [+원순성]을 가지며 그 외의 모음소들은 [-원순성]을 가진다.
• [±장음성]: '장음성'이란 '이:'를 조음할 때처럼 길이를 가지고 조음되는 소리의 자질이다. 그러므로 모음소의 경우, 장모음소는 [+장음성]을 가지며 그 외의 모음소들은 [-장음성]을 가진다.

위에 제시된 변별적 자질과 단(單)모음소목록을 구성하는 음소들과의 관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음성				+장음성			
	-후설성		+후설성		-후설성		+후설성	
	-원순성	+원순성	-원순성	+원순성	-원순성	+원순성	-원순성	+원순성
+고설성	이	위	으	우	이:	위:	으:	우:
-고설성 -저설성	에	외	어	오	에:	외:	어:	오:
+저설성	애		아		애:		아: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에서 음소목록을 구성하는 네 개의 음소부류와 자음소들과 모음소들을 구별하는 변별적 자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에 추가하여 알아야 할 것은 자음소들이나 모음소들을 구별하는 변별적

자질들은 다른 부류의 음소들을 구별하는 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음소와 유음소, 활음소를 구별하는 자질들은 모음소들을 구별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그리하여 모든 모음소들은 [+구강성]과 [+연속성]을 가지며 나머지 자질에 대해서는 모두 '−' 값을 가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음소들을 구별하는 자질들은 자음소와 유음소, 활음소를 구별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연구개음소와 w는 [+후설성]을 가지며 그 외의 자음소와 유음소 및 j는 [−후설성]을 가진다. 그리고 경구개음소와 연구개음소 그리고 j와 w는 [+고설성]을 가지며 그 외의 자음소와 유음소는 [−고설성]을 가진다. 또 성문음소는 [+저설성]을 가지며 그 외의 자음소와 유음소 및 j와 w는 [−저설성]을 가진다. 끝으로 w는 [+원순성]을 가지며 j와 그 외의 자음소와 유음소는 [−원순성]의 자질을 가진다.

이렇게 자음소, 유음소, 활음소 및 모음소의 구별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변별적 자질과 그와 관련된 음소들과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강성				−구강성	
	−후설성		+후설성		−후설성	
	−원순성	+원순성	−원순성	+원순성	−원순성	
+고설성 −저설성	ㅈ		ㄱ			−연속성
	j			w		+연속성
	이	위	으	우		
−고설성 −저설성	에	외	어	오		
−고설성 +저설성	애		아		ㅎ	
−고설성 −저설성	ㄹ, ㅅ					

변별적 자질이 음운론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 그 예로서 앞에서 논의한 자음소동화 중 비음소화규칙을 보자.

① ㅂ → ㅁ / X ＿] ㄴY
② ㄷ → ㄴ / X ＿] ㄴY
③ ㄱ → ㅇ / X ＿] ㄴY
④ ㅂ → ㅁ / X ＿] ㅁY
⑤ ㄷ → ㄴ / X ＿] ㅁY
⑥ ㄱ → ㅇ / X ＿] ㅁY

앞에서 위의 규칙으로는 비음소화의 일반성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제 이들 규칙을 변별적 자질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내어 보자.

① [+전, −설, a, −비] → [+비] / X＿] [+전, +설, +비]Y
② [+전, +설, b, −비] → [+비] / X＿] [+전, +설, +비]Y
③ [−전, −설, c, −비] → [+비] / X＿] [+전, +설, +비]Y
④ [+전, −설, a, −비] → [+비] / X＿] [+전, −설, +비]Y
⑤ [+전, +설, b, −비] → [+비] / X＿] [+전, −설, +비]Y
⑥ [−전, −설, c, −비] → [+비] / X＿] [+전, −설, +비]Y

[전=전방성, 설=설정성, 비=비음성. a, b, c는 각각 어간말 ‘ㅂ’, ‘ㄷ’, ‘ㄱ’의 고유특성을 나타냄.]

이들 규칙을 A → B/ X＿] CY로 표현할 경우에, A, B, C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통성은 각각 [−비음성], [+비음성], [+비음성]이다. 그리고 [전설성, 설정성]은 음소 ‘ㅂ, ㄷ, ㄱ’의 조음위치를 나타내는 자질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규칙 ①~⑥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규칙으

로 나타낼 수 있다.

[C, α조음위치] → [α조음위치, +비음성] / X __] [+비음성]Y[쉼]

쉼

이 규칙에서 [C, α조음위치]인 음소는 [C, α조음위치, -비음성]인 음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질을 가지는 음소는 'ㄹ'와, '비음소'을 제외한 모든 자음소이다. 그러나 그들 음소는 어간말 위치에서 '/ㅂ, ㄷ, ㄱ/' 중 어느 하나로 되므로, 이 규칙은 비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말의 '/ㅂ, ㄷ, ㄱ/'는 각각 '/ㅁ, ㄴ, ㅇ/'가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규칙은 〈어미가 [+비음성]을 가지는 음소로 시작할 때에, 그 앞에서 [-비음성]을 가지는 어간말음소 'ㅂ, ㄷ, ㄱ'는 그와 동일한 위치에서 조음되는 [+비음성]을 가지는 음소로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국어의 자음소동화 중 비음소화의 일반성이다.

이처럼 변별적 자질은 음운규칙에 사용됨으로써 서로 다른 음소들의 음운과정에 존재하는 일반성을 포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규칙에 해당하는 모든 언어 자료가 그 규칙의 적용을 받아 ①~⑥과 동일한 결과를 보일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본토박이 한국 사람뿐 아니라 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라도 위의 규칙만 알고 있다면,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동사 '포달스럽-', '내리닫-', '겸연쩍-'에 의문형 어미 '-니'가 통합하면 그것들의 음성형이 각각 [포달스럼니], [내리단니], [겨면쩡니]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쉼]

쉼

●구조주의 음운론과 생성음운론(2)

구조주의 언어학은 연구영역을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으로 나누고 이 세 영역을 엄격히 분리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음소가 통합하여 형태소를 이루고 형태소가 통합하여 문장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연구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사

론적 연구를 할 때에는 그 하위 영역인 음운론과 형태론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음운론적 연구를 할 때에는 그 상위 영역인 형태론과 통사론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생성문법론은 연구영역을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으로 나누고 이 세 영역을 상호의존적으로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통사부 또는 의미・통사부에서 문장(±의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음운부에서 문장이 음성으로 실현된다고 본다. 통사론, 의미론, 음운론은 상호의존적이므로, 각 영역의 연구에는 선후(先後)의 구별이 없다.

구조주의 음운론은 음운 또는 음소를 기본단위로 하며 생성음운론은 변별적 자질(distinctive features)을 기본단위로 한다. 두 음운론은 모두 음소층위와 음성층위를 인정하지만, 구조주의 음운론에서는 각 층위를 이루는 단위가 개별 음소와 음성인데 반하여 생성음운론에서는 형태소와 형태이다.

예. 구조주의 음운론:

/ㅂ(p)/ → {[p]('바지'의 'ㅂ'), [b]('이발'의 'ㅂ'), [β]('부부'의 두 번째 'ㅂ')}

생성음운론:

/ip] ko/ → [ipk'o](입고, 着衣), /ip] nɯn/ → [imnɯn](입는, 着衣)

요약

[1] 변별적 자질

변별적 자질이란 언어에 사용되는 언어음들(speech sounds)을 구별하는 데에 필요한 자질이다. 국어의 음소목록을 구성하는 모든 음소를 구별하는 변별적 자질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① 주요부류자질: [±모음성(母音性, vocalic)], [±자음성(子音性, consonantal)]
② 조음위치자질: [±구강성(口腔性, oral)], [±전방성(前方性, anterior)], [±설정성(舌頂性, coronal)]
③ 조음방식자질: [±연속성(連續性, continuant)], [±치찰성(齒擦性, strident)], [±비음성(鼻音性, nasal)], [±경음성(硬音性, glottalized)], [±유기성(有氣性, aspirated)]
④ 혓몸자질: [±후설성(後舌性, back)], [±고설성(高舌性, high)], [±저설성(低舌性, low)]
⑤ 입술모양자질: [±원순성(圓脣性, round)]
⑥ 길이자질: [±장음성(長音性, long)]

※ 변별적 자질을 음운규칙에 표시함으로써 음운과정의 일반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음운과정의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다.

[2] 국어 음소의 변별적 자질도

국어 음소의 변별적 자질도는 다음과 같다.

음소 \ 자질	p	p'	p^h	t	t'	t^h	s	s'	č	č'	$\check{c}^h$	k	k'	k^h	h	ʔ	m	n	ŋ	l	w	j	i	e	ɛ	ü	ö	ɯ	ʌ	u	o	a
																							iː	eː	ɛː	üː	öː	ɯː	ʌː	uː	oː	aː
모음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음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방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속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치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음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음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설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설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설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순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음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어 음소의 변별적 자질도〉

연습문제 3

1. 다음 자음소와 활음소에 대한 자질값을 써넣으라.

음소 / 자질	p	t'	s	č	$\check{c}^{h}$	k	h	ʔ	m	n	ŋ	l	w	j
모음성														
자음성														
구강성														
전방성														
설정성														
연속성														
치찰성														
비음성														
경음성														
유기성														

2. 다음 모음소에 대한 자질값을 써넣으라.

음소 / 자질	i	e	ü	ɯ	ʌ	u	o	a
모음성								
자음성								
후설성								
고설성								
저설성								
원순성								

3. 다음 물음에 답하라.

(1) 다음 중 '[+자음성, +모음성]'을 가진 음소는?

① ㅁ ② ㄴ ③ ㅇ(ŋ) ④ ㄹ

(2) 다음 중 '[-자음성, -모음성, +연속성]'을 가진 음소는?

① 에 ② w ③ ㅁ ④ ㄹ

(3) 다음 중 '[+전방성, -설정성]'을 가진 음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① {ㅎ, ㅁ, ㄹ, j} ② {ㅁ, ㄴ, ㄹ, w, 어}

③ {ㅂ, ㅃ, ㅍ, ㅁ} ④ {ㄱ, ㄲ, ㅋ, ㅇ(ŋ), ㄴ}

(4) 다음 중 '[+전방성, +설정성]'을 가진 음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① {ㅂ, ㅃ, ㄷ, ㄸ} ② {ㅅ, ㅆ, ㅈ, ㅉ}

③ {ㄷ, ㄸ, ㅅ, ㄹ} ④ {ㅂ, ㅃ, ㅁ, ㅅ, ㅆ, ㄴ}

(5) 다음 중 '[+설정성]'을 가진 음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① {ㄱ, ㄴ, ㄷ, ㄹ, ㅂ} ② {ㅂ, ㅁ, ㄷ, ㄴ, ㄹ}

③ {ㄷ, ㅅ, ㄴ, ㅈ, ㅊ} ④ {ㄴ, ㄹ, ㅁ, ㅇ(ŋ)}

(6) 다음 중 '[+전방성, +설정성]'을 가진 음소는?

① ㅁ ② ㄴ ③ ㄱ ④ ㅂ

(7) 다음 중 '[-자음성, -모음성, +고설성, -원순성]'을 가진 음소는?

① 이 ② w ③ 우 ④ j

(8) 다음 중 '[-전방성, -설정성]'을 가진 음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① {ㅂ, ㅃ, ㅁ, ㅍ} ② {ㅆ, ㅈ, ㅉ}

③ {ㄱ, ㄲ, ㅇ(ŋ)} ④ {ㄷ, ㄹ, ㅅ, ㅆ, ㄴ}

제4장 음절

음소목록을 구성하는 음소들이 변별적 기능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최소대립쌍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이 사실은 의사소통을 위한 최소 발화단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실제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에 사용하는 최소 발화단위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모음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진달래/는 [진달래]로 발화되지만, 그 발화를 구성하는 최소 발화단위는 [진$달$래]와 같이 셋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에 분석된 '[진][달][래]'는, 각 단위의 구성 음의 종류와 수는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모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언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straik](strike)는 영어에서는 하나의 최소 발화단위를 가지지만, 국어에서는, '[스][트][라][이][크]'에서 보듯이, 다섯 개의 최소발화 단위를 가진다. 또한 국어에서는 'ㄹ'나 'ㄴ'와 같은 자음은 발화의 최소단위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그것들이 발화의 최소단위를 이루기도 한다. 영어에서 [bɔ́tl]/[bɑ́tl](bottle)이나 [mʌ́tn](mutton)은 두 개의 최소발화 단위를 가지는데 이때의 [l]과 [n]은 발화

의 최소단위를 이룬다.

발화의 최소단위를 언어학적으로는 '음절(音節)'이라고 한다. 음절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는데, 본질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기본 관점에서 정의된다. ① 물리적 정의와 ② 조음음성학적 정의와 ③ 음운론적 정의가 그것이다. 물리적 정의에 의하면, '음절은 최소의 발화단위'이다. 그러나 조음음성학적 정의에 의하면, '음절은 하나의 공명성의 핵을 포함하는 짧은 발화'인데, 이 때의 발화는 공명성이 없는 두 개의 구성체 사이에서 일어나야 한다. 한편 음운론적 정의에 의하면, '음절은 두 음절경계 사이의 음들의 연속체'이다. 이 경우에 두 음절경계 사이에는 하나의 성절음만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음절경계를 '$'라 할 때에, 음운론적 정의에 의하면, '보름이'는 [$보$르$미$]로 분석되며 두 음절경계 사이에 있는 음들의 연속체는 각각 '보', '르', '미'이므로, 이 셋이 개별 음절이 된다.

여기에서는 음절의 음운론적 정의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구조와 음절의 구조제약 그리고 음절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4.1 음절의 구조

국어의 음절은 음성적인 것과 음운론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음성적인 음절의 경우, 최소의 음절구조는 '모음'만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최대의 음절구조는 '자음·활음·모음·자음'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음성적인 음절구조의 유형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모음([V]): [이](齒)

자음 · 모음([CV]): [새](鳥)

활음 · 모음([GV]): [왜](倭)

자음 · 활음 · 모음([CGV]): [궤](櫃)

모음 · 자음([VC]): [안](內), [업-](없-,無)

자음 · 모음 · 자음([CVC]): [밤](夜), [갑](값,價), [훌-](훑-,拔)

활음 · 모음 · 자음([GVC]): [왕](王), [엽](옆,側)

자음 · 활음 · 모음 · 자음([CGVC]): [흉](短點), [곽](槨)

그러나 음운론적인 음절의 경우, 그 구조는 좀 더 복잡하다. 이론적으로 최소의 음절구조는 '모음소'만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최대의 음절구조는 '자음소 · 활음소 · 모음소 · 자음소 · 자음소'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대의 음절구조는 중세국어에는 존재하였으나(예. '/셟-/(惱)') 근대국어 시기에 구개음소화가 일어난 이후로 그러한 음절구조는 일반적으로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대국어에서 최대의 음운론적 음절구조는 '자음소 · 모음소 · 자음소 · 자음소'나 '활음소 · 모음소 · 자음소 · 자음소'가 된다.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음운론적인 음절구조의 유형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모음소(/V/): /이/(齒)

자음소 · 모음소(/CV/): /새/(鳥)

활음소 · 모음소(/GV/): /왜/(倭)

자음소 · 활음소 · 모음소(/CGV/): /궤/(櫃)

모음소 · 자음소(/VC/): /안/(內)

자음소 · 모음소 · 자음소(/CVC/): /밤/(夜)

활음소 · 모음소 · 자음소(/GVC/): /왕/(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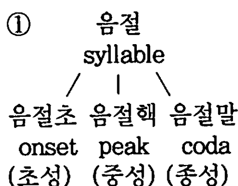
자음소 · 활음소 · 모음소 · 자음소(/CGVC/): /훜/(短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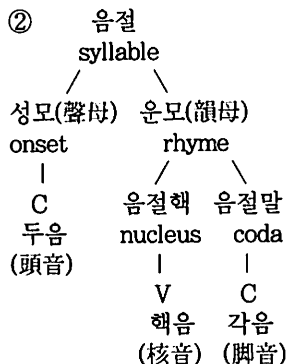
모음소 · 자음소 · 자음소(/VCC/): /없-/(無)

자음소 · 모음소 · 자음소 · 자음소(/CVCC/): /값/(價), /훑-/(扱)

활음소 · 모음소 · 자음소 · 자음소(/GVCC/): /얇-/(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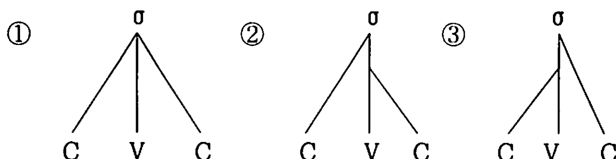
15세기 중기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음절구조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훈민정음해례 訓民正音解例》 중 〈제자해 制字解〉에 나타나 있는 '초성, 중성, 종성'이라든가 〈합자해 合字解〉에 "초·중·종 세 소리가 어울려서 글자를 이룬다(初中終三聲 合而成字)"라고 한 것이 그것인데, 〈합자해〉에서 말하는 '글자'는 '음절'에 대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음절'에 대한 인식은 1970년대까지 일반언어학에서나 국어학에서 변함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의 '음절'은, 아래의 ①에서 보듯이, 음소가 단선적으로 결합된 덩어리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일반언어학에서 '음절'은 아래의 ②에서 보듯이, 음소들의 계층적 결합 구조체로 인식되었다.

①


②


이러한 음절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수용되어 그 동안 국어학에

서 취급된 음절구조는 다음 세 가지의 수형도로 정리된다.



①은 1970년대 이전에 인식된 음절구조이며, ②와 ③은 1980년대 이후에 인식된 음절구조이다. 그 중에서 ③은 ②의 구조가 한국어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수형도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서 '자음 · 모음 · 자음(CVC)'의 구조를 예로 하였으며 σ는 '음절'을 나타낸다.

그러나 국어에서 음절을 구성하는 종성 자음이 ②에서와 같이 음절핵인 모음에 종속된다거나 초성의 자음이 ③에서와 같이 음절핵인 모음에 종속된다고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다시 말하면, 중성이 없이는 음절이 성립할 수 없지만, 초성이나 종성은 없어도 음절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어의 음절구조는 ①과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4.2 음절의 구조제약

위에 제시된 음성적, 음운론적 음절구조의 유형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유형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음이나 음소는 분포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음성적이거나 음운론적인 경우, 단

어초에는 'ㄹ'나 'ㅇ(ŋ)'이 분포될 수 없으며, 음절초에는 'ㅌ'나 'ㄴ'가 분포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 앞의 제약은 필연적인 것이며, 뒤의 제약은 우연적인 것이다. 특히 뒤의 제약이 우연적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돼지, 뙈기'에서 보듯이, 그 환경에 'ㅌ'와 동일 조음위치에서 조음되는 'ㄷ'나 'ㄸ'의 분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절초와 음절핵 그리고 음절말에서 국어의 음절이 가지는 구조제약은 다음과 같다. 음절초의 경우, 이 위치는 자음소나 자음이 분포되는 곳이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 위치에는 하나의 자음소나 자음만 분포된다. 특히 어두 음절초에는 'ㄹ, ㅇ(ŋ), ㅎ'를 제외한 모든 자음소와 자음이 분포될 수 있다. 그러나 비어두 음절초에서는, 음운론적 음절의 경우에는 /ㅇ(ŋ), ㅎ/를 제외한 모든 음소가, 음성적 음절에서는 [ㅎ]를 제외한 모든 자음이 분포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음절핵에는 단모음소(單母音素)나 단모음(單母音)만이 분포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위치에는 단모음소목록을 구성하는 모든 모음소나 그에 해당하는 모음이 분포될 수 있다.

끝으로 음절말에는 자음소나 자음만이 분포될 수 있는데, 음운론적 음절과 음성적 음절은 비어간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어간말에서는 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어간말음절의 경우, 음절말에는 일곱 개의 자음소나 자음 'ㅂ, ㄱ, ㄷ, ㅇ(ŋ), ㄴ, ㅁ, ㄹ'만이 분포될 수 있다.

그러나 어간말음절에서는, 음운론적 음절의 경우에는 최대로 두 개의 자음소가, 음성적 음절의 경우에는 하나의 자음만이 분포될 수 있다. 음운론적 음절의 경우, 이 위치에 한 개의 자음소가 분포될 때에는, /ㅃ, ㅉ, ㄸ/를 제외한 모든 자음소가 분포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위치에 두 개의 자음소가 분포될 때에는 /ㅄ;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ㄳ/만이 분포된다. 그러나 음성적 음절의 경우, 이 위치에는 [ㅂ, ㄷ, ㄱ, ㅁ, ㄴ, ㅇ(ŋ), ㄹ]만이 분포될 수 있다.

특히 음운론적 음절의 경우, 어간말음절의 음절말에 분포되는 자음소는 명사와 동사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하나의 자음소가 분포될 때에, 명사의 경우는 /ㅂ, ㅍ, ㄷ, ㅌ, ㅅ, ㄱ, ㅋ, ㅁ, ㄴ, ㅇ, ㄹ/만이 분포되며, 동사의 경우는 /ㅂ, ㅍ, ㄷ, ㅌ, ㅅ, ㅆ, ㅈ, ㅊ, ㄱ, ㄲ, ㅎ, ㆆ, ㅁ, ㄴ, ㄹ/만이 분포된다. 그리고 두개의 자음소가 분포될 때에, 명사의 경우는 /ㅄ, ㄳ, ㄺ, ㄼ/만이 분포되며, 동사의 경우는 /ㅄ, ㄵ, ㄶ, ㄺ, ㄻ, ㄼ, ㄾ, ㄿ, ㅀ/만이 분포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한 개의 자음소 분포 예.

명사: 집(家), 짚(藁), 낟(粒), 밭(田), 옷(衣), 박(朴), 부엌(廚), 밤(夜), 돈:(錢), 강:(江), 발(足)

동사: 잡-(執), 갚-(報), 받-(受), 같-(如), 웃:-(笑), 있-(有), 잊-(忘), 쫓-(追), 막-(防), 깎-(削), 놓-(放), 짛:-(作), 감-(浴), 안:-(抱), 날-(飛)

② 두 개의 자음소 분포 예.

명사: 값(値), 넋(魄), 흙(土), 여덟(八)

동사: 없-(無), 앉-(坐), 않-(否), 맑-(淸), 삶-(烹), 밟-(踏), 핥-(舐), 읊-(吟), 앓-(痛)

4.3 음절의 구조조정

음절과 음절의 연결이 음절구조조건이나 음절내에서나 음절경계에서 음소들의 통합조건을 어기게 되는 경우에, 음소의 변동이나 음절의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이러한 음절의 구조조정은 조음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음절의 구조조정은 ① 보편적 음절구조와 ② 음절의 구조조건에 말미암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보편적 음절구조란 'σ=CV(자음(소)·모음(소))'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다른 조건이 없다면 음절은 'CV'의 구조를 가지도록 조정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음절의 구조조건은 음절말과 음절초에는 하나의 자음(소)만 허용되며(국어의 경우, 음운론적인 음절말에서는 두 개의 자음소까지 허용됨) 활음(소)은 음절말에 분포될 수 없다는 것 등이다.

국어에 존재하는 음절의 구조조정은 다음의 규칙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ø → $ {
V—(G)V ………… ⓐ
V—C(G)V ………… ⓑ
VC—C(G)V ………… ⓒ
VCC—CV ………… ⓓ

예. ⓐ /아이/ → /아$이/(幼), /우유/ → /우$유/(牛乳)
ⓑ /잡ㅣ어/ → /자$버/(執), /가볍-/ → /가$볍-/(輕)
ⓒ /집ㅣ도/ → /집$도/(家), /없ㅣ으면/ → /업$스$면/(無)
ⓓ /값ㅣ도/ → /값$도/(値), /없ㅣ지/ → /없$지/(無)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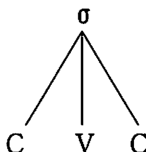
[1] 음절의 정의

발화의 최소단위를 언어학적으로는 '음절(音節)'이라고 한다. 음절은 물리학적으로, 조음음성학적으로, 음운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① 물리학적 정의: 음절은 최소의 발화단위이다.
② 조음음성학적 정의: 음절은 공명성이 없는 두 개의 구성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공명성의 핵을 포함하는 짧은 발화이다.
③ 음운론적 정의: 음절은 하나의 성절음만을 포함하는, 두 음절경계 사이의 음들의 연속체이다.

[2] 음절의 구조

국어의 음절은 음성적 음절과 음운론적 음절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구조와 음절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음성적 음절구조의 유형:
모음([V]): [이](齒)
자음 · 모음([CV]): [새](鳥)
활음 · 모음([GV]): [왜](倭)
자음 · 활음 · 모음([CGV]): [궤](櫃)
모음 · 자음([VC]): [안](內), [업-](없-, 無)
자음 · 모음 · 자음([CVC]): [밤](夜), [갑](값, 價), [홀-](홅-, 拔)
활음 · 모음 · 자음([GVC]): [왕](王), [엽](옆, 側)
자음 · 활음 · 모음 · 자음([CGVC]): [훙](短點), [곽](槨)

② 음운론적 음절구조의 유형:
모음소(/V/): /이/(齒)
자음소 · 모음소(/CV/): /새/(鳥)
활음소 · 모음소(/GV/): /왜/(倭)
자음소 · 활음소 · 모음소(/CGV/): /궤/(櫃)
모음소 · 자음소(/VC/): /안/(內)
자음소 · 모음소 · 자음소(/CVC/): /밤/(夜)
활음소 · 모음소 · 자음소(/GVC/): /왕/(王)
자음소 · 활음소 · 모음소 · 자음소(/CGVC/): /흉/(短點)
모음소 · 자음소 · 자음소(/VCC/): /없-/(無)
자음소 · 모음소 · 자음소 · 자음소(/CVCC/): /값/(價), /훑-/(扱)
활음소 · 모음소 · 자음소 · 자음소(/GVCC/): /얇-/(薄)

[3] **음절의 구조제약**

음절초와 음절핵 그리고 음절말에서 국어의 음절이 가지는 구조제약은 다음과 같다.

① 음절초: 하나의 자음소나 자음만 분포된다. 특히 어두 음절초에는 'ㄹ, ㅇ(ŋ), ㅎ'를 제외한 모든 자음소와 순수자음이 분포될 수 있다. 비어두 음절초에서는, 음운론적 음절의 경우에는 /ㅇ(ŋ), ㅎ/를 제외한 모든 음소가, 음성적 음절에서는 [ㅎ]를 제외한 모든 자음이 분포될 수 있다.

② 음절핵: 단모음소(單母音素)나 단모음(單母音)만이 분포될 수 있다.

③ 음절말: 자음소나 자음만이 분포될 수 있는데, 비어간말음절의 경우, 음절말에는 일곱 개의 자음소나 자음 'ㅂ, ㄷ, ㄱ, ㅇ(ŋ), ㄴ, ㅁ, ㄹ'만이 분포될 수 있으며 어간말음절에서는, 음운론적 음절의 경우에는 최대로 두 개의 자음소가, 음성적 음절의 경우에는 하나의 자음만이 분포될 수 있다. 음운론적 음절의 경우, 이 위치에 한 개의 자음소가 분포될 때에는, /ㅃ, ㅉ, ㄸ/를 제외한 모든 자음소가 분포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위치에 두 개의 자음소가 분포될 때에는 /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ㄿ, ㅀ; ㅄ/만이 분포된다. 그러나 음성적 음절의 경우, 이 위치에는 [ㅂ, ㄷ, ㄱ, ㅁ, ㄴ, ㅇ(ŋ), ㄹ]만이 분포될 수 있다.

[4] 음절의 구조조정

음절의 구조는 ① 보편적 음절구조인 'CV(자음·모음)'의 구조를 가지도록, 그리고 ② 음절말과 음절초에는 하나의 자음만 허용되며(국어의 경우, 음운론적 음절말에는 두 개의 자음소까지 허용됨) 활음은 음절말에 분포될 수 없다는 음절의 구조조건에 맞도록 조정된다.

연습문제 4

1. 국어의 음절구조 중 음성적 음절과 음운론적 음절의 차이는 무엇인가?

2. 음성적 음절의 경우, 어간 말음절의 음절말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자음은 어떤 것인가?

3. 음운론적 음절의 경우, 어간 말음절의 음절말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자음소는 어떤 것인가?

4. 다음 물음에 답하라.

(1) 국어의 자음소 중 '어두위치'에 올 수 없는 것은?

① ㅇ(ŋ) ② ㅎ(h) ③ ㄴ(n) ④ ㅋ(k^h)

(2) 다음 중 한 음절 내부에서 '/ㅅ, ㅆ, ㅈ, ㅊ, ㅉ/'와 결합할 수 없는 음소는?

① w ② 오 ③ 어 ④ j

(3) 다음 음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언중(言衆)들이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단위이다.

② 국어에서는 음절초 위치와 음절말 위치에 오직 하나의 자음만이 올 수 있다.

③ 음절의 정점음(頂點音)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자음이다.

④ 훈민정음에서는 음절을 '초성 · 중성 · 종성'으로 나누었다.

(4) 다음 중 음절구조상의 제약으로 일어나는 음운현상은?

① 자음소군단순화 ② 비음소화

③ 양순음소화 ④ 연구개음소화

(5) 국어의 자음소 중 '음절말'에서 발음될 수 없는 것은?

① ㅇ(ŋ) ② ㄱ(k) ③ ㅅ(s) ④ ㄴ(n)

제5장 음운과정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그 경계에 있는 음소가 변동하는 경우가 있다.[쉽] 다음의 표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중에서 / / 속에 있는 것은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이고 [ ] 속에 있는 것은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이 통합할 때의 음성형이다.

쉽

음소의 변동은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간과 어간이 통합할 때에도 일어난다. 예컨대 두 개의 어간 /달/(月)과 /나라/(國)가 통합할 때에 그것은 음성형 [달라라]로 실현된다. 이 경우에 /나라/의 /ㄴ/가 그 앞에 있는 /달/의 어간말음소 /ㄹ/ 뒤에서 /ㄹ/로 된다. 이 때의 음소의 변동이 일어나는 음운론적 환경은 아래 표의 (2)-A, (2)-B와 동일하다. 그러나 어간과 어간이 통합하느냐 어간과 어미가 통합하느냐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교체가 일어나고 후자의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그 둘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어미 / 어간	A. /-({는,은})다/	B. /-니/	C. /-지/	D. /-어도/
(1) /잡-/(執)	[잠는다]	[잠니]	[잡찌]	[자바도]
(2) /불:-/(吹)	[분:다]	[부:니]	[불:지]	[부러도]
(3) /쏘:-/(射)	[쏜:다]	[쏘:니]	[쏘:지]	[쏘와도]
(4) /좋:-/(好)	[조:타]	[존:니]	[조:치]	[조:아도]
전시기 국어	현대국어			
(5) /하야로비/(碧鷺)	/해오라비/			

예컨대 (1)-A와 (1)-B에서, 어간의 기저형 /잡-/의 /ㅂ/는 /ㄴ/로 시작하는 어미 /-는다/나 /-니/ 앞에서 /ㅁ/로 되고, (2)-A와 (2)-B에서, 어간의 기저형 /불:-/의 /ㄹ/는 /ㄴ/로 시작하는 어미 /-는다/나 /-니/ 앞에서 없어진다. 그리고 (3)-D에서 어간 /쏘:-/와 어미 /-어도/가 통합하면, 그 사이에 활음소 /w/가 삽입되며, (4)-A와 (4)-C에서, 어간 /좋:-/의 /ㅎ/는 어미 /-다/, /-지/의 첫 음 /ㄷ, ㅈ/와 축약하여 /ㅌ, ㅊ/로 된다.

한편 형태소 내부에서 형태소를 구성하는 음소들의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5)가 그에 해당한다. '벽로'(碧鷺)에 대한 전시기의 어형 /하야로비(hajalopi)/와 현대국어형 /해오라비(hɛolapi)/(이 단어의 표준어형은 '해오라기'이다)를 대조하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전시기의 어형에서 이중모음소이던 /aj(애)/가 현대국어형에는 단모음소 /ɛ(애)/로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시기의 어형에서 /ㄹ/의 전후에 있던 /아/와 /오/가 현대국어에서 그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형태소 구성 음소가 음운론적 차원에서 변동 또는 변화하거나 그 위치를 바꾸는 것을 음운과정(音韻過程)이라 한다(물론 운소 차원에서 운소가 변동 또는 변화하거나 그 위치를 바꾸는 것도 음운과정이라고 한다). 국어에는 여러 가지의 음운과정이 있

는데, 그것들은 대개 '교체(交替), 탈락(脫落), 삽입(插入), 축약(縮約), 도치(倒置)'라는 다섯 개의 범주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쉼]

쉼

한 언어에 존재하는 음운과정은 기저형과 음성형을 대조함으로써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음운론에서 기저형(基底形)이란, (1)~(4)의 어간형과 어미형이나 그것들의 통합형과 같이, 음운과정이 일어나기 전의 형태소나 형태소들의 통합형으로, 위의 표에서 /　/로 표시된 것을 말하며, 음성형(音聲形)이란 기저형이 최종적인 음운과정을 거친 뒤에 음성으로 실현된 어형으로, 위의 표에서 [　]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기저형과 음성형을 대조하는 경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① 무엇이 변동하는가, ② 무엇으로 변동하는가, ③ 어떤 환경에서 그 변동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1)-A의 경우에,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기저형 /잡ㅣ는다/는 음성형 [잠는다]로 실현되는데, 그 둘을 대조하면, ① 어간말의 /ㅂ/가 ② /ㅁ/로 변동한 뒤에 [ㅁ]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③ 그러한 변동이 어미초의 /ㄴ/ 앞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교체'란, (1)-A와 (1)-B에서와 같이,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그 경계에 있는 음소가 다른 음소로 변동하는 것을 말하며, '탈락'이란, (2)-A와 (2)-B에서와 같이,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그 경계에 있는 음소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삽입'이란, (3)-D에서와 같이,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그 경계에 새로운 음소가 더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축약'이란, (4)-A, (4)-C와 (5)에서와 같이,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그 경계에 있는 두 음소가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음소로 되거나 전시기의 두 음소가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음소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도치'란, (5)에서와 같이,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음소들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음운과정에 대한 서술에는 공시적인 변동은 물론 통시적인 변화도 예로 사용할 것이다. 다만 그 둘을 구별하기 위하여 공시적인

변동에는 '→'를, 통시적인 변화에는 '>'를 사용할 것이다.

● 형태소와 그 종류

1. 형태소: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단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다.
2. 형태소의 종류: 국어의 경우,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는 접사와 어간과 어미로 구분된다. 접사는 단어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접두사와 접미사로 구분된다. 어간과 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서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로 구분되며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로 구분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접두사: 단어(또는 어간)의 앞에 붙어서 단어의 뜻을 제한하는 형태소: '덧버선, 개나리, 치솟다' 등에서 '덧-, 개-, 치-'가 그에 해당한다.
└ 접미사: 단어(또는 어간)의 뒤에 붙어서 그 뜻을 돕거나 품사를 바꾸는 형태소, 파생접사라고도 함: '선생님, 먹이, 사람답다' 등에서 '-님, -이, -답-'이 그에 해당한다.

┌ 어휘형태소: 뜻을 지닌 형태소. 이 기준에 따르면 '어간'은 어휘형태소이다.: '간다, 학생을' 등에서 '가-, 학생'이 그에 해당한다.
└ 문법형태소: 문법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형태소. 이 기준에 따르면 '어미'는 문법형태소이다.: '간다, 학생을' 등에서 '-ㄴ다(<-은다), -을'이 그에 해당한다.

┌ 자립형태소: 그 자체로 완전한 단어가 될 수 있는 형태소: '나무, 새, 아주' 등이 그에 해당한다.
└ 의존형태소: 그 자체로 완전한 단어가 될 수 없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른 형태소가 통합되어야 완전한 단어가 될 수 있는 형태소: 동사의 어간 '잡-(執), 웃-(笑)' 등이나 어미 '-는다, -지, -더라'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 둘이 통합한 '잡는다, 잡지, 잡더라, 웃는다, 웃지, 웃더라'는 단어이다.

5.1 교체

'교체'는 음운과정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표를 보자.

어미 / 어간	A. /-{어도,이}/ /-{ʌto, i}/	B. (/-{도,는다,고}/) (/-{to, numta, ko}/)
(1) /막(mak)-/(防) (2) /보(po)-/(示) (3) /앞(apʰ)/(前) (4) /막(mak)-/(防) (5) /불:(pu:l)-/(吹)	[마가도(magado)] [봐:도(pwa:do)] [아피(apʰi)] [마가도(magado)] [부러도(purʌdo)]	[망는다(maŋnumda)] [보고(pogo)] [압(ap)], [압또(apt'o)] [막꼬(mak'o)] [불:고(pu:lgo)]
전시기 국어	현대국어	
(6) /보션(posjʌn)/(襪)	/버선(pʌsʌn)/	

위의 자료에서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인 (1)~(5)와 A, B를 음성형인 {(1)~(5)}-A, {(1)~(5)}-B와 대조하면, 기저형이 겪은 음운과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1)에서 어간의 기저형 /막(mak)-/이 겪은 음운과정을 알아보자. 어간의 기저형 /막(mak)-/은 어미의 기저형 /-어도(ʌto)/와 통합하면, 음성형 (1)-A에서 보듯이 [막(mag)-]으로 실현된다. 이들 어간의 기저형과 음성형을 대조하면, 기저형의 어간말 무성음소인 /ㄱ(k)/가 음성형에서 유성음 [ㄱ(g)]로 된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국어에는 무성음소와 유성음소의 대립은 없으므로 [ㄱ(g)]는 /ㄱ(k)/의 이음이다. 그러므로 무성음소 /ㄱ(k)/가 유성음 [ㄱ(g)]로 되는 것은 음성적인 것이지 음운론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저형 /막(mak)-/

이 음성형 [막(mag)-]으로 되는 데에는 어떠한 음운과정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와는 달리, 어간의 기저형 /막(mak)-/은 어미의 기저형 /-는다(nɯnta)/와 통합하면, 음성형 (1)-B에서 보듯이, [망(maŋ)-]으로 실현된다. 이들 어간의 기저형과 음성형을 대조하면, 기저형의 어간말음소 /ㄱ(k)/가 비음소 /ㅇ(ŋ)/로 된 다음에 비음 [ㅇ(ŋ)]로 실현된 것을 알 수 있다. /ㄱ(k)/와 /ㅇ(ŋ)/는 국어에서 서로 다른 음소다. 그러므로 음소 /ㄱ(k)/가 /ㅇ(ŋ)/로 되는 것은 음성적인 것이 아니라 음운론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어간말의 /ㄱ(k)/가 /ㅇ(ŋ)/로 변동되는 음운과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예의 음운과정은, [-비음성]의 자질을 가진 /ㄱ(k)/가 [+비음성]의 자질을 가진 어미초의 /ㄴ(n)/ 앞에서 그와 동일한 [+비음성]을 가진 /ㅇ(ŋ)/로 되었다고 하여 '동화(同化)'라고 한다.

이번에는 (2)에서, 어간의 기저형 /보(po)-/가 겪은 음운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간의 기저형 /보(po)-/는 어미의 기저형 /-고(ko)/와 통합하면, 음성형 (2)-B에서 보듯이 [보(po)-]로 실현된다. 이들 어간의 기저형과 음성형을 대조하면,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음운과정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미의 기저형 /-어도(ʌto)/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 (2)-A의 [보(pw)-]와 대조하면, 어간 모음소 /오(o)/가 /w/로 변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오(o)/와 /w/는 국어에서 서로 다른 음소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어간의 /오(o)/가 /w/로 되는 음운과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의 음운과정은 모음소인 /오(o)/가 활음소인 /w/로 변동되었다고 하여 '활음소화(滑音素化)'라고 한다.

위와 같이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이 통합할 때의 기저형과 음성형을 대조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음운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어간의 기저형 /앞(ap^h)/이 그 자체로 발음되거나 어미의 기저형 /-도(to)/

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 (3)-B에서, 어간의 기저형 /앞(apʰ)/과 음성형 [압(ap)]을 대조하면, 기저형의 /ㅍ(pʰ)/가 /ㅂ(p)/로 되는 음운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의 음운과정은 기저형의 /ㅍ(pʰ)/가 평파열음소 /ㅂ(p)/로 되었다고 하여 '평파열음소화(平破裂音素化)'라고 한다.

다음으로 어간의 기저형 /막(mak)-/과 어미의 기저형 /-고(ko)/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 (4)-B의 [막꼬(mak'o)]에서, 어미의 기저형과 음성형을 대조하면, 기저형의 /ㄱ(k)/가 /ㄲ(k')/로 되는 음운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의 음운과정은 기저형의 /ㄱ(k)/가 경음소로 되었다고 하여 '경음소화(硬音素化)'라고 한다.

끝으로 어간의 기저형 /불:(pu:l)-/과 어미의 기저형 /-어도(ʌto)/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 (5)-A의 [부러도(purʌdo)]에서, 어간의 기저형과 음성형을 대조하면, 기저형의 모음소 /우:(u:)/가 /우(u)/로 되는 음운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의 음운과정은 기저형의 장모음소인 /우:(u:)/가 단모음소(短母音素)인 /우(u)/로 변동된다고 하여 '단모음소화(短母音素化)'라고 한다.

한편 (6)의 현대국어형 /버선/과 전시기 국어의 어형 /보션/에서 어두 음절만을 대조하면, /오/가 /어/로 변하는 음운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음운과정은 원순모음소가 비원순모음소로 변했다고 하여 '비원순모음소화(非圓脣母音素化)'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밝혀진 '교체'는 크게 자음소교체와 모음소교체로 구분된다. 자음소교체에는 평파열음소화, 자음소동화, 경음소화가 포함되고 모음소교체에는 활음소화, 모음소동화, 비원순모음소화, 단모음소화가 포함된다. 다음에 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5.1.1 자음소교체

[1] 평파열음소화

어간 \ 어미	A. /-{도, 지}/	B. /-{에, 어도}/
(1) /입/(口)	[입], [입또]	[이베]
/잡-/(執)	[잡찌]	[자바도]
/앞/(前)	[압], [압또]	[아페]
/높-/(高)	[놉찌]	[노파도]
(2) ① /박/(瓢)	[박], [박또]	[바게]
/작-/(小)	[작찌]	[자가도]
② /밖/(外)	[박], [박또]	[바께]
/깎-/(削)	[깍찌]	[까까도]
③ /부엌/(廚)	[부억], [부억또]	[부어케]
(3) /웃:-/(笑)	[욷:찌]	[우서도]
cf. /놓-/(放)		cf. [노아도]

국어에서 /ㅎ/를 제외한 자음소(/ㄹ/ 포함)는, 위의 (1)-B, (2)-B와 (3)-B의 음성형에서 보듯이,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외파되어 개별 음소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위의 (1)-A, (2)-A와 (3)-A의 음성형을 분석하면, 어간말 자음소 /ㅂ, ㅍ/, /ㄱ, ㄲ, ㅋ/와 /ㅅ/ 등은 어간말 위치에서, 그 자체만으로 발음되거나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파열이나 유기성이나 경음성과 같은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1)의 어간말 /ㅂ, ㅍ/는 평파열음소 /ㅂ/로 된 뒤에 폐쇄음 [ㅂ]로 실현되며, (2)의 어간말 /ㄱ, ㄲ, ㅋ/는 평파열음소 /ㄱ/로 된 뒤에 폐쇄음 [ㄱ]로 실현되고 (3)의 어간말 /ㅅ/는 평파열음소 /ㄷ/로 된 뒤에 폐쇄음 [ㄷ]로 실현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평파열음소 /ㅂ/, /ㄱ/, /ㄷ/가 폐쇄음 [ㅂ], [ㄱ], [ㄷ]로 되는 것은 음성적인 것이지 음운론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간말의 자음소들이 평파열음소로 되는 것만이 음운론적인 것이 된다. 이처럼 어간말의 자음소가 그 위치에서나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평파열음소 /ㅂ/, /ㄱ/, /ㄷ/로 교체되는 것을 '평파열음소화'라고 한다.

[2] 자음소동화

전시기 국어	현대국어
(1) ① /딮/(藁) ② /티-/(打)	/짚/ /치-/
어미 / 어간	/-{ 만, 는, 이, 어도}/
(2) ① /입/(口) ② /믿-/(信)	[임만] cf. [이비](/입] 이/) [민는] cf. [미더도](/믿] 어도/)

위의 자료에서 (1)은 전시기 국어형 /딮/과 /티-/가 현대국어에 /짚/과 /치-/로 변해 있음을 말해 준다. 이 경우에 치음소인 /ㄷ, ㅌ/가 경구개음소 /ㅈ, ㅊ/로 변했다고 하여 그러한 음운과정을 '경구개음소화' 또는 일반적으로 '구개음소화'라고 한다. 이 때의 구개음소화는, 변별적 자질로써 서술하면, [-고설성]의 자질을 가진 /ㄷ/와 /ㅌ/가 [+고설성]의 자질을 가진 /ㅈ/와 /ㅊ/로 변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겪은 위의 어간을 관찰하면, /ㄷ/와 /ㅌ/ 다음에

[+고설성]의 자질을 가진 모음소 /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1)의 어간들이 겪은 변화는 /ㄷ/와 /ㅌ/를 구성하는 [-고설성]의 자질 자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자질이 그 뒤에 있는 모음소 /이/가 가진 [+고설성]에 동화되어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의 [임만]은 어간 /입/에 어미 /-만/이 통합한 음성형이고 [민는]은 어간 /믿-/에 어미 /-는/이 통합한 음성형이다. 이들 어간의 기저형과 그에 대한 음성형을 대조하면, 어간말 자음소 /ㅂ/와 /ㄷ/가 각각 /ㅁ/와 /ㄴ/로 변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음소가 아닌 자음소가 비음소로 되는 것을 자음소동화 중에서 '비음소화'라고 한다. 비음소화를 변별적 자질로써 서술하면, 비음소화란 어간말 음소 /ㅂ/와 /ㄷ/가 가진 [-비음성]이 [+비음성]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간말 자음소의 비음소화는 반드시 어미가 [+비음성]의 자질을 가진 자음소로 시작할 때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그러한 변동은 어간말 자음소 /ㅂ/나 /ㄷ/가 가진 [-비음성]이 어미초의 /ㅁ/나 /ㄴ/가 가진 [+비음성]에 동화되어 일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된 (1)과 (2)의 예에서 발견되는 음운의 변화나 변동은 모두 어떤 음소가 그 앞이나 뒤에 있는 음소의 자질에 동화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음소의 변화나 변동은 음소 자체만 가지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해당 음소를 구성하는 변별적 자질을 비교하면 그러한 변화나 변동의 원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과 (2)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음소의 동화는 다음 두 종류의 음운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모음소의 자질에 의한 자음소의 동화이고, 둘째는,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음소의 자질에 의한 자음소의 동화이다.[쉽] 이제 이들 각각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설

동화는 동화되는 주체가 자음소인가 모음소인가에 따라 자음소동화와 모음소동화로 구별되며 인접하는 두 음소 간에서 일어나는 동화인가 인접하지 않는 두 음소 간에서 일어나는 동화인가에 따라 직접동화와 간접동화로 구별된다. 그리고 두 음소 간에서 일어나는 동화인 경우에, 뒷 음소가 앞 음소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동화인가 앞 음소가 뒷 음소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동화인가에 따라 순행동화와 역행동화로 구별된다. 또 동화되는 음소가 동화에 영향을 미치는 음소와 동일하게 되는가 다르게 되는가에 따라 완전동화와 불완전동화로 구별된다.

A. 모음소(또는 활음소)의 자질에 의한 자음소의 동화

이것은 자음소를 구성하는 어떤 자질의 값이 인접한 모음소의 자질값의 영향을 받아 그와 동일한 자질값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국어에는 이러한 동화의 종류가 많지는 않다. 앞에서 본 구개음소화가 그에 해당된다. 국어에서 구개음소화는 통시적 변화에 속하는 것으로서, 'ㄷ'구개음소화와 'ㄱ'구개음소화 등으로 나누어진다. 'ㄷ'구개음소화는 서북방언 (평안남·북도방언)과 함경북도 북부방언 이른바 육진방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이며 'ㄱ'구개음소화는 주로 동남방언(경상남·북도방언)과 서남방언(전라남·북도방언)에서 일어난 변화이다.

전시기 국어	현대국어
(1) ① /디혜/(知慧)	/지혜/
/디-/(落)	/지-/
/떼-/(蒸)	/찌-/
/데티-/(煠)	/데치-/
② /뎝시/(楪子)	/접시/
/텬디/(天地)	/천지/
/둏-/(好)	/좋-/

전시기 국어	현대 동남 및 서남방언
(2) ① /길/(路)	/질/
/키/(箕)	/챙이/
/끼-/(挿)	/찌-/
② /곁/(傍)	/절/
/견듸-/(忍)	/전디-/

(1)-①의 예들에서 현대국어형과 전시기 국어형을 대조하면, 현대국어형의 /ㅈ/, /ㅉ/나 /ㅊ/가 그에 대한 전시기 국어형의 /ㄷ/, /ㄸ/나 /ㅌ/에서 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변화를 변별적 자질로써 말하면, [-고설성]을 가진 /ㄷ/, /ㄸ/나 /ㅌ/가 [+고설성]을 가진 /ㅈ/, /ㅉ/나 /ㅊ/로 변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ㄷ/, /ㄸ/나 /ㅌ/를 구성하는 [-고설성] 자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제시된 전시기 국어의 예들이 /ㄷ/, /ㄸ/나 /ㅌ/ 다음에 모두 모음소 /이/를 가지고 있으며, 모음소 /이/를 구성하는 [고설성]의 자질값이 '+'이고, /ㅈ/, /ㅉ/나 /ㅊ/를 구성하는 [고설성]의 자질값 역시 '+'인 점을 고려하면, 이 변화는 /ㄷ/, /ㄸ/나 /ㅌ/를 구성하는 [고설성]의 자질값 '-'가 그 뒤의 모음소인 /이/를 구성하는 [고설성]의 자질값 '+'에 동화됨으로써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②의 예들은 /ㄷ/나 /ㅌ/가 /ㅈ/나 /ㅊ/로 변했다는 점에서는 위의 예들과 동일하지만, /ㄷ/나 /ㅌ/ 뒤에는 활음소인 /j/가 있다는 점에서 그것들과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1)-②의 예들에서도 [-고설성]을 가진 /ㄷ/나 /ㅌ/가 [+고설성]을 가진 /ㅈ/나 /ㅊ/로 변하지만, 이 때의 변화는 모음소 /이/가 가진 [+고설성] 때문이 아니라 활음소인 /j/가 가진 [+고설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고설성]이 [+고설성]에 동화된 것이다. 이 경우의 동화는 활음소의 자질에 의한 자음의 동화이다. 이 변화는 /ㄷ/ 계열의 자음소가 (경)구개음소로 되었다고

하여 'ㄷ'구개음소화라고 한다.

다음으로 (2)-①과 (2)-②의 예들에서 현대국어 방언형과 전시기 국어형을 대조하면, 현대국어 방언형의 /ㅈ/, /ㅉ/나 /ㅊ/는 그에 대한 전시기 국어형의 /ㄱ/, /ㄲ/나 /ㅋ/에서 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변화를 변별적 자질로써 서술하면, /ㄱ/, /ㄲ/나 /ㅋ/를 구성하는 [+후설성]이 [-후설성]으로 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변화가 일어난 어형들은 모두 /ㄱ/, /ㄲ/나 /ㅋ/ 뒤에 모음소 /이/나 활음소 /j/가 있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후설성]의 자질값이 '-'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변화는 /ㄱ/, /ㄲ/나 /ㅋ/가 가진 [후설성]의 자질값 '+'가 그 뒤에 있는 모음소 /이/나 활음소 /j/가 가진 [후설성]의 자질값 '-'에 동화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이 변화는 /ㄱ/ 계열의 자음소가 (경)구개음소로 되었다고 하여 'ㄱ'구개음소화라고 한다.

B. 자음소의 자질에 의한 자음소의 동화

이것은 자음소를 구성하는 어떤 자질의 값이 인접한 자음소를 구성하는 자질의 영향으로 그와 같은 자질값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음소동화가 그러한 예가 된다. 자음소동화 전체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서술하기로 하거니와 그 중 비음소화에 대해서는 제3장의 첫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3] 경음소화

평음소가 경음소로 되는 것을 경음소화라고 한다. 경음소화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음운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데, 하나는 음운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운환경의 제약을 받고

일어나는 것이다. /불휘/(訓蒙字會 下 3) 〉 /뿌리/(根), /듧-/ 〉 /뚧-/(朴通事諺解 上 14) 〉 /뚫-/(鑽), /슷-/ 〉 /씃-/(東國新續三綱行實, 新續烈女圖五 13) 〉 /씻-/(拭), /곶/(龍飛御天歌 2) 〉 /꽂/(百聯抄解 9) 〉 /꽃/(花) 등에서 볼 수 있는 경음소화는 전자에 속하며, 다음 자료 중 (1)~(3)의 어간과 A~C의 어미가 통합할 때의 어미초 평음소의 경음소화는 후자에 속한다.

어미 / 어간	A. /-고/	B. /-지/	C. /-더라/	D. /-어도/
(1) /잡-/(執)	[잡꼬]	[잡찌]	[잡떠라]	[자바도]
(2) /믿-/(信)	[믿꼬]	[믿찌]	[믿떠라]	[미더도]
(3) /먹-/(食)	[먹꼬]	[먹찌]	[먹떠라]	[머거도]
(4) /가-/(去)	[가고]	[가지]	[가더라]	[가도]
(5) /살:-/(居)	[살:고]	[살:지]	[살:더라]	[사라도]
(6) /놓-/(放)	[노코]	[노치]	[노터라]	[{노아, 놔:}도]

(1)~(3)의 어간이 어미 /-어도/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 {(1)~(3)}-D를 분석하면, 그들 어간이 각각 어간말 자음소 /ㅂ/, /ㄷ/, /ㄱ/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와 (5)의 어간이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 (4)-{A~C}와 (5)-{A~C}를 분석하면, 어간에 통합하는 어미들이 각각 /-고/, /-지/, /-더라/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제 (1)~(3)의 어간과 A~C의 어미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을 분석하면, 어미의 기저형, 즉 A~C의 어미가 가진 첫 음소 /ㄱ/, /ㅈ/, /ㄷ/가 음성형에서 경음으로 실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경음이 실현되기 전에 어미초의 /ㄱ/, /ㅈ/, /ㄷ/가 각각 경음소 /ㄲ/, /ㅉ/, /ㄸ/로 되는 음운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음성형 (4)-{A~C}와 (5)-{A~C}에서와 같이, 어간말이 모음소로 끝나거나 /ㄹ/로 끝날 때에는 어

미초의 /ㄱ/, /ㅈ/, /ㄷ/는 경음화하지 않으며, 음성형 (6)-{A~C}에서와 같이, 어간말이 /ㅎ/로 끝날 때에는 어미초의 평음소가 어간말의 /ㅎ/와 통합하여 유기음으로 실현되기는 하여도 경음소화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1)~(3)의 어간과 A~C의 어미가 통합할 때에, 어미초의 평음소가 경음소화하는 것은 어간말 자음소 /ㅂ/, /ㄷ/, /ㄱ/ 때문이라 하겠다.

5.1.2 모음소교체

[1] 활음소화

활음소화란 하나의 모음소가 활음소 /w/나 /j/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음절을 형성하는 하나의 모음소가 다른 음절의 일부로 된다고 하여 비음절화(非音節化)라고도 하며, 모음소가 반모음소(/w/나 /j/)로 된다고 하여 반모음소화라고도 한다. 이 음운과정은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어미 / 어간	A /-어도/	B. /-고/
(1) /오-/(來)	[와도][wado]	[오고]
(2) /바꾸-/(換)	[바꿔도][pak'wʌdo], [바꾸어도]	[바꾸고]
(3) /이-/(戴)	[여도][jʌdo]	[이고]
(4) /이기-/(勝)	[이겨도][igjʌdo]	[이기고]

위의 자료 중 음성형 {(1)~(4)}-B를 분석하면, 각각 [오-고], [바꾸-고], [이-고], [이기-고]로 되는데, 이렇게 분석된 음성형의 어간은 기저형의 어간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4)}-A의 음성형을 분석하면, 각각 [w-ado], [pak'w-ʌdo], [j-ʌdo], [igj-ʌdo]로 된다. 이

렇게 분석된 음성형의 어간과 기저형의 어간을 대조하면, 기저형 어간의 말모음소 /오/, /우/와 /이/가 음성형에서 각각 [w]와 [j]로 변동되었으며 어미의 첫 음절 모음소와 함께 이중모음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어간말 모음소 /오, 우/와 /이/가 어미 /-어도/와 통합하면 그 앞에서 각각 활음소 /w/와 /j/로 변동된 뒤에 활음 [w]와 [j]로 실현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2] 모음소동화

전시기 국어	현대국어
(1)① /츩/(葛) ② /즐-/(泥)	/칡/ /질-/
어미 / 어간	/-{으니, 만, 는}/
(2) /낳-/(産)	[나:니] cf. [나코](/낳 ㅣ 고/)

위의 자료 중 (1)은 전시기 국어형 /츩/과 /즐-/가 현대국어에 /칡/과 /질-/로 변해 있음을 말해 준다. 후설 비원순 고모음소인 /으/가 전설 비원순 고모음소인 /이/로 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변화를 '전설고모음소화'라고 한다. 이것을 다시 변별적 자질로써 서술하면, 전설고모음소화는 [+후설성]을 가진 /으/가 [-후설성]을 가진 /이/로 변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위의 단어를 보면, /으/ 앞에 [+고설성]과 [-후설성]을 가지는 경구개음소 /ㅈ/나 /ㅊ/ 등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1)의 어간에서 일어난 변화는 /으/가 가진 변별적 자질인 [+후설성] 자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앞의 경구개음소가 가진 [-후설성]에 동화되어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의 음성형 [나:니]는 어간 /낳-/에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

/-으니/가 통합한 음성형이다. 그것은 유성음소 사이에서 어간말의 /ㅎ/가 탈락되고 다시 어미의 첫 음소 /으/가 그 앞의 어간말 모음소와 동일하게 되는 음운과정을 거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음운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어간 모음소 /아/가 장모음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로써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음성형 [나:니]는 '/낳] 으니/ → /나으니/ → /나아니/'와 같은 음운과정을 거친 것이다.

예를 들어, 동사 /날-/(飛)에 어미 /-으니/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은 [나니]인데, 이 때의 음성형에는 어간 모음소 /아/가 단모음 [아]로 실현된다. 그것은 어미의 첫 음소 /으/가 어간말 유음소 /ㄹ/ 뒤에서 탈락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음성형 [나니]는 어간말 유음소 /ㄹ/ 뒤에서 어미의 첫 음소 /으/가 탈락되고 다시 남아 있는 어미 /-니/의 /ㄴ/ 앞에서 어간말 유음소 /ㄹ/가 탈락됨으로써 실현된 것이다. 이 사실은 어미의 첫 음소 /으/가 탈락되면 어간말 모음소가 장모음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2)의 경우와 같이, 어미의 첫 음소 /으/가 그 앞의 어간말 모음소와 동일하게 되는 것을 '완전순행동화'라고 한다. 이 때의 완전순행동화도 변별적 자질로써 서술하면, [+고설성]의 자질을 가진 /으/가 그 앞에 있는 어간말 모음소인 /아/가 가진 [+저설성]에 동화되어 그와 동일한 [+저설성]을 가짐으로써 일어난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모음소의 동화가 다음 두 종류의 음운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첫째는,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음소의 자질에 의한 모음소의 동화이고, 둘째는,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모음소의 자질에 의한 모음소의 동화이다. 이제 이들 각각에 대해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A. 자음소의 자질에 의한 모음소의 동화

이것은 모음소를 구성하는 어떤 자질의 값이 인접한 자음소를 구성하는 자질의 영향으로 그와 같은 자질값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 한 예로서 다음에 제시된 전설고모음소화를 들 수 있다.

전시기 국어	현대국어
① /즘싕, 즘숭/(獸)	/짐승/
② /즐-/(泥)	/질-/
③ /즞-/(裂)	/찢-/
④ /츩/(葛)	/칡/
⑤ /츠-/(除)	/치-/

위의 예에서 현대국어형과 전시기 국어형 중 첫 음절만을 대조하면, 현대국어형에서 /ㅈ, ㅉ, ㅊ/ 뒤에 있는 모음소 /이/는 그에 해당하는 전시기 국어형의 모음소 /으/에서 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음소를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 단위로 보면, 그러한 변화가 어떤 음운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음소를 변별적 자질의 집합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모음소 /으/가 /이/로 변한 사실을 변별적 자질로써 서술하면, /으/를 구성하는 [+후설성]의 자질이 [-후설성]으로 변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경구개음소인 /ㅈ, ㅉ, ㅊ/ 뒤에서 예외 없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그들 경구개음소를 구성하는 [후설성]의 자질값이 '-'라는 사실 그리고 경구개음소와 /으/, /이/는 모두 [고설성]의 자질에 대해서 '+'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구개음소 뒤에서 일어난 /으 〉 이/의 변화는 [-후설성]을 가지는 경구개음소 뒤에서 [+후설성]을 가진 /으/가 [-후설성]을 가진 /이/로 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으/가 그냥 /이/로 변한 것이 아니라, /으/를 구성하는 [후설성]의 자질값 '+'가 그 앞의 경구개음소를 구성하는 동일 자질의 자질값 '-'에 동화됨으로써 [-후설성]을 가진 /이/로 된 것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위의 전설고모음소화는 자음의 자질에 의한 모음의 동화이다.

B. 모음소의 자질에 의한 모음소의 동화

이것은 모음소를 구성하는 어떤 자질의 값이 인접한 모음소를 구성하는 자질의 영향으로 그와 같은 자질값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예의 하나로 어미의 첫 음소 /어/나 /으/의 완전순행동화를 들 수 있다.

어미 / 어간	A /-{어도, 으니}/	B. /-고/
(1) /깨-/(破)	[깨:도]/[깨어도]	[깨고]
/패-/(毆打)	[패:도]/[패어도]	[패고]
/떼:-/(分離)	[떼:도]/[떼어도]	[떼:고]
(2) /낳-/(産)	[나:니]	[나코]
/넣-/(入)	[너:니]	[너코]

위의 자료에서 (1)-A의 음성형은 (1)의 어간과 어미 /-어도/가 통합한 것이고 (2)-A의 음성형은 (2)의 어간과 어미 /-으니/가 통합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어간 기저형의 단모음소가 음성형에서는 모두 장모음으로 실현된다는 사실과 어미 기저형의 첫 음절 모음소인 /어/나 /으/가 음성형에서는 모두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와는 달리, /아/나 /어/로 끝나는 어간 /가-/(去), /서-/(立)가 어미 /-어도/나 /-으니/와 통합하면, 그것들은 각각 음성형 [가도], [서

도]나 [가니], [서니]로 실현된다. 이들 기저형과 음성형을 대조하면, /아/나 /어/가 단모음 [아]나 [어]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어간과 어미가 통합될 때에 모음소 탈락이라는 음운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간과 어미의 통합이 /가┃어도/나 /서┃어도/인 경우에는 형태소 경계를 전후한 두 개의 동일 모음소 중 하나가 탈락되고 (/가] 어도/의 경우는 어간 모음소 /아/ 뒤에서 어미초의 /어/가 /아/로 되는 음운과정이 먼저 일어난다), /가┃으니/나 /서┃으니/인 경우에는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어미의 /으/가 탈락된다. 이러한 모음소의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간 모음소가 장음으로 실현되지 못한다. 동사 /나-/(出)/나 /날-/(飛)/에 어미 '-으니'가 통합하는 경우에, 그 음성형이 모두 [나니]로 되는데, 이 역시 모음소나 /ㄹ/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모음의 탈락이 일어나면 어간 모음소가 장모음으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A, (2)-A의 음성형은 모음의 탈락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A의 음성형들은 /깨어도/, /빼어도/, /떼어도/에서, 그리고 (2)-A의 음성형들은 유성음소 사이에서 /ㅎ/가 탈락된 뒤의 /나으니/, /너으니/의 단계에서 어미초의 /어/나 /으/가 그 앞의 어간 모음소와 동일하게 되는 음운과정을 거친 뒤에 실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1)-A에서는 어미초의 /어/가 /애/나 /에/로 되고 (2)-A에서는, 음성형으로 실현되기 전에, 어미초의 /으/가 각각 /아/와 /어/로 되는 음운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가 /애/나 /에/로 교체된다는 것은 /어/를 구성하는 자질인 {[+후설성], [-저설성]}이 {[-후설성], [+저설성]}이나 {[-후설성], [-저설성]}으로 된다는 것이며 /으/가 /아/나 /어/로 교체된다는 것은 /으/를 구성하는 자질인 {[+고설성], [-저설성]}이 {[-고설성], [+저설성]}이나 {[-고설성], [-저설성]}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별적 자질의 변환은 어미초의 /어/나 /으/가 그 앞의 어간 모음소가 가진 {[고설성], [저설성]}과 동일한 자질값을 가지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뒤에 있는 음소를 구성하는 자질이 그 앞의 음소를 구성하는 자질의 영향으로 그와 동일하게 되는 것을 '완전순행동화'라고 하는데, 어미초의 /어/나 /으/의 완전순행동화는 모음소의 자질에 의한 모음소의 동화이다.

[3] 비원순모음소화

비원순모음소화란 원순모음소 /오/가 비원순모음소, 즉 평순모음소 /어/로 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제시된 현대국어형 /번데기/, /먼저/, /번나무/(표기형은 '벚나무'), /먼지/와 그에 해당하는 전시기 국어형 /본도기/, /몬져/, /본나모/(표기형은 '봇나모'), /몬지/에서 첫 음절만을 대조하면, 전시기 국어형의 모음 /오/가 현대국어형에 /어/로 변해 있음을 발견한다.

전시기 국어	현대국어
(1) /본도기/(蛹)	/번데기/
(2) /몬져/(先)	/먼저/
(3) /본나모/(樺)	/번나무/
(4) /몬지/(埃)	/먼지/

이러한 변화는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러 발생한 원순모음소화에 대한 역행의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러 후설 비원순고모음소 /으/가 그에 대립되는 원순모음소 /우/로 되는 원순모음소화

규칙(이 규칙에 대하여는 다음 장을 참조할 것)이 발생하여, 전시기 국어의 /블/(火), /믈/(水) 등이 각각 /물/, /불/ 등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그와는 반대 방향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후설 원순 중모음소 /오/가 그에 대립되는 비원순 모음소인 /어/로 변하는 것이었다.[쉽]

쉽

이 변화는 근대국어의 모음체계를 참고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후기 근대국어의 모음체계〉

이	으	우
에	어	오
애	아	

비원순모음소화를 겪는 대부분의 예들을 관찰하면, /오/ 〉 /어/가 형태소 내부의 양순음소와 치경음소(/ㄷ, ㄴ, ㅅ/ 등) 사이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변화가 일어난 영역은 대체로 중부방언에 한정되어 있다.

[4] 단(短)모음소화

장모음소(長母音素)가 단모음소(短母音素)로 되는 것을 단모음소화라 한다. 이 음운과정은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어미 / 어간	A. /-고/	B. /-어도/
(1) /불:-/(吹)	[불:고]	[부러도]
(2) /알:-/(知)	[알:고]	[아러도]
(3) /비:-/(空)	[비:고]	[비어도], [벼:도]

먼저 (1)~(3)의 어간과 어미 /-고/가 통합된 음성형 {(1)~(3)}-A는 각각 [불:-고], [알:-고], [비:-고]로 분석된다. 이렇게 분석된 음성형 어간은 (1)~(3)의 기저형 어간과 동일하게 장모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어간과 어미 /-어도/가 통합된 음성형 {(1)~(3)}-B는 각각 [불-어도], [알-어도], [비-어도](여기서 음성형 [벼:도]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함)로 분석된다. 이렇게 분석된 음성형 어간과 (1)~(3)의 기저형 어간을 대조하면, 기저형 어간의 장모음소가 모두 단모음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장모음소를 가지는 어간이 어미 /-어도/와 통합하면, 어간의 장모음소가 단모음소로 되는 음운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단모음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5.2 탈락

앞에서 '탈락'이란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그 경계에 있는 음소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국어에서 이러한 음운과정에 속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어미 / 어간	A /-어도/	B. /-니/	C. /-고/
(1) /놓-/(放)	[노아도], [놔:도]	[논니]	[노코]
(2) /크-/(大)	[커도]	[크니]	[크고]
(3) /불:-/(吹)	[부러도]	[부:니]	[불:고]
(4) /치-/(打)	[(쳐도→)처도]	[치니]	[치고]
(5) /앉-/(坐)	[안자도]	[안니]	[안꼬]

먼저 (1)~(4)의 어간과 어미 /-고/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 {(1)~(4)}-C는 각각 [놓-고], [크-고], [붇:-고], [치-고]로 분석된다. 이렇게 분석된 각 음성형 어간은 (1)~(4)에 제시된 기저형 어간과 동일하다. 그리고 (5)의 어간과 어미 /-어도/가 통합된 음성형 (5)-A는 [앉-아도]로 분석되며, 분석된 음성형 어간은 (5)의 기저형 어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4)의 어간과 어미 /-어도/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 {(1)~(4)}-A와 동일한 어간과 어미 /-니/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 {(1)~(4)}-B를 분석하면, 제시된 (1)~(4)의 어간 일부가 음성형으로 실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의 어간 /놓-/의 /ㅎ/나 (2)의 어간 /크-/의 /으/ 그리고 (4)의 어간 /치-/의 /이/는 어미 /-어도/와 통합하면 활음소화한 뒤에 경구개음소 뒤에서 탈락되고, (3)의 어간 /붇:-/의 /ㄹ/는 어미 /-니/와 통합하면 탈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5)의 어간 /앉-/의 /ㅈ/는 어미 /-니/와 통합하거나 /-고/와 통합하면 탈락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음소의 탈락은 크게 자음소탈락, 유음소탈락, 활음소탈락 그리고 모음소탈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어간을 예로 들면, /놓-/, /앉-/에서 어간말 자음소 /ㅎ/, /ㅈ/의 탈락은 자음소탈락에 속하고, /붇:-/에서 /ㄹ/의 탈락은 유음소탈락에 속하며, /치-/의 어간말 모음소 /이/가 어미초의 /어/와 통합하여 활음소화하고 그것이 경구개음소 뒤에서 탈락하는 것은 활음소탈락에 속한다. 그리고 /크-/의 어간말 모음소 /으/의 탈락은 모음소탈락에 속한다. 이제 이들 탈락 각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5.2.1 자음소탈락

[1] /ㅎ/ 탈락

/ㅎ/ 탈락이란 성문음소인 /ㅎ/가 유성음소들 사이에서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음운과정은 어간과 어미 /-어도/나 /-은/이 통합하는 경우에 발견된다. 그러면 다음의 자료를 대상으로 이러한 /ㅎ/ 탈락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미 / 어간	A. /-어도/	B. /-은/	C. /-고/
(1) /좋:-/(好)	[조:아도]	[조:은]	[조:코]
(2) /싫-/(厭)	[시러도]	[시른]	[실코]
(3) /많:-/(多)	[마:나도]	[마:는]	[만:코]

먼저 (1)~(3)의 어간과 어미 /-고/가 통합된 {(1)~(3)}-C의 음성형에서 발견되는 사실은 어간과 통합한 /고/가 [코]로 실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미초의 /ㄱ/가 /ㅋ/로 된 다음 [ㅋ]로 실현된 것임을 말해 준다. 국어에서 /ㄱ/와 /ㅎ/가 축약되면 /ㅋ/가 되므로(예. 착하다[차카다], 떡하고[떠카고]), {(1)~(3)}-C의 음성형은 각각 각각 [좋:-고], [싫-고], [많:-고]로 분석된다. 이 때에 분석된 어간은 (1)-(3)에 제시된 기저형 어간과 동일하다.

그런데 (1)~(3)의 어간과 어미 /-어도/ 및 /-은/이 통합할 때의 음성형 {(1)~(3)}-A와 {(1)~(3)}-B를 분석하면 어간말의 /ㅎ/가 탈락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즉 {(1)~(3)}-A의 음성형은 각각 [조:-아도], [실-어도], [만:-아도]으로 분석되며, {(1)~(3)}-B의 음성형은 각각 [조:-은], [실-은], [만:-은]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분석된 음성형의 어간과

(1)~(3)의 기저형 어간을 대조하면, 기저형 어간말의 /ㅎ/가 탈락한 것을 알 수 있다.

[2] 자음소군단순화

자음소군이란 중간에 형태소 범주 기호 'ㅣ' 이외에 아무런 경계 요소를 가지지 않은 자음소들의 연속체를 말한다. 국어에서 자음소군은 다음 세 경우에 존재할 수 있다. (1) 어간말에 자음소군이 있는 경우, (2)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 (3) /ㄹ/로 끝나는 어간과 /으/로 시작하는 폐음절 어미가 통합하여 어미의 /으/가 탈락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어간말의 자음소군을 /XVC_1C_2(-)/, /ㄹ/로 끝나는 어간을 /XVㄹ-/로 표시하고 통합하는 어미를 /-C_3VY/나 /-으C_3/로 표시하면, 어간말 위치에서 자음소군은 그 뒤에 모음소가 없는 한 C_1이나 C_2 중 하나만 음성으로 실현될 수 있다[/XVC_1C_2(-)/=/XVC_1C_2/(명사)나 /XVC_1C_2-/(동사어간)]. 그리고 모음소와 모음소 사이, 즉 /VC_1C_2ㅣC_3V/에서는 C_1C_3나 C_2C_3와 같이 두 개의 자음소만이 음성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Vㄹㅣ으C_3/에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된 /VㄹㅣC_3/에서는 C_3만 음성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은 음절말과 음절초에서는 하나의 자음소만 음성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국어의 음성음절구조제약 때문이다. 이처럼 음성적인 음절구조제약 때문에 자음소군에서 자음소가 탈락되는 음운과정을 자음소군단순화라고 한다. 다음의 자료에서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어미 / 어간	A. /-{이, 어도, 은, 을}/	B. /-{도, 니}/	C. /-{만, 고}/
(1) /넋/ (魂)	[넉], [넉시], [넉슨]	[넉또]	[넝만]
(2) /홅-/(扱)	[홀터도], [홀튼], [홀틀]	[홀리]	[홀꼬]
(3) /불:-/(吹)	[부러도], [분:]	[부:니]	[불:고]

먼저 (1)~(3)의 어간이 어미 /-이/나 /-어도/와 통합한 {(1)~(3)}-A의 음성형 중 [넉시], [홀터도], [부러도]를 분석하면 각각 [넋-이], [홅-어도], [불-어도]가 되어, 분석된 음성형 어간이 (1)~(3)의 기저형 어간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의 어간이 그 자체로 발음되거나 어미 /-도/나 /-만/과 통합할 때의 음성형 (1)-{A, B, C}를 분석하면, 기저형 어간을 구성하는 어간말의 /ㅅ/가 탈락되었음을 발견한다.

한편 (2)의 어간이 어미 /-니/나 /-고/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 (2)-{B, C}와 (3)의 어간이 폐음절의 /으/를 가진 어미 /-은/이나 어미 /-니/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 (3)-{A, B}를 분석하면, 각각 기저형 어간을 구성하는 어간말의 /ㅌ/와 /ㄹ/가 탈락되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탈락은 위에서 논의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자음소군단순화이다.

5.2.2 유음소탈락

유음소탈락이란 기저형에 존재하는 유음소 /ㄹ/가 음성으로 실현되기 전에 탈락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이 음운과정은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먼저 (1)~(3)의 어간이 어미 /-어도/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 {(1)~(3)}-B를 분석하면, 각각 [빌-어도], [알-아도], [살-아도]가 된다(이 경우 어간이 단모음(短母音)으로 된 것은 5.1.2 [4]를 참조할 것). 또 (1)~(3)의 어간과 어미 /-고/가 통합한 음성형 {(1)~(3)}-C를 분석

하면, 각각 [빌:-고], [알:-고], [살:-고]가 된다. 이 경우에 음성형 {(1)~(3)}-B와 {(1)~(3)}-C에서 분석된 음성형 어간은 모두 어간말에 /ㄹ/를 가지고 있어 (1)~(3)의 기저형 어간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어미 / 어간	A. /-니/	B. /-어도/	C. /-고/
(1) /빌:-/(祈)	[비:니]	[비러도]	[빌:고]
(2) /알:-/(知)	[아:니]	[아라도]	[알:고]
(3) /살:-/(生)	[사:니]	[사라도]	[살:고]

한편 (1)-(3)의 어간과 어미 /-니/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을 분석하면 각각 [비:-니], [아:-니], [사:-니]가 된다. 이렇게 분석된 음성형 어간을 (1)-(3)의 기저형 어간과 대조하면, 기저형 어간의 말자음소 /ㄹ/가 탈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음운환경에서 /ㄹ/가 탈락하는 음운과정이 /ㄹ/ 탈락이다.

5.2.3 활음소탈락

활음소탈락이란 통시적이나 공시적으로 일정한 음소 뒤에서 활음소가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통시적인 활음소탈락은 형태소 내부에서 어떤 음소 뒤에 존재하던 활음소가 탈락하는 것이며, 공시적인 활음소탈락은 형태소 경계에서 활음소화에 의하여 형성된 활음소가 일정한 자음소 뒤에서 다시 탈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의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중세국어	현대국어
(1) /:셤/(島) cf. /섬/(階)	/섬:/(島) cf. /섬/(階)
/쇼/(牛) cf. /숑/(潭)	/소/(牛) cf. /소/(潭)
/져/(箸) cf. /저/(自)	/저/(箸) cf. /저/(自)
/쵸/(燭) cf. /초/(酸)	/초/(燭) cf. /초/(酸)

어미 / 어간	A. /-어도/	B. /-고/
(2) /지-/(負)	(져도 →) [저도]	[지고]
/찌-/(蒸)	(쪄도 →) [쩌도]	[찌고]
/만지-/(觸)	(만져도 →) [만저도]	[만지고]
/다치-/(傷)	(다쳐도 →) [다처도]	[다치고]

먼저 (1)에서, 중세국어에서는 /셤/(島)과 /섬/(階), /쵸/(燭)와 /초/(醋) 등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였다. 짝을 이루는 두 단어는 활음소 /j/의 유무(有無)로써 구별되었다. 그러던 것이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러 구개음소화가 발생하면서 /ㅅ, ㅆ/나 /ㅈ, ㅊ, ㅉ/ 뒤에 있던 /j/가 탈락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국어에서 그 단어들은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가 되었다. 이 때의 활음소탈락은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통시적인 것이다.

한편 (2)에서, 제시된 어간과 어미 /-고/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 (2)-B를 분석하면, 분석된 음성형 어간이 (2)에 제시된 기저형 어간과 동일하게 모두 '이'로 끝남을 알려준다. 그런데 이들 어간에 어미 /-어도/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 (2)-A를 분석하면, 각각 [ㅈ-어도], [ㅉ-어도], [만ㅈ-어도], [다ㅊ-어도]가 된다. 이렇게 분석된 음성형 어간과 기저형 어간을 대조하면 기저형 어간의 말모음소 /이/가 모두 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기-/(匍匐), /이기-/(勝) 등 어간이 /이/로 끝나는 경

우에, 어간말의 /이/는 어미 /-어도/와 통합하면, 각각 [겨:도], [이겨도] 등과 같이, 활음소화한다는 사실을 보았다(5.1.2 [1]을 참조). 그러므로 (2)에서도 어간말의 /이/는 어미 /-어도/와 통합하면 활음소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활음소가 음성형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은 활음소 /j/와 경구개음소의 조음 위치가 동일하므로, 경구개음소 뒤에서 활음소 /j/가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활음소탈락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공시적인 것이다.

5.2.4 모음소탈락

모음소탈락이란 어간말이나 어미초의 모음소가 어떤 어미나 어간과 통합하는 경우에 탈락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다음의 자료에서 그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어미 / 어간	A. /-어도/	B. /-고/	C. /-으니/
(1) /쓰-/(用)	[써도]	[쓰고]	[쓰니]
(2) /가-/(去)	[가도]	[가고]	[가니]
(3) /막-/(防)	[마가도]	[막꼬]	[마그니]

위에서 (1), (2)의 어간과 어미 /-고/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 {(1), (2)}-B는 각각 [쓰-고], [가-고]와 분석되며, (3)의 어간과 어미 /-어도/나 /-으니/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 (3)-A와 (3)-C는 각각 [막-아도]나 [막-으니]로 분석된다. 그 결과 분석된 음성형의 어간이나 어미는 (1)~(3)이나 A~C의 기저형 어간이나 어미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의 어간과 어미 /-어도/가 통합한 음성형 (1)-A를 분석하

면, 기저형 어간 모음소 /으/가 탈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1)과 (2)의 어간과 어미 /-으니/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 {(1), (2)}-C를 분석하면, 기저형 어미의 첫 음소 /으/가 탈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의 어간과 어미 /-어도/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 (2)-A를 분석하면, 기저형 어간의 /아/나 어미의 /어/ 중 어느 하나가 탈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어간말 /으/ 탈락, 어미초 /으/ 탈락, 어간말 /아/나 어미초 /어/ 탈락은 모두 모음소탈락이다.

5.3 삽입

국어의 음운과정 중에서 삽입은 그 종류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다음의 자료에서 두 종류의 음소 삽입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자음소삽입이고 다른 하나는 활음소삽입이다. (1)의 /혼니불/에서 보듯이, 두 명사가 통합하여 형성된 복합명사를 분석할 때 확인되는 /ㄴ/ 삽입은 자음소삽입에 해당한다. 그리고 (2)의 /보와도/에서 보듯이, 어간과 어미 /-어도/가 통합된 음성형을 분석할 때 확인되는 /w/ 삽입은 활음소삽입에 해당한다.

어간 \ 기타, 어미	복합명사, /-어도/
(1) /홑/(單), /이불/(衾)	/혼니불/
(2) /보-/(示)	[보와도] cf. [보아도], [봐:도]

5.3.1 자음소삽입: /ㄴ/ 삽입

자음소삽입 중 /ㄴ/ 삽입이란 일정한 음운환경에서 /ㄴ/가 삽입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ㄴ/ 삽입은 통시적인 것과 공시적인 것이 있다.

전시기 국어	현대국어
(1) 더디-(投) (ᄒᆞᄫᆞᅀᅡ>)호ᅀᅡ>호자(獨)	던지- 혼자
어간과 어미	**음성형**
(2) /노라ㅣ은/(黃), /잎/(葉) /먹ㅣ은/(食), /약/(藥)	[노란닙] [머근냑]

위의 자료 중 (1)에서, 현대국어형 /던지-/와 /혼자/는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는 어간에 /ㄴ/를 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대국어형의 /ㄴ/는 근대국어와 현대국어 사이의 어느 시기에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ㄴ/ 삽입은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통시적인 것이다.

또 (2)에서, /노라ㅣ은/(黃)과 명사 /잎/(葉), /먹ㅣ은/(食)과 명사 /약/(藥)이 통합할 때의 음성형 [노란닙]과 [머근냑]에서 명사만을 분석하면 각각 [노란-ㄴ-입]과 [머근-ㄴ-약]이 된다. 이 때에 분석된 관형어와 명사 사이의 'ㄴ'은 기저형에 존재하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형사형 어미(/-은/)와 명사(/잎/, /약/)가 통합하는 경우에 'ㄴ'이 삽입된 후 음성으로 실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ㄴ/ 삽입은 공시적인 것이다.

5.3.2 활음소삽입

활음소삽입이란 동사 어간과 어미 /-어도/, 명사와 어미 /-에/가 통합하는 경우에 활음소 /j/나 /w/가 삽입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어미 \ 어간	A /-{어도, 에}/	B. /-{고, 도}/
(1) /떼:-/(分離)	[떼여도], [떼어도], [떼:도]	[떼:고]
/이기-/(勝)	[이기여도], [이기어도], [이겨도]	[이기고]
(2) /주-/(授)	[주워도], [주어도], [줘:도]	[주고]
(3) /뒤:/(後)	[뒤:예], [뒤:에]	[뒤:도]
/사이/(間)	[사이예], [사이에]	[사이도]

예를 들어, 위의 자료 (1), (2)에서 보듯이, 어간 /떼:-/와 /주-/에 어미 /-어도/가 통합하면, 그것들은 각각 세 가지의 음성형으로 실현될 수 있다. [떼여도], [떼어도], [떼:도]와 [주워도], [주어도], [줘:도]가 그것이다. 그리고 (3)에서 명사 /뒤:/에 어미 /-에/가 통합하면, 그것은 두 가지의 음성형 [뒤:예], [뒤:에]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1), (2)의 어간에 어미 /-고/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 {(1), (2)}-B와 (3)의 어간에 어미 /-도/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 (3)-B를 분석하면, 각각 [떼:-고], [이기-고], [주-고]와 [뒤:-도], [사이-도]가 된다. 이렇게 분석된 어간은 (1)~(3)의 기저형의 어간과 동일하다. 다음에 {(1)~(3)}-A의 두 번째 음성형을 분석하면 각각 [떼-어도], [이기-어도], [주-어도], [뒤:-에], [사이-에]가 되는데, 이 때에 분석된 어미 [-어도]와 [-에]는 A에 제시된 기저형 어미와 동일하다.

다음에 {(1)~(3)}-A의 첫 번째 음성형을 분석하면, 그들 음성형은 각각 [떼-j-어도], [주-w-어도], [뒤:-j-에]가 된다. 이렇게 분석된 음성

형에서 어간과 어미를 제외하면 [j]와 [w]가 남는데, 그것들은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어간과 어미가 통합하여 음성형으로 실현되기 전의 어느 단계에서 삽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4 축약

축약이란 두 개의 음소나 운소가 합쳐져서 그 언어에 있는 어느 하나의 음소나 운소로 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A	B
(1) /좋:] 고/(好)	[조:코]
(2) /새(saj)/(鳥) 〈중세국어〉	/새(sɛ)/ 〈현대국어〉
(3) /부텨(LL)] 이(H)/	[부톄(LR)] 〈중세국어〉

예를 들어, 위의 자료 (1)에서, 음성형 (1)-B에 실현되어 있는 [ㅋ]는 기저형의 어간말 /ㅎ/와 어미초의 /ㄱ/가 합쳐진 것이다. 그리고 (2)에서, 중세국어의 /새(saj)/는 이중모음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단(單)모음소로 되어 있다. 이중모음소 /애(aj)/는 두 개의 음소 /아/와 /j/로 분석되며 이 두 음소가 단모음 /애(ɛ)/로 된 것은 두 음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음소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1)-B의 [ㅋ]가 음성으로 실현되기 이전의 /ㅋ/는 두 음소 /ㅎ/와 /ㄱ/가 축약된 것이고, (2)-B에서 /애(ɛ)/는 두 음소 /아/와 /j/가 축약된 것이다. (1)-B에서의 축약을 자음소축약, (2)-B에서의 축약

을 모음소축약이라 한다. 그리고 (1)-B의 축약은 활용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공시적인 것이고 (2)-B의 축약은 형태소 내부에서 변한 것이므로 통시적인 것이다.

위의 {(1), (2)}-B에서 확인되는 축약과는 달리, (3)-B에서 확인되는 것은 운소축약 중 성조소축약이다. 중세국어에는 L(저조소=평성), H(고조소=거성), R(상승조소=상성)의 세 성조소가 성조체계를 구성하고 있었다(이 시기에 /몰/(馬), /말/(斗), /말/(語)은 각각 L, H, R의 성조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 시기에 명사 /부텨/(佛)의 성조소형은 LL이고 주격어미 /이/의 성조소는 H인데, 이들 어간과 어미가 통합하면, (3)-B에서 보듯이, '톄'가 R(상승조소)로 된다. 이 때의 R은 두 개의 성조소 L과 H가 축약된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음운의 축약에는 자음소축약과 모음소축약, 성조소축약 등이 있다. 두 개의 자음소가 합쳐져서 유기음소으로 되는 자음소축약을 유기음소화라고 하고, 모음소와 /j/가 합쳐져서 단(單)모음소로 되는 모음소축약을 단(單)모음소화라고 한다.

5.5 도치

음운론에서 도치란 형태소를 구성하고 있는 음소가 그 위치를 바꾸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국어의 경우에 도치는 통시적인 것에 한정된다.

전시기 국어	현대국어
(1) /빗복/(臍)	/배꼽/
(2) /하야로비/(鵁鶄)	/해오라비/

위의 자료에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 먼저 (1)에서, 전시기 국어형 /빗복/과 현대국어형 /배꼽/을 로마자 표기로 바꾸면 각각 /pʌjspok(빗복)/과 /pɛk'op(배꼽)/이 된다. 여기서 현대국어의 어형을 이중모음소의 단모음소화 이전 시기의 표기형으로 환원하면 pajskop(배쏩)이 된다. 이것을 /빗복/의 로마자 표기형과 자음소만 대조하면, 끝 음절의 /p(ㅂ)/와 /k(ㄱ)/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에서, 현대국어형 /해오라비/의 로마자 표기형 /hɛolapi/를 이중모음소의 단모음소화 이전 시기의 표기형으로 환원하면 hajolapi가 된다. 이것을 전시기 국어형 /하야로비/의 로마자 표기형 /hajalopi/와 대조하면, /l(ㄹ)/ 전후에 있는 모음소 /a(아)/와 /o(오)/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과 (2)에서 현대국어형은 그에 해당하는 전시기 국어형의 두 자음소와 두 모음소의 위치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 자음소들의 위치가 바뀐 것을 자음소도치라 하고 모음소들의 위치가 서로 바뀐 것을 모음소도치라 한다.

요약

음운과정이란 기저형 내에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화 또는 어간의 기저형과 어미의 기저형이 통합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을 말한다. 국어에는 여러 가지의 음운과정이 있지만, 그것들은 대개 교체(交替), 탈락(脫落), 삽입(挿入), 축약(縮約), 도치(倒置)라는 다섯 개의 범주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

교체란 주로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그 경계에 있는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변동하는 것을 말하며, 탈락이란 형태소(기저형) 경계에서 형태소(기저형)를 구성하는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삽입이란 형태소 경계에서 형태소에 존재하지 않는 음운이 더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축약이란 형태소 경계에 있는 두 음운이 합쳐져서, 그 언어에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음운으로 되는 것을 말하며, 도치란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음운들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1] 교체

국어에 존재하는 교체에는 자음소교체로서 평파열음소화(平破裂音素化), 자음소동화(同化)와 경음소화(硬音素化)가 있고 모음소교체로서 활음소화(滑音素化), 모음소동화, 비원순모음소화(非圓脣母音素化)와 단모음소화(短母音素化) 등이 있다.

평파열음소화란 어간말의 자음소가 그 위치에서, 그리고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평파열음소 /ㅂ/, /ㄱ/나 /ㄷ/ 중의 하나로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미파화(未破化), 평음화(平音化), 불파화(不破化)라고도 한다. 자음소동화란 자음소가 인접한 모음소나 자음소의 자질에 영향을 받아 그와 동일한 자질값을 가지게 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ㄷ/와 /ㄱ/의 구개음소화와 비음소화 등이 그러한 예가 된다. 경음소화란 평음소가 경음소로 되는 것을 말한다. 경음소화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음운과정을 거쳐서 일어난다. 하나는 음운론적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운론적 환경의 제약을 받고 일어나는 것이다. 앞의 경음소화는 통시적인 것이고 뒤의 경음소화는 공시적인 것이다.

활음소화란 모음소가 활음소 /w/나 /j/로 되는 것을 말한다. 비음절화(非音節

化), 반모음소화라고도 한다. 비원순모음소화란 원순모음소가 비원순모음소, 즉 평순모음소로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단(短)모음소화란 장모음소(長母音素)가 단모음소(短母素音)로 되는 것을 말한다.

[2] **탈락**

탈락은 크게 자음소탈락, 유음소탈락, 활음소탈락 그리고 모음소탈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음소탈락에는 /ㅎ/ 탈락과 자음소군단순화 등이 있으며 유음소탈락에는 /ㄹ/ 탈락이 있다. 그리고 활음소탈락에는 /w/ 탈락과 /j/ 탈락이 있고 모음소탈락에는 어간말 /으/ 탈락, 어미초 /으/ 탈락, 어간말 또는 어미초 /아/나 /어/ 탈락 등이 있다.

/ㅎ/ 탈락이란 어간말의 /ㅎ/가 유성음소 사이에서 탈락되는 음운과정을 말하며 자음소군단순화란 음성음절구조제약 때문에 자음소군에서 자음소가 탈락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ㄹ/ 탈락이란 /ㄹ/가 음성으로 실현되기 전에 탈락되는 것을 말한다.

활음소탈락이란 통시적이거나 공시적으로 일정한 음소 뒤에서 활음소 /w/나 /j/가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통시적인 활음소탈락은 형태소 내부에서 어떤 음소 뒤에 존재하던 활음소가 탈락하는 것이며, 공시적인 활음소탈락은 형태소 경계에서 활음소화에 의하여 형성된 활음소가 일정한 자음소 뒤에서 다시 탈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간말 /으/ 탈락이란 어미와의 통합에서 어간말의 /으/가 탈락되는 음운과정을 말하며, 어미초 /으/ 탈락이란 어간과의 통합에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간말 또는 어미초 /아/나 /어/ 탈락이란 어미 또는 어간과의 통합에서 어간말 또는 어미초의 /아/나 /어/가 탈락하는 것이다.

[3] **삽입**

국어의 음운과정 중에서 삽입은 그 종류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 삽입에는 자음소삽입과 활음소삽입이 있다. 자음소삽입 중 /ㄴ/ 삽입은 일정한 음운환경에서 /ㄴ/가 삽입되는 음운과정을 말하며, 활음소삽입은 동사 어간과 어미 /-어도/, 명사와 어미 /-에/가 통합하는 경우에 활음소 /j/나 /w/가 삽입되는 음운과정을 말한다.

[4] 축약

축약은 음소의 축약과 운소의 축약으로 구분된다. 음소의 축약은 다시 자음소축약과 모음소축약으로 구분된다. 자음소축약의 예로는 유기음소화가 있고 모음소축약의 예로는 이중모음소의 단(單)모음소화가 있다. 그리고 운소축약의 예로는 중세국어에서의 상성화가 있다.

[5] 도치

도치는 자음소도치와 모음소도치로 구분된다. 국어에서 도치는 통시적인 것에 한정되며 이 음운과정은 개별 단어에서만 발견된다.

연습문제 5

1. 다음은 '교체'를 보이는 자료들이다. 각 자료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음운과정의 이름을 말하라.

a. /무릎/ → [무릅](膝)
b. /있] 지/ → [읻찌](有)
c. /앞] 만/ → [암만](前)
d. /티-/ 〉 /치-/(打)
e. /플/ 〉 /풀/(草)
f. /즐-/ 〉 /질-/(泥)
g. /믿] 는다/ → [민는다](信)
h. /안:] 지/ → [안:찌](抱)
i. /비:] 어도/ → [벼:도](空)

2. 다음은 '탈락'을 보이는 자료들이다. 각 자료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음운과정의 이름을 말하라.

a. /싫] 어도/ → [시러도](厭)
b. /빌:] 으시] 고/ → [비:시고](祈)
c. /알:] 읍니다/ → [압:니다](知)
d. /크] 어도/ → [커도](大)
e. /밟:] 지/ → [밥:찌](踏)
f. /지] 어도/ → [저도](負)

3. 다음은 '삽입'을 보이는 자료들이다. 각 자료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음운과정의 이름을 말하라.

a. / [$_w$뒷] $_w$ [$_w$일] $_w$ / → [뒨닐](後事)
b. /놓] 어도/ → [노와도](放)
c. /영자] 아/ → [영자야](人名)
d. (/더디-/〉)/더지-/ 〉 /던지-/(投)

4. 다음은 '축약'을 보이는 자료들이다. 각 자료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음운과정의 이름을 말하라.

a. /긇] 더라/ → [끈터라](切)
b. (/가히/〉) /가이/ 〉 /개/(犬)
c. /잡] 히-/ 〉 /자피-/(被執)
d. /요사이/ 〉 /요새/(近日)

5. 다음에 제시된 자료 중 ㉮는 기저형이고 ㉯는 그에 대한 음성형이다. 기저형에서 음성형으로 실현될 때에 거치는 구체적인 음운과정을 말하고 그 결과를 '교체, 탈락, 삽입, 축약'으로 분류하라.

a. ㉮ /이 곳-에-는 밭-도 많:-고 논-도 많:-지만 빛-이/
㉯ [이 고세는 받또 망:코 논도 만:치만 바치]

㉮ /논-보다 많:-어서 사:람-들-이 좋:-어 하-지 않-는다/
㉯ [논보다 마:나서 사:람드리 조:아 하지 안는다]

b. ㉮ /피리 불-읋 사:람-도 없:-고 북-을 치-읋 사:람-도 없:-는데/
㉯ [피리 불 싸:람도 업:꼬 부글 칠 싸:람도 엄:는데]

㉮ /영수-아 영철-아 그들-을 찾-지 말:-고 너희-가 애쓰-어/
㉯ [영수야 영처라 그드를 차찌 말:고 너희가 애써]

㉮ /배우-었-던 기술-을 마음 놓-고 펼치-어 보-아라/
㉯ [배웓떤 기수를 마음 노코 펼처 봐:라]

제6장 음운과정과 음운규칙

동사의 어간 /잡-/(執)과 어미 /-는다/가 통합한 기저형 /잡 ǀ 는다/에 대한 음성형은 [잠는다]이다. 이 경우에 기저형과 음성형을 대조해 보면, 어간말의 /ㅂ/가 음성형에 [ㅁ]로 실현되어 있는데, [ㅁ]는 /ㅂ/가 /ㅁ/로 변동한 다음에 실현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어간 /잡-/(執)과 어미 /-고/, /-지/가 통합한 /잡 ǀ 고/, /잡 ǀ 지/에 대한 음성형 [잡꼬]나 [잡찌]를 대조해 보자. 이 경우에는 어간말의 /ㅂ/가 아무 변동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동일한 어간과 어미 /-는데/나 /-니/가 통합한 /잡 ǀ 는데/나 /잡 ǀ 니/의 음성형 [잠는데]나 [잠니]에서, 기저형과 음성형을 대조하면, 어간말의 /ㅂ/가 [ㅁ]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ㅁ]도 어간말의 /ㅂ/가 /ㅁ/로 변동된 다음에 실현되는 것이다.

위에서 어간말의 /ㅂ/가 /ㅁ/로 변동하는 것과 같이, 기저형의 형태음소가 음성형으로 실현되기 전까지 교체, 탈락, 축약, 도치되거나 다른 형태음소가 첨가되는 것을 음운과정이라 한다. 이러한 음운과정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어간말의 /ㅂ/가 /ㅁ/로 변동하는 것은 일정한

환경 아래서만 일어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어간말의 /ㅂ/가 /ㅁ/로 변동하는 것은 어미가 /ㄴ/로 시작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와 같이 어떤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것을 음운규칙이라 하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낸다.

(1) a → c / X__] bY

(2) b → c / Xa] __Y

이 규칙에서 사선(/)의 왼쪽은 변동의 내용을 나타내며, 오른쪽은 그 변동이 일어나는 환경을 나타낸다. 오른쪽의 환경에서 '__'는 a나 b의 위치를 나타낸다. 그리하여 위의 규칙 (1)은 '어간말의 a는 어미초의 b 앞에서 c로 변동한다'는 것을 말하며 규칙 (2)는 '어미초의 b는 어간말의 a 뒤에서 c로 변동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잡-/(執)의 어간말 자음소 /ㅂ/가 /ㅁ/로 변동하는 음운과정은 어미가 /ㄴ/로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어나므로, 이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은 'ㅂ → ㅁ/ X—] ㄴY'로 나타낼 수 있다.[쉼]

쉼

/ㄴ/로 시작하는 어미는 /-ㄴY/로 나타낸다. 여기서 Y는 변항으로서 '-ㄴY'는, '-니, -느냐, -는데' 등과 같이, /ㄴ/로 시작하는 모든 어미를 나타낸다. 한편 모든 어간말 자음 /ㅂ/는 /Xㅂ-/로 나타낸다. 여기서 X는 변항으로서 'Xㅂ-'는 어간말에 /ㅂ/를 가지는 모든 어간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규칙은 /잡-/의 어간말 /ㅂ/만이 /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경우에 각각 /ㅁ/로 변동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 규칙은 /-는다/, /-는데/, /-니/뿐만 아니라 /-는/, /-느냐/, /-는지/ 등 그 어미가 /ㄴ/로 시작하기만 하면, 그 /ㄴ/ 앞에서 /입-/(着衣), /집-/

(拈), /밉-/(憎), /맵-/(辛), /굽-/(曲) 등 모든 어간말 자음소 'ㅂ'뿐 아니라 /덮-/(覆), /갚-/(報), /높-/(高) 등의 /ㅍ/도 평파열음소화하여 /ㅂ/가 된 뒤에 /ㅁ/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 니/(着衣), /집] 니/(拈), /밉] 니/(憎)나 /덮] 니/(覆), /갚] 니/ (報), /높] 니/(高)가 각각 [임니], [짐니], [밈니]나 [덤니], [감니], [놈니]로 실현되는 데에서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그 규칙은 어미가 /ㄴ/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런 어미 앞에서는 어간말 자음소 /ㅂ/가 /ㅁ/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제5장에서 논의된 여러 종류의 음운과정을 대상으로 그러한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음운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음운론에서 말하는 규칙은 규칙 안에 음운론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느냐, 형태론적이거나 통사론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음운규칙과 형태음운규칙으로 구별할 수 있다.

/-으며, -으니; -으로/나 /-은, -을/ 등과 같이, /으/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개음절의 /으/는, 동사나 명사의 구별 없이, 어간이 모음소나 /ㄹ/로 끝나기만 하면 그 어간 뒤에서 다음과 같이 탈락한다.

/가] 으며/ → [가며](去)
/울:] 으며/ → [울:며](泣)
/시:내] 으로/ → [시:내로](市內)
/물] 으로/ → [물로](水)

그러나 폐음절의 일부를 이루는 /으/는 모음소나 /ㄹ/로 끝나는 동사 뒤에서만 탈락할 뿐, /ㄹ/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탈락하지 않는다.

/가] 은/ (사람) → [간](去)

/울:] 은/ (사람) → [운:](泣)

/물] 은/ → [무른](水)(*[문])

이 경우에 개음절을 이루는 어미의 첫 음소 /으/의 탈락을 지배하는 규칙은 '으 → ø / X {V, ㄹ}] _σ'로 나타낼 수 있고, 폐음절의 일부를 이루는 어미의 첫 음소 /으/의 탈락을 지배하는 규칙은 '으 → ø / X {V, ㄹ} $]_{Vst}$ _Cσ'로 나타낼 수 있다. 두 규칙 중에서 앞의 것은 규칙 안에 'N(명사)'나 'Vst(동사어간)' 등과 같은 형태론적인 제약이 없다. 즉 앞의 것은 음운론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다. 이런 규칙을 음운규칙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뒤의 것은 규칙 안에 Vst, 즉 '동사어간'이라는 형태론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규칙을 형태음운규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 다루어질 대상은, 국어에서 일어나는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규칙 중 그 안에 음운론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는 음운규칙이다. 음운과정과 마찬가지로, 음운규칙은 교체규칙, 탈락규칙, 축약규칙으로 구분할 것이다.

6.1 교체규칙

교체규칙은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그 경계에 있는 어떤 음소가 다른 음소로 교체되는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은 앞에서 제시한 음운규칙 (1), (2)와 같다. 규칙 (1)에서 a가 c로 교체되는 것은 b의 자질에 영향을 받아 음소 a의 자질값이 바뀌는 것이므로,

교체규칙을 자질변환규칙이라고도 한다. 음운규칙으로서의 교체규칙은 자음소교체규칙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파열음소화규칙과 자음소동화규칙이 있다.

[1] 평파열음소화규칙

우리가 第5장에서 본 평파열음소화는 양순음소와 연구개음소의 평파열음소화로, 양순음소 /ㅍ/와 연구개음소 /ㄲ, ㅋ/가 어간말의 위치에서 또는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각각 /ㅂ/와 /ㄱ/로 교체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어에서 평파열음소화는 양순음소와 연구개음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치경음소와 경구개음소 그리고 성문음소도 그러한 환경에서 평파열음소화한다. 다음 예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믿-(信): /믿 | (지)/ → [믿] 또는 [믿찌]
밑 (底): /밑 | (도)/ → [믿] 또는 [믿또]
맡-(臭): /맡 | (지)/ → [맏] 또는 [맏찌]
옷 (衣): /옷 | (도)/ → [옫] 또는 [옫또]
웃-(笑): /웃 | (지)/ → [욷] 또는 [욷찌]
있-(有): /있 | (지)/ → [읻] 또는 [읻찌]
낮 (晝): /낮 | (도)/ → [낟] 또는 [낟또]
젖-(潤): /젖 | (지)/ → [젇] 또는 [젇찌]
꽃 (花): /꽃 | (집,家)/ → [꼳] 또는 [꼳찝]
쫓-(追): /쫓 | (지)/ → [쫃] 또는 [쫃찌]
놓-(防): /놓 | (는)/ → /녿/ 또는 /녿 (는)/, /녿 는/ → [논는]

어간말의 치경음소 /ㄷ, ㅌ, ㅅ, ㅆ/와 경구개음소 /ㅈ, ㅊ/는 그 위치에서 또는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모두 평파열음소화하여 /ㄷ/로 교체되며, 어간말의 성문음소 /ㅎ/는 그 위치에서 또는 유기음소를 대립의 짝으로 가지지 않는 음소, 즉 /ㄴ, ㅅ/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평파열음소화하여 /ㄷ/로 교체된다.

예.
/좋] 니/ → /졷 니/ (→ /존 니/ → [존니]),
/좋] 소/ → /졷 소/ (→ /졷 쏘/ → /좃 쏘/ → /조 쏘/ → [조쏘]).

따라서 국어에서 /ㄴ, ㅁ, ㅇ, ㄹ/를 제외한 자음소들은 어간말의 위치에서나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다음과 같이 평파열음소화한다.

ㅂ	ㄷ	ㅅ	ㅎ	ㅈ	ㄱ
ㅃ	ㄸ	ㅆ	ㆆ	ㅉ	ㄲ
ㅍ	ㅌ			ㅊ	ㅋ

] (C)

↓ ㅂ　↓ ㄷ　↓ ㄱ

위의 사실을 규칙으로 나타낼 경우, 국어의 평파열음소화를 지배하는 음운규칙은 다음과 같다.

- {ㅂ, ㅃ, ㅍ} → ㅂ / X __] (C)
- {ㅅ, ㅆ, ㅈ, ㅉ, ㅊ, ㄷ, ㄸ, ㅌ, ㅎ, ㆆ} → ㄷ / X __] (C)
- {ㄱ, ㄲ, ㅋ} → ㄱ / X __] (C)[41]

둘 이상의 교체규칙이 공통의 부분을 가질 경우에, 그 부분을 하나로 나타냄으로써 그들 규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소괄호 ( ), 중괄호 { }, 대괄호 [ ] 등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몇 개의 규칙을 좀더 간략하게 했을 때에, 언어학적으로 의의 있는 일반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 소괄호 ( )의 사용: 그것에 둘러 싸인 기호가 임의로 선택됨을 나타낸다. 'A → B / C(D)'이 그 예가 된다. 이 규칙은 ( )를 풀었을 때의 규칙과 ( ) 속의 것을 제외했을 때의 규칙, 즉 규칙 'A → B / CD' 와 'A → B / C'를 합한 것이다.

- 중괄호 { }의 사용: 그것에 둘러 싸인 두 개 이상의 기호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선택됨을 나타낸다. 다음의 규칙이 그 예가 된다. 이 규칙은 두 개의 규칙 'A → B / C'와 'A → B / D'를 합한 것이다.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괄호 속의 기호를 {C, D}로도 나타낼 수 있으며 오른쪽의 '}'를 생략할 수도 있다.

$$A \rightarrow B \;/\; \begin{Bmatrix} C \\ D \end{Bmatrix} \text{ 또는 } A \rightarrow B \;/\; \{C,\ D\}$$

- 대괄호 [ ]의 사용: 대괄호는 항상 쌍으로 사용된다. 다음의 규칙이 그에 해당한다. 이 규칙에서 쌍을 이루는 대괄호 안의 기호들은 대칭으로만 서로 관련된다. 그러므로 제시된 규칙은 세 개의 규칙 'A → A'/ X __] NY'와 'B → B'/ X __] NY' 그리고 'C → C'/ X __] NY'를 합한 것이다.

$$\begin{bmatrix} A \\ B \\ C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A' \\ B' \\ C' \end{bmatrix} \;/\; X __ \,]\, NY$$

[2] 자음소동화규칙

우리는 제5장(5.1.1의 [2])에서 자음소동화 중 비음소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어의 자음소동화에는 비음소화 외에도 연구개음소화와 양순음소화 그리고 유음소화가 있다. 우리가 제5장에서 다룬 비음소화는 자음소동화라는 음운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일 뿐, 음운규칙을 논할 정도로 정밀하게 다룬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모든 자음소동화의 음운과정을 음운규칙과 관련시켜 다루기로 한다.

[2.1] 비음소화규칙

제5장에서 다룬 비음소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다음과 같다. 즉 명사와 동사의 어간말 자음소가 각각 /ㅂ/와 /ㄷ, ㅌ/와 /ㄱ/일 때에, 그들 자음소는 /ㅁ/나 /ㄴ/ 등 비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각각 해당 어간말 자음소와 동일한 조음위치의 비음소로 변동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간말의 /ㅂ/는 /ㅁ/로, /ㄷ, ㅌ/는 /ㄴ/로, /ㄱ/는 /ㅇ(ŋ)/로 변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료를 좀더 정밀하게 관찰하면, 비음소화는 어간말 자음소 /ㅂ, ㄷ, ㅌ, ㄱ/가 비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경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a. /잎] 만/ → [임만], /잎] 에/ → [이페](葉)
/덮] 는다/ → [덤는다], /덮] 어도/ → [더퍼도](覆)

b. /옷] 만/ → [온만], /옷] 에/ → [오세](衣)
/낮] 만/ → [난만], /낮] 에/ → [나제](晝)

/웃:] 는다/ → [운:는다], /웃:] 어도/ → [우서도](笑)
/있] 니/ → [인니], /있] 어도/ → [이써도](在)
/젖] 는다/ → [전는다], /젖] 어도/ → [저저도](濶)
/쫓] 는다/ → [쫀는다], /쫓] 어도/ → [쪼차도](追)
/놓] 는다/ → [논는다], /놓] 고/ → [노코](放)
/짛:] 는다/ → [진:는다], /짛:] 고/ → [지:꼬](作)

c. /밖] 만/ → [방만], /밖] 에/ → [바께](外)
/부엌] 만/ → [부엉만], /부엌] 에/ → [부어케](廚)
/꺾] 는다/ → [껑는다], /꺾] 어도/ → [꺼꺼도](折)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제5장에서 다룬 비음소화는 전체 비음소화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비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어간말 자음소의 비음소화는 어간말 자음소 /ㅂ, ㄷ, ㅌ, ㄱ/만이 아니라 어간말 자음소 /ㅍ, ㅅ, ㅆ, ㅈ, ㅊ, ㅎ, ㆆ, ㄲ, ㅋ/도 겪는 것이다.

이들 어간말 자음소들은 비음소화의 내용에 따라, 각각 /ㅁ/, /ㄴ/, /ㅇ(ŋ)/로 변동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분류에 따르면, /ㅁ/로 변동하는 것들은 /ㅂ, ㅍ/이고, /ㄴ/로 변동하는 것들은 /ㄷ, ㅌ, ㅅ, ㅆ, ㅈ, ㅊ, ㅎ, ㆆ/며, /ㅇ(ŋ)/로 변동하는 것들은 /ㄱ, ㄲ, ㅋ/이다. 이 세 부류는 어간말 위치에서나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각각 /ㅂ/, /ㄷ/, /ㄱ/로 평파열음소화하는 부류와 일치한다. 다만 비음소화의 경우에, /ㅁ/와 /ㄴ/로 변동하는 부류에 각각 /ㅃ/와 /ㄸ/가 없다는 점이 차이를 보이지만, 그것은 그들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이 국어에 없기 때문이다.

위의 사실에서 비음소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과정은 어간말 자음소들 /ㅂ, ㅍ/와 /ㄷ, ㅌ, ㅅ, ㅆ, ㅈ, ㅊ, ㅎ, ㆆ/와 /ㄱ, ㄲ, ㅋ/가 비음소 앞에서 평파열음소로 변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정은 평파열음소 /ㅂ/와 /ㄷ/와 /ㄱ/가 어미의 비음소 앞에서 각각 /ㅁ/와 /ㄴ/와 /ㅇ(ŋ)/로 변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음소화를 지배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 규칙은 어미의 비음소 앞에서 평파열음소화된 어간말의 /ㅂ/, /ㄷ/, /ㄱ/는 각각 동일 조음위치의 비음소로 변동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bullet \begin{bmatrix} \text{ㅂ} \\ \text{ㄷ} \\ \text{ㄱ}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ㅁ} \\ \text{ㄴ} \\ \text{ㅇ} \end{bmatrix} / \ X __ \,]\, \{\text{ㄴ, ㅁ}\}Y$$

[2.2] 연구개음소화규칙

명사 /집/(家)이 어미 /-까지/와 통합한 /집] 까지/나 동사 /잡-/(執)이 어미 /-고/와 통합한 /잡] 고/는 빨리 말하거나 가장 자연스럽게 말할 경우에 각각 [직까지]나 [작꼬]와 같은 음성형으로 실현된다. 물론 이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집까지]나 [잡꼬]와 같은 음성형이 실현되기도 한다. 이들 음성형 중 [직까지]나 [작꼬]형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면, 이들 음성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간말의 /ㅂ/가 /ㄱ/로 변동한 사실이다.

이러한 변동은 /집/(家)이 어미 /-도/나 /-조차/와 통합한 /집] 도/, /집] 조차/나 /잡-/(執)이 어미 /-지/와 통합한 /잡] 지/를 말할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때에는 각각 [집또], [집쪼차]나 [잡찌]와 같은 음성형만 실현될 뿐, [직또], [직쪼차]나 [작찌]와 같은 음성형은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간말 자음소 /ㅂ/는 /ㄱ/나 /ㄲ/로 시작하는 어

미와 통합할 때에 한하여 /ㄱ/로 변동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어간말 자음소 /ㅂ/를 /ㄱ/로 변동시키는 어미의 첫 음소에 /ㅋ/가 제외된 것은 /ㅋ/로 시작하는 어미가 국어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어간말 자음소 /ㅂ/의 변동음소 /ㄱ/가 연구개음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 문단에 있는 ' ' 안의 서술은 '어간말 자음소 /ㅂ/는 연구개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연구개음소로 변동한다'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어간말 자음소 /ㅂ/가 연구개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ㄱ/로 변동하는 것은 양순음소 /ㅂ/가 어미초의 연구개음소에 동화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동화를 연구개음소화라고 부르는 이유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어의 음운현상을 정밀하게 관찰하면, 연구개음소화하는 어간말 자음소는 /ㅂ/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a. /입ㅣ까지/ → [익까지] 또는 [입까지], /입ㅣ에/ → [이베](口)
/앞ㅣ까지/ → [악까지] 또는 [압까지], /앞ㅣ에/ → [아페](前)
/담ㅣ까지/ → [당까지] 또는 [담까지], /담ㅣ에/ → [다메](墻)
/곱:ㅣ고/ → [곡:꼬] 또는 [곱:꼬], /곱:ㅣ어도/ → [고:와도](麗)
/덮ㅣ고/ → [덕꼬] 또는 [덥꼬], /덮ㅣ어도/ → [더퍼도](覆)
/숨:ㅣ고/ → [숭:꼬] 또는 [숨:꼬], /숨:ㅣ어도/ → [수머도](隱)

b. /숯ㅣ까지/ → [숙까지] 또는 [숟까지], /숯ㅣ에/ → [수체](炭)
/옷ㅣ까지/ → [옥까지] 또는 [옫까지], /옷ㅣ에/ → [오세](衣)
/낮ㅣ까지/ → [낙까지] 또는 [낟까지], /낮ㅣ에/ → [나제](晝)
/안ㅣ까지/ → [앙까지] 또는 [안까지], /안ㅣ에/ → [아네](內)
/닫ㅣ고/ → [닥꼬] 또는 [닫꼬], /닫ㅣ어도/ → [다다도](閉)

/같ㅣ고/ → [각꼬] 또는 [간꼬], /같ㅣ어도/ → [가타도](如)
/벗ㅣ고/ → [벅꼬] 또는 [벋꼬], /벗ㅣ어도/ → [버서도](脫)
/있ㅣ고/ → [익꼬] 또는 [읻꼬], /있ㅣ어도/ → [이써도](在)
/젖ㅣ고/ → [적꼬] 또는 [젇꼬], /젖ㅣ어도/ → [저저도](潤)
/쫓ㅣ고/ → [쪽꼬] 또는 [쫃꼬], /쫓ㅣ어도/ → [쪼차도](追)
/신:ㅣ고/ → [싱:꼬] 또는 [신:꼬], /신:ㅣ어도/ → [시너도](履)

위의 예들에서 우리는 연구개음소로 변동되는 어간말 자음소가 /ㅂ/ 외에도 그 수가 많음을 알게 된다. 기저형을 음성형과 직접 대조하면, 그 많은 수의 어간말 자음소가 제각기 어미초의 연구개음소 앞에서 연구개음소로 변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제시된 음성형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경우에도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말 자음소의 평파열음소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연구개음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구개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말의 /ㅂ, ㅍ/와 /ㄷ, ㅌ, ㅅ, ㅆ, ㅈ, ㅊ/는 평파열음소화하여 각각 /ㅂ/와 /ㄷ/로 되고, 그 다음에 /ㅂ, ㄷ/와 /ㅁ, ㄴ/가 연구개음소화하여 각각 /ㄱ/와 /ㅇ(ŋ)/로 변동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간말 자음소의 연구개음소화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ㅂ, ㄷ} → ㄱ / X __ㅣ 연구개음소Y
- {ㅁ, ㄴ} → ㅇ / X __ㅣ 연구개음소Y

이 두 규칙은 환경이 동일하므로, 다음과 같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어미초의 연구개음소 앞에서 평파열음소화한 어간말 자음소 /ㅂ, ㄷ/는 /ㄱ/로 되고, /ㅁ, ㄴ/는 /ㅇ(ŋ)/로 된다는 것을 나타낸

다. 이 규칙은 빠른 속도의 말이나 가장 자연스러운 말에 적용된다.

$$\bullet \begin{bmatrix} \{\text{ㅂ, ㄷ}\} \\ \\ \{\text{ㅁ, ㄴ}\}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ㄱ} \\ \\ \text{ㅇ} \end{bmatrix} / \text{ X } __ \text{] 연구개음소Y}$$

[2.3] 양순음소화규칙

명사 /안/(內)에 어미 /-보다/가 통합한 /안] 보다/의 음성형은 [암보다] 또는 [안보다]이다. 두 음성형 중에서 앞의 것은 빨리 말하거나 가장 자연스럽게 말할 경우에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앞의 음성형만 관심의 대상으로 한다면, 어간말 자음소 /ㄴ/가 /ㅁ/로 변동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명사 /안/(內)에 어미 /-도/나 /-까지/가 통합한 /안] 도/나 /안] 까지/의 음성형은 [안도]나 [앙까지] 또는 [안까지]로 실현될 뿐, 결코 [암도]나 [암까지]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어간말 자음소 /ㄴ/는 /ㅂ/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ㅁ/로 변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다시 양순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치경음소인 /ㄴ/는 양순음소로 변동한다. 즉 양순음소화한다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국어의 음운현상 특히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때에 일어나는 음운현상을 정밀하게 관찰하면, 양순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양순음소화하는 어간말 자음은 /ㄴ/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는 모두 어간말 자음소의 양순음소화를 보여준다.

a. /겉] 보다/ → [{겁, 걷}뽀다], /겉] 에/ → [거테](表)
/꽃] 보다/ → [{꼽, 꼳}뽀다], /꽃] 에/ → [꼬체](花)
/옷] 보다/ → [{옵, 옫}뽀다], /옷] 에/ → [오세](衣)
/낮] 보다/ → [{납, 낟}뽀다], /낮] 에/ → [나제](晝)
/산] 보다/ → [{삼, 산}보다], /산] 에/ → [사네](山)

b. /겉] 만/ → [{검, 건}만](表)
/꽃] 만/ → [{꼼, 꼰}만](花)
/옷] 만/ → [{옴, 온}만](衣)
/낮] 만/ → [{남, 난}만](晝)
/산] 만/ → [{삼, 산}만](山)

위의 예에서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 먼저 양순음소화하는 어간말 자음소로는 /ㄴ/ 외에도 /ㅌ, ㅅ, ㅈ/가 있다. 이들 자음소는 모두 치경음소와 경구개음소에 한정된다. 다음으로 양순음소화는 /ㅂ/로 시작하는 어미뿐만 아니라 /ㅁ/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일어난다. 이 경우에 어미초의 /ㅂ/ 앞에서 어간말 자음소 /ㄴ/는 /ㅁ/로, /ㅌ, ㅅ, ㅈ/는 /ㅂ/나 /ㄷ/로 변동하며, 어미초의 /ㅁ/ 앞에서는 모두 /ㅁ/로 변동한다. 끝으로 양순음소화는 명사의 어간말 자음소에서만 발견된다. 그것은 국어에는 양순음소로 시작하는 활용어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순음소화는 어미의 양순음소(/ㅂ, ㅁ/) 앞에서 어간말 자음소인 치경음소(/ㅌ, ㅅ, ㄴ/)와 경구개음소(/ㅈ/)가 양순음소로 변동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제시된 예의 음성형에서 보듯이, 양순음소화의 경우에도 어간말 자음소들은 먼저 평파열음소화 과정을 거친다. 치경음소와 경구개음소가 평파열음소화하면 모두 /ㄷ/가 되므로, 양순음소화를 지배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ㄷ, ㄴ} → ㅁ /X __] ㅁY

• [ㄷ, ㄴ] → [ㅂ, ㅁ] / X __] ㅂY

[2.4] 유음소화규칙

동사 /핥-/(舐)과 어미 /-는/이 통합한 /핥]는/의 음성형은 [할른]이다. 이 음성형에서 발견되는 사실은 기저형의 어간말 자음소 /ㅌ/가 탈락되고 어미초의 /ㄴ/가 유음소인 /ㄹ/로 변동한 것이다. 이처럼 어미초의 /ㄴ/가 /ㄹ/로 변동하는 음운과정을 유음소화라고 한다.

유음소화규칙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다음의 예를 보자.

a. /핥]는다/ → [할른다], /핥]어도/ → [할타도](舐)
/앓]는다/ → [알른다], /앓]어도/ → [아라도](痛)

b. /앉]는다/ → [안는다], /앉]어도/ → [안자도](座)
/끊]는다/ → [끈는다], /끊]어도/ → [끄너도](切)

c. /밟:]는다/ → [밤:는다], /밟:]어도/ → [발바도](踏)
/삶:]는다/ → [삼:는다], /삶:]어도/ → [살마도](烹)
/읽]는다/ → [잉는다], /읽]어도/ → [일거도](讀)

위의 예에서 a는 어미초 /ㄴ/의 유음소화를 보여준다. b는 어간말이 /ㄹ/로 시작하는 자음소군이 아니면 어미초 /ㄴ/의 유음소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c는 어간말이 /ㄹ/로 시작하는 자음소군이

라고 해도, /ㄹ/ 뒤의 자음소가 양순음소나 연구개음소이면 어미초 /ㄴ/의 유음소화는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c는 어미초 /ㄴ/의 유음소화가 자음소군단순화 다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만약 어미초 /ㄴ/의 유음소화가 자음소군단순화 이전에 일어난다면, c의 예들은 각각 [발른다], [살른다], [일른다]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미초 /ㄴ/의 유음소화도 어간말이 /ㄹ/와 치경음소 및 성문음소로 이루어진 자음소군이 단순화된 그 뒤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에 어간말 자음소군이 단순화되면 /ㅌ/와 /ㅎ/가 탈락한다. 그 결과 다시 어간말의 /ㄹ/는 어미초의 /ㄴ/ 앞에서 탈락할 환경이 되는데, 만약 /ㄹ/가 탈락한다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음성형 [하는다]와 [아는다]는 /핥-/과 /앓-/의 의미를 잃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ㄴ/의 유음소화이다.

유음소화를 지배하는 음운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ㅌ, ㅎ} → ø / Xㄹ __] ㄴY
• └→ ㄴ → ㄹ / Xㄹ] __Y

위의 규칙은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이 적용된 다음에 어미초 /ㄴ/가 어간말 /ㄹ/ 뒤에서 유음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2 탈락규칙

탈락규칙은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그 경계에 있는 음소가 탈락하는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낸다.

(1) a → ø / X __] bY
(2) b → ø / Xa] __ Y

이 규칙은 '어간말의 a는 어미초의 b 앞에서' 또는 '어미초의 b는 어간말의 a 뒤에서' 탈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5장에서 다룬 /ㅎ/ 탈락, /ㄹ/ 탈락, 어간말이나 어미초의 /으/ 탈락 등의 음운과정은 이러한 탈락규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6.2.1 자음소탈락규칙

[1] /ㅎ/ 탈락규칙

우리는 5.2.1에서 어간 /좋:-/(好), /싫-/(厭), /많:-/(多)이 어미 /-어도/, /-은/과 통합할 때에 /ㅎ/ 탈락의 음운과정이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ㅎ/ 탈락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은 다음 몇 가지를 정밀하게 관찰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ㅎ/로 끝나는 어간들이 명사와 동사에 다 있는가, 그들 어간과 통합할 때에 /ㅎ/가 탈락되는 경우의 어미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들 어미가 어떤 음소로 시작하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ㅎ/로 끝나는 어간은 동사에만 있고 명사에는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국어에서 어간말의 /ㅎ/는 모음소 뒤에서는 물론, /ㅀ/와 /ㄶ/에서와 같이, /ㄹ/와 /ㄴ/ 뒤에서도 존재함을 발견한다. 이러한 어간말 자음소나 자음소군을 가지는 동사에는 /낳-/(産), /넣-/(入), /닿-/(接) 등과 /잃-/(失), /끓-/(沸), /뚫-/(穿) 등과 /끊-/(切)이 있다.

다음으로 이들 어간과 통합할 때에 /ㅎ/ 탈락을 일어나게 하는 어미로는 /-어도/와 /-어서/, /-으니/, /-으면/, /-은/ 등이 있다. 동사 /넣-/(入), /잃-/(失), /끊-/(切)과 이들 어미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 준다.

a. /넣] 어도/ → [너어도], /넣] 어서/ → [너어서],
/넣] 으니/ → [너으니], /넣] 으면/ → [너으면],
/넣] 은/ → [너은]
b. /잃] 어도/ → [이러도], /잃] 어서/ → [이러서],
/잃] 으니/ → [이르니], /잃] 으면/ → [이르면],
/잃] 은/ → [이른]
c. /끊] 어도/ → [끄너도], /끊] 어서/ → [끄너서],
/끊] 으니/ → [끄느니], /끊] 으면/ → [끄느면],
/끊] 은/ → [끄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음운과정을 발견할 때의 물음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이 변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어간말의 /ㅎ/이다. 이 /ㅎ/는, a, b, c의 어간에서 보듯이, 모음소 뒤와 /ㄹ/ 뒤 그리고 /ㄴ/ 뒤에 있다. 둘째, 무엇으로 변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어간말의 /ㅎ/가 탈락된다는 것이다. 셋째, 어간말의 /ㅎ/가 어떤 환경에서 탈락되는가? 이에 대한 답은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간말의 /ㅎ/가 탈락되는 경우는 위의 a~e 외에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a~c의 어간에 어미 /-으시/가 통합할 때에도, [너으시(다)], [이르시(다)], [끄느시(다)]에서와 같이 어간말의 /ㅎ/가 탈락된다.

그러나 어간말의 /ㅎ/ 탈락을 가능하게 하는 각 어미들의 첫 환경을 관찰하면, 그것들이 가진 공통성이 발견된다. 바로 그 공통성이 어간말

의 /ㅎ/가 탈락되는 환경이 된다. 위의 자료를 대상으로 이 사실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a~c 류의 어간과 통합할 때에 어간말의 /ㅎ/가 탈락되는 경우의 어미는 {/-어도/, /-어서/}와 {/-은,/ /-으니/, /-으면/, /-으시/}로 분류된다. 각 부류에 속하는 어미들의 첫 환경이 가진 공통성은 각각 /어/와 /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간말의 /ㅎ/가 탈락되는 환경은 '모음소' 앞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위의 각 환경에서 어간말의 /ㅎ/가 탈락되는 음운과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ㅎ/로 끝나는 모든 어간과 통합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어간말 /ㅎ/의 탈락은 유성음소 사이에서 /ㅎ/가 유성음소화하는 음운과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간말 /ㅎ/의 탈락을 지배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 ㅎ → ø / X(유성자음소) ___] VY

이 밖에 /ㅀ/와 /ㄶ/로 끝나는 어간과 /-니/, /-는/, /-는데/ 등 /ㄴ/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때에도 /ㅎ/가 탈락하는데, 이 경우는 다음에 논의할 자음소군단순화규칙에서 다룬다.

[2] 자음소군단순화규칙

우리는 5.2.1의 [2]에서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는 어간말에 자음소군을 가진 명사나 동사가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경우인 /VC_1C_2] C_3V/에서는 두 모음소 사이에 C_1C_3나 C_2C_3과 같이 두 개의 자음소만이 음성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ㄹ/로 끝나는 어간과 폐음절의 /으/를 가진 어미와 통합하는 /V

ㄹ] 으C_3/에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되면 C_3만 음성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첫째 예로서 명사 /넋/(魂)과 어미 /-이/, /-도/, /-만/이 통합한 /넋] {이, 도, 만}/과 동사 /훑-/(扱)과 어미 /-어도/, /-은/, /-을/, /-니/, /-고/가 통합한 /훑] {어도, 은, 을, 니, 고}/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둘째 예로서 동사 /불:-/(吹)과 어미 /-어도/, /-은/, /-을/, /-니/, /-고/가 통합한 /불:] {어도, 은, 을, 니, 고}/가 제시되었다.

이 중 첫째 예에서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어간과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에는, [넉시], [훌터도, 훌튼, 훌틀]에서 보듯이, 자음소군을 이루는 자음소들은 모두 음성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그들 어간이 그 자체로 끝나거나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에는, [넉, 넉또, 넝만], [훌리, 훌꼬]에서 보듯이, 어간말 자음소군 중의 자음소 하나가 탈락된다.

또 둘째 예에서는 먼저 어간말 /ㄹ/ 뒤에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된 뒤에 다시 어간말의 /ㄹ/가 탈락됨으로써 자음소군단순화가 일어난다. 이 경우의 자음소군단순화는 어미초의 /으/가 탈락된 /불] ㄴ/과 /불] ㄹ/의 자음소군 /ㄹㄴ/와 /ㄹㄹ/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음절말에서 두 개의 자음소가 음성으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에는 모두 어간말의 /ㄹ/가 탈락된다. 그 때에 어미의 /ㄴ/나 /ㄹ/가 탈락하지 않는 것은 그것들이 '과거'나 '미래'를 표시하는 관형사형어미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자음소군단순화에서 탈락되는 것은 어간말의 음소이다. 그것은 형태소의 의미와 기능 표시에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형태소의 첫 음소가 탈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려는 데에서 나타나는 결과다.

국어에서 위의 첫째 예와 동일한 음운과정을 거치는 어간말 자음소

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어간말 자음소군 중에서 a. [-설정성, +비음성]을 가진 자음소로 끝나는 것으로는 'ㄻ'이 있고, b. [+설정성, -비음성]을 가진 자음소로 끝나는 것으로는 'ㄵ, ㄶ, ㄾ, ㅀ, ㄳ, ㅄ'이 있으며,[쉽] c. [-설정성, -비음성]을 가진 자음소로 끝나는 것으로는 'ㄺ, ㄼ, ㄿ'이 있다. 이들 어간말 자음소군을 가진 어간들은 다음과 같다.

a. [-설정성, +비음성]을 가진 자음소로 끝나는 것: /굶:-/(飢)
b. [+설정성, -비음성]을 가진 자음소로 끝나는 것: /앉-/(座), /끊-/(斷), /핥-/(舐), /잃-/(失), /넋/(魂); /없:-/(無)
c. [-설정성, -비음성]을 가진 자음소로 끝나는 것: /흙/(土); /읽-/(讀), /여덟/(八); /밟:-/(踏), /읊-/(吟)

쉽

/ㅎ/는 [+설정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설정성]을 가지는 /ㄷ/로 평파열음소화하기 때문에 이 부류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제 이들 어간과 어미 /-고/, /-더라/, /-는다/, /-어도/; /-까지/, /-도/, /-이/가 통합하는 다음의 예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자.

a. /굶:] 고/ → [굼:꼬], /굶:] 더라/ → [굼:떠라]
cf. /굶:] 어도/ → [굴머도]
b. /앉] 고/ → [안꼬], /앉] 더라/ → [안떠라]
cf. /앉] 어도/ → [안자도]
/끊] 는다/ → [끈는다]
cf. /끊] 더라/ → [끈터라], /끊] 어도/ → [끄너도]

/핥] 고/ → [할꼬], /핥] 더라/ → [할떠라]

cf. /핥] 어도/ → [할타도]

/잃] 는다/ → [일른다]

cf. /잃] 더라/ → [일터라], /잃] 어도/ → [이러도]

/넋/ → [넉], /넋] 까지/ → [넉까지], /넋] 도/ → [넉또]

cf. /넋] 이/ → [넉시]

/없:] 고/ → [업:꼬], /없:] 더라/ → [업:떠라]

cf. /없:] 어도/ → [업:서도]

c. /흙/→ [흑], /흙] 까지/ → [흑까지], /흙] 도/ → [흑또]

cf. /흙] 이/ → [흘기]

/여덟/ → [여덜], /여덟] 까지/ → [여덜까지],

/여덟] 도/ → [여덜도]

cf. /여덟] 이/ → [여덜비]

/읽] 고/ → [일꼬], /읽] 더라/ → [익떠라]

cf. /읽] 어도/ → [일거도]

/짧] 고/ → [짤꼬], /짧] 더라/ → [짤떠라]

cf. /짧] 어도/ → [짤바도]

/밟:] 고/ → [밥:꼬], /밟:] 더라/ → [밥:떠라]

cf. /밟:] 어도/ → [발바도]

/읊] 고/ → [읍꼬], /읊] 더라/ → [읍떠라]

cf. /읊] 어도/ → [을퍼도]

위의 예에서 보듯이, 먼저 어간말이 [-설정성, +비음성]을 가진 자음소로 끝나는 경우에는 언제나 앞의 /ㄹ/가 탈락한다. 다음으로 어간말이 [+설정성, -비음성]을 가진 자음소로 끝나는 경우에, 유기음소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언제나 어간말의 자음소가 탈락한다. 한편

어간말이 [-설정성, -비음성]을 가진 자음소로 끝나는 경우에는 곡용과 활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곡용의 경우, 어미의 첫 자음소의 종류와는 관계 없이, 어간말 자음소군 /ㄺ/에서는 /ㄹ/가, /ㄼ/에서는 /ㅂ/가 탈락한다. 그러나 활용의 경우, 어간말 자음소군 /ㄺ/에서는 통합하는 어미의 첫 음소가 [+설정성]을 가진 것이면 /ㄹ/가, 어미의 첫 음소가 [-설정성]을 가진 것이면 /ㄱ/가 탈락한다. 그리고 어간말 자음소군 /ㄼ/나 /ㄿ/에서는 통합하는 어미의 첫 자음소의 종류와는 관계 없이 언제나 /ㄹ/나 /ㅂ/가 탈락한다.

따라서 어간말이 [-설정성, -비음성]을 가진 자음소로 끝나는 경우의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은, 곡용과 활용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음운규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제7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와는 달리, 어간말이 [-설정성, +비음성]이나 [+설정성, -비음성]을 가진 자음소로 끝나는 자음소군은 명사에 없으므로 위의 a와 b의 예에서 발견되는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은 음운규칙이라 하겠다. 이때의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C, +설정성, -비음성] → ø / { X __ [-설정성, +비음성] ㅣ CY … a
XC __ ㅣ CY … b }

이 규칙에서 규칙 a는 어간말 자음소군 /ㄻ/를 가진 어간과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면, /ㄹ/가 탈락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규칙 b는 어간말 자음소군 /ㄵ/, /ㄶ/, /ㄾ/, /ㅀ/, /ㄳ/, /ㅄ/를 가진 어간과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면, 자음소군 중 뒤의 것이 탈락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Vㄹ ㅣ 으C_3/에서의 자음소군단순화는 /불-/(吹)과 관형사

형어미 /-은/, /-을/이 통합할 때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자음소군단순화는 /ㄹ/로 끝나는 모든 동사어간이 관형사형어미 /-은/, /-을/은 물론 '하소체'의 청유형어미 /-읍시다/와 존칭의 서술종결어미 /-읍니다/와 통합할 때에도 예외 없이 일어난다.

a. /알:] 은/ → [안:] (사람)(知) cf. /알:] 고/ → [알:고],
/만들] 은/ → [만든] (사람)(作) cf. /만들] 고/ → [만들고]
b. /알:] 을/ → [알:] (사람), /만들] 을/ → [만들] (사람)
c. /알:] 읍시다/ → [압:시다], /만들] 읍시다/ → [만듭시다]
d. /알:] 읍니다/ → [암:니다], /만들] 읍니다/ → [만듬니다]
cf. 미씀니다(← /믿] 습니다/), 미든(← /믿] 은/) 사람,
미들(← /믿] 을/) 사람 (信)

위의 예들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 주는데, 예들에서 볼 수 있는 어간말 /ㄹ/의 탈락은 모두 어간말 /ㄹ/ 뒤에서 폐음절의 /으/가 탈락된 다음에 형성된 자음소군을 단순화하는 음운과정에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간말의 /ㄹ/ 뒤에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된 다음에, a와 b의 경우는 음절말에서는 최대로 하나의 자음소만 음성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국어의 표면음성 제약에 의해서, /알:ㄴ/과 /알:ㄹ/에서 어간말의 /ㄹ/가 탈락된 것이다. 그리고 c와 d의 경우는 두 모음소 사이에서는 최대로 두 개의 자음소만 음성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국어의 표면음성 제약에 의해서, /알:ㅂ시다/와 /알:ㅁ니다/에서 하나의 자음소가 탈락된 것이다.

이처럼 어간말 /ㄹ/ 뒤에서 폐음절의 /으/가 탈락된 다음에 일어나는 자음소군단순화는 곡용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때의 자음소군 단순화규칙이 활용에만 적용된다는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의 자음군단순화규칙은 음운규칙이 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ㄹ → ø / X __] C(CY)

이 음운규칙은 어간말의 /ㄹ/는 어미가 자음소뿐이거나 두 개의 자음소를 가지면 그 앞에서 탈락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물론 여기서 어미가 자음소뿐이라는 말은 폐음절의 /으/가 탈락된 뒤에 자음소만 남게 되는 어미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음운규칙은 폐음절의 /으/ 탈락규칙 다음에 적용되는 것이다.

6.2.2 유음소탈락규칙

5.2.2에서 유음소(/ㄹ/)탈락이란 기저형에 존재하는 음소 /ㄹ/가 음성으로 실현되기 전에 탈락되는 음운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간 /빌:-/(祈)과 /알:-/ (知)이 의문 종결어미 /-니/와 통합할 때에 어간말의 /ㄹ/가 탈락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ㄹ/ 탈락은 어간말에서만 일어나는데, 이를 지배하는 규칙을 유음소탈락규칙이라고 한다. /ㄹ/ 탈락규칙이 음운규칙인가의 여부는 곡용과 활용을 정밀하게 관찰함으로써 판정할 수 있다. 이러한 판정을 위해서 먼저 다음 예를 보자.

a. /불:] 니/ → [부:니](吹) cf. /불:] 어도/ → [부러도]
/빌:] 니/ → [비:니](祈) cf. /빌:] 어도/ → [비러도]
b. /불:] 으니까/ → [부:니까],
/불:] 으시( ] 으니)/ → [부:시(니)]

/빌:] 으니까/ → [비:니까],

/빌:] 으시( ] 으니)/ → [비:시(니)]

c. /불:] 읍니다/ → [붑:니다], /빌:] 읍니다/ → [빕:니다]

/불:] 은 (사람)/ → [분:], /빌:] 은 (사람)/ → [빈:]

/불:] 을 (사람)/ → [불:], /빌:] 을 (사람)/ → [빌:]

/얼:] 음/ → [엄:](氷)

cf. 미씁니다(← /믿] 습니다/), 미든(← /믿] 은/),

미들(←/ 믿] 을/)

위의 예들은 모두 동사 /불:-/과 /빌:-/에 각각 의문 종결어미 /-니/, 이유표시 연결어미 /-으니까/, 존칭어미 /-으시-/, 존칭 서술 종결어미 /-읍니다/, 미래 및 과거표시 관형사형어미 /-을/과 /-은/이 통합한 것이다. 이들 각각에 대한 음성형을 보면, 동사의 어간말 /ㄹ/가 모두 탈락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의 /ㄹ/ 탈락은 모두 동일한 음운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1) 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것과 2) 음절구조제약에 의한 것이다. a와 b의 예는 1)에 해당하고, c의 예는 2)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2)의 /ㄹ/ 탈락은 다음에 논의될 자음소군단순화 규칙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항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논의는 1)에 한정한다.

a와 b의 예에 보이는 /ㄹ/ 탈락이 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것임은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이다. 먼저 a에 보이는 어간말 /ㄹ/의 탈락은 의문종결어미의 첫 음소 /ㄴ/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b에 보이는 어간말 /ㄹ/의 탈락은 어간말의 /ㄹ/ 뒤에서 개음절의 /으/가 탈락한 뒤에 다시 어미의 첫 음소 /ㄴ/와 /ㅅ/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어미의 첫 음소 /으/가 탈락된 뒤에 남게 되는 어간과 어미의 통합형은 /불:] 니/, /빌:] 니/와

/불:ㅣ시/, /빌:ㅣ시/가 된다.

그런데 국어에 존재하는 한 가지 표면음성 제약은 두 모음 사이에서 최대한 두 개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날개/ → [날개](翅), /갈비/ → [갈비](肋骨), /가랑비/ → [가랑비](細雨), /강ㅣ도/ → [강도](江), /없:ㅣ어도/ → [업:서도](無) 등은 두 모음소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자음소는 모두 음성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넋ㅣ도/ → [넉또](魂), /없:ㅣ고/ → [업:꼬](無) 등은 기저형에서는 두 모음소 사이에 세 개의 자음소가 있어도 음성으로는 두 개의 자음만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점을 고려하면, /불:ㅣ니/, /빌:ㅣ니/와 /불:ㅣ시/, /빌:ㅣ시/에서 연속되는 두 자음소 /ㄹㄴ/와 /ㄹㅅ/는 두 모음소 사이에 있으므로 모두 음성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ㄹ/가 탈락되는 것은 그들 두 자음소 상호간에 작용하는 음운론적 제약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어미의 첫 음소 /ㄴ/나 /ㅅ/가 탈락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니/나 /시/는 /이/가 되며 그 결과 그것들은 각각 [부리까], [비리까]나 [부리], [비리]로 음성 실현된다. 이러한 음성형은 어간에 통합한 어미가 '이유'나 '존칭'을 표시한다는 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이 사실은 어미 /-으니까/와 /-으시-/에서 /ㄴ/와 /ㅅ/가 각각 '이유'와 '존칭'을 표시하는 기능부담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처럼 /ㄴ/나 /ㅅ/의 탈락은 /니/나 /시/가 가진 문법적인 기능과 의미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탈락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는 달리, 어간 /불:-/과 /빌:-/에서 각각 '吹'와 '祈'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가장 큰 기능부담을 지고 있는 것은 /ㅂ/이다. 따라서 어간말의 /ㄹ/ 탈락은 어간의 의미를 크게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어간말의 /ㄹ/를 탈락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음운과정을 일으키는 어간말 /ㄹ/의

탈락규칙은 'ㄹ → ø / X __]Vst {ㄴ, ㅅ}Y'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곡용어미에는 /ㄴ/나 /ㅅ/로 시작하는 어미로서 어간말의 /ㄹ/를 탈락시키는 것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음운규칙에 어간말의 /ㄹ/가 활용에서만 탈락한다는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다. 곡용에서는 그 규칙이 적용될 환경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그 규칙은 활용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어간말 /ㄹ/의 탈락규칙은 음운론적 정보만 가지게 되는 음운규칙이 되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ㄹ → ø / X __] {ㄴ,ㅅ}Y[쉼]

[이 규칙은 어미초의 /으/ 탈락 뒤에도 적용됨]

쉼

/ㄹㄴ/나 /ㄹㅅ/의 연결에서 언제나 /ㄹ/가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를 잘 관찰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달/(月)과 /나라/(國)의 통합형인 /달나라/는 [달라라]로 실현되고, /말/(語)과 /소리/(聲)의 통합형인 /말소리/는 [말쏘리]로 실현된다. 이 경우에는 /ㄹㄴ/는 /ㄹㄹ/로 되고 /ㄹㅅ/는 /ㄹㅆ/로 된다.

이러한 차이는 /ㄹㄴ/나 /ㄹㅅ/의 연결이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느냐 단어와 단어 경계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그런 연결이 단어 내부에서 일어나면 반드시 /ㄹ/가 탈락하지만 단어와 단어 경계에서 일어나면 /ㄹ/는 탈락하지 않는다.

6.2.3 모음소탈락규칙: /으/ 탈락규칙

우리는 5.2.4에서 동사의 어간 /쓰-/(用)와 /가-/(去)에 어미 /-어도/나 /-으니/가 통합하면, 어간말의 /으/나 어미초의 /으/가 탈락하는 것을 보았다. /으/를 탈락시키는 규칙을 /으/ 탈락규칙이라고 하는데, 이 규칙은 /으/가 탈락되는 모든 경우를 관찰함으로써 설정될 수 있다. /으/

가 탈락되는 경우는 둘이 있다. 하나는 /으/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어간에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이다.

/으/로 끝나는 어간은, /버스/, /스포츠/ 등과 같은 일부 외래어를 제외하면 모두 동사에 한정되는데, /끄-/(消), /크-/(大), /쓰-/(書, 冠, 用), /{흐, 흘}르-/(流), /{다, 달}르-/(異), /잠그-/(閉), /기쁘-/(喜) 등이 그것이다. /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곡용어미에도 있고 활용어미에도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으로/, /-은/, /-을/ 등이 있으며,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으니/, /-으면/, /-으시/, /-은/, /-을/, /-읍시다/, /-음니다/ 등이 있다. 이들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적용되는 어간말의 '으' 탈락규칙과 어미초의 '으' 탈락규칙에 대해서 알아 보자.

a.1. /버스 | 가/ → [버스가], /버스 | 도/ → [버스도],
/버스 | 으로/ → [버스로], /버스 | 에/ → [버스에]

b.1. /끄 | 고/ → [끄고](消), /끄 | 지/ → [끄지],
/끄 | 어도/ → [꺼도], /끄 | 으면/ → [끄면]

먼저 위의 a.1과 b.1은 각각 /으/로 끝나는 명사 /버스/와 동사 /끄-/에 자음소나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한 기저형과 그 음성형이다. 어간말의 /으/가 탈락하는 경우만을 관찰의 대상으로 하면, 명사와 어미가 통합하는 자료 a.1에서는 자음소나 모음소 중 그 어느 것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여도 어간말의 /으/가 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사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하는 자료 b.1에서는, 어미 /-어도/와 통합할 때에 /끄-/의 /으/가 탈락한다. 이것은 어간말의 /으/ 탈락은 어간이 동사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어간말의 /으/ 탈락규칙은 음운규칙이 아니라 형태음운규칙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어간말의 /으/ 탈락규칙은 이 장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a.2. /집] 으로/ → [지브로](家), /밭] 으로/ → [바트로](田),
/논] 으로/ → [노느로](畓), /들:] 으로/ → [들:로](野),
/바다] 으로/ → [바다로](海)
b.2. /막] 으면/ → [마그면](防), /안:] 으면/ → [아느면](抱),
/날] 으면/ → [날면](飛), /기] 으면/ → [기면](匍匐)

다음으로 위의 a.2와 b.2는 자음소(유음소 포함)로 끝나는 명사와 동사의 어간에 어미초의 /으/가 개음절을 이루는 어미 /-으로/와 /-으면/이 통합한 기저형과 그 음성형이다. 여기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하는 경우만을 관찰의 대상으로 하면, 명사와 어미 /-으로/가 통합하는 a.2에서는, 명사 /들:/과 /바다/ 뒤에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한다. 그리고 동사의 어간과 어미 /-으면/이 통합하는 b.2에서는, 동사 /날-/과 /기-/ 뒤에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한다. 이 때의 어미초 /으/ 탈락은 명사와 동사의 어간 뒤에서 모두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 때의 어미초 /으/를 탈락시키는 규칙은 음운규칙이다.

a.3. /집] 은/ → [지븐], /밭] 은/ → [바튼],
/논] 은/ → [노는], /들:] 은/ → [드:른] 등
cf. /바다] 는/ → [바다는]
b.3. /막] 은/ (사람) → [마근], /안:] 은/ (사람) → [아는],
/날] 은/ (새) → [난], /기] 은/ (사람) → [긴]

끝으로 위의 a.3과 b.3은 자음소(/ㄹ/ 포함)로 끝나는 명사와 동사의 어간에 폐음절의 /으/를 가진 어미 /-은/이 통합한 기저형과 그 음성

형이다. 여기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하는 경우만을 관찰의 대상으로 하면, 명사와 어미 /-은/이 통합하는 a.3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어미초의 /으/가 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사의 어간과 어미 /-은/이 통합하는 b.3에서는, 동사 /날-/과 /기-/ 뒤에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한다. 이 경우에 어미초의 /으/ 탈락은 동사의 어간 뒤에서만 일어난다. 따라서 개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어미초의 /으/를 탈락시키는 규칙은 음운규칙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으/ 탈락규칙은 이 장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 장에서 다루게 될 음운규칙으로서의 /으/ 탈락규칙은 개음절을 이루는 어미초의 /으/를 탈락시키는 것에 한정된다. 이 경우의 /으/ 탈락은 자료 a.2와 b.2 중 /들:] 으로/ → [들:로](野), /바다] 으로/ → [바다로](海)와 /날] 으면/ → [날면](飛), /기] 으면/ → [기면](匍匐)에서 발견된다. 이들 자료를 관찰하면, 어미초의 /으/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에, 통합하는 명사나 동사의 어간이 모두 /ㄹ/나 '모음소'로 끝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제 어미초 /으/의 탈락을 지배하는 음운규칙을 밝히기 위해서 다음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것은 /ㄹ/나 '모음소'로 끝나는 모든 명사나 동사의 어간과, 개음절의 /으/로 시작하는 모든 어미가 통합하면, 어미초의 /으/가 탈락하는가 하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예를 보자.

a.4. /길] 으로/ → [길로](路), /발] 으로/ → [발로](足),
/벌] 으로/ → [벌로](罰), /서울] 으로/ → [서울로](京) 등
cf. /손] 으로/ → [소느로](手), /상] 으로/ → [상으로](賞)

b.4. ① /알:] 으면/ → [알:면](知), /울:] 으면/ → [울:면](泣),
/갈] 으면/ → [갈면](耕, 磨), /길:] 으면/ → [길:면](長)

cf. /믿] 으면/ → [미드면](信)

② /알:] 으니/ → [아:니](知), /울:] 으니/ → [우:니](泣),
/갈] 으니/ → [가니](耕, 磨), /길:] 으니/ → [기:니](長)

③ /알:] 으시( ] 으니)/ → [아:시(니)](知),
/울:] 으시/ → [우:시](泣), /갈] 으시/ → [가시](耕, 磨),
/길:] 으시/ → [기:시](長)

먼저 위의 예 a.4와 b.4는 /ㄹ/로 끝나는 명사나 동사의 어간에 어미 /-으σ/가 통합하는 것과 그 음성형이다. 곡용의 경우에는, 개음절의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으로/ 하나뿐이기 때문에, /ㄹ/로 끝나는 명사 뒤, 즉 /Xㄹ]$_N$ __ /에서 어미 /-으로/의 /으/가 탈락한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활용의 경우에는, /ㄹ/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뒤, 즉 /Xㄹ]$_{Vst}$ __ /에서 어미 /-으σ/의 /으/가 탈락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b.4②와 b.4③에서는 음성형이 어간말의 /ㄹ/와 어미초의 /으/ 탈락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ㄹ/로 끝나는 어간말 뒤에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그것은 어간말의 /ㄹ/ 뒤에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되면, 어미초의 /ㄴ/나 /ㅅ/ 앞에서 어간말의 /ㄹ/가 탈락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6.2.3 /ㄹ/ 탈락규칙 참조). 다시 말하면, [아:니](知)나 [아:시](知)는 각각 /알:] 으니/ → /알:니/ → /아:니/나 /알:] 으시/ → /알:시/ → /아:시/의 음운과정을 거친 다음에 음성으로 실현된 것이다. 그것은 b.4①과 다음에 제시될 b.5②와 b.5③을 고려하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a.5. /뒤:] 으로/ → [뒤:로](後), /사이] 으로/ → [사이로](間),
/시:내] 으로/ → [시:내로](市內),

/가운데] 으로/ → [가운데로](中央)

cf. /겉] 으로/ → [거트로](側)

b.5. ① /가] 으면/ → [가면](去), /빼:] 으면/ → [빼:면](拔),

/깨:] 으면/ → [깨:면](覺), /뛰] 으면/ → [뛰면](跳)

cf. /막] 으면/ → [마그면](防)

② /가] 으니/ → [가니](去), /빼:] 으니/ → [빼:니](拔),

/깨:] 으니/ → [깨:니](覺), /뛰] 으니/ → [뛰니](跳)

③ /가] 으시( ] 으니)/ → [가시(니)](去),

/빼:] 으시/ → [빼:시](拔), /깨:] 으시/ → [깨:시](覺),

/뛰] 으시/ → [뛰시](跳)

다음으로 위의 a.5와 b.5는 모음소로 끝나는 명사와 동사의 어간 뒤에 어미 /-으σ/가 통합하는 것과 그 음성형이다. 곡용의 경우에는, 개음절의 /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으로/ 하나뿐이기 때문에, '모음소'로 끝나는 명사 뒤, 즉 /XV]$_N$ __ /에서 어미 /-으로/의 /으/가 탈락한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활용의 경우에는, '모음소'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뒤, 즉 /XV]$_{Vst}$ __ /에서 어미 /-으σ/의 /으/가 탈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음운규칙으로서의 /으/ 탈락규칙은 /ㄹ/나 '모음소'로 끝나는 명사나 동사의 어간과 개음절의 /으/로 시작하는 어미, 즉 /-으σ/가 통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것을 규칙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으 → ø / X{ㄹ, V}] __ σ

6.3 축약규칙

축약규칙은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어간말의 음소와 어미초의 음소가 합해져서 이미 존재하는 어떤 음소로 되는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은

$$\begin{matrix} X & a &] & b & Y \rightarrow \\ 1 & \begin{bmatrix} 2 \\ \emptyset \end{bmatrix} & & \begin{bmatrix} 3 \\ +F \end{bmatrix} & 4 \end{matrix}$$

와 같이 나타낸다. 이 규칙은 음소 a와 b가 변별적 자질 [+F]를 가지는 b로 축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5장에서 다룬 '유기음소화' 등의 음운과정은 이 축약규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여기서는 '유기음소화규칙'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제5장에서 /ㅎ/로 끝나는 어간 /좋-/(好)과 /ㄱ/로 시작하는 어미 /-고/가 통합될 때에, /ㅎ/와 /ㄱ/가 /ㅋ/로 되는 음운과정을 유기음소화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기음소화는 어간 /좋-/과 어미 /-고/가 통합할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ㅎ/로 끝나는 모든 어간이 유기음소를 대립의 짝으로 가지는 /ㄱ/, /ㄷ/,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모든 어미와 통합할 때에도 유기음소화가 일어난다.

a. /놓] 고/ → [노코], /놓] 더라/ → [노터라],
 /놓] 지/ → [노치](放)

b. /앓] 고/ → [알코], /앓] 더라/ → [알터라],
 /앓] 지/ → [알치](呻)

c. /파랗] 고/ → [파라코], /파랗] 더라/ → [파라터라],
/파랗] 지/ → [파라치](碧)

활용에서의 유기음소화와는 달리, 곡용에서는 유음소와 비음소 이외의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ㅎ/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때에 다음과 같이 유기음소화가 일어난다.

a. /떡] 하고/ → [떠카고](餠), /국] 하고/ → [구카고](羹)
cf. /떡] 이/ → [떠기], /국] 이/ → [구기]
b. /옷] 하고/ → [오타고](衣), /낮] 하고/ → [나타고](晝)
cf. /옷] 이/ → [오시], /낮] 이/ → [나지]
c. /밥] 하고/ → [바파고](食), /집] 하고/ → [지파고](家)
cf. /밥] 이/ → [바비], /집] 이/ → [지비]

그런데 /ㅎ/로 시작하는 활용어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유기음소화과정은 활용에 없다. 그러므로 규칙에 이러한 유기음소화가 활용에서만 일어난다거나 곡용에서만 일어난다는 제약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유기음소화를 지배하는 규칙은 음운규칙이다. 유기음소화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X ㅎ] {ㄱ, ㄷ, ㅈ} Y →
1 [2, ø] [3, +유기성] 4

b. X [C, −비음성]] ㅎ Y →
1 [2, +유기성] [3, ø] 4

위에서 규칙 a는 /ㅎ/로 끝나는 어간과 /ㄱ/, /ㄷ/, /ㅈ/ 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면, /ㅎ//ㄱ/, /ㅎ//ㄷ/, /ㅎ//ㅈ/는 각각 유기음소 /ㅋ/, /ㅌ/, /ㅊ/로 축약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규칙 b는 평파열음소화규칙이 적용된 뒤에 적용된다. 즉, 유음소와 비음소를 제외한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ㅎ/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면, 어간말의 음소와 /ㅎ/는 유기음소로 축약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어간말의 자음소는 먼저 평파열음소화에 의해서 /ㅂ/, /ㄷ/, /ㄱ/ 중의 어느 하나로 될 것이고 그것들이 /ㅎ/와 축약하면 각각 /ㅍ/, /ㅌ/, /ㅋ/ 중 어느 하나의 유기음소로 될 것이다.

요약

일반적으로 음운론에서 말하는 규칙은 규칙 안에 음운론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느냐, 음운론의 차원이 아닌 형태론적이거나 통사론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음운규칙과 형태음운규칙으로 구별된다. 음운규칙은 교체규칙, 탈락규칙, 축약규칙으로 구분된다.

[1] **교체규칙**

이 규칙은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그 경계에 있는 어떤 음소가 다른 음소로 교체되는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은 'a → c / X __ ㅣ bY'나 'b → c / Xa ㅣ __Y'와 같이 표시된다. 이 규칙은 음소 a가 b 앞에서 c로 되거나 음소 b가 a 뒤에서 c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 a가 b로 교체되거나 b가 c로 교체되는 것은 그 뒤의 b나 그 앞의 a의 자질에 영향을 받아 음소 a나 b의 자질값이 바뀌는 것이므로, 교체규칙을 자질변환규칙이라고도 한다.

교체규칙에는 평파열음소화규칙, 자음소동화규칙 등이 있다. 자음소동화규칙은 다시 '비음소화규칙'과 '연구개음소화규칙', '양순음소화규칙' 그리고 '유음소화규칙'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평파열음소화규칙은 어말 위치에서나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에서 어간말의 '/ㅂ/, /ㅃ/, /ㅍ/', '/ㅅ/, /ㅆ/, /ㅈ/, /ㅉ/, /ㅊ/, /ㄷ/, /ㄸ/, /ㅌ/, /ㅎ/, /ㆆ/', '/ㄱ/, /ㄲ/, /ㅋ/'를 각각 '/ㅂ/', '/ㄷ/', '/ㄱ/'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자음소동화규칙 중 비음소화규칙은 평파열음소화규칙에 의해서 각각 /ㅂ/, /ㄷ/, /ㄱ/로 된 어간말 자음소를 어미초의 비음소 앞에서 각각 /ㅁ/, /ㄴ/, /ㅇ(ŋ)/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연구개음소화규칙은 평파열음소화된 어간말의 '/ㅂ/, /ㄷ/'와 어간말의 '/ㅁ/, /ㄴ/'를 어미초의 연구개음소 앞에서 각각 연구개음소 /ㄱ/와 /ㅇ(ŋ)/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또 양순음소화규칙은 평파열음소화된 어간말의 /ㄷ/와 /ㄴ/를 어미초의 양순음소 앞에서 각각 양순음소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이 경우에 어미초의 양순음소가 [-비음성]을 가지는 것이면 어간말의 /ㄷ/와 /ㄴ/는 각각 /ㅂ/와 /ㅁ/로 되고, 어미초의 양순음소가 [+비음성]을 가지는 것이면 어간말의 /ㄷ/와 /ㄴ/는 모두 /ㅁ/로 된다. 그리고 유음소화규칙은 어간말 자음

소군 /ㄾ/, /ㅀ/ 뒤에서 어미초의 /ㄴ/를 /ㄹ/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2] 탈락규칙

이 규칙은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그 경계에 있는 음소가 탈락하는 음운 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은 'a → ø / X __ | bY'나 'b → ø / Xa | __Y'와 같이 나타낸다. 이 규칙은 음소 'a가 b 앞에서' 또는 'b가 a 뒤에서' 탈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락규칙에는 자음소탈락규칙, 유음소탈락규칙, 모음소탈락규칙이 있다. 자음소탈락규칙 중 /ㅎ/ 탈락규칙은 '모음소'나 /ㄴ/로 시작하는 어미, 즉 유성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말의 /ㅎ/를 탈락시키는 규칙이고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은 /VC_1C_2 | C_3V/나 /Vㄹ | 으C_3/에서 어간말의 C_1나 C_2나 /ㄹ/를 탈락시키는 규칙이다. /VC_1C_2 | C_3V/의 경우에, 어간말 자음소군 /ㄻ/를 가진 어간과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면, /ㄹ/가 탈락하며 어간말 자음소군 /ㄵ/, /ㄶ/, /ㄾ/, /ㅀ/, /ㄳ/, /ㅄ/를 가진 어간과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면, 자음소군 중 뒤의 것이 탈락한다. 그리고 /Vㄹ | 으C_3/의 경우에,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은 어간말 /ㄹ/ 뒤에서 폐음절의 /으/가 탈락된 다음에 적용되는데, 이 때에는 반드시 어간말의 /ㄹ/가 탈락된다.

유음소탈락규칙은 어미초의 /ㄴ/나 /ㅅ/ 앞에서 어간말의 /ㄹ/를 탈락시키는 규칙이다.

음운규칙으로서의 모음소탈락규칙에는 /으/ 탈락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어간말의 /ㄹ/나 '모음소' 뒤에서 개음절의 어미초 /으/를 탈락시키는 규칙이다.

[3] 축약규칙

이 규칙은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어간말의 음소와 어미초의 음소가 합해져서 이미 존재하는 어떤 음소로 되는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이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begin{matrix} X & a\,| & b & Y \rightarrow \\ 1 & \begin{bmatrix} 2 \\ \emptyset \end{bmatrix} & \begin{bmatrix} 3 \\ +F \end{bmatrix} & 4 \end{matrix}$$

이 규칙은 음소 a와 b가 변별적 자질 [+F]를 가지는 b로 축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기음소화' 등의 음운과정은 이 축약규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국어에서 공시적인 축약규칙에는 유기음소화규칙이 있다. 유기음소화규칙은, 활용의 경우, 어간말의 /ㅎ/와 어미초의 /ㄱ/, /ㄷ/, /ㅈ/를 각각 /ㅋ/, /ㅌ/, /ㅊ/로 변동시키며, 곡용의 경우, 평파열음소화된 어간말의 /ㄱ/, /ㄷ/, /ㅂ/와 어미초의 /ㅎ/를 각각 /ㅋ/, /ㅌ/, /ㅍ/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연습문제 6

1. **다음 규칙을 문장으로 서술해 보라.**

   a. 으 〉 이 / X경구개음소] __ C

   b. C_1 → ø / X __ C_2] C_3Y 〔C_2 = 양순음소 또는 연구개음소〕

2. **다음 문장을 음소를 사용하여 규칙으로 나타내어 보라.**

   a. 어미의 첫 음소 /ㄷ/는 어간말 자음소 /ㄱ/ 뒤에서 경음소로 된다.

   b. 어간말의 /ㅂ/는 /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ㅁ/로 된다.

   c. 어미초의 /으/는 '모음소'나 /ㄹ/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탈락한다.

3. **다음에 제시된 음성형은 어간 /웃:-/에 어미 /-는다/, /-지/, /-어도/가 통합된 것이다. 〈보충자료〉를 참조하여, 어간말 자음소가 거치는 음운과정을 규칙으로 표시하라.**

   〔운:는다〕, 〔욷:찌〕, 〔우서도〕

〈보충자료 〉	
1. [간다, 가지, 가도]	2. [선다, 서지, 서도]
3. [신:는다, 신:찌, 시너도]	4. [번는다, 벋찌, 버서도]
5. [잠는다, 잡찌, 자바도]	6. [안:다, 알:지, 아라도]
7. [단는다, 닫찌, 다다도]	8. [맨는다, 맫찌, 매저도]
9. [껑는다, 꺽찌, 꺼꺼도]	

제7장 음운과정과 형태음운규칙

음운과정은 음운론적인 제약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음운과정은 형태론적이거나 통사론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을 받는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을 형태음운규칙이라고 한다. 이 형태음운규칙이 이 장에서 다루어질 내용이며 형태음운규칙에는 교체규칙, 탈락규칙, 삽입규칙이 있다.

7.1 교체규칙

여기서 다루게 될 교체규칙은 자음소교체규칙과 모음소교체규칙이다. 자음소교체규칙에서는 경음소화규칙이, 모음소교체규칙에서는 활음소화규칙, /어/ 순행동화규칙, 단(短)모음소화규칙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7.1.1 자음소교체규칙: 경음소화규칙

우리는 5.1.1의 [3]에서, 평음소가 경음소로 되는 것을 경음소화라고 규정하고, 동사 /잡-/(執), /믿-/(信), /먹-/(食)과 어미 /-고/, /-지/가 통합하는 경우를 통하여 이 음운과정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형태소 경계에서 발견되는 경음소화는 이들 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의 예들에서도 동일한 음운과정이 발견된다.

a. /입] 도/ → [입또], /입] 조차/ → [입쪼차](口);
/입] 고/ → [입꼬], /입] 지/ → [입찌](着衣)
b. /닫] 고/ → [닥꼬], /닫] 지/ → [닫찌](閉)
/옷] 과/ → [옫꽈], /옷] 조차/ → [옫쪼차](衣);
/붓:] 고/ → [붇:꼬], /붓:] 지/ → [붇:찌](腫);
/있] 고/ → [읻꼬], /있] 지/ → [읻찌](有)
c. /낮] 도/ → [낟또], /낮] 조차/ → [낟쪼차](晝);
/쫓] 고/ → [쫀꼬], /쫓] 지/ → [쫀찌](追)
e. /박] 도/ → [박또], /박] 조차/ → [박쪼차](瓢);
/익] 고/ → [익꼬], /익] 지/ → [익찌](熟)
f. /놓] 고/ → [노코], /놓] 지/ → [노치](放)

위의 자료 a~e에서 보듯이, 어간말이 /ㅎ/로 끝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어간 뒤에서 어미초의 /ㅂ/, /ㄷ/, /ㄱ/ 등이 경음소화한다. 이 경우에 경음소화는 곡용과 활용에서 모두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에 경음소화를 일으키게 하는 어간말 자음소들은 /ㅂ/, /ㅍ/, /ㄷ/, /ㅅ/, /ㅆ/, /ㅈ/, /ㅊ/, /ㄱ/ 등이다.

이 경우의 음운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어간말 자음소가 평파열음소로 되며 다음에 그 평파열음소 뒤에서 어미초의 자음소가 경음소로 된다. 예를 들어, c의 /낮ㅣ도/는 '/낮ㅣ도/ → /낟도/ → /낟또/'의 과정을 거쳐서 [낟또]로 실현된 것이다.

g. /힘ㅣ도/ → [힘도](力)
/숨:ㅣ고/ → [숨:꼬], /숨:ㅣ지/ → [숨:찌](隱)
h. /손ㅣ도/ → [손도](手)
/신:ㅣ고/ → [신:꼬], /신:ㅣ지/ → [신:찌](履)
i. /강ㅣ도/ → [강도](江)
〈어간말이 'ㅇ'로 끝나는 동사는 없음〉
j. /물ㅣ도/ → [물도](水)
/알:ㅣ고/ → [알:고], /알:ㅣ지/ → [알:지](知)

그러나 자료 g~i에서 보듯이, 어간말 자음소가 /ㅁ/, /ㄴ/ 등의 비음소이면 어미초의 /ㄷ/, /ㅈ/, /ㄱ/ 등의 경음소화는 곡용과 활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에, 어미초 /ㄷ/, /ㅈ/, /ㄱ/ 등의 경음소화는 곡용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활용에서만 일어난다. 이와는 달리, 어간말이 /ㄹ/인 경우에는 곡용에서도 활용에서도 어미초 /ㄷ/, /ㅈ/, /ㄱ/ 등의 경음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j의 예들이 그에 해당한다.

한편 경음소화는 자료 k의 예들에서와 같이, /ㄹ/로 시작하는 어간말 자음소군 뒤에서도 일어난다.

k. /훑ㅣ고/ → [훌꼬], /훑ㅣ지/ → [훌찌](扱)
/밟:ㅣ고/→ [밥:꼬], /밟:ㅣ지/ → [밥:찌](踏)
/삶:ㅣ고/ → [삼:꼬], /삶:ㅣ지/ → [삼:찌](烹)

l. /앓] 고/ → [알코], /앓] 지/ → [알치](痛)
m. /여덟] 도/ → [여덜도] cf. /여덟] 이/ → [여덜비]
/불:] 고/ → [불:고], /불:] 지/ → [불:지](吹)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음소군단순화와 경음소화와의 관계이다. 이 때의 경음소화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훑] 고/의 경우에, 경음소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음소군단순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자음소군단순화가 먼저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훌] 고/로 된다. 그런데 /불:] 고/(吹)나 /알:] 고/(知) 등은 언제나 [불:고]나 [알:고]로만 실현되며 결코 [불:꼬]나 [알:꼬]로 실현되는 경우는 없다. 그 점에서, /훌] 고/의 경우, /ㄹ/ 뒤에서 어미초 /ㄱ/의 경음소화가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ㄹ/로 시작하는 어간말 자음소군이라고 하더라도 자음소군이 'ㅀ'인 경우에는 어미초의 /ㄱ/, /ㅈ/ 등은 유기음소화하지 결코 경음소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ㄹ/로 시작하는 어간말 자음소군 뒤에서 어미초 자음소의 경음소화는 자음소군단순화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에 어간말 자음소군 중 /ㄹ/ 뒤에 오는 것은 /ㅎ/ 이외의 자음소라야 한다. 그렇게 되면, /ㄹ/ 뒤의 자음소는, /ㅁ/를 제외하면, /ㅂ/, /ㄷ/, /ㄱ/ 중 어느 하나로 평파열음소화하는 것이라야 한다.

한 가지 다른 설명은 자음소군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경음소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설명은 자연스러운 발화순서 바탕 위에서 경음소화를 해명하고자 한다. 자료 k의 경우, 자연스러운 발화순서로는 어미초 'ㄱ'나 'ㅈ'의 경음소화가 일어나기 전에 자음소군의 단순화가 일어난다. 이것은 [-평파열음소, -비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에 어간말 자음소의 평파열음소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과 동일하다. 이 점에서 경음소화가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앞의 설명은 자연스러운 발화순서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 /홅ㅣ고/의 경우에, 자음소군단순화가 일어난 뒤의 결과인 /훌고/에서 어미초 'ㄱ'가 경음소 'ㄲ'로 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음소군으로 끝나는 어간과 'ㄴ'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에, 'ㄴ'가 유음소화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홅ㅣ고/로부터 자음소군단순화과정을 거친 /훌고/에 더 이상의 음운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음성형 [훌고(hulgo)]로 실현될 것이다.

이 음성형에서 두 모음간의 'ㄹㄱ(lg)'는 자료 m에서 두 모음간의 'ㄹㄱ'와 동일하므로, 음성형 [훌고(hulgo)]에서 분석되는 기저 어간과 어미는 각각 /훌-/과 /-고/가 된다. 이렇게 분석된 어간 /훌-/은 전혀 '홅-'의 의미를 알려주지 못한다. 자음소군단순화과정을 거친 /훌고/가 다시 경음소화를 거쳐서 /훌꼬/가 되는 것은 이때의 '훌-'이 기저형이 아니라 기저형 '홅-'에서 자음소군단순화를 거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기저형이 /훌-/이라면 어간말의 'ㄹ' 뒤에서 어미초의 'ㄱ'가 경음소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 k에 보이는 경음소화는 자음소군단순화 뒤에 일어난 것이라고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곡용에서 어미초의 '평자음소(/ㅂ/, /ㄷ/, /ㅈ/, /ㄱ/)'의 경음소화는 /ㄹ/와 '비음소'를 제외한 모든 명사의 어간말 자음소 뒤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활용에서 어미초의 '평자음소(/ㅂ/, /ㄷ/, /ㅈ/, /ㄱ/)'의 경음소화는 /ㄹ/와 /ㅎ/를 제외한 모든 동사의 어간말 자음소 뒤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자음소군단순화를 거쳐 'ㄹ'가 남게 되면 어간말의 'ㄹ' 뒤에서 어미초의 평자음소는 경음소로 된다.

이러한 경음소화를 지배하는 규칙은 곡용과 활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점에서 경음소화규칙은 형태음운규칙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C → [+경음성] / X[C, −비음성]] N __ Y
- C → [+경음성] / X[C, +구강성]] Vst __ Y

 [자음소 중 /ㅎ/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구강성]을 표시한다]

위의 두 규칙은 사선(/)의 왼쪽이 동일하므로 다음과 같이 하나의 규칙으로 나타낼 수 있다.

- C → [+경음성] / { X[C, −비음성]] N __Y ; X[C, +구강성]] Vst __Y }

- ┌ C → ø / Xㄹ__] CY
  └→ C → [+경음성]/ Xㄹ] Vst __Y

7.1.2 모음소교체규칙

[1] 활음소화규칙

5.1.2의 [1]에서 동사 /오-/(來), /바꾸-/(換), /이-/(載), /이기-/(勝)가 어미 /-어도/와 통합할 때에, 어간말 모음 /오/, /우/와 /이/가 각각 /w/와 /j/로 되는 음운과정을 활음소화라고 하였다. 활음소화규칙이란 활음소화 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이다.

국어에서 활음소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찾기 위해 다음의 예를 보자.

a. /끄] 어도/ → [꺼도](消), /건너] 어도/ → [건너도](渡),
/타] 어도/ → [타도](乘)

b. /메:] 어도/ → [메:도]/[메어도](擔),
/새] 어도/ → [새:도]/[새어도](漏),
/쉬] 어도/ → [쉬어도](休), /꾀] 어도/ → [꾀어도](囈)

c. /피] 어도/ → [펴:도]/[피어도](發),
/두] 어도/ → [둬:도]/[두어도](置),
/쏘] 어도/ → [쏴:도]/[쏘아도](射),
/당기] 어도/ → [당겨도](引),
/거두] 어도/ → [거둬도](收),
/이] 어도/ → [여도](戴), /오] 어도/ → [와도](來)

d. /지] 어도/ → [저도](負), /치] 어도/ → [처도](打),
/찌] 어도/ → [쩌도](蒸), /빠지] 어도/ → [빠져도](溺),
/다치] 어도/ → [다처도](傷)

이 중에서 자료 a는 어간말이 /으/, /어/, /아/로 끝나는 것이다. 이들 동사가 어미 /-어도/와 통합하면, 어간말 모음소의 탈락을 보인다. 다음으로 b는 어간말이 /에/, /애/, /위(ü)/, /외(ö)/로 끝나는 것이다. 이들 동사가 어미 /-어도/와 통합하면, 어미초의 /어/가 어간말 모음소에 완전순행동화하거나 그대로 실현되거나 한다.

자료 c는 어간말이 /이/, /우/, /오/로 끝나는 것이다. 이들 동사가 어미 /-어도/와 통합하면, 어간말의 /이/와 {/우/, /오/}가 활음소화하여 각각 /j/와 /w/로 변동한다. 한편 d는 모두 어간말이 /이/로 끝나는 것이다. 이들 동사가 어미 /-어도/와 통합하면, 어간말의 /이/가 탈락한다. 그런데 c의 동사들이 어미 /-어도/와 통합할 때에, 어간말의 /이/가 모두 /j/로 변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d의 어간말 모음소 /이/도 /j/

로 변동하였을 것을 가정할 수 있다. 그들 동사들이 모두 경구개음소로 시작되며 그들 음소와 /j/가 모두 [+고설성, -저설성, -후설성]을 가지므로 경구개음소 뒤에서 /j/가 탈락된 것이다. 이것은 a에서 동일 위치의 두 모음 /아아/와 /어어/ 중 하나가 탈락되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활용에서 활음소화는 /이/나 {/우/, /오/}로 끝나는 어간과 어미 /-어도/가 통합할 때에 일어난다. 그런데 활음소화는 그러한 어간이 어미 /-어도/와 통합할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예에서 보듯이, /-어서/, /-었-/ 등과 통합할 때에도 일어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활용에서의 활음소화의 조건은 어간말의 모음소 /이/나 {/우/, /오/}와 어미초의 /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 /피] 어서/ → [펴:서]/[피어서](發),
   /피] 었] 다/ → [펴:따]/[피어따]
b. /쏘] 어서/ → [쏴:서]/[쏘아서](射),
   /쏘] 어라/ → [쏴:라]/[쏘아라],
   /쏘] 었] 다/ → [쏴:따]/[쏘아따]

한편 곡용에서 어간말 /이/나 {/우/, /오/}의 활음소화가 기대되는 것은 호격어미 '-아'가 통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 보듯이, 그 경우에는 결코 활음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7.1.1에서 이미 본 것처럼, 그 경우에는 /j/가 삽입된다.

a. /영기] 아/ → [영기야](*[영{갸, 겨}]),
   /민기] 아/ → [민기야](*[민{갸, 겨}])
b. /영수] 아/ → [영수야](*[영{숴, 솨}]),
   /기호] 아/ → [기호야](*[기{화, 훠}])

따라서 어간말 /이/나 {/우/, /오/}의 활음소화는 활용에서만 일어난다고 하겠다. 이것은 활음소화가 형태론적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활음소화규칙은 형태음운규칙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좀더 정밀한 활음소화규칙에 대해서는 제8장(음운론적 방법)을 참조할 것).

$$\bullet \begin{bmatrix} \text{이} \\ \{\text{오, 우}\}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j \\ w \end{bmatrix} / X __]_{Vst} \text{어}Y$$

[2] /어/ 순행동화규칙

/어/ 순행동화규칙이란 어미초의 /어/가 그 앞 어간말의 모음소와 동일하게 되는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이다. 이것은 모음소의 자질에 의한 모음소의 동화이다. 우리는 이 음운과정을 5.1.2의 [2]에서 다룬 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동사의 어간 /깨-/(破), /빼-/(拔)와 /떼:-/(分離)가 어미 /-어도/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 [깨:도], [빼:도]와 [떼:도]에서 보듯이, 어미초의 /어/가 음성으로 실현되지 않는 대신 어간말의 /애/와 /에/(단모음화에 의한)가 장모음으로 실현되는데, 그것은 어미초의 /어/가 어간말의 모음소에 완전순행동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미초 /어/ 순행동화는 위에 제시된 동사의 어간과 어미 /-어도/의 /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매:-/(結), /새:-/(漏), /포개-/(重), /기대-/(依支) 등이나 /세:-/(算, 强), /베:-/(枕, 斬) 등 어간말이 /애/나 /에/로 끝나는 모든 동사와 /-어서/, /-어라/, /-었-/ 등 /어/로 시작되는 모든 어미가 통합할 때에도, 어미초 /어/의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난다(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음성형도 가능하지만, 그것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a. /매:] 어도/ → [매:도](結),
/매:] 어라/ → [매:라],
/매:] 었] 다/ → [맫:따]
/포개] 어도/ → [포개도](重), /포개] 어라/ → [포개라],
/포개] 었] 다/ → [포개따]

b. /세:] 어도/ → /세어도/ → /세에도/ → [세:도](算),
/세:] 어라/ → /세어라/ → /세에라/ → [세:라],
/세:] 었] 다/ → /세었다/ → /세엗따/ → [섿:따]
/베:] 어도/ → /베어도/ → /베에도/ → [베:도](枕),
/베:] 어라/ → /베어라/ → /베에라/ → [베:라],
/베:] 었] 다/ → /베었다/ → /베엗따/ → [벧:따]

위의 음성형을 보면, 두 가지가 주목되는데, 하나는 어미초의 /어/가 완전순행동화함으로써 두 개의 /애/나 /에/가 장모음으로 실현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경우에도 동일한 두 모음소가 장모음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어간이 일음절이냐 이음절 이상이냐에 따라서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어미초 /어/의 완전순행동화 결과는 어간이 일음절이면 그 결과가 장모음으로 실현되며, 어간이 이음절 이상이면 장모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어의 일반적인 사실, 즉 장모음소는 어간의 첫 음절에만 분포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기-/(匍匐), /쓰-/(書), /서-/(立), /주-/(與), /보-/(視), /파-/(掘) 등과 같이 /이/, /으/, /어/, /우/, /오/, /아/로 끝나는 어간과 /어/

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는 어미초의 /어/는 결코 완전순행동화를 보이지 않는다.

a. /기] 어도/ → /겨:도/ → [겨:도]/[기어도],
/주] 어도/ → /줘:도/ → [줘:도]/[주어도],
/보] 어도/ → /보아도/ → /봐:도/ → [봐:도]/[보아도]

b. /쓰] 어도/ → /써도/ → [써도],
/서] 어도/ → /서도/ → [서도],
/파] 어도/ → /파아도/ → /파도/ → [파도]

위의 예에서와 같이, 어간이 /기-/, /주-/, /보-/일 때에는, 어간말 모음소 /이/, /우/, /오/는 어미초의 /어/와 통합하면 활음소화하거나 그대로 실현되며, 어간이 /쓰-/, /서-/, /파-/일 때에는, 어간말 모음소 /으/, /어/, /아/는 어미초의 /어/ 앞에서 탈락한다. 이 사실은 어미초의 /어/는 어간이 /애/나 /에/로 끝날 때에만, 그 뒤에서 완전순행동화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한편 곡용의 경우는, /애/나 /에/로 끝나는 어간과 호격어미 /-아/가 통합할 때에, 결코 어미 /아/는 완전순행동화하지 않는다. 다음 예에서 보듯이, 그 경우에는 오히려 활음소가 삽입된다.

/영배] 아/ → [영배야](*[영배:]),
/미헤(혜)] 아/ → [미헤야](*[미헤:])
cf. /영숙] 아/ → [영수가]

따라서 어미초 /어/의 순행동화는 활용에서만 일어난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순행동화를 지배하는 규칙은 형태음운규칙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어 → Vi / XVi] $_{Vst}$ __ Y [Vi = {에, 애}]

[3] 단(短)모음소화규칙

5.1.2의 [4]에서 장모음소(長母音素)가 일정한 환경에서 단모음소(短母音素)로 교체되는 음운과정을 단모음소화라고 하였다. 그리고 동사 /불:-/ (吹), /알:-/(知), /비:-/(空) 등이 어미 /-고/, /-어도/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다루게 될 단모음소화규칙이란 단모음소화를 지배하는 규칙을 말한다. 이 규칙도 활용과 곡용을 정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설정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단모음소화가 규칙으로써 설명될 수 있는가. 단모음소화가 일어나는 음운환경은 어떤 것인가. 단모음소화는 비음운론적 제약을 받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a. /돈:] 도/ → [돈:도](錢), /돈:] 이/ → [도:니],
/돈:] 을/ → [도:늘], /돈:] 에/ → [도:네]
b. /일:] 도/ → [일:도](事), /일:] 이/ → [이:리],
/일:] 을/ → [이:를], /일:] 에/ → [이:레]
c. /개:] 도/ → [개:도](犬), /개:] 가/ → [개:가],
/개:] 를/ → [개:를], /개:] 에/ → [개:에]
d. /살:] 고/ → [살:고](生), /살:] 으면/ → [살:면],
/살:] 어도/ → [사라도], /살:] 었] 다/ → [사라따]

e. /갈:] 고/ → [갈:고](磨, 耕), /갈:] 으면/ → [갈:면],
/갈:] 어도/ → [가라도], /갈:] 었] 다/ → [가라따]
f. /넘:] 고/ → [넘:꼬](越), /넘:] 으면/ → [너므면],
/넘:] 어도/ → [너머도], /넘:] 었] 다/ → [너머따]
g. /웃:] 고/ → [욷:꼬](笑), /웃:] 으면/ → [우스면],
/웃:] 어도/ → [우서도], /웃:] 었] 다/ → [우서따]
h. /쉬:] 고/ → [쉬:고](休,腐), /쉬:] 으면/ → [쉬:면],
/쉬:] 어도/ → [쉬어도], /쉬:] 었] 다/ → [쉬어따]
i. /깨:] 고/ → [깨:고](覺), /깨:] 으면/ → [깨:면],
/깨:] 어도/ → [깨어도]/[깨:도], /깨:] 었] 다/ → [깨어따]/[깯:따]

위의 예는 장모음을 가진 명사와 동사의 어간에 각각 어미 /-도/, /-{이, 가}/, /-{을, 를}/, /-에/와 /-고/, /-으면/, /-어도/, /-었( ] 다)/이 통합할 경우와 그 음성형이다. 이 예에서 발견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모음소화가 곡용과 활용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자료 a~c에서 보듯이, 곡용에서는 어간에 어떤 어미가 통합하여도 단모음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료 d~i에서 보듯이, 활용에서는 어간에 어떤 어미가 통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모음소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다음으로 활용에서의 단모음소화는 통합하는 어미의 첫 음소가 자음소냐 모음소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료 d~i의 예는 어간에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고/가 통합하면, 어간의 장모음소는 절대로 단모음소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음소 특히 /-어/, /-었-/ 등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예외 없이 단모음소화를 보인다. 다만 자료 d, e와 h, i의 동사처럼 어간이 /ㄹ/로 끝나거나 모음소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간 뒤에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하

기 때문에 단모음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료 f, g의 예에서 보듯이, 어미초의 /으/가 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모음소화가 일어나므로, 어간말음절의 장모음소는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단모음소화한다는 말이 성립된다. 이것은 활용에서의 단모음소화가 어간말의 음운론적 조건과 어미초의 음운론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려준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어간말음절 장모음소의 단모음소화는 곡용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활용에서만 일어나는 음운과정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형태론적 제약을 받는다. 활용에서의 단모음소화는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에서만 일어난다.

그런데 어간이 모음소나 /ㄹ/로 끝나면, 단모음화는 일어나지 않고 어미초의 /으/가 탈락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라는 조건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그 앞에서 단모음소화가 일어나고 다시 어간말의 모음소나 /ㄹ/ 뒤에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하면, 음성으로 실현되는 어간말음절의 장모음소는 단모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모음소화는 활용에서 어간말이 자음소로 끝나면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일어나고, 어간말이 모음소나 /ㄹ/로 끝나면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한하여 일어난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모음소화를 지배하는 규칙은 형태음운규칙이며, 앞의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그 규칙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ullet\ V \rightarrow [\text{-장음성}] \ / \ \begin{cases} X__\ C\,]_{Vst}\ VY \\ X__\ (\text{ㄹ})\,]_{Vst}\ \text{어}Y \end{cases}$$

다만 어떤 경우에도 단모음소화를 보이지 않는 '없:-(無), 작:-(小), 많:-(多)' 등은 이 규칙에서 예외가 된다. 이들 동사의 활용형은 다음과 같다.

a. /없:] 고/ → [업:꼬](無), /없:] 으면/ → [업:스면],
/없:] 어도/ → [업:서도], /없:] 었] 다/ → [업:서따]
b. /작:] 고/ → [작:꼬](小), /작:] 으면/ → [자:그면],
/작:] 어도/ → [자:가도], /작:] 었] 다/ → [자:가따]
c. /많:] 고/ → [만:코](多), /많:] 으면/ → [마:느면],
/많:] 어도/ → [마:나도], /많:] 었] 다/ → [마:나따]

7.2 탈락규칙

형태음운규칙으로서의 탈락규칙는 자음소탈락규칙, 유음소탈락규칙, 모음소탈락규칙으로 구별된다. 여기서는 자음소탈락규칙으로서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을, 모음소탈락규칙으로서 어간말 /으/, /아/, /어/ 탈락규칙과 어미초 /으/ 탈락규칙이 논의될 것이다.

7.2.1 자음소탈락규칙: 자음소군단순화규칙

우리는 6.2.1의 [2]에서 자음소군을 가진 어간과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때에, 다음과 같은 음운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 어간말 자음소가 [-설정성, +비음성]을 가지면 그 앞의 자

음이 탈락하고, [+설정성, -비음성]을 가지면 바로 그 어간말 자음소가 탈락한다. 이런 류의 자음소군은 명사에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두번째 자음소가 [-설정성, -비음성]을 가지는 어간말 자음소군('/ㄺ/, /ㄼ/, /ㄿ/')은 명사와 동사에 다 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자음소군단순화는 국어의 곡용과 활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음 예를 보자.

a. /흙/→ [흑], /흙] 까지/ → [흑까지], /흙] 도/ → [흑또]
　　cf. /흙] 이/ → [흘기]
b. /여덟/→ [여덜], /여덟] 까지/ → [여덜까지],
　/여덟] / → [여덜도]　cf. /여덟] 이/ → [여덜비]
c. /읽] 고/ → [일꼬], /읽] 더라/ → [익떠라]
　/읽] 니/ → /익니/ → [잉니], /읽] 소/ → /익소/ → /익쏘/ → [익쏘]
　　cf. /읽] 어도/ → [일거도]
d. /짧] 고/ → [짤꼬], /짧] 더라/ → [짤떠라]
　　cf. /짧] 어도/ → [짤바도]
　/얇] 고/ → [얄꼬], /얇] 더라/ → [얄떠라]
　　cf. /얇] 어도/ → [얄바도]
　/넓] 고/ → [널꼬], /넓] 더라/ → [널떠라]
　　cf. /넓] 어도/ → [널버도]
e. /밟:]　고/ → [밥:꼬], /밟:] 더라/ → [밥:떠라]
　　cf. /밟:] 어도/ → [발바도]
　/읊] 고/ → [읍꼬], /읊] 더라/ → [읍떠라]
　　cf. /읊] 어도/ → [을퍼도]

자료 a와 b의 예에서 보듯이, 자음소군의 마지막에 [-설정성, -비음

성, -전방성]을 가지는 /ㄱ/나 [-설정성, -비음성, +전방성]을 가지는 /ㅂ/를 가진 명사는 그 자체로 끝나거나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각각 /ㄹ/나 /ㅂ/가 탈락한다. 그러나 활용에서 자료 d와 e의 예는 그 경우에, 자료 a와 b의 예와는 달리, /ㄱ/나 /ㄹ/가 탈락한다. 특히 자료 c의 예에서 보듯이, 어간말자음소군이 /ㄺ/인 경우에는 통합하는 어미의 첫 자음소가 [+설정성]을 가지는 /ㄷ, ㄴ, ㅅ/이면 [+설정성]을 가지는 /ㄹ/가 탈락하며 어미의 첫 자음소가 [-설정성]을 가지는 /ㄱ/이면 [-설정성]을 가지는 두번째 자음소가 탈락한다. 그리고 어간말자음소군이 /ㄼ/인 경우에 자료 d의 예들은, 자료 b의 예에서와 동일하게, 어미초 자음소의 종류에 관계없이 /ㅂ/가 탈락한다.

이 사실은 [설정성]과 [비음성]이 자음소군단순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질임을 말해 주거니와 어간말에 [-설정성, -비음성]을 가지는 자음소를 가지는 자음소군의 단순화는 형태론적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이 때의 자음소군단순화를 지배하는 규칙은 형태음운규칙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C_1 \rightarrow \varnothing$ / X__ $C_2\,]_{N}$ (C_3Y) [C_2 = /ㄱ/일 때]
- $C_2 \rightarrow \varnothing$ / Xㄹ__ $]_{N/Vst}$ (C_3Y) [C_2 = /ㅂ/일 때]
  [어간이 동사일 경우에는 /밟-/(踏)과 /읊-/(吟) 외에 /ㄼ/로 끝나는 모든 동사]
- ㄹ $\rightarrow \varnothing$ / X__ $C_2\,]_{Vst}$ C_3Y [C_2 = /ㄱ/, /ㅂ/나 /ㅍ/일 때]
  [/밟-/(踏)과 /읊-/(吟)에 한정됨]
- ㄹ $\rightarrow \varnothing$ / X__ $C_2\,]_{Vst}$ C_3Y [C_2 = /ㄱ/, C_3 = /ㄷ/, /ㄴ/나 /ㅅ/일 때]
- $C_2 \rightarrow \varnothing$ / Xㄹ__ $]_{Vst}$ C_3Y [C_2 = /ㄱ/, C_3 = /ㄱ/일 때]

7.2.2 유음소탈락규칙

우리는 6.2.2에서 음운규칙으로서의 /ㄹ/ 탈락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런데 국어에는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ㄹ/ 탈락이 있다. 먼저 그 예를 보자.

a. /불:] 고/ → [불:고](吹), /불:] 으오/ → [부:오](*[부로]),
   /불:] 으오] 으니/ → [부:오니](*[부로니])
b. /살:] 고/ → [살:고](生), /살:] 으오/ → [사:오](*[사로]),
   /살:] 으오] 으니/ → [사:오니](*[사로니])
c. /불:] 으니/ → [부:니](吹), /불:] 니/ → [부:니],
   /불:] 으시] 으니/ → [부:시니]
d. /믿] 고/ → [믿꼬](信), /믿] 으오/ → [미드오],
   /믿] 으오] 으니/ → [미드오니]

위에서 c의 예는 어미초의 /ㄴ/나 /ㅅ/ 앞에서 어간말의 /ㄹ/가 탈락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때의 /ㄹ/ 탈락은 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것임을 6.2.3에서 알았다. 그러나 a와 b의 예에서 보이는 /ㄹ/ 탈락은 c의 예와 같은 음운론적 제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의 /ㄹ/ 탈락은 어간 /불-/과 /살-/에 각각 '하오체'의 서술 종결어미 /-으오/와 겸양어미 /-으오-/가 통합할 때에 일어난다.

그 경우에 /ㄹ/ 뒤에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되면, 어간과 /오/가 남는데, 어미의 /오/ 앞에서 /ㄹ/ 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국어에서는 어간이 자음소로 끝나고 어미가 모음소로 시작하면, 자료 d에서 보듯이, 어간말의 자음소는 다음 음절의 첫음소로 된다. 그러므로 어간말의 /ㄹ/는 어미 /오/로 연결되어 /로/로 되고 그것이 [로]로 음성실현된다.

이것은 실제 음성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점에서 어미 /-으오/나 /-으오-/가 통합할 때에 어간말의 /ㄹ/가 탈락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ㄹ/로 끝나는 어간에 '하오체'의 서술 종결어미 /-으오/나 겸양어미 /-으오-/가 통합할 때에 그 앞에서 /ㄹ/가 탈락된다는 형태론적 제약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ㄹ/ 탈락을 지배하는 규칙은 형태음운규칙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ㄹ → ø / X__] Vst 으오] F.E/PRE.F.E

7.2.3 모음소탈락규칙

[1] 어간말의 /으/, /어/, /아/ 탈락규칙

우리는 6.2.3에서 어간말의 /으/ 탈락은 형태론적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7.2.3의 [1]에서는, 동사 /쓰-/(書), /서-/(立), /파-/(掘); /끄-/(消), /건너-/(渡), /타-/(乘)와 어미 /-어도/가 통합하면 어간말 모음이 탈락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어간말 모음소 /으/, /아/, /어/의 탈락과 이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다음 예를 보자.

a. /베스] 도/ → [베스도](이름), /베스] 아/ → [베스야](*[베사])
b. /종서] 도/ → [종서도](이름), /종서] 아/ → [종서야](*[종{사, 서}])
c. /영자] 도/ → [영자도](이름), /영자] 아/ → [영자야](*[영자])

d. /크] 고/ → [크고], /크] 어도/ → [커도],
/크] 서/ → [커서], /크] 었] 다/ → [커따](大)
e. /서] 고/ → [서고], /서] 어도/ → [서도],
/서] 어서/ → [서서], /서] 었] 다/ → [서따](立)
f. /차] 고/ → [차고], /차] 어도/ → [차도],
/차] 어서/ → [차서], /차] 었] 다/ → [차따](蹴)
g. /뜨] 어도/ → [떠도](浮)), /바쁘] 어도/ → [바빠도](忙),
/잠그] 어도/ → [잠가도](閉), /따르] 어도/ → [따라도]](隨),
/모으] 어도/ → [모아도](集) 등
h. /펴] 어도/ → [펴도](伸), /켜] 어도/ → [켜도](點火) 등
i. /자] 어도/ → [자도](宿), /까] 어도/ → [까도](孵化),
/놀라] 어도/ → [놀라도](驚), /모자라] 어도/ → [모자라도](不足) 등

위의 자료 a~c는 /으/, /어/, /아/로 끝나는 명사에 어미 /-도/와 /-아/가 통합하는 경우와 그 음성형이다. 어미 /-도/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은 해당 명사 어간의 기저형이 각각 /베스/, /종서/, /영자/임을 알려준다. 이 기저형들은 어미 /-아/가 통합할 때에도 음성형에 그대로 실현된다. 이것은 곡용에서는 어미 /-아/가 통합할 때에 어간말 모음의 /으/, /어/, /아/가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와는 달리, 자료 d~f는 /으/, /어/, /아/로 끝나는 동사에 어미 /-고/, /-어도/, /-어서/, /-었-/가 통합하는 경우와 그 음성형이다. 이 경우에 어미 /-고/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은 해당 동사 어간의 기저형이 각각 /크-/, /서-/, /차-/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어미 /-어도/, /-어서/, /-었-/이 통합하면 어간말의 /으/, /어/, /아/가 탈락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자료 g~i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어간말의 /으/, /어/, /아/가 탈락하는 것은 몇 개의 동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간말이

/으/, /어/, /아/로 끝나는 모든 동사에 다 적용되는 것임을 말해 준다.[쉼]

(쉼)

다만 동사 '하-(爲)'와 접미사 '하-'에 의해 파생된 동사, 즉 '(X)하-'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해:도], [해:때](/하-/)나 [차캐도], [차캐때](/착하-〉차카-/)와 같이 실현된다. 어간말음절의 모음소와 /어/가 통합하여 [애:]나 [애]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 이때의 어간말모음소가 /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X)하-'의 기저형이 /(X)ㅎ{ㅏ-ㅐ}-/이기 때문이다. 이런 류의 기저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8.4의 '쉼'에 제시된 '복합기저형'의 설명을 참고하라.

위의 서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간말 모음소 /으/, /어/, /아/의 탈락은 활용에서만 일어난다. 이들 모음소의 탈락은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때이다. 따라서 어간말 모음소 /으/, /어/, /아/의 탈락은 형태론적 제약을 받는 음운과정이며, 이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은 형태음운규칙이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으, 어, 아} → ø / X __]$_{Vst}$ 어Y

[2] 어미초의 /으/ 탈락규칙

6.2.3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동사의 어간 /날-/(飛)과 /기-/(匍匐)가 관형사형어미 /-은/과 통합하면 어미초의 /으/가 탈락한다. 그러나 명사 /들(野)/과 주제격어미 /-은/이 통합할 때에는 어미초의 /으/가 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의 어미초 /으/의 탈락은 형태론적 제약을 받는다.

형태론적 제약을 받는 /으/ 탈락을 지배하는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음 예들을 보자.

a. /불] 도/ → [불도](火), /불] 은/ → [부른](*[분]),
/불] 을/ → [부를](*[불])
b. /길] 도/ → [길도](路), /길] 은/ → [기른](*[긴]),
/길] 을/ → [기를](*[길])
c. /새] 도/ → [새도](鳥), /새] 는/ → [새는],
/새] 를/ → [새를]
d. /추] 고/ → [추고](舞), /추] 은/ → [춘] (사람),
/추] 은들/ → [춘들], /추] 을/ → [출] (사람),
/추] 을까/ → [출까], /추] 을수록/ → [출수록] 등
e. /만들] 고/ → [만들고](作), /만들] 은/ → [만든] (사람),
/만들] 은들/ → [만든들], /만들] 을/ → [만들] (사람),
/만들] 을까/ → [만들까], /만들] 을수록/ → [만들수록] 등
f. /깎] 고/ → [깍꼬](削), /깎] 은/ → [까끈] (사람),
/깎] 은들/ → [까끈들], /깎] 을/ → [까끌] (사람),
/깎] 을까/ → [까끌까], /깎] 을수록/ → [까끌수록] 등
h. /오] 은/ → [온](來) (사람), /펴] 은/ → [편](伸) (사람),
/만나] 은/ → [만난](逢) (사람), /바꾸] 은/ → [바꾼](換) (사람) 등
i. /갈] 은/ → [간](磨) (사람), /팔] 은/ → [판](賣) (사람),
/비틀] 은/ → [비튼](捻) (사람), /기울] 은/ → [기운](傾) (사람) 등

위의 예에서, 자료 a~c는 명사 /불/, /길/, /새/에 어미 /-도/와 /-은/, /-을/이 통합한 형과 그 음성형이다. 어미 /-도/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은 그들 명사의 기저형이 각각 /불/, /길/, /새/임을 알려주며, 어미 /-은/, /-을/이 통합할 때의 음성형은 음절의 구조조정에 의해 어간말의 /ㄹ/가 어미의 첫 음소로 될 뿐 결코 어미초의 /으/가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자료 c는 모음소로 끝나는 명사에는 어미 /-은/,

/-을/ 대신 /-는/, /-를/이 통합한다는 것을 알려준다.[쉽]

㉦

일반적으로 어간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와 통합하는 주제격어미와 대격어미는 각각 '-는'과 '-를'이다. 그러나 '-은'과 '-을'이 통합될 수도 있다. 그 경우에는 다음에서 보듯 이 어미의 '으'가 탈락한다.

- /새:은/ → [샌:](날아 갔다), /새우] 은/ → [새운](먹는다), /나그네] 은/ → [나그넨](떠났다)
- /새:] 을/ → [샐](날려라), /새우] 을/ → [새울](먹는다), /나그네] 을/ → [나그넬](찾아라)

한편 자료 d~f는 동사 /추-/, /만들-/, /꺾-/에 어미 /-고/, /-은/, /-은들/, /-을/, /-을까/, /-을수록/이 통합한 형과 그 음성형이다. 그 중 자료 d와 e에서 어간과 어미 /-고/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은 그들 어간의 기저형이 각각 /추-/와 /만들-/임을 알려주며, 자료 f에서 어미 /-은/, /-을/ 등과 통합할 때의 음성형은 동사의 기저형이 /꺾-/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자료 d와 e에서 어간과 어미 /-은/, /-을/ 등이 통합할 때의 음성형은 그들 어간 뒤에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f에서 그들 어미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은 어간말 자음소 뒤에서는 어미초의 /으/가 탈락하지 않으며 어간말 자음소가 어미의 첫 음소로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자료 h와 i는 폐음절을 이루는 어미초 /으/는 모음소나 /ㄹ/로 끝나는 어간과 통합할 때에 활용에서 예외 없이 탈락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상의 서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폐음절을 이루는 어미초 /으/의 탈락은 곡용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활용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 때의 /으/ 탈락은 형태론적 제약을 받는다. 이 경우에 활용에서 어

미초 /으/ 탈락은 어간이 모음소나 /ㄹ/로 끝나는 경우에만 일어난다. 따라서 폐음절을 이루는 어미초 /으/의 탈락을 지배하는 규칙은 형태 음운규칙이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으 → ø / X {V, ㄹ}]$_{Vst}$ __ C(σ)

7.3 삽입규칙

삽입규칙이란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그 경계에 새로운 음소가 삽입되는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ø → c / Xa] __bY

이 규칙은 a와 b 사이에 새로운 음소 c가 삽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삽입규칙 중 자음소삽입규칙으로 /ㄴ/ 삽입규칙과 활음소삽입규칙으로 /j/ 삽입규칙이 논의된다.

7.3.1 자음소삽입규칙: /ㄴ/ 삽입규칙

국어에는 음운규칙으로서 삽입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ㄴ/가 삽입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a. [일]N [연대]N → [일련대]/[일 연대](一聯隊),
[삼]N [연대]N → [삼년대]/[삼 연대](三聯隊),
[육]N [연대]N → [융년대]/[육 연대](六聯隊),
[일]N [이]N [년]I.N → [일리년]/[일 이년](一二年),
[서른]N [여섯]N → [서른녀섣]/[서른 여섣](三十六),
[스물]N [여섯]N → [스물려섣]/[스물 여섣](二十六),
[말]N [이름]N → [말리름]/[말 이름],
[들]N [입구]N → [들립꾸]/[들 입꾸]

a'. [이:]N [연대]N. → [이:연대](二聯隊),
[일]N [일]I.N → [이릴](一日),
[삼]N[일]I.N → [사밀],
[서른]N [아래]N → [서르나래]/[서른 아래],
[스물]N [아홉]N → [스무라{옵,홉}]/[스물 아{옵,홉}],
[들]N [위]N → [드뤼]/[들 위]

b. [잘]Ad [w입]Vst 는다]w → [잘립는다]/[잘 입는다],
[못:]Ad [w입]Vst 는다]w → [몬:닙는다]/[몯 입는다],
[잘]Ad [w영글]Vst 은다]w → [잘령근다]/[잘 영근다]

b'. [미리]Ad [w입]Vst는다]w → [미리입는다],
[잘]Ad [w웃]Vst는다]w → [자룬는다]/[잘 운는다],
[못:]Ad [w웃]Vst는다]w → [모:둔는다]/[몯 운는다],
[잘]Ad [w외]Vst은다]w → [자뢴다]/[잘 왼다]

c. [w하]Vst은]w [일]N → [한닐]/[한 일],
[w닦]Vst은]w [유리]N → [다끈뉴리]/[다끈 유리],
[w먹]Vst은]w [엿]N → [머근녇]/[머근 엳],
[w하]Vst을]w [일]N → [할릴]/[할 일],
[w닦]Vst을]w [유리]N → [다끌류리]/[다끌 유리],

[$_w$먹]$_{Vst}$을]$_w$[엿]$_N$ → [머글렫]/[머글 엳]

c'. [$_w$먹]$_{Vst}$은]$_w$[알]$_N$ → [머그날]/[머근 알],

[$_w$먹]$_{Vst}$을]$_w$[알]$_N$ → [머그랄]/[머글 알],

[$_w$잡]$_{Vst}$은]$_w$[오리]$_N$ → [자브노리]/[자븐 오리]

위의 예에서 자료 a는 명사와 명사가 통합하는 경우이며, 자료 b는 부사와 동사가 통합하는 경우이고 자료 c는 동사와 명사가 통합하는 경우이다. 성분상으로는 앞의 것이 수식어이고 뒤의 것이 피수식어이다. 각각의 경우에 두 가지 음성형이 가능한데, 하나는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휴지를 두지 않고 발음할 때의 음성형이고 다른 하나는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휴지를 두고 발음할 때의 음성형이다. 자료 a~c에서 앞의 경우에는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ㄴ/가 삽입되지만, 뒤의 경우에서 /ㄴ/가 삽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료 a'~c'의 경우에는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휴지를 두지 않고 발음할 때에도 /ㄴ/가 삽입되지 않는다.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휴지를 두지 않을 때에, /ㄴ/ 삽입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이러한 예들로부터 우리는 /ㄴ/ 삽입이 일어나는 환경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자료 a와 a'의 경우, /ㄴ/ 삽입이 일어나는 a의 수식어는 각각 /ㄹ/, /ㅁ/, /ㄴ/, /ㄱ/로 끝나고 피수식어는 /이/나 /j/로 시작된다. 이와는 달리, /ㄴ/ 삽입이 일어나지 않는 자료 a'의 수식어는 '모음소', /ㄹ/, /ㅁ/, /ㄴ/로 끝나고 피수식어는 /j/, /이/, /아/, /위/로 시작된다.

다음으로 자료 b와 b'의 경우, /ㄴ/ 삽입이 일어나는 자료 b의 수식어는 각각 /ㄹ/, /ㅅ/로 끝나고 피수식어는 /이/나 /j/로 시작된다. 이와는 달리, /ㄴ/ 삽입이 일어나지 않는 자료 b'의 수식어는 '모음소'나 /ㄹ/로 끝나고 피수식어는 /이/나 /우/, /외/로 시작된다. 끝으로 자료

c와 c'의 경우, /ㄴ/ 삽입이 일어나는 자료 c의 수식어는 /ㄴ/나 /ㄹ/로 끝나고 피수식어는 /이/나 /j/로 시작된다. 그러나 /ㄴ/ 삽입이 일어나지 않는 자료 c'의 수식어는 /ㄴ/나 /ㄹ/로 끝나고 피수식어는 /아/나 /오/로 시작된다.

위의 각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ㄴ/가 삽입되는 경우에, 수식어는 반드시 /ㄹ/나 '자음소'로 끝나며 피수식어는 반드시 /이/나 /j/로 시작된다. 이와는 달리, 수식어가 '모음소'로 끝나거나 피수식어가 /이/나 /j/ 이 외의 모음소로 시작되면 그 사이에 /ㄴ/ 삽입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 a'에 있는 /【일】$_{N}$【일】$_{I.N}$/ → [이릴](一日), /【삼】$_{N}$【일】$_{I.N}$/ → [사밀]이다. 이 두 예는 앞의 명사가 /ㄹ/나 /ㅁ/로 끝나고 뒤의 명사가 /이/로 시작되지만, /ㄴ/ 삽입을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이들 예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들의 구성요소를 잘 검토하면, 그것들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ㄴ/ 삽입을 보이는 예들과는 달리, 피수식어에 해당하는 그들 예의 '일(日)'이 의존명사, 즉 의존형태소라는 사실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ㄴ/ 삽입이 일어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ㄴ/ 삽입은 /ㄹ/나 /자음/으로 끝나는 자립형태소와 /이/나 /j/로 시작하는 자립형태소가 통합할 때에, 그 사이에 휴지를 두지 않을 경우에 일어난다. 이러한 /ㄴ/ 삽입은 형태론적 제약을 받으므로, /ㄴ/ 삽입을 지배하는 규칙은 형태음운규칙이 된다. 그런데 자립형태소는 단어가 되므로, 그 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쉽]

• ø → ㄴ / 【$_{W}$X{ㄹ, C}】$_{W}$ __ 【$_{W}${이, j}Y】$_{W}$

쉼

수식어가 /ㄹ/ 이외의 자음소로 끝나고 피수식어가 /이/나 /j/로 시작되면 그 사이에 /ㄴ/가 삽입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식어가 /ㄹ/로 끝나는 경우에는 음성형에 피수식어의 첫음이 [ㄹ]로만 실현되므로, /ㄴ/가 삽입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없다. 그것은 /ㄴ/가 삽입된 뒤에 다시 피수식어의 첫음 /ㄴ/가 수식어의 끝음 /ㄹ/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N들]N[N입구]N/를 예로 들어 그러한 음운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N들]N [N입구]N/ —(ㄴ 삽입)→ /들 ㄴ 입구/ → /들닙구/ —(자음소동화)→ /들립구/ —(경음소화)→ /들립꾸/ → [들립꾸]

7.3.2 활음소삽입규칙: /j/ 삽입규칙

5.3.2에서 우리는 동사의 어간 /떼-/(分離), /이기-/(勝)가 어미 /-어도/와 통합할 때에 /j/가 삽입될 수 있으며, 어간 /주-/(授), /놓-(放)/가 어미 /-어도/와 통합할 때에 /w/가 삽입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명사 /뒤/(後), /사이/(間)와 어미 /-에/가 통합할 때와 명사 /영수/와 어미 /-아/가 통합할 때에 /j/가 삽입됨을 보았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명사와 어미 /-아/가 통합하는 경우 외의 활음소삽입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경우의 활음소는 삽입될 수도 있고 삽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 보듯이, 명사와 어미 /-아/가 통합할 때에는, 활음이 삽입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활음이 삽입된다.

a. /영기] 아/ → [영기야](*[영기아])(이름)
/수태] 아/ → [수태야](*[수태아])(이름)
/영수] 아/ → [영수야](*[영수아])(이름)

/건모ㅣ아/ → [건모야](*[건모아])(이름)
/종서ㅣ아/ → [종서야](*[종서아])(이름)
/옥화ㅣ아/ → [오콰야](*[오콰아])(이름)
b. /토끼ㅣ아/ → [토끼야](*[토끼아])(兎)
/새ㅣ아/ → [새야](*[새아])(烏)
/노루ㅣ아/ → [노루야](*[노루아])(獐)
/낙타ㅣ아/ → [낙타야](*[낙타아])(駱駝)
c. /영식ㅣ아/ → [영시가](*[영시갸])(이름)
/영심ㅣ아/ → [영시마](*[영시먀])(이름)
/말ㅣ아/ → [마라](*[마랴])(馬)
d. /기ㅣ어도/ → [겨:도]/[기여도]/[기어도](匍匐)
/쓰ㅣ어도/ → [써도](書), /파ㅣ어도/ → [파도](掘)
/깨ㅣ어도/ → [깨:도]/[깨여도]/[깨어도](破)
/보ㅣ어도/ → [봐:도]/[보와도]/[보아도](視)
e. /익ㅣ어도/ → [이거도](熟), /묶ㅣ어도/ → [무꺼도](束)

위의 예에서 자료 a는 고유명사와 호격어미 /-아/가 통합한 형과 그 음성형이고 자료 b는 동물명과 호격어미 /-아/가 통합한 형과 그 음성형이다. 그리고 자료 c는 고유명사나 동물명에 호격어미 /-아/가 통합한 형과 그 음성형이고 자료 d는 동사어간과 어미 /-어도/가 통합한 형과 그 음성형이다. 그런데 자료 a와 b의 예는 모두 활음소 /j/의 삽입을 보이지만, 자료 c와 e의 예는 모두 활음소 삽입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료 d의 예는 어간말이 /이/, /애/나 /오/로 끝날 때에 임의적으로 활음소 /j/나 /w/의 삽입을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활음소가 삽입되기 위해서는 명사나 동사가 반드시 모음소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모음소로

끝나는 명사와 어미 /-아/가 통합할 때에는, 어간말 모음소의 종류에 관계 없이 반드시 명사와 어미 사이에 활음소 /j/가 삽입된다. 이 점에서 일정한 어간말 모음소와 어미 /-어도/ 사이에 임의적으로 활음소 /j/나 /w/가 삽입되는 활용과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곡용에서의 /j/ 삽입은 형태론적 제약을 가지며 그러한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은 형태음운규칙이 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emptyset \rightarrow j$ / XVㅣ$_N$ __ 아

요약

형태음운규칙이란 형태론적 제약을 받는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을 말한다. 이러한 규칙에는 교체규칙, 탈락규칙, 삽입규칙이 있다.

〔1〕 **교체규칙**

형태음운규칙으로서의 교체규칙 중 자음소교체규칙에는 경음소화규칙이 있고 모음소교체규칙에는 활음소화규칙, /어/ 순행동화규칙, 단(短)모음소화규칙이 있다. 경음소화규칙은, 곡용의 경우 평파열음소화에 의한 어간말의 /ㅂ/, /ㄷ/, /ㄱ/ 뒤에서, 그리고 활용의 경우 /ㄹ/와 /ㅎ/를 제외한 어간말의 순수자음 뒤에서 어미초의 평음소를 경음소화시키는 규칙이다. 활음소화규칙은 어미초의 /어/ 앞에서 동사의 어간말 모음소 /이/와 {/오/, /우/}를 각각 /j/와 /w/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며, /어/ 순행동화규칙이란 동사의 어간말 모음소 /에/, /애/ 뒤에서 어미초의 /어/를 그 앞의 어간말의 모음소와 동일하게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또 단(短)모음소화규칙은, 활용에서 어간말이 자음소로 끝나면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그리고 어간말이 모음소나 /ㄹ/로 끝나면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어간의 장모음소를 단모음소화시키는 규칙이다.

〔2〕 **탈락규칙**

형태음운규칙으로서의 탈락규칙에는 자음소탈락규칙, 유음소탈락규칙, 모음소탈락규칙이 있다. 자음소탈락규칙에는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이 있고 모음소탈락규칙에는, 어간말의 /으/, /아/, /어/ 탈락규칙과 어미초의 /으/ 탈락규칙이 있다. 자음소군단순화규칙은, 곡용의 경우, 그 자체로 끝나거나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각각 어간말 자음소군 /ㄺ/나 /ㄼ/의 /ㄹ/나 /ㅂ/를 탈락시키며, 활용의 경우,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는 어간말 자음소군 /ㄼ/, /ㄿ/의 /ㄹ/를 탈락시키며, [+설정성]을 가진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는 어간말 자음소군 /ㄺ/의 /ㄹ/를 탈락시키고 [-설정성]을 가진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는 어간말 자음소군 /ㄺ/의 /ㄱ/를 탈락시키는 규칙이다. 유음소탈락규칙은 종결어미 /-으오/나 선어말어미 /-으오-/가 통합할 때에 어간말의 /ㄹ/를 탈락시키는 규칙이다.

한편 어간말의 /으/, /어/, /아/ 탈락규칙은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될 때에 동사의 어간말 모음소 /으/, /어/, /아/를 탈락시키는 규칙이다. 그리고 어미초의 /으/ 탈락규칙은 모음소나 /ㄹ/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과 통합하는 폐음절의 어미초 /으/를 탈락시키는 규칙이다.

〔3〕 삽입규칙

형태음운규칙으로서의 삽입규칙에는 자음소삽입규칙과 활음소삽입규칙 있다. 자음소삽입규칙으로서 /ㄴ/ 삽입규칙은 /ㄹ/나 '자음소'로 끝나는 단어와 /이/나 /j/로 시작하는 단어가 통합할 때에, 그 사이에 /ㄴ/를 삽입시키는 규칙이다. 그리고 활음소삽입규칙으로서 /j/ 삽입규칙은 모음소로 끝나는 명사와 호격어미 /-아/가 통합할 때에, 명사와 어미 사이에 /j/를 삽입시키는 규칙이다.

연습문제 7

1. 다음 규칙을 문장으로 서술해 보라.

   a. 평자음소 → 경음소 / X{ㅂ, ㄷ, ㄱ, ㄴ, ㅁ}]Vst ___ Y
   b. ㄹ → ø / X ___]Vst 으오]F.E
   c. ø → ㄴ / [w X{ㄹ, C}]w ___ [w {이, j}Y]w

2. 다음 문장을 음소를 사용하여 규칙으로 나타내어 보라.

   a. 어미초의 /어/는 /애/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뒤에서 어간말 모음소에 완전 순행동화한다.
   b. 폐음절을 이루는 어미초의 /으/는 '모음소'나 /ㄹ/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뒤에서 탈락한다.
   c. 모음소로 끝나는 명사와 호격어미 /-아/가 통합하면 그 사이에 /j/가 삽입된다.

3. 다음 곡용의 음성형에 대하여 아래 지시대로에 답하라.

1. [입또], [이비], [입뿌터], [입까치], [임만]
2. [입또], [이피], [입뿌터], [입까치], [임만]
3. [박또], [바기], [박뿌터], [박까치], [방만]
4. [손도], [소니], [솜부터], [송가치], [솜만]
5. [옫또], [오시], [옵뿌터], [옥까치], [옴만]
6. [낟또], [나지], [납뿌터], [낙까치], [남만]
7. [담도], [다미], [담부터], [담가치], [담만]
8. [박또], [바끼], [박뿌터], [박까치], [방만]

9. [강도], [가이(kaŋi)], [강부터], [강가치], [강만]
10. [꼳또], [꼬치], [꼽뿌터], [꼭까치], [꼼만]
11. [발도], [바리], [발부터], [발가치], [발만]

a. 형태를 분석하여 각 어간의 기저형을 결정하라

b. 어간의 기저형에 어미 /-도/가 통합할 때에 어미초의 /ㄷ/가 경음소화하는 음운론적 환경을 말하라.

c. b의 결과와 1a의 규칙을 고려하여, 제시된 자료에서 어미초 /ㄷ/의 경음소화를 지배하는 규칙을 음소로써 나타내라.

제8장 음운론의 기술방법

우리는 제1장에서 음운론이 음성과 음형(音型)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국어음운론은 토박이 한국 사람의 음성과 음형을 연구하는 국어학의 한 분야임도 알게 되었다. 국어음운론의 연구 대상이 되는 공시적인 음형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국어에서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음성 단위의 목록, 즉 음운목록이고, 둘째는 형태소 내에서 그들 음운의 가능한 결합, 즉 음운배열이며, 셋째는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이 통합할 때에 일어나는 음소의 탈락이나 삽입 등과 같은 음운과정이다.

국어음운론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위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2장에서 음소목록을 다루었고 제3장에서 음소목록과 변별적 자질을 다루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음절을, 제5장에서 제7장까지에서는 국어의 음운과정의 설명에 필요한 음운과정과 음운규칙 및 형태음운규칙을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실제의 국어음운론의 기술방법을 다루기로 한다. 음운론의 기술은 1) 자료 수집, 2) 자료 분석과 정리, 3) 기저형의 설정, 4)

규칙의 설정, 5) 음운과정의 설명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국어음운론을 연구하려면, 이들 각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8.1 자료 수집

국어음운론의 기술을 위한 자료는 문자로 씌어져 있는 문어(文語) 자료가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어(口語) 자료, 즉 말이다. 말을 수집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의 무한정하므로, 그 많은 말을 모두 수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또 그러한 자료가 수집되었다고 해도, 그 모두가 연구 목적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내어야 한다. 그것은 분명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낭비를 줄이면서 가장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은 연구 목적에 적합한 조사 항목을 작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시 음운론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곡용과 활용의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공시적인 음운과정은 어간과 어미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제6장과 제7장의 자료 참조). 그러므로 단어 중심의 자료 수집을 해서는 공시 음운론적인 연구는 불가능하게 된다. 또 공시적 음운과정 중에서 활음소화를 연구하려고 한다면, 곡용과 활용의 자료 수집은 필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셈이 된다. 왜

냐하면, 곡용과 활용의 자료에는 활음소화와 무관한 것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국어에서 활음소화는 활용에서만 일어나며, 활음소화는 대부분 /이/나 /오/, /우/로 끝나는 어간과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일어난다(7.1.2의 [1] 참조). 그러므로 공시적인 활음소화를 연구하려면, 그러한 조건을 갖춘 어간과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를 조사 항목으로 하여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에 적합한 조사 항목을 작성하여 자료 수집을 할 때에도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제보자가 조사 항목에 대한 자연스런 어형을 말하게 하는 기술과 제보자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능력이다. 하나의 예로 활음소화 연구를 위해서 어간 /이기-/(勝)와 어미 /-어도/가 통합할 때의 어형을 수집하는 경우를 들어보자.

먼저 어떻게 물어야 제보자가 가장 자연스러운 어형을 말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한 물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기'에 '어도'를 붙이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기'에 '어도'를 붙이면 '이겨도'라고 합니까 '이기도'라고 합니까?", "다음 말에서 '어째도'에 해당되는 말을 해 주십시오. 전쟁은 져도 문제고 '어째도' 문제다. '어째도'에 해당하는 말은 '지다(敗)'의 반대말입니다."

질문 방법이 좋지 않아서 제보자가 실제로 쓰는 자연스러운 어형과는 다른 어형을 말한 것을 기록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그 연구가 아무리 훌륭한 이론을 바탕으로 힘들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는 달리, 질문도 잘하고 제보자가 자연스러운 어형도 말했는데, 그것을 조사자가 잘못 들었거나 선입관 때문에 자기 나름으로 해석하여 잘못 기록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했다고 가정해 보자. 다시 말하면,

위의 조사 항목에 대해서 제보자가 '이게도'나 '이기도'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이겨도'라고 잘못 들었다거나,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겨도'가 되어야 한다는 선입관 때문에 '이겨도'라고 기록했다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루어진 연구 또한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자료의 정확성 여부는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정확한 자료 수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좋은 연구는 자료만 정확하다고 하여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연구를 위한 자료는 정확하면서 체계적이어야 한다. 음운론 연구에서, 자료가 체계적이라는 말은 연구 대상이 되는 각 음운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자료가 최대로 다양하다는 말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어의 자음소동화 중 '비음소화'를 예로 들어 보자.

/입] 만/ → [임만](口)
/잡] 는다/ → [잠는다](執)
/맡] 는다/ → [만는다](臭)
/먹] 만/ → [멍만](墨)
/익] 는다/ → [잉는다](熟)

먼저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비음소화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비음소화란 1) 명사 /입/의 /ㅂ/와 동사 /잡-/의 /ㅂ/가 어미 /-만/과 /-는다/ 앞에서 /ㅁ/로 되고, 2) 동사 /맡-/의 /ㅌ/가 어미 /-는다/ 앞에서 /ㄴ/로 되며, 3) 명사 /먹/과 동사 /익-/의 /ㄱ/가 어미 /-만/과 /-는다/ 앞에서 /ㅇ(ŋ)/로 되는 것이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에 옳지 않다. 1)의 경우, /ㅂ/가 /ㅁ/로 되는 것은 어간 /입/과 /잡-/이 각각 어미 /-만/과 /-는다/가 통합할 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명사 /밥/(食), /법/(法), /직업/(職業)

등이 어미 /-만/, /-만큼/과 통합하거나 동사 /입-/(着衣), /깁-/(縫), /눕-/(臥), /곱-/(麗), /가깝-/(近), /무겁-/(重) 등이 어미 /-니/(의문어미), /-는/(관형사형어미) 등과 통합할 때에도 어간말의 /ㅂ/는 /ㅁ/로 된다. 그리고 2)의 경우, /ㅌ/가 /ㄴ/로 되는 것은 동사 /맡-/과 어미 /-는다/가 통합할 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동사 /흩-/(散), /맡-/(任), /뱉-/(唾), /붙-/(附) 등이 어미 /-니/, /-는/과 통합할 때에도 어간말의 /ㅌ/는 /ㄴ/로 된다. 또 3)의 경우, /ㄱ/가 /ㅇ(ŋ)/로 되는 것은 명사 /먹/과 동사 /익-/이 어미 /-만/과 /-는다/가 통합할 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명사 /박/(匏), /속/(裏), /복/(福), /수박/(水瓜) 등과 동사 /막-/(防), /죽-/(死), /녹-/(解), /썩-/(腐) 등이 어미 /-만/, /-만큼/이나 /-니/, /-는/과 통합할 때에도 어간말의 /ㄱ/는 모두 /ㅇ(ŋ)/로 된다.

다음으로, 위의 사실을 감안하여, 비음소화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비음소화란 1) 명사와 동사의 어간말 자음소 /ㅂ/가 어미초의 /ㅁ/와 /ㄴ/ 앞에서 /ㅁ/로 되고, 2) 동사의 어간말 자음 /ㅌ/가 어미초의 /ㄴ/ 앞에서 /ㄴ/로 되며, 3) 명사와 동사의 어간말 자음 /ㄱ/가 어미초의 /ㅁ/와 /ㄴ/ 앞에서 /ㅇ(ŋ)/로 되는 것이다.

이 주장은 앞의 주장에 비해서는 크게 발전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주장 역시 다음 사실 때문에 옳지 않다. 1)의 경우, 어미초의 /ㅁ/와 /ㄴ/ 앞에서 /ㅁ/로 되는 것은 명사와 동사의 어간말 자음소 /ㅂ/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명사 /잎/(葉), /앞/(前), /옆/(側) 등이나 동사 /덮-/(覆), /갚-/(報), /깊-/(深), /높-/(高) 등의 어간말 자음 /ㅍ/도 어미초의 /ㅁ/와 /ㄴ/ 앞에서 /ㅁ/로 된다.

그리고 2)의 경우, 어미초의 /ㄴ/ 앞에서 /ㄴ/로 되는 것은 동사의 어간말 자음 /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명사 /옷/(衣), /낮/(晝) 등이나 동사 /벗-/(脫), /늦-/(漫), /쫓-/(追), /낳-/(産) 등의 어간말

자음소 /ㅅ/, /ㅈ/, /ㅊ/, /ㅎ/ 등도 어미초의 /ㄴ/ 앞에서 /ㄴ/로 된다. 또 3)의 경우, 어미초의 /ㅁ/와 /ㄴ/ 앞에서 /ㅇ(ŋ)/로 되는 것은 명사와 동사의 어간말 자음소 /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명사 /밖/(外), /부엌/(廚) 등이나 동사 /꺾-/(折), /섞-/(混), /묶-/(束), /깎-/(削) 등의 어간말 자음소 /ㄲ/, /ㅋ/ 등도 어미초의 /ㅁ/와 /ㄴ/ 앞에서 /ㅇ(ŋ)/로 된다.

끝으로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비판 내용을 종합하여, 비음소화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비음소화란 어미초의 비음 앞에서 평파열음소화된 어간말의 /ㅂ/, /ㄷ/, /ㄱ/가 각각 동일 조음위치의 비음소로 변동하는 것이다(6.1의 [2] 참조).

위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판할 여지를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은 체계적인 자료의 검토에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토되는 자료가 체계적이면 체계적일수록 그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더 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음운목록을 참조하면서 조사 항목을 작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시적인 음운과정은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일어난다. 따라서 조사 항목은 어간이 자음소나 모음소로 끝나는 경우와 어미가 자음소나 모음소로 시작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그런 어간과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 \begin{Bmatrix} C \\ V \end{Bmatrix}] \begin{Bmatrix} C \\ V \end{Bmatrix} Y/$$

여기서 어간말의 자음소와 모음소는 대상 언어의 자음소목록와 모음소목록를 구성하는 자음소와 모음소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것이다. 그리고 어미의 첫 자음소와 모음소는 어간말 자음소와 모음소의 수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해당 어간말 자음소 또는 모음소를 가진 국어 어간과 해당 어미초 자음소 또는 모음소를 가진 국어 어미를 선정하여 조사 항목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항목으로 조사한다면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음운론 연구를 위한 자연스러운 말은 지역과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어 '솥(鼎)'이 어미 /-이/, /-을/, /-으로/, /-에/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은 경기도 〈파주〉에서는 [소시], [소슬], [소스로], [소세]이며, 경기도 〈고양, 양평, 여주, 시흥, 광주〉에서는 [소치], [소츨], [소츠로], [소테]이다. 그리고 전라남도 거의 대부분에서는 [소시], [소슬], [소스로], [소테]이며, 경상남도의 거의 대부분에서는 [소치], [소틀], [소트로], [소테]이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50대 이상의 말에서는 단(短)모음소와 장(長)모음소의 구별이 있고 /에/와 /애/의 구별이 있지만, 30대 이하의 말에서는 그러한 구별이 없다.

이처럼 지역과 나이 등에 따라 음형(音型)에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 대상 언어에 대한 조사자 자신의 선입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자료 조사를 할 때에는 연구 대상 언어를 전혀 모르는, 마치 화성에서 온 화성인과 같은 처지에서 제보자의 말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8.2 자료 분석과 정리

제5장에서 제7장까지 우리는 어간과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와 그에 대한 음성형을 보이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시하였다. /입ㅣ는다/ → [임는다](着衣)가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료 제시는 표준어 동사 '입-(着衣)'과 표준어 어미 '-는다'에 해당하는 대상 언어의 기저형이 각각 /입-/과 /-는다/임을 확인한 뒤에나 가능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자료 조사와 자료 분석, 자료 정리 그리고 기저형의 설정이 완료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지금까지 자료를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음운론을 기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음운론은 연구 목적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조사 항목을 작성하고, 각각의 조사 항목에 대한 대상 언어의 기저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대상 언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한다.

자료 조사에서 얻게 되는 자료는, 공시 음운론 연구를 기준으로 하면, 표준어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그에 해당하는 대상 언어의 어형이다. 그 어형은 어간과 어미의 구별이 없는 음성형이다. 8.1에 제시된 1) [소시], [소슬], [소스로], [소세]나 2) [소치], [소츨], [소츠로], [소테]나 3) [소시], [소슬], [소스로], [소테] 또는 4) [소치], [소틀], [소트로], [소테]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다루려는 '자료 분석과 정리'는 그러한 음성형을 형태 분석하여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저형이 설정되지 않으면, 음운과정이나 음운규칙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음운론 연구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자료의 분석과 정리는 자료의 질에 따라서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으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위의 1)은 표준어 어간 '솥'과 표준어 어미 '-이, -을, -으로, -에'에 해당하는 대상 방언의 통합형이다. 즉 [소시]는, 어간과 어미 '-이'가 통합된 것이므로, '솟'과 '이'로 분석된다. 그리고 [소슬]은, 어간과 어미 '-을'이 통합된 것이므로, '솟'과 '을'로 분석된다. 같은 이유에서 [소스로]는 '솟'과 '으로'로, [소세]는 '솟'과 '에'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1)의 음성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 방언의 어간은 '솟'이며 어미는 '-이, -을, -으로, -에'이다.

2) [소치], [소츨], [소츠로], [소테]나 3) [소시], [소슬], [소스로], [소테] 또는 4) [소치], [소틀], [소트로], [소테] 등도 1)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 결과 2)에서, [소치]는 '솣'과 '이'로, [소츨]은 '솣'과 '을'로, [소츠로]는 '솣'과 '으로'로, 그리고 [소테]는 '솥'과 '에'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당 방언의 어간은 '솣'과 '솥'이며 어미는 '-이, -을, -으로, -에'이다. 어간 중에서 '솣'은 어미 '-이, -을, -으로'와 통합하고 '솥'은 어미 '-에'와 통합한다.

마찬가지로, 3)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당 방언의 어간은 '솟'과 '솥'이며 어미는 '-이, -을, -으로, -에'이다. 어간 중에서 '솟'은 어미 '-이, -을, -으로'와 통합하고, '솥'은 어미 '-에'와 통합한다. 그리고 4)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간은 '솣'과 '솥'이며 어미는 '-이, -을, -으로, -에'이다. 어간 중 '솣'은 어미 '-이'와 통합하고 '솥'은 어미 '-을, -으로, -에'와 통합한다.

조사된 음성형을 이 정도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조사 항목에 대한 음운론적 조사 연구는 각 지역어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음성형에 대한 형태 분석과 정리와는 달리, 음운변동이 심한 음성형을 대상으로 형태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은 복잡하고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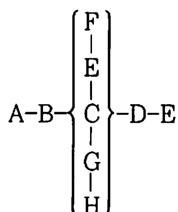
렵다. 다음에 제시된 음성형을 대상으로 어떻게 형태를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1	2	3	4	5	6	표준어
a	빋뽀다	빋까지	빈만	비시	비슬	빋또	빛(光)
b	논보다	논까지	논만	노니	노늘	논도	논(畓)
c	압뽀다	압까지	암만	아피	아플	압또	앞(前)
d	박뽀다	박까지	방만	바기	바글	박또	박(匏)
e	새:보다	새:까지	새:만	새:가	새:를	새:도	새:(鳥)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경험을 충분히 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의 자료 분석이 상당히 막연한 일로 생각될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분명하고 쉽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1) 자료를 '통합 관계(統合關係)'에서 관찰한다.
(2) 자료를 '계열 관계(系列關係)'에서 관찰한다.
(3)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한 단위라고 생각한다.

먼저 (1)의 '통합 관계'란 어떤 단위가 'ABCDE'와 같이 A, B, C, D, E라는 네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을 때, 각 구성요소들의 횡적인 관계, 즉 'A-B-C-D-E'의 관계를 '통합 관계'라고 한다. 그리고 (2)의 '계열 관계'란, 아래와 같이, 통합 관계를 이루는 어떤 구성요소, 예컨대 C를 다른 요소들, E나 F나 G나 H로 대치시켰을 때, 대치된 요소들 간의 종적인 관계, 즉 'F-E-C-G-H'의 관계를 '계열 관계'라고 한다.



이제 위에 제시된 자료에 (1)과 (3)의 방안을 적용하여 보면, 자료 a1~6에서는 '빗'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자료 b1~6에서는 '논'이, 자료 c1~6에서는 '압'과 '앞'이, 자료 d1~6에서는 '박'이, 그리고 자료 e1~6에서는 '새:'가 반복하여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료 c1~6의 경우, '압'과 '앞'은 각각 '압뽀다, 압또'와 '아피, 아플'에서 공통으로 발생한다.

다음으로 동일한 자료에 (2)와 (3)의 방안을 적용하면, 1a~e에서는 '-뽀다', '-보다'가, 2a~e와 3a~e에서는 각각 '-까지'와 '-만'이, 4a~e와 5a~e에서는 각각 '-이'와 '-을'이, 그리고 6a~e에서는 '-또', '-도'가 반복하여 발생한다.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안에 의한 관찰을 종합하면, 위의 자료는 (1)과 (3)의 방안보다는 (2)와 (3)의 방안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자료 a~e의 1~6은 각각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1	2	3	4	5	6	표준어
a	빋-뽀다	빋-까지	빈-만	빗-이	빗-을	빋-또	빛(光)
b	논-보다	논-까지	논-만	논-이	논-을	논-도	논(畓)
c	압-뽀다	압-까지	암-만	앞-이	앞-을	압-또	앞(前)
d	박-뽀다	박-까지	방-만	박-이	박-을	박-또	박(匏)
e	새:-보다	새:-까지	새:-만	새:-가	새:-를	새:-도	새:(鳥)

이렇게 분석된 자료는 '어간'을 중심으로, '어미'를 중심으로, 그리고 '어간과 어미'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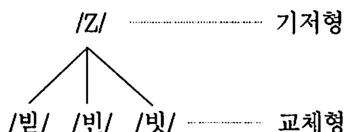
(1) 어간을 중심으로,
a1~6. {빋, 빈, 빗}
b1~6. {논}
c1~6. {압, 암, 앞}
d1~6. {박, 방}
e1~6. {새:}
(2) 어미를 중심으로,
1a~e. {-뽀다, -보다}
2a~e. {-까지}
3a~e. {-만}
4a~e. {-이, -가}
5a~e. {-을, -를}
6a~e. {-또, -도}
(3) 어간과 어미를 중심으로,
1a~e. {빋, 압, 박}-뽀다, {논, 새:}-보다
2a~e. {빋, 논, 압, 박, 새:}-까지
3a~e. {빈, 논, 암, 방, 새:}-만
4a~e. {빗, 논, 앞, 박}-이, {새:}-가
5a~e. {빗, 논, 앞, 박}-을, {새:}-를
6a~e. {빋, 압, 박}-또, {논, 새:}-도

8.3 기저형의 설정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겉으로 드러난 상태만을 고려하면, 각각 '액체'와 '고체'와 '기체'로서 서로 다른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얼음'을 0℃ 이상으로 가열하면 '물'이 되고 '물'을 0℃ 이하로 냉각시키면 '얼음'이 된다. 그리고 '수증기'를 100℃ 이하로 냉각시키면 '물'이 되고 '물'을 100℃ 이상으로 가열하면 '수증기'가 된다. 이 사실은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서로 다른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얼음'과 '수증기'는 본질적으로는 '물'인데, 온도 때문에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 경우에 '물'을 '실재'라고 한다면 '얼음'과 '수증기'는 실재인 '물'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과 '실재'의 관계는 언어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8.2에서, 어간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 a1~6의 {빋, 빈, 빗}은 모두 표준어 '빛(光)'에 해당하는 어떤 어간의 '현상'이다. 음운론에서는 이들 '현상'을 '음성형(音聲形)'이라 한다. 그런데 음성형은 기저형이나 중간단계에 더 이상 음운규칙이 적용될 수 없는 음소층위의 최종단계에서 실현되는 것이므로, 자료 a1~6에서 분석된 음성형 어간 [빋], [빈], [빗]은 음소층위의 최종단계에 각각 /빋(pit)/, /빈(pin)/, /빗(pis)/으로 있게 된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어간이 통합되는 어미의 첫 음소와의 관계에서 바뀐 모습인데, 음운론에서는 이것들을 '교체형(交替形)'이라 하며, 이들 교체형의 '실재', 즉 교체형으로 바뀌기 이전의 모습을 '기저형(基底形)'이라 한다. '교체형'은 '기저형'이 환경에 따라 변화된 것이므로, 표준어 '빛(光)'의 기저형을 /Z/라고 하면 /Z/와 그것의 교체형 /빋(pit)/, /빈(pin)/, /빗(pis)/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기저형의 설정이란 교체형들로부터 그들 교체형이 생기기 이전의 원래 모습인 Z를 밝히는 일을 말한다. 교체형들로부터 기저형을 밝히는 일은 음운론에서 가장 중요하다. 기저형이 정확하지 않으면 설정된 음운규칙도 정확하지 못하며 음운과정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기 때문이다.

기저형 설정을 쉽게 하려면, 교체형을 한글로 전사(轉寫)하지 말고 음성기호로 전사해야 한다. 위의 교체형에서 보듯이, 한글 전사는 음절 단위로 해야하기 때문에 교체형들 간의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음성기호에 의한 전사는 초성, 중성, 종성의 구별 없이 자음과 모음을 차례로 배열하기 때문에 교체형들 간의 비교가 쉽다. 그러면 자료 a1~6에서 분석된 교체형 '빋, 빈, 빗'을 예로 하여 기저형을 설정해 보기로 하자.

먼저 교체형들을 음성기호로 전사하여 다음과 같이 병렬로 나열한 뒤에 같은 부분을 하나만 남기고 다른 부분을 { }로 묶는다. 이때에 { } 밖에 있는 공통 부분은 교체형들에서 변화되지 않은 것이며 { } 속에 있는 부분은 변화된 것이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저형이므로 그대로 두고 변화된 것의 원형을 음소 X라고 하면, 표준어 '빛(光)'에 대한 교체형들의 기저형은 /piX/로 표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에 따라 't, n, s'로 변동될 수 있는 음소 X를 결정함으로써 그들 교체형의 기저형이 설정될 수 있다.

$$\begin{array}{l} \text{pit} \\ \text{pin} \rightarrow \text{pi} \\ \text{pis} \end{array} \left\{ \begin{array}{c} \text{p} \\ \text{m} \\ \text{s} \end{array} \right\} \cdots\cdots \text{교체형}$$

/ pi X / ········· 기저형

자료의 분석과 정리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기저형의 설정도 어떤 원칙이 있으면 쉬울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교체형이 없으면 그 자체가 기저형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에 제시된 예에서와 같이 교체형이 있을 경우에, 음소 X를 결정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음운론적인 설명가능성이다.

음운론적인 설명가능성이란 음소 X는 { } 속에 있는 교체음소들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며, 이렇게 결정된 음소 X가 { } 속에 있는 각각의 교체음소로 변동되는 사실이 규칙에 의해서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 제시된 음소 X와 그 교체음소 '/t/, /n/, /s/'를 예로 하여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만약에 X를 교체음소 중의 하나인 /t(ㄷ)/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표준어 '빛'에 대한 기저형은 /pit(빋)/이 된다. /빋/이 실제로 기저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제시된 자료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어미 /-까지/, /-만/과 /-이/, /-을/과 통합할 때에, 어간말의 /ㄷ/가 /ㄴ/, /ㅅ/로 변동하는 사실이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빋 | 까지/, /빋 | 만/에서 어간말의 /ㄷ/가 어미초의 /ㄲ/나 /ㅁ/ 앞에서 그대로 실현되거나 /ㄴ/로 변동되는 사실([빋까지]이나 [빈만])이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그렇다. [빋까지]에서 어간말의 'ㄷ'는 기저형에 아무런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며 [빈만]에서 어간말의 'ㄴ'는 기저형의 어간말 'ㄷ'가 어

미초의 'ㅁ' 앞에서 비음소화하여 실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기저음소 'ㄷ'가 'ㄴ'로 되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면 /빋ㅣ이/에서 어간말의 /ㄷ/가 어미 /-이/ 앞에서 /ㅅ/로 변동되는 사실(어간과 어미 /-이/가 통합할 때의 음성형은 자료 a4에서 보듯이 [비시]며 이 음성형의 바로 앞의 음소층위의 형은 /비시/이므로)도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어미가 모음소로 시작할 때에 어간말의 자음소는 어미의 첫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국어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므로 /빋ㅣ이/는 /비디/를 거쳐서 [비디]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의 음성형은 [비시]이다. /빋ㅣ이/에서 어간말의 /ㄷ/가 어미초의 /이/ 앞에서 /ㅅ/로 되는 경우는 국어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러한 교체는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빋/은 기저형으로 인정될 수 없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X를 교체음소 중의 하나인 /n(ㄴ)/라고 가정하면 표준어 '빛'에 대한 기저형은 /빈/이 된다. /빈/이 실제로 기저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미 /-이/와 통합하는 경우에 그것은 /비니/를 거쳐 [비니]로 음성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음성형은, 자료 a4에서 보듯이, [비시]이다. 어간말의 /ㄴ/가 어미초의 /이/ 앞에서 /ㅅ/로 되는 경우는 국어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교체는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러므로 /빈/도 기저형으로 인정될 수 없다.

끝으로 X를 교체음소 중의 하나인 /s(ㅅ)/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표준어 '빛'에 대한 기저형은 /빗/이 된다. 이제 이 어간이 자료 a1~6에서 분석된 어미가 통합할 때에, /빋(pit)/, /빈(pin)/, /빗(pis)/과 같은 교체형으로 되는 사실이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알아보자. 첫째로, /빗ㅣ뽀다/의 경우, 어간말의 /ㅅ/는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평파열음소화하여 /ㄷ/로 된다. 그리고 평파열음소화된 어간말의 /ㄷ/는 어미초의 '양순음소' /ㅃ/ 앞에서 더 이상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

문에 그대로 음성으로 실현된다.

둘째로, /빗ㅣ까지/의 경우, 어간말의 /ㅅ/는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평파열음소화하여 /ㄷ/로 된다. 그리고 평파열음소화된 어간말의 /ㄷ/는 어미초의 '연구개음소' /ㄲ/ 앞에서 더 이상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음성으로 실현된다.

셋째로, /빗ㅣ만/의 경우, 어간말의 /ㅅ/는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평파열음소화하여 /ㄷ/로 되며, 평파열음소화된 어간말의 /ㄷ/는 어미초의 '비음소' /ㅁ/ 앞에서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소 /ㄴ/로 된다. 그런데 대상 언어에서는 비음소화된 어간말의 /ㄴ/가 어미초의 /ㅁ/ 앞에서 더 이상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음성으로 실현된다.

넷째로, /빗ㅣ이/나 /빗ㅣ을/의 경우, 어간말의 /ㅅ/는 어미초의 모음소 앞에서 아무런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그대로 음성으로 실현된다.

다섯째로, /빗ㅣ또/의 경우, 어간말의 /ㅅ/는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평파열음소화하여 /ㄷ/로 된다. 그리고 평파열음소화된 어간말의 /ㄷ/는 어미초의 /ㄸ/ 앞에서 더 이상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음성으로 실현된다.

이처럼 /빗(pis)/을 기저형이라고 할 때, 그것이 자료 a1~6에서 분석된 어미와 통합하여 자료 a1~6의 음성형으로 실현되는 사실이 모두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사실은 /빗(pis)/이 교체형 /빋/, /빈/, /빗/의 기저형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자료 c1~6에서 분석된 어간의 교체형 /압/, /암/, /앞/의 기저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들 교체형도 음성기호로 전사하고 같은 부분을 기준으로 다른 부분을 {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rray}{l} ap \\ am \\ ap^h \end{array} \rightarrow \underline{a\left\{\begin{array}{c} p \\ m \\ p^h \end{array}\right\}} \cdots\cdots \text{교체형}$$

$$/\ a\ X\ / \cdots\cdots \text{기저형}$$

우선 음소 X를 그 교체음소 /p(ㅂ)/, /m(ㅁ)/, /p^h(ㅍ)/ 중의 하나인 /ㅂ/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기저형은 /압/이 된다. 이 기저형에 자료 c1~6에서 분석된 어미들이 통합할 때에, 자료 c1~6과 동일한 음성형이 실현될 수 있는가 보자. 첫째로, /압 | 뽀다/와 /압 | 또/의 경우, 어간말의 /ㅂ/는 어미초의 /ㅃ/나 /ㄸ/ 앞에서 아무런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압뽀다]와 [압또]로 실현된다. 이것은 자료 c1과 c6의 음성형과 일치한다.

둘째로, /압 | 까지/의 경우, 어간말의 /ㅂ/는 어미초의 /ㄲ/ 앞에서 더 이상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압까지]로 실현된다. 이것은 자료 c2와 동일하다.

셋째로, /압 | 만/의 경우, 어간말의 /ㅂ/는 어미초의 /ㅁ/ 앞에서 /ㅁ/로 된다(6.1.2의 [1] 참조). 그 결과로 실현되는 음성형은 c3과 동일하다. 여기까지는 /압/이 기저형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넷째로, /압 | 이/와 /압 | 을/의 경우, 어간말의 /ㅂ/는 어미초의 모음소 앞에서 아무런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아비/와 /아블/을 거쳐서 [아비]와 [아블]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음성형은, 자료 c4와 c5에서 볼 수 있는 [아피]와 [아플]과 동일하지 않다. 이것은 /압/이 기저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음소 X가 /ㅁ/라고 가정하면, 기저형은 /암(am)/이 된다. 이 기저형에 자료 c1~6에서 분석된 어미가 통합할 때에 자료 c1~6과 동일한 음성형이 실현될 수 있는가 보자. 첫째로, /암 | 만/의 경우, 어

간말의 /ㅁ/는 어미초의 /ㅁ/ 앞에서 아무런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암만]으로 실현된다. 이 음성형은 c3과 동일하다. 둘째로, /암ǀ까지/의 경우, 어간말의 /ㅁ/는 어미초의 /ㄲ/ 앞에서 더 이상의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암까지]로 실현된다. 이 음성형은 자료 c2와 동일하지 않다. 이것은 /암(am)/이 기저형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나머지 어미와의 통합 경우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음소 X가 /ㅍ/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기저형은 /앞(ap^h)/이 된다. 이 기저형에 자료 c1~6에서 분석된 어미가 통합할 때에 자료 c1~6의 음성형들이 실현될 수 있는가 보자. 첫째로, /앞ǀ뽀다/, /앞ǀ까지/, /앞ǀ만/, /앞ǀ또/의 경우, 어간말의 /ㅍ/는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ㅂ/로 평파열음소화하여 각각 /압뽀다/, /압까지/, /압만/, /압또/로 된다. 그런데 평파열음소화된 어간말의 /ㅂ/는 어미초의 /ㅃ/, /ㄸ/, /ㄲ/ 앞에서 아무런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각각 [압뽀다], [압또]로 실현된다. 그리고 어간말의 /ㅂ/는 어미초의 /ㅁ/ 앞에서 자음소동화에 의하여 양순 비음소 /ㅁ/로 된다. 그 결과인 /암만/은 더 이상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암만]으로 실현된다. 둘째로, /앞ǀ이/와 /앞ǀ을/의 경우, 어간말의 /ㅍ/는 어미초의 모음소 앞에서 아무런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각 [아피]와 [아플]로 실현된다. 이렇게 실현되는 모든 음성형은 자료 c1~6과 일치한다. 이것은 /앞/이 교체형 /압/, /암/, /앞/의 기저형임을 말해 준다.

한편 자료 d1~6에서 분석된 어간의 교체형 /박/과 /방/의 기저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들 교체형을 음성기호로 전사하고 같은 부분을 기준으로 다른 부분을 {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rray}{l} pak \\ pa\eta \end{array} \rightarrow \underline{pa\left\{\begin{array}{c} k \\ \eta \end{array}\right\}} \cdots\cdots \text{교체형}$$

$$/\ pa\ X\ / \cdots\cdots \text{기저형}$$

먼저 음소 X를 교체음소 /k(ㄱ)/, /ŋ(ㅇ)/ 중에서 /ㅇ(ŋ)/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기저형은 /방(paŋ)/이 된다. 이 기저형에 자료 d1~6에서 분석된 어미들이 통합할 때에 자료 d1~6의 음성형이 실현될 수 있는가 보자. 첫째로, /방ㅣ만/의 경우, 어간말의 /ㅇ(ŋ)/는 어미초의 /ㅁ/ 앞에서 아무런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방만]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 음성형은 자료 d3과 동일하다. 둘째로, /방ㅣ뿐다/, /방ㅣ까지/, /방ㅣ또/, /방ㅣ이/, /방ㅣ을/의 경우, 어간말의 /ㅇ(ŋ)/는 어미초의 /ㅃ/, /ㄲ/, /ㄸ/ 앞이나 어미초의 모음소 앞에서 아무런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각각 [방뿐다], [방까지], [방또], [바이(paŋi)], [바을(paŋɯl)]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음성형은 그 어느 것도 실제 음성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방(paŋ)/이 다른 교체형의 실현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저형이 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음소 X를 교체음소 /ㄱ/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기저형은 /박(pak)/이 된다. 이 기저형에 자료 d1~6에서 분석된 어미들이 통합할 때에 자료 d1~6의 음성형이 실현될 수 있는가 보자. 첫째로, /박ㅣ뿐다/, /박ㅣ까지/, /박ㅣ또/, /박ㅣ이/, /박ㅣ을/의 경우, 어간말의 /ㄱ/는 어미초의 /ㅃ/, /ㄲ/, /ㄸ/나 어미초의 모음소 앞에서 아무런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각각 [박뿐다], [박까지], [박또], [바기], [바글]로 실현된다. 이들 음성형은 d1~6의 해당 음성형과 일치한다. 둘째로, /박ㅣ만/의 경우, 어간말의 /ㄱ/는 어미초의 /ㅁ/ 앞에서 /ㅁ/의 [+비음성]에 동화하여 비음소 /ㅇ(ŋ)/로 교체된다. 이렇게 교체된 어간말의 /ㅇ(ŋ)/는 어미초의 /ㅁ/ 앞에서 더 이상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방만]으로 실현된다. 이 음성형은 그에 해당하는 자료 d3과 일치한다. 이렇게 기저형을 /박(pak)/으로 하면 자료 d1~6에서 분석된 어미와 통합할 때의 모든 어간 교체형들의 실현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적합한 기저형이 된다.

끝으로 자료 e1~6에서 분석된 어간 /새:/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료 e1~6에서 분석된 어간형은 /새:/뿐이다. 이것은 기저형 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 즉 교체형이 없으면 그 자체가 기저형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새:/ 자체가 기저형이 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어간의 기저형 설정에 대한 것이었다. 어미의 기저형 설정 기준이나 방법도 어간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면 자료 1~6(a~e)에서 분석된 어미들의 기저형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리된 자료 중 어미를 중심으로 정리된 (2)를 보면, 어미 '-까지'와 '-만'은 교체형이 없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기저형이 되며 그것은 각각 /-까지/와 /-만/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들 어미와는 달리, 교체형을 가지는 것은 자료 1a~e에서 분석된 {/-뽀다/, /-보다/}와 자료 4a~e, 5a~e, 6a~e에서 분석된 {/-이/, /-가/}, {/-을/, /-를/}, {/-또/, /-도/}이다. 이 중에서 교체형 {/-뽀다/, /-보다/}와 {/-또/, /-도/}의 기저형 설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이들 교체형을 음성기호로 전사하고 서로 다른 부분을 { } 속에 넣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eft.\begin{array}{l}\text{-p'ota}\\ \text{-pota}\end{array}\right. \rightarrow \text{-}\left\{\begin{array}{c}\text{p'}\\ \text{p}\end{array}\right\}\text{ota} \cdots\cdots \text{교체형}$$

$$/\ \text{X ota}\ / \cdots\cdots \text{기저형}$$

$$\begin{array}{l} -t'o \\ -to \end{array} \quad \rightarrow - \left\{ \begin{array}{c} t' \\ t \end{array} \right\} o \cdots\cdots \text{교체형}$$

$$/ -X\ o\ / \cdots\cdots \text{기저형}$$

위에서 보듯이, 어미의 교체형은 어간의 교체형과는 달리, 어미초에 교체음소들이 있고 그 다음 부분은 동일하다. 이 경우에도 동일 부분은 그 자체가 기저형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교체음소들에 대한 기저음소를 X라고 하면, X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어미의 기저형이 설정된다. 이제 음소 X가 교체음소 /p'(ㅃ)/, /p(ㅂ)/ 중 /ㅃ/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어미의 기저형은 /-뽀다(p'ota)/가 된다.

이 어미는 어간 /빗/, /앞/, /박/과 통합하면 어간말 자음소가 평파열음소화된 뒤에 각각 [빋뽀다], [압뽀다], [박뽀다]로 실현된다. 이것은 실제 음성형과 동일하다. 그러나 어간 /논/이나 /새:/에 어미 /-뽀다/가 통합하면, 더 이상의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논뽀다]나 [새:뽀다]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음성형은 실제 음성형인 [논보다]나 [새:보다]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어미 /-뽀다/가 기저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음소 X가 교체음소 /ㅂ/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어미의 기저형은 /-보다(pota)/가 된다.

이 어미가 앞에서 결정된 어간 /빗/, /논/, /앞/, /박/, /새:/에 통합할 때에 자료 1a~e의 음성형인 [빋뽀다], [논보다], [압뽀다], [박뽀다], [새:보다]와 동일하게 실현될 수 있는가 보자.

먼저 /빗 ┃ 보다/, /앞 ┃ 보다/, /박 ┃ 보다/의 경우, 어간말 자음소의 평파열음소화와 평파열음소 뒤에서 어미초 /ㅂ/의 경음소화에 의해서 그것들은 각각 [빋뽀다], [압뽀다], [박뽀다]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들 음성형은 실제 음성형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논 ┃ 보다/와 /새: ┃ 보다/

의 경우, 이들 기저형은 더 이상의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논보다]와 [새:보다]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들 음성형은 실제 음성형과 동일하다. 이 사실은 어미 /-보다/가 기저형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위에 제시된 교체형 {/-또/, /-도/}는 어미초의 환경이나 각 교체형과 통합되는 어간말의 환경이 교체형 {/-뽀다/, /-보다/}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도/가 교체형 /-또/와 /-도/의 기저형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자료 4와 5의 a~e에서 분석된 교체형 {/-이/, /-가/}와 {/-을/, /-를/}에서, 교체형 /-이/와 /-을/은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통합되며, /-가/와 /-를/은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통합된다. 그런데 이들 교체형 중 /-이/와 /-가/는 형태구조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둘 중 어느 하나를 기저형으로 할 경우에 다른 교체형의 실현을 설명할 수 없다. /-이/가 /-가/로 되거나 /-가/가 /-이/로 되는 경우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교체형 /-을/과 /-를/은 공통으로 '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어미초의 /ㄹ/가 삽입되거나 탈락되는 사실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형태의 관계를 이루는 /-이/와 /-가/나 /-을/과 /-를/ 모두를 기저형으로 인정하고, 자음소(/ㄹ/ 포함)로 끝나는 명사 뒤에는 /-이/나 /-을/이, 모음소로 끝나는 명사 뒤에는 /-가/나 /-를/이 선택된다고 해야 한다.

이 사실은 기저형 설정을 위한 또 다른 원칙을 알려준다. 그것은 교체형 중의 어느 하나를 기저형으로 하여 다른 교체형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형 모두를 기저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8.4 규칙의 설정

규칙의 설정은, 엄격한 의미에서, 기저형의 설정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음소 X가 그와 관련된 모든 교체음소의 실현을 설명할 수 있을 때에, 그 음소를 포함하는 기저형이 적합한 기저형이라고 하겠는데, 그 말은 음소 X가 해당 교체음소로 변동하는 음운규칙 또는 형태음운규칙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8.3에서, 자료 a1~6의 어간 교체형 '/빋/, /빈/, /빗/'의 기저형을 /빗/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저형에 8.3에서 설정된 어미가 통합할 때에, 자료 a1~6의 음성형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 사실은 다음의 음운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그러한 음운과정은 그에 합당한 음운규칙이나 형태음운규칙이 적용되어 일어나는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기저음소인 어간말의 /ㅅ/가 어미초의 자음소 앞에서 /ㄷ/로 평파열음소화한다는 것은 거기에 'ㅅ→ㄷ/ X__] (C)'라는 음운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평파열음소화된 /ㄷ/가 어미초의 양순 비음소 /ㅁ/ 앞에서 치경 비음소인 /ㄴ/로 동화된다는 것은 거기에 'ㄷ→ㄴ/ X__] ㅁY'라는 음운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규칙의 설정에 대해서는 제6장과 제7장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8.3에서 설정된 기저형으로부터 8.2에 제시된 음성형의 실현까지에 적용되는 규칙의 이름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자료 a1~6: 어간의 기저형 /빗/이 교체형 /빋/, /빈/, /빗/으로 실현되는 데에 적용되는 규칙

- 평파열음소화규칙(6.1의 [1] 참조)
- 비음소화규칙(6.1의 [2] 참조)

자료 b1~6: 어간의 기저형 /논/은 교체형이 없으므로 적용되는 규칙이 없음

자료 c1~6: 어간의 기저형 /앞/이 교체형 /압/, /암/, /앞/으로 실현되는 데에 적용되는 규칙

- 평파열음소화규칙
- 비음소화규칙

자료 d1~6: 어간의 기저형 /박/이 교체형 /박/, /방/으로 실현되는 데에 적용되는 규칙

- 비음소화규칙

자료 1a~e: 어미의 기저형 /-보다/가 교체형 /-뽀다/, /-보다/로 실현되는 데에 적용되는 규칙

- 경음소화규칙(7.1.1 참조)

자료 6a~e: 어미의 기저형 /-도/가 교체형 /-또/, /-도/로 실현되는 데에 적용되는 규칙

- 경음소화규칙

자료 4a~e: 주격어미의 기저형 /-{가-이}/가 교체형 /-이/, /-가/로 실현되는 데에 적용되는 규칙

- 주격어미 선택규칙: /-{가-이}/ → $\begin{cases} \text{-가} \,/\, XV\,]_N \,__ \\ \text{-이} \,/\, X\{C, \text{ㄹ}\}\,]_N \,__ \end{cases}$

자료 5a~e: 대격어미의 기저형 /-{ㄹ-ø}을/이 교체형 /-를/, /-을/로 실현되는 데에 적용되는 규칙.[8]

• 대격어미 선택규칙: /-{ㄹ-ø}을/ → $\left\{ \begin{array}{l} \text{-를 / XV]}_{N} __ \\ \text{-을 / X\{C, ㄹ\}]}_{N} __ \end{array} \right\}$

쉼

● **단일기저형과 복합기저형**

생성음운론의 기본가설은 모든 교체형은 단일기저형에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도출된다는 것이다. 즉 음성형 [찬는다], [찯꼬], [찯찌], [차즈니], [차자라]에서 분석되는 어간의 교체형 '찬-, 찯-, 찾-'은 모두 단일기저형 '찾-'에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도출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교체형 '찯-'의 'ㄷ'는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기저의 형태음소 'ㅈ'에 평파열음소화라는 음운규칙이 적용됨으로써 도출된 것이며 교체형 '찬-'의 'ㄴ'는 평파열음소화에 의한 'ㄷ'가 다시 어미초의 'ㄴ' 앞에서 비음소화(鼻音素化)라는 음운규칙이 적용됨으로써 어미초 'ㄴ'이 가진 [+비음성]에 동화된 것이다.

그러나 국어와 같은 교착어에는 단일기저형으로 설명될 수 없는 어간과 어미가 있다. 소위 변칙동사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한 어간에 속하며, 주격어미 '-이/가', 대격어미 '-을/를', 공동격어미 '-와/과', 특수어미 '-은/는' 등이 그러한 어미에 속한다. 예를 들어, 어간 '입-(着衣)'과 '밉-(憎)'이 어미 '-고', '-으면', '-어도'와 통합할 때의 음성형은 다음과 같다.

입-: 입꼬, 이브면, 이버도
밉-; 밉꼬, 미우면, 미워도

표기상으로는 두 어간이 모두 'ㅂ'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음성형을 대조하면, 두 어간말의 'ㅂ'가 동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입-'의 'ㅂ'는 자음소나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해도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지만, '밉-'의 'ㅂ'는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ㅂ'로 실현되나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우'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ㅂ'가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우'로 되는 것은 국어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음성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러한 설명보다는 역사적으로 '밉-'의 'ㅂ'가 15세기 문헌에서는 'ㅸ(β)'였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ㅸ'는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ㅂ'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ㅸ'가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w나 '우'로,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ㅂ'로 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입-'의 기저형은 /ip-/이고 '밉-'의 기저형은 /mi{p-u}-/라고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위 'ㅂ' 정칙동사의 기저형은 /Xp-/이며 'ㅂ' 변칙동사의 기저형은 /X{p-u}-/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X{p-u}-/는 /Xp-/와 /Xu-/의 복합체이다. 이 점에서 정칙동사의 기저형 /Xp-/를 단일기저형이라고 한다면 소위 변칙동사의 기저형 /X{p-u}-/는 복합(複合)기저형이라고 해야 한다.[참고]

복합기저형 /X{p-u}-/에서 Xp-는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Xu-는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각각 선택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규칙은 다음과 같다.

/X{p-u}-/ → { Xp- / ___] CY   예. 곱 | 고, 곱 | 지(곱-, 曲)
              { Xu- / ___] VY   예. 고우 | 으니, 고우 | 아도(곱-, 曲)

이와는 달리, 대격어미 '-을/를' 중 '-을'은 자음소나 유음소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실현하고 '-를'은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실현한다. 그런데 그 중 '-을'을 기저형으로 하면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ㄹ'가 첨가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고 '-를'을 기저형으로 하면 자음소나 유음소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ㄹ'가 탈락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격어미는 복합기저형 /-{ø-l}ɯl/을 가진다고 해야 하며 '-을'과 '-를'는 다음과 같은 선택규칙에 의해 선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ø-l}ɯl/ → { -ɯl / X{C, l}] ___   예. /집 | 을/, /길 | 을/
              { -lɯl / XV] ___   예. /새 | 를/

[참고] 종래에 이 기저형을 '다중(多重)기저형' 또는 '복수(複數)기저형'이라고 불러왔는데, '다중'은 '하나 위에 여러 개가 겹쳐진다'는 의미를 가지며 '단일'에 대립되는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복수'는 '둘 이상의 수' 외에 '두 자리 이상의 수'나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의 의미를 가지면서 '단수'에 대립되는 의미를 가지므로 '단일'에 대립되는 적합한 술어가 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복합'은 '두 가지 이상이 하나로 합쳐진 것'과 '단일'에 대립되는 의미를 가지므로, '복합기저형'은 '단일기저형'에 대립되는 적합한 술어가 된다.

8.5 음운과정의 설명

음운과정의 설명이란 기저형으로부터 음성형이 실현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그 설명을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Xa] bY/ 기저형
/Xa'b'Y/ 규칙1
/Xa"b"Y/ 규칙2
/Xa^nb^nY/ 규칙n
[Xa^nb^nY] 음성형

이 형식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 준다. 먼저 어간의 기저형 /Xa-/와 어미의 기저형 /-bY/의 통합체에 규칙1이 적용된다. 그러면 기저형 /Xa] bY/는 규칙1이 지시하는 바에 의해서 변동한 다음 중간단계인 /Xa'b'Y/로 된다. 다음에 중간단계인 /Xa'b'Y/에 규칙2가 적용되면 /Xa'b'Y/는 중간단계인 /Xa"b"Y/로 된다. 여기에 규칙n이 적용되면 /Xa"b"Y/는 /Xa^nb^nY/로 되고 /Xa^nb^nY/에 더 이상의 규칙이 적용될 수 없으면 그것은 음성형 [Xa^nb^nY]로 실현된다.

그러면 8.3에서 설정된 기저형들과 8.4에 제시된 규칙들을 이용하여, 8.2의 음성형이 실현되기까지의 음운과정을 위의 형식으로 설명해보자.

규칙(1): 평파열음소화규칙
규칙(2): 비음소화규칙
규칙(3): 경음소화규칙
규칙(4): 주격어미 선택규칙

규칙(5): 대격어미 선택규칙[쉽]

a.	/빗] 보다/	/빗] 까지/	/빗] 만/	/빗] 도/	기저형
	빋 보다	빋 까지	빋 만	빋 도	규칙(1)
	빋 뽀다	……	……	빋 또	규칙(3)
	……	……	빈 만	……	규칙(2)
	[빋뽀다]	[빋까지]	[빈만]	[빋또]	음성형
b.	/논] 보다/	/논] 까지/	/논] 만/	/논] 도/	기저형
	[논보다]	[논까지]	[논만]	[논도]	음성형
c.	/앞] 보다/	/앞] 까지/	/앞] 만/	/앞] 도/	기저형
	압 보다	압 까지	압 만	압 도	규칙(1)
	압 뽀다	……	……	압 또	규칙(3)
	……	……	암 만	……	규칙(2)
	[압뽀다]	[압까지]	[암만]	[압또]	음성형
d.	/박] 보다/	/박] 까지/	/박] 만/	/박] 도/	기저형
	……	……	방 만	……	규칙(2)
	박 뽀다	……	……	박 또	규칙(3)
	[박뽀다]	[박까지]	[방만]	[박또]	음성형
e.	/새:] 보다/	/새:] 까지/	/새:] 만/	/새:] 도/	기저형
	[새:보다]	[새:까지]	[새:만]	[새:도]	음성형

이상과 같은 음운과정의 설명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음성자료를 바

탕으로 하여 설정된 기저형과, 기저형에 적용되어 음성형을 실현시키는 음운규칙 또는 형태음운규칙이 화자의 언어능력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

어간과 주격 또는 대격 어미가 통합하여 음성형이 실현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새:] {가-이}/(鳥)	/말] {가-이}/(馬)	기저형
새: 가	말 이	규칙(4)
[새:가]	[마리]	음성형
/새:] {ㄹ-ø}을/(鳥)	/말] {ㄹ-ø}을/(馬)	기저형
새: 를	말 을	규칙(5)
[새:를]	[마를]	음성형

8.6 음운론 기술의 실제

8.1에서 8.5까지의 서술에서 음운론의 기술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다. 이제 체계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에서 발견되는 활음소화에 대한 음운론적 기술을 해 보기로 하자. 활음소화규칙에 대해서는 7.1.3에서 극히 간단히 서술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의 활음소화규칙에 대한 서술은 활음소화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활음소화로 인한 보상적 장음의 발생은 규칙 표시에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활음소화는 물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차적인 음운과정까지를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먼저 자료를 보기로 하자.

a. [이고, 이지, 이면, 여도](戴)
b. [메:고, 메:지, 메:면, {메:도, 메어도}](擔)
c. [깨고, 깨지, 깨면, {깨:도, 깨어도}](破)
d. [뛰고, 뛰지, 뛰면, {뛰:도[t'yʌ:do], 뛰어도}](跳)
e. [되고, 되지, 되면, {돼:도, 돼어도}](化)
f. [끄고, 끄지, 끄면, 꺼도](消)
g. [서고, 서지, 서면, 서도](立)
h. [두고, 두지, 두면, {둬:도, 두어도}](置)
i. [오고, 오지, 오면, 와도](來)
j. [쏘고, 쏘지, 쏘면, {쏴:도, 쏘아도}](射)
k. [타고, 타지, 타면, 타도](乘)
l. [피고, 피지, 피면, {펴:도, 피어도}](發)
m. [당기고, 당기지, 당기면, 당겨도](引)
n. [건너고, 건너지, 건너면, 건너도](渡)
o. [거두고, 거두지, 거두면, {거둬도, 거두어도}](收)
p. [지고, 지지, 지면, 져도](負)
q. [치고, 치지, 치면, 쳐도](打)
r. [찌고, 찌지, 찌면, 쪄도](蒸)
s. [빠지고, 빠지지, 빠지면, 빠져도](溺)
t. [다치고, 다치지, 다치면, 다처도](傷)
u. [막꼬, 막찌, 마그면, 마가도](防)
v. [잡꼬, 잡찌, 자브면, 자바도](執)
w. [노코, 노치, {노:면, 노으면}, {놔:도, 노아도}](放)
x. [나코, 나치, {나:면, 나으면}, {나:도, 나아도}](産)
y. [불:고, 불:지, 불:면, 부러도](吹)
z. [알:고, 알:지, 알:면, 아라도](知)
α. [영기가, 영기를, 영기야](人名)
β. [영수가, 영수를, 영수야](人名)
γ. [영시미, 영시믈, 영시마](人名)

위의 자료는 '자료 수집'으로 수집된 자료이므로, '활음소화'의 음운론은 '자료 분석과 정리'에서부터 시작된다.

8.6.1. 자료 분석과 정리

위에 제시된 자료는 8.2의 세 가지 자료 분석 기준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어간과 어미로 분석될 수 있다.

(1) 어간의 교체형

a. 이-	b. {메:, 메}-	c. {깨, 깨:}-
d. 뛰-	e. {되, 돼:, 돼}-	f. {끄, ㄲ}-
g. {서, ㅅ}-	h. 두-	i. 오-
j. 쏘-	k. {타, ㅌ}-	l. 피-
m. 당기-	n. {건너, 건ㄴ}-	o. 거두-
p. {지, ㅈ}-	q. {치, ㅊ}-	r. {찌, ㅉ}-
s. {빠지, 빠ㅈ}-	t. {다치, 다ㅊ}-	u. 막-
v. 잡-	w. {노, 노:}-	x. {나, 나:}-
y. {불:, 불}-	z. {알:, 알}-	
α. 영기	β. 영수	γ. 영심

(2) 어미의 교체형

ⓐ -{고, 꼬, 코}	ⓑ -{지, 찌, 치}	ⓒ -{면, 으면}
ⓓ -{아도, 어도, 도}	ⓔ -{가, 이}	ⓕ -{를, 을}
ⓖ -{야, 아}		

자료 a, h, i, j, l, m, o, w에서, 반복되어 발생하는 어간형과 어미형

을 동시에 고려하면, [여도], [둬:도], [와도], [쏴:도], [펴:도], [당겨도], [거둬도], [놔:도]는 각각 '이-어도', '두-어도', '오-아도', '쏘-아도', '피-어도', '당기-어도', '거두-어도', '노-아도'로 분석되며, 이렇게 분석된 어간은 반복하여 발생하는 나머지 어간형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어간형만을 기준으로 하면, 그들 어간형은 교체형이 없는 셈이다. 또 이렇게 하여 분석된 어미 '-아도'와 '-어도'는 반복하여 발생하는 어미형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된 어미 '-아도'와 '-어도'와 일치한다.

한편 자료 p, q, r, s, t와 f의 교체형 'ㅈ-, ㅊ-, ㅉ-, 빠ㅈ-, 다ㅊ-'와 'ㄲ-'는 반복하여 발생하는 어미형 '-어도'를 기준으로 분석된 것이다. 그리고 자료 g, k, n은 반복하여 발생하는 어미형을 기준으로 분석하느냐 어간을 기준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어간과 어미의 교체형이 분석될 수 있다. 먼저 반복하여 발생하는 어미형 '-어도'나 '-아도'를 기준으로 하면 어간의 교체형 'ㅅ-, ㅌ-, 건ㄴ-'가 분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어간형을 기준으로 하면, 어미의 교체형 '-고, -지, -면, -도'가 분석될 수 있다.

8.6.2 기저형의 설정

국어의 공시음운론의 대상이 되는 음운과정은 어간과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에 그 경계에서 일어나므로, 기저형의 설정은 어간의 기저형 설정과 어미의 기저형 설정으로 나눌 수 있다.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 설정은 먼저 반복하여 실현되는 어간과 어미 중에서 빈도수가 큰 것을 기저형으로 정하되 어간이 자음소로 끝나는 경우에는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의 어간형을, 어간이 모음소로 끝나는 경우에는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의 어간형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어미의 기저형은 그 경우에 어간형을 제외한 어미형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다.

반복되는 빈도수가 큰 것을 잠정적인 기저형으로 정한 다음에 잠정적인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의 통합체에 적용이 가능한 음운규칙이나 형태음운규칙을 적용한 최종 결과가 실제의 음성형과 동일한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그 결과가 실제의 음성형과 동일하면 그 기저형은 적합한 기저형이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적합한 기저형이 될 수 없으므로 기저형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

위의 기준에 의하면, 분석된 (1) 어간의 교체형 중에서 반복의 빈도수가 제일 큰 것은 다음과 같다.

a. 이-, b. 메:-, c. 깨-, d. 뛰-, e. 되-, f. 끄-, g. 서-,
h. 두-, i 오-, j. 쏘-, k. 타-, l. 피-, m. 당기-, n. 건너-,
o. 거두-, p. 지-, q. 치-, r. 찌-, s. 빠지-, t. 다치-, u. 막-,
v. 잡-, w. 노-)놓-, x. 나-)낳-, y. 불:-, z. 알:-,
α. 영기, β. 영수, γ. 영심

그리고 분석된 (2) 어미의 교체형 중에서 반복의 빈도수가 제일 큰 것은 다음과 같다.

ⓐ -고, ⓑ -지, ⓒ -면, ⓓ -어도, ⓔ -가, ⓕ -를, ⓖ -야

위에서 자료 w와 x의 어간형은 '노-)놓-'와 '나-)낳-'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에 처음 정한 어간형이 수정된 것을 의미한다. 먼저 반복 발생 빈도수를 기준으로 어간을 분석할 경우에는 그들 어간의 기저형을 각각 /노-/와 /나-/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

나 동일한 기준으로 어미를 분석할 경우에는 ⓐ와 ⓑ의 어미의 기저형을 각각 /-고/와 /-지/로 해야 한다. 그런데 자료 w와 x의 어간이 그들 어미와 통합할 경우의 실제 음성형은 각각 [노코]/[나코]와 [노치]/[나치]이다. 여기서 어미의 기저형를 /-고/와 /-지/라 하면, 어미의 음성형 '-코'와 '-치'는 'ㅎ-고'와 'ㅎ-지'로 분석되며 'ㅎ'은 어간말의 자음소가 되어야 한다. 그 결과 처음에 가정했던 /노-/와 /나-/는 /놓-/와 /낳-/로 수정된 것이다.

어간과 어미의 잠정적인 기저형이 결정되었으므로 다음에 할 일은 그들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이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검토는 잠정적으로 결정된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의 통합형에 적용 가능한 음운규칙이나 형태음운규칙이 적용한 최종 결과가 실제의 음성형과 동일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잠정적으로 결정된 활용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 a~z의 어간과 자료 ⓐ~ⓓ의 어미가 통합할 경우를 보기로 하자.

a. ① /{이, 메:, 깨, 뛰, 되, ㄲ, 서, 두, 오, 쏘, 타, 피, 당기, 건너, 거두, 지, 치, 찌, 빠지, 다치, 불:, 알:}] 고/ → [{이, 메:, 깨, 뛰, 되, ㄲ, 서, 두, 오, 쏘, 타, 피, 당기, 건너, 거두, 지, 치, 찌, 빠지, 다치, 불:, 알:}고]
② /{막, 잡}] 고/ —(규칙1)→ /{막, 잡}꼬/ → [{막, 잡}꼬]
③ /{놓, 낳}] 고/ —(규칙2)→ /{노코, 나코}/→ [{노코, 나코}]

b. ① /{이, 메:, 깨, 뛰, 되, ㄲ, 서, 두, 오, 쏘, 타, 피, 당기, 건너, 거두, 지, 치, 찌, 빠지, 다치, 불:, 알:}] 지/ → [{이, 메:, 깨, 뛰, 되, ㄲ, 서, 두, 오, 쏘, 타, 피, 당기, 건너, 거두, 지, 치, 찌, 빠지, 다치, 불:, 알:}지]

② /{막, 잡}] 지/ —(규칙1)→ /{막, 잡}찌/ → [{막, 잡}찌]

③ /{놓, 낳}] 지/ —(규칙2)→ /{노치, 나치}/→ [{노치, 나치}]

c. ① /{이, 메:, 깨, 뛰, 되, 끄, 서, 두, 오, 쏘, 타, 피, 당기, 건너, 거두, 지, 치, 찌, 빠지, 다치, 불:, 알:}] 면/ → [{이, 메:, 깨, 뛰, 되, 끄, 서, 두, 오, 쏘, 타, 피, 당기, 건너, 거두, 지, 치, 찌, 빠지, 다치, 불:, 알:}면]

② /{막, 잡}] 면/ —(규칙3)→ /{망, 잠}면/ → [{망, 잠}면]

③ /{놓, 낳}] 면/ —(규칙4)→ /{놑, 낱}면/ —(규칙3)→ [{논, 난}면]

d. ① /{이, 피, 당기, 거두}] 어도/ —(규칙5)→ /{여, 펴:, 당겨, 거둬}도/ → [{여, 펴:, 당겨, 거둬}도]

② /{지, 치, 찌, 빠지, 다치}] 어도/ —(규칙5)→ /{져, 쳐, 쪄, 빠져, 다쳐}도/ —(규칙6)→ /{저, 처, 쩌, 빠저, 다처}도/ → [{저, 처, 쩌, 빠저, 다처}도]

③ /{오, 쏘, 놓}] 어도/ —(규칙7/규칙8)→ /{오, 쏘, 노}] 아도/ —(규칙5)→ /{와, 쏴:, 놔:}도/ → [{와, 쏴:, 놔:}도]

④ /{서, 건너}] 어도/ —(규칙9)→ /{서, 건너}도/ → [{서, 건너}도]

⑤ /{타, 낳}] 어도/ —(규칙7/규칙8)→ /{타, 나}아도/ —(규칙9)→ /{타, 나아}도/ → [{타, 나:}도]

⑥ /{메:, 깨, 되}] 어도/ —(규칙10)→ /{메, 깨, 되}어도/ → [{메, 깨, 되}어도] 또는

/{메:, 깨, 되}] 어도/ —(규칙10)→ /{메, 깨, 되}어도/ —(규칙11) → /{메에, 깨애, 되외}도/ → [{메:, 깨:, 되:}도]

⑦ /끄] 어도/ —(규칙12)→ /ㄲ어도/ → /꺼도/ → [꺼도]

⑧ /불:] 어도/ —(규칙10)→ /불어도/ → /부러도/ → [부러도]

⑨ /알:] 어도/ —(규칙8)→ /알:아도/ —(규칙10)→ /알아도/ → /아라도/ → [아라도]

⑩ /{막, 잡}]어도/ —(규칙8)→ /{막, 잡}아도/ → /{마가도, 자바도}/ → [마가도, 자바도]

[규칙1: 경음소화규칙, 규칙2: 유기음소화규칙, 규칙3: 비음소화규칙, 규칙4: 평파열음소화규칙, 규칙5: 활음소화규칙, 규칙6: 활음소탈락규칙, 규칙7: /ㅎ/ 탈락규칙, 규칙8: /어/의 /아/화규칙, 규칙9: 동일모음소탈락규칙, 규칙10: 단모음소화규칙, 규칙11: /어/의 완전순행동화규칙, 규칙12: 어간말의 /으/ 탈락규칙]

위의 음성형 중 대부분은 실제의 음성형과 동일하지만, 다음 몇 개의 음성형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와 다른 음성형은 자료 c. ②의 [{망면, 잠면}]과 ③의 [{논면, 난면}] 그리고 자료 d. ⑥의 [되:도]이다. 이것은 잠정적인 어간의 기저형이나 어미의 기저형이 실제의 기저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들 음성형을 실제의 음성형과 대조하여 해당 어간이나 어미의 기저형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먼저 자료 c ②의 [{망면, 잠면}]에 대한 실제 음성형은 [{마그면, 자브면}]이다. 실제 음성형을 분석하면 [{막-으면, 잡-으면}]이 된다. 이 경우에 어미는 '-으면'이다. 자료 a~z의 잠정적인 어간의 기저형과 /-으면/이 통합하면, 모음소나 /ㄹ/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어미초의 /으/는 탈락하며,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어미초의 /으/가 탈락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최종 음성형은 실제의 음성형과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자료 ⓒ의 잠정적인 기저형 /-면/은 /-으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료 c ③의 [{논면, 난면}]에 대한 실제 음성형은 [{노으면, 나으면}]/[{노:면, 나:면}]이다. 앞에서 자료 ⓒ의 기저형을 /-으면/으로 수정했으므로 이 기저형을 기준으로 하면 음성형 [{노으면, 나으면}]은

[{노-으면, 나-으면}]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에 어간의 음성형에 /ㅎ/가 탈락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성음 사이에서 /ㅎ/가 탈락하는 규칙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간말 자음소가 탈락된 경우에는 중간단계의 어간형이 모음소로 끝나도 어미초의 /으/는 탈락하지 않으며 그 경우에 어미초의 /으/는 어미초 /으/의 완전순행동화규칙에 의해서 중간단계의 어간말 모음소와 동일하게 되어 음성형에 장모음으로 실현된다. 이 사실에 의해서 음성형 [{노:면, 나:면}]이 설명된다. 따라서 자료 ⓒ의 잠정적인 기저형 /-면/이 /-으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입증된다.

끝으로 자료 d ⑥의 [되:도]나 [되어도]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이 음성형에 대한 실제 음성형은 [돼:도]나 [돼어도]이다. 잠정적인 어간 /되-/와 어미 /-어도/는 이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음성형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기저형 /되] 어도/는 그대로 음성으로 실현되거나 어미초 /어/의 완전순행동화규칙에 의해 /되외도/가 된 다음 [되:도]로 음성 실현되어야 한다. 현대국어에는 /외/가 어미초의 /어/ 앞에서 /왜/로 되거나 /외/와 /어/가 통합하여 /왜:/로 되는 음운규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음성형은 [돼:도]나 [돼어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동사 '되-'의 기저형을 어휘화된 이형태 /되(tö)-/와 /돼(twɛ)-/로 구성된 /ㄷ{ㅚ-ㅙ}-/(/t{ö-wɛ}-/)라고 보는 것이다. 단모음소 /외(ö)/가 현대국어에서 이중모음소 /왜(wɛ)/나 /웨(we)/로 변했거나 변하고 있다는 사실과 소위 변칙동사들이 모두 둘 이상의 어휘화된 이형태로 구성된 기저형, 즉 복합기저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한다. 다시 말하면, 자음소나 /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어간형은 /되-/이고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어간형은 /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저형 /돼] 어도/는 그대로 [돼어도]로 실현되거나 어미초 /어/의 완전순행동화

에 의해서 /돼애도/로 된 뒤에 [돼:도]로 실현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잠정적으로 결정된 곡용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 α~γ의 어간과 자료 ⓔ~ⓖ의 어미가 통합하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

a. /{영기, 영수, 영심}ㅣ가/ → [{영기, 영수, 영심}가]
b. /{영기, 영수, 영심}ㅣ를/ → [{영기, 영수, 영심}를]
c. /{영기, 영수, 영심}ㅣ야/ → [{영기, 영수, 영심}야]

자료 a~c의 기저형에서 도출된 음성형 중에서 실제의 음성형과 다른 것은 자료 a의 [영심가], b의 [영심를], c의 [영심야]이다. 실제 음성형을 대상으로 한 형태분석에서 어간 '영심'은 교체형이 없으므로 그 자체가 실제의 기저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 음성형이 실제의 음성형과 다른 것은 /-가/, /-를/, /-야/를 잠정적인 어미의 기저형으로 정한 것이 잘못임을 의미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음성형에 대한 실제의 음성형을 분석해 보자. 그 결과, [영심-이], [영심-을], [영심-아]에서 보듯이, 어간의 기저형 /영심/과 통합하는 어미의 기저형은 /-이/, /-을/, /-아/이다. 이들 어미와 잠정적으로 결정한 어미 /-가/, /-를/, /-야/는 통합하는 어간말의 음운환경이 다르다. '/-이/, /-을/, /-아/'는 /ㄹ/를 포함한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통합하고 '/-가/, /-를/, /-야/'는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통합한다.

그런데 주격어미 '/-이/, /-가/'와 대격어미 '/-을/, /-를/'은 어느 하나를 기저형으로 하여 다른 교체형의 도출을 공시적인 음운규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없다. /-이/나 /-을/을 기저형으로 할 경우에는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이/가 /가/로 되거나 /을/의 앞에 /ㄹ/가 삽

입되는 사실을 공시적 음운규칙에 의해 설명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가/나 /-를/을 기저형으로 할 경우에는 /ㄹ/를 포함한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가/가 /이/로 되거나 /를/의 첫 음소 /ㄹ/가 탈락하는 사실을 공시적 음운규칙에 의해 설명할 수 없다. 그러한 변동은 현대국어에 존재하지 않으며 음성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격어미 '/-이/, /-가/'와 대격어미 '/-을/, /-를/'은 어휘화된 교체형으로 인정하고 그것들의 기저형을 각각 /-{이-가}/와 /-{ㄹ-ø}을/(/-{l-ø}ɯl/)이라고 해야 한다. 이들 기저형을 구성하는 교체형 /이/와 /을/은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통합할 때에 선택규칙에 의해 선택되고 그 외의 어간말의 음운환경에서는 교체형 /가/와 /를/이 선택된다.

다음으로 호격어미 /-아/와 /-야/의 경우, /-아/를 기저형으로 하면, /ㄹ/를 포함한 자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통합하면 다른 음운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된다. 그리고 모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통합하면, 모음충돌(히아투스, hiatus)을 피하기 위해 /j/ 삽입규칙이 적용된 다음 /아/는 [야]로 실현된다. 따라서 호격어미의 실제 기저형은 /-아/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결정된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에 대해 검토하고 잘못된 기저형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제시된 자료 a~γ의 음성형에 대한 최종적인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은 다음과 같음을 알게 되었다.

(1) 어간의 기저형: a. /이-/, b. /메:-/, c. /깨-/, d. /뛰-/, e. /ㄷ{ㅚ-ㅙ}-/(/t{ö-wɛ}-/), f. /끄-/, g. /서-/, h. /두-/, i /오-/, j. /쏘-/, k. /타-/, l. /피-/, m. /당기-/, n. /건너-/, o. /거두-/, p. /지-/, q. /치-/, r. /찌-/, s. /빠지-/, t. /다치-/, u. /막-/, v. /잡-/, w. /놓-/, x. /낳-/, y. /불:-/, z. /알:-/, α. /영기/, β. /영수/, γ. /영심/

(2) 어미의 기저형: /-고/, /-지/, /-으면/, /-어도/, /-{이-가}/, /-{ㄹ-ø}을/(/-{l-ø}ɯl/), /-아/

8.6.3 규칙의 설정

8.6.2에서 설정된 기저형이 모두 활음소화의 음운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국어에서 활음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어간말 모음이 '/이/, /우/, /오/'로 끝나는 것인데, 제시된 자료에서는 '/이-/, /두-/, /오-/, /쏘-/, /피-/, /당기-/, /거두-/, /지-/, /치-/, /찌-/, /빠지-/, /다치-/'가 그에 해당하며 어간말 'ㅎ' 탈락 뒤에 활음소화 과정을 거치는 /놓-/이 추가된다.

이들 어간이 어미 /-어도/와 통합할 때에 거치는 음운과정은 다음과 같다. 어간말 모음소 /이/와 {/오/, /우/}는 어미 /-어도/와 통합할 때에 각각 /j/와 /w/로 된다. 물론 /놓-/의 경우에는, 어간말의 /ㅎ/가 탈락된 뒤에 /오/의 활음소화가 일어난다.

이 경우에 어간 음절수와 어간의 첫 음소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적 장음의 발생에 차이를 보인다. 즉 어간말 모음소의 활음소화와 함께 보상적 장음이 발생하는 것은 일음절 어간에 한정된다. 일음절 어간의 경우에도 활음소화에 따르는 보상적 장음은 어간의 첫 음소가 자음소로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 그런데 어간의 첫 음소가 자음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구개음소일 때에는 보상적 장음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어간의 첫 음소가 경구개음소일 때에는 어간말의 /이/는 활음소화됨과 동시에 탈락한다.

이상의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규칙(1): $$[_{Vst} \left\{ \begin{array}{l} [\text{C, +고설성}] \\ [\text{C, −설정성, +고설성}] \end{array} \right\} \{\text{이, 우, 오}\}]_{Vst} \text{ 어Y} \rightarrow$$

$$\begin{array}{cccc} 1 & 2 & \begin{bmatrix} 3 \\ \text{−모음성} \\ \text{−자음성} \\ \text{+고설성} \end{bmatrix} & \begin{bmatrix} 4 \\ \text{+장음} \end{bmatrix} \end{array}$$

'이'나 '우, 오'로 끝나고 경구개음소 이외의 자음소로 시작하는 1음절 어간이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어간말의 '이'와 '우, 오'는 각각 j와 w로 되고 어미초의 '어'는 '장음'을 가진다.

• 규칙(2): $$[_{Vst} \{\text{이, 오}\}]_{Vst} \text{ 어Y} \rightarrow$$

$$\begin{array}{ccc} 1 & \begin{bmatrix} 2 \\ \text{−모음성} \\ \text{−자음성} \\ \text{+고설성} \end{bmatrix} & 3 \end{array}$$

'이'나 '오'만으로 구성되는 1음절어간이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어간모음은 각각 j나 w로 된다.

• 규칙(3): $$\sigma(\text{C}) \{\text{이, 우, 오}\}]_{Vst} \text{ 어Y} \rightarrow$$

$$\begin{array}{cccc} 1 & 2 & \begin{bmatrix} 3 \\ \text{−모음성} \\ \text{−자음성} \\ \text{+고설성} \end{bmatrix} & 4 \end{array}$$

[동사의 어간말모음 '이, 우, 오'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활음소로 된다.]

• 규칙(4): [C, +설정성, +고모음성] j 어Y →

$$\underset{1}{\text{[C, +설정성, +고모음성]}}\;\begin{bmatrix} 2 \\ \varnothing \end{bmatrix}\;3$$

[규칙(1)이나 (3)이 적용된 다음 경구개자음소 뒤에서 j는 삭제된다.]

8.6.4 활음소화 과정의 설명

활음소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정된 활음소화규칙에 다음의 세 규칙, 즉 어미초 /어/의 /아/화규칙, 어간말의 /ㅎ/ 탈락규칙과 /j/ 삽입규칙을 추가해야 한다.

• 규칙(5): 어 → 아 / X{오,아}(C)] $_{Vst}$ _Y
• 규칙(6): ㅎ→ ø / X [+모음성] __] $_{Vst}$ [+모음성]Y
• 규칙(7): ø → j / XV] $_{N}$__아

이제 8.6.2에서 설정된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으로부터 8.6의 자료가 보이는 음운과정 중에서 활음소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이] 어도/(戴)	/두] 어도/(置)	/오] 어도/(來)	기저형
——	——	오 아도	규칙(5)
——	둬:도	——	규칙(1)
여도	——	와도	규칙(2)
[여도]	[둬:도]	[와도]	음성형

b.	/쏘ㅣ어도/(射)	/피ㅣ어도/(發)	/당기ㅣ어도/(引)	기저형
	쏘 아도	——	——	규칙(5)
	쏴:도	펴:도	——	규칙(1)
	——	——	당겨도	규칙(3)
	[쏴:도]	[펴:도]	[당겨도]	음성형
c.	/거두ㅣ어도/(收)	/지ㅣ어도/(負)	/치ㅣ어도/(打)	기저형
	거둬도	져도	쳐도	규칙(3)
	——	저도	처도	규칙(4)
	[거둬도]	[저도]	[처도]	음성형
d.	/찌ㅣ어도/(蒸)	/빠지ㅣ어도/(溺)	/다치ㅣ어도/(傷)	기저형
	쪄도	빠져도	다쳐도	규칙(3)
	쩌도	빠저도	다처도	규칙(4)
	[쩌도]	[빠저도]	[다처도]	음성형
e.	/놓ㅣ어도/(放)	/막ㅣ어도/(防)	/영기ㅣ아/(人名)	기저형
	놓 아도	막 아도	——	규칙(5)
	노 아도	——	——	규칙(6)
	놔:도	——	——	규칙(1)
	——	——	영기j아	규칙(7)
	[놔:도]	[마가도]	[영기야]	음성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저형에서 음성형까지의 음운과정은 기저형에 해당 규칙이 적용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8.6의 자료가 보이는 해당 음성형과 일치한다. 이 사실은 설정된 기저형과 규칙이 타당하다는 것을 말해 주며 그것은 또한 8.6의 자료를 말하는 화자들의 언어능력의 일부임을 말해 준다.

요약

음운론 연구는 1) 자료 수집, 2) 자료 분석과 정리, 3) 기저형의 설정, 4) 규칙의 설정, 5) 음운과정의 설명 등으로 이루어진다.

[1] 자료 수집

국어의 음운론 연구를 위한 자료는 문자로 씌어져 있는 문어(文語) 자료가 아니라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구어(口語) 자료, 즉 말이다. 말을 수집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음운목록을 참조하면서 조사 항목을 작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시적인 음운과정은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일어난다. 따라서 조사 항목은 어간이 자음소나 모음소로 끝나는 경우와 어미가 자음소나 모음소로 시작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2] 자료 분석과 정리

음운론은 연구목적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조사 항목을 작성하고, 각각의 조사항목에 대한 대상 언어의 기저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대상 언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한다.

자료 조사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공시 음운론 연구를 기준으로 하면, 표준어 어간과 어미가 통합할 때에 그에 해당하는 대상 언어의 어형이다. 그 어형은 어간과 어미의 구별이 없는 음성형이다. '자료 분석과 정리'는 그러한 음성형을 형태 분석하여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분명하고 쉽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은 (1) 자료를 '통합 관계(統合關係)'에서 관찰할 것, (2) 자료를 '계열 관계(系列關係)'에서 관찰할 것, (3)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그 자체를 한 단위로 생각할 것 등이다.

[3] 기저형의 설정

기저형의 설정이란 음성형으로 존재하는 교체형들로부터 그들 교체형이 생기기 전인 음소층위에 존재하는 추상형을 밝히는 일을 말한다. 기저형을 설정하는

데에 적용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교체형이 없으면 그 자체가 기저형이 되어야 한다. (2) 기저음소는 교체음소들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결정된 기저음소에서 각각의 교체음소로 변동되는 사실은 규칙에 의해서 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3) 교체형 중의 어느 하나를 기저형으로 하여 다른 교체형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형 모두를 기저형으로 인정해야 한다.

[4] 규칙의 설정

규칙은 기저음소가 그와 관련된 모든 교체음소의 실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5] 음운과정의 설명

음운과정의 설명이란 기저형으로부터 음성형이 실현되기까지의 음운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그 설명을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Xa] bY/	기저형
/Xa'b'Y/	규칙1
/Xa"b"Y/	규칙2
/$Xa^{n}b^{n}Y$/	규칙n
[$Xa^{n}b^{n}Y$]	음성형

이 형식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 준다. 먼저 어간의 기저형 Xa와 어미의 기저형 bY가 통합하면, 어간말의 음소 a와 어미초의 음소 b와의 음운론적 상호관계를 조정하는 음운규칙 또는 형태음운규칙들이 적용된다. 그 결과 /Xa'b'Y/와 /Xa"b"Y/와 같은 중간단계형이 생기며 더 이상 규칙이 적용될 수 없으면 음성형으로 실현된다.

연습문제 8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참조하여 각 지시대로 하라.

1.

① [잠는], [자바도] ② [덤는], [더퍼도] ③ [밤만], [바베]

위의 음성형에 대하여,

a. ①~③을 형태 분석하라.

b. 각 어간의 기저형을 말하라.

c. 음소를 사용하여 각 어간말 자음소가 거치는 음운과정을 규칙으로 표시하라.

2.

① [인는], [이써도]	② [운:는], [우서도]
③ [쫀는], [쪼차도]	④ [논는], [노치], [노아도]/[놔:도]
⑤ [찬는], [차저도]	⑥ [감만], [갑또], [가세]
⑦ [남만], [나제]	

위의 음성형에 대하여,

a. ①~⑦을 형태 분석하라.

b. 각 어간의 기저형을 말하라.

c. 음소를 사용하여 각 어간말 자음소가 거치는 음운과정을 규칙으로 표시하라.

3.

① [멍는], [머거도] ② [껑는], [꺼꺼도] ③ [떵만], [떠게]

위의 음성형에 대하여,

a. ①~③을 형태 분석하라.

b. 각 어간의 기저형을 말하라.

c. 음소를 사용하여 각 어간말 자음소가 거치는 음운과정을 규칙으로 표시하라.

4. | ① [분는], [부터도] ② [단는], [다다도] ③ [밤만], [바테] |
|---|

위의 음성형에 대하여,

a. ①~③을 형태 분석하라.

b. 각 어간의 기저형을 말하라.

c. 음소를 사용하여 각 어간말 자음소가 거치는 음운과정을 규칙으로 표시하라.

5.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여 1c~4c의 규칙을 하나의 규칙으로 표시하라.

6. 1①, 4②의 어간 기저형과 2⑥, 3③의 어간 기저형에 각각 어미 /-는/과 /-만/이 통합하여 음성으로 실현되는 음운과정을 설명하라.

제9장 음운론적 변화

이 장의 목적은 국어의 음운론적 변화에 대한 서술이다. 주요 서술의 내용은 음소목록의 변화와 음소분포의 변화 그리고 음운규칙의 변화다. 그러나 자료의 성격상 서술의 범위는 훈민정음으로 국어가 기록된 후기 중세국어 이후의 국어로 한정한다.

9.1 음소목록의 변화

여기서의 서술대상은 음소목록의 변화다. 음소목록의 변화는 자음소목록과 모음소목록 그리고 운소목록의 변화로 나누어 서술할 것이다.

9.1.1 자음소목록의 변화

자음소목록의 변화의 요인은 유성 마찰음소와 경 후두마찰음소의

소실과 치경구개 경음의 생성이다. 먼저 현대국어 자음소목록과 비교하여 15세기 중기 국어의 자음소목록의 특성은 유성 마찰음소(/ㅸ/와 /ㅿ/)와 경 후두마찰음소(/ㆅ/)가 존재하는 반면 경 치경구개음소(/ㅉ/)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15세기 후기에 양순 유성 마찰음소 /ㅸ/가 /w/로 변했다. 그리고 16세기 초에 치 유성 마찰음소 /ㅿ/가 ø로 되고 경 치경구개음소가 생성되었다. 그리하여 17세기 국어는 현대국어 자음소목록에 경 후두마찰음소 /ㆅ/가 더 있는 자음소목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17세기 후반에 /ㆅ/가 /ㅋ/나 /ㅆ/에 합류되면서(ㆅ- 〉 {켜, 씨}-) 18세기 이후의 자음소목록은 현대국어의 그것과 동일하게 되었다. 각 시기별 자음소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15세기 중기 국어의 자음소목록

/ㅂ, ㅍ, ㅃ, ㅸ, ㅁ; ㄷ, ㅌ, ㄸ, ㅅ, ㅆ, ㅿ, ㄴ, ㄹ; ㅈ, ㅊ; ㄱ, ㅋ, ㄲ, ㆁ(ŋ); ㅎ, ㆅ/

② 17세기 국어의 자음소목록

/ㅂ, ㅍ, ㅃ, ㅁ; ㄷ, ㅌ, ㄸ, ㅅ, ㅆ, ㄴ, ㄹ; ㅈ, ㅊ, ㅉ; ㄱ, ㅋ, ㄲ, ㆁ(ŋ); ㅎ, ㆅ/

③ 18세기 이후 국어의 자음소목록

/ㅂ, ㅍ, ㅃ, ㅁ; ㄷ, ㅌ, ㄸ, ㅅ, ㅆ, ㄴ, ㄹ; ㅈ, ㅊ, ㅉ; ㄱ, ㅋ, ㄲ, ㆁ(ŋ); ㅎ/

9.1.2 모음소목록의 변화

[1] 단(單)모음소목록의 변화

단모음소목록의 변화의 요인은 /ㆍ/의 소실과 전설모음소의 생성이다. 먼저 15~16세기의 단모음소목록은 /이, 으, 어, 우, 오, ㆍ, 아/의 7모음소목록였다. 그러나 17세기와 18세기 후기에 걸친 두 단계의 변화에 의해 /ㆍ/가 소실됨으로써, 18세기 국어의 단모음소목록은 /이, 으, 어, 우, 오, 아/의 6모음소목록을 일시적으로 가졌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러한 음소목록은 음소체계에서 보면 불안정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체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전설모음소 /에/, /애/가 생성되었다. 그 결과 19세기 초기 국어의 단모음소목록은 /이, 에, 애, 으, 어, 우, 오, 아/의 8모음소목록을 가졌고, 19세기 후기에 이르러 다시 단모음소 /외/와 /위/가 생성됨으로써 19세기 후기 국어의 단모음소목록은 최대로 현대국어에서의 그것과 동일하게 /이, 에, 애, 외(ö), 위(ü), 으, 어, 우, 오, 아/의 10모음소목록으로 되었다. 각 시기별 단모음소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15~16세기 국어의 단모음소목록
/이, 으, 어, 우, 오, ㆍ, 아/

② 18세기 국어의 단모음소목록
/이, 으, 어, 우, 오, 아/

③ 19세기 초기 국어의 단모음소목록
/이, 에, 애, 으, 어, 우, 오, 아/

④ 19세기 후기 국어의 단모음소목록
/이, 에, 애, 외, 위, 으, 어, 우, 오, 아/

[2] 이중모음소목록의 변화

이중모음소목록의 변화의 요인은 /의(ɯj)/를 제외한 j끝 이중모음소의 소실과 j시작 이중모음소 /예(je)/, /얘(jɛ)/와 w시작 이중모음소 /웨(we)/, /왜(wɛ)/의 생성이다. 먼저 15~16세기 국어의 이중모음소목록은 모두 열세 개의 이중모음소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서 여섯개는 j끝 이중모음소 /에(əj), 애(aj), 위(uj), 외(oj), ᄋᆡ(ʌj), 의(ɯj)/고 네 개는 j시작 이중모음소 /여, 유, 요, 야/며 세 개는 w시작 이중모음소 /위(wi), 워(wə), 와(wa)/이다.

그 중에서 /ᄋᆡ(ʌj)/는 /ᄋᆞ/의 변화와 함께 각각 이중모음소 /의(ɯj)/와 /애(aj)/에 합류하였다. 그러던 것이 18세기에 들어 이중모음소 /에(əj)/와 /애(aj)/가 단모음소화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j시작 이중모음소 /예(je), 얘(jɛ)/와 w시작 이중모음소 /웨(we), 왜(wɛ)/가 생성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 초기에는 열네 개로 구성된 이중모음소목록이 형성되었다. j끝 이중모음소 /위(uj), 외(oj), 의(ɯj)/와 j시작 이중모음소 /예(je), 얘(jɛ), 여, 유, 요, 야/ 그리고 w시작 이중모음소 /위(wi), 웨(we), 왜(wɛ), 워, 와/가 그것이다. 그 뒤에 이중모음소 /위(uj)/와 /외(oj)/가 단모음소화함으로써, 19세기 후기국어는 열두 개로 구성된 이중모음소목록을 가지게 되어 현대에 이르게 되었다. 열두 개의 이중모음소는 j끝 이중모음소 /의(ɯj)/와 j시작 이중모음소 /예(je), 얘(jɛ), 여, 유, 요, 야/ 그리고 w시작 이중모음소 /위(wi), 웨(we), 왜(wɛ), 워, 와/이다. 이 중에서 /의(ɯj)/는 소실되는 과정에 있다. 각 시기별 이중모음소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15~18세기 국어의 이중모음소목록

/에(əj), 애(aj), 위(uj), 외(oj), ᄋᆡ(ʌj), 의(ɯj); 여, 유, 요, 야; 위(wi),

워, 와/

② 19세기 초기 국어의 이중모음소목록

/위(uj), 외(oj), 의(ɯj); 예, 얘, 여, 유, 요, 야; 위(wi), 웨, 왜, 워, 와/

③ 19세기 후기 이후 국어의 이중모음소목록

/의(ɯj); 예, 얘, 여, 유, 요, 야; 위(wi), 웨, 왜, 워, 와/

9.1.3 운소목록의 변화

운소목록의 변화 요인은 성조의 소멸과 음장의 생성이다. 현대의 국어와는 달리, 15~16세기의 국어는 성조언어였다. 성조소목록은 세개의 성조소 '고조(高調, H), 저조(低調, L), 상승조(上昇調, R)'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중기에 '고조(高調, H)'와 '저조(低調, L)'가 성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승조'를 가진 음절의 모음소가 '장음(長音)'으로 변함으로써, 국어는 음장언어로 변했다.

9.2 음소분포의 변화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에 이르는 과정에 일어난 음소분포의 변화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ㅸ/와 /ㅿ/의 분포, 어두자음소군(語頭子音素群)의 분포, 양순음소 뒤에서 /으/의 분포, 어간말 자음소군 /ㅺ/의 분포, 어두에서 /ㄴ/의 분포, {/이/, /j/} 앞에서 '/ㄷ, ㅌ, ㄸ/'의 분포, {/이/, /j/} 앞에서 '/ㄱ, ㅋ, ㄲ/'와 /ㅎ/의 분포, 치 마

찰음소와 치경구개음소 뒤에서 /j/의 분포, 비어두 음절에서 /ᆞ/의 분포, 경구개음소 뒤에서 /ㅡ/의 분포, 음절말에서 /ㅅ/의 분포 변화가 그것이다.

① /ㅸ/의 분포

15세기 중기까지, /ㅸ/는 두 모음소 사이, /ㄹ/와 모음소 사이, 그리고 /ㅿ/와 모음소 사이에 분포되었다. '사ᄫᅵ(蝦), 글ᄫᅡᆯ(文), 우ᇫᄫᅳ리(哂)'에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 그런데 15세기 중기 이후에 /ㅸ/가 자음소목록에서 소멸됨으로써, 그 위치에서 /ㅸ/의 분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② /ㅿ/의 분포

15세기 후기까지, /ㅿ/는 두 모음소 사이, /ㄴ/와 모음소 사이, /ㅁ/와 모음소 사이 그리고 모음소와 /ㅸ/ 사이에 분포되었다. 'ᄆᆞᅀᆞᆯ(村), 한ᅀᅮᆷ(歎), 몸ᅀᅩ(躬)'와 '우ᇫᄫᅳ리(哂)'에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 /ㅿ/의 이러한 분포도, 15세기 후기 이후에 /ㅿ/이 음소목록에서 소멸됨으로써, 불가능하게 되었다.

③ 어두 자음소군의 분포

15세기 국어의 'ᄡᆞᆯ(米)'과 'ᄯᆞᆯ(女息)'은 12세기 초 송나라 손목(孫穆)이 기록한 《계림유사(鷄林類事)》에 의하면, 각각 '菩薩(*ᄇᆞᄉᆞᆯ)'과 '寶妲(*ᄇᆞᄃᆞᆯ)'이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아직 국어에 어두자음소군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그 후 어느 시기에 음절을 구성하는 모음소가 탈락된 결과 어두자음소군이 생성되었다.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문헌에 따르면, 15세기에서 17세기 초기에 걸쳐서 국어에는 어두에 자음소군이 분포될 수 있었다. 이때의 자음소군은 /ㅂ/로 시작되는 'ㅲ

(pt), ㅄ(ps), ㅶ(pc), ㅷ(pt^h); ㅵ(pt'), ㅴ(pk')' 등인데, 'ᄠᅳᆮ(意), ᄠᅳ-(浮), ᄡᆞᆯ(米), ᄡᅳ-(用), ᄧᅡᆨ(雙), ᄧᆞ-(織), ᄩᅳ-(彈); ᄢᅢ(時), ᄢᅵ르-(刺), ᄢᅴ(時), ᄣᅦ-(貫)'에서 보이는 자음소군이 그에 해당한다.

이들 자음소군 중에서 /ㅂ/가 실제로 발음되었다는 사실은 현대국어의 합성어 '입쌀, 좁쌀, 볍씨'와 파생어 '휩쓸-' 등에서 확인된다. 이 단어들은 '[[이]ᄡᆞᆯ], [[조]ᄡᆞᆯ], [[벼]ᄡᅵ]'와 '[[휘]ᄡᅳᆯ]-'의 단어형성에 의한 것으로서, 첫음절 말자음소 /ㅂ/는 'ᄡᆞᆯ', 'ᄡᅵ', 'ᄡᅳᆯ-'의 /ㅂ/가 화석화된 것이다. 이것은 어두자음소군에서 /ㅂ/가 당시에 독립된 음가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자음소군은 17세기 중기에 경음소로 되었다. 그 결과 어두자음소군의 분포가 국어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④ 양순음소 뒤에서 /으/의 분포

현대국어에서와는 달리, 17세기 후기까지의 국어는 양순음소 뒤에 후설 비원순 고모음소 /으/가 분포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 시기까지에는 그 환경에서 후설 고모음소 /우/와 /으/는 원순성에 의한 대립을 유지했다. '물(群)'과 '믈(水)'에서 그러한 대립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양순음소 뒤에서 /으/가 /우/로 변함으로써, 양순음소 뒤에서 /으/의 분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⑤ 어간말 자음소군 'ㅺ'의 분포

17세기까지의 국어에는 어간말에 자음소군 'ㅺ'가 분포될 수 있었다. 이 자음소군의 분포는 '바ᇧ(外)'과 '거ᇧ-(折)' 등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앞의 /ㅅ/가 /ㄱ/에 동화됨으로써, 자음소군 'ㅺ'가 /ㄲ/로 변한 결과 17세기 이후의 국어에는 어간말에 이 자음소군의 분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⑥ 어두에서 /ㄴ/의 분포

일반적으로 현대국어에서는 서북방언을 제외하면, 어두에서 /이/나 /j/ 앞에 /ㄴ/가 분포될 수 없다. 그러나 17세기 후기까지의 국어만 하여도 그 위치에 /ㄴ/가 분포될 수 있었다. 현대국어의 '이마(額), 익-(熟)'이나 '옆(傍), 예(古), 여미-(斂)' 등은 17세기 후기까지에는 모두 '니{맣, 마}(額), 닉-(熟)'이나 '녚, 녜, {녀믜, 념의}-' 등이었다. 그러나 17세기 후기 이후에 그 위치의 /ㄴ/가 모두 탈락되었다. 그 결과 그 위치에서 /ㄴ/의 분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⑦ {/이/, /j/} 앞에서 '/ㄷ, ㅌ, ㄸ/'의 분포

17세기 후기까지의 국어에는 /이/나 /j/ 앞에 '/ㄷ, ㄸ, ㅌ/'가 분포될 수 있었다. '딮(藁), 뎌(彼), 디킈-(守), 뎌르-(短)' 등이 그러한 예가 되는데, 이 경우의 /ㄷ/ 등은 17세기 후기에 모두 /ㅈ/ 등으로 변하였다. 그리하여 /이/나 /j/ 앞에서 /ㄷ/의 분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세기 초기에 이중모음소 /의/가 /이/로 변함으로써, 다시 /이/ 앞에 /ㄷ/의 분포가 가능하게 되었다. '띠(<ᄯᅴ)(帶), 느티나무(<느틔나모)(黃槐樹), 띠우-(<ᄣᅴ우-)(使浮), 견디-(<견듸-)(忍)'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⑧ 치 마찰음소와 치경구개음소 뒤에서 /j/의 분포

현대국어에는 '섬(階)'과 '섬(島)', '저(自)'와 '저(筯)' 사이에는 음소적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7세기 후기까지 국어에는 치 마찰음소와 치경구개음소 '/ㅅ, ㅆ/'와 '/ㅈ, ㅊ, ㅉ/' 뒤에 /j/가 분포될 수 있어서, 그것들은, '섬(階)'과 '셤(島)', '저(自)'와 '져(筯)'에서 보듯이, /j/의 유무에 의한 대립을 보였다. 그러던 것이 17세기 후기에 치 마찰음소와 치경구개음소 뒤의 /j/가 탈락됨으로써 그 위치에서 /j/의

분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⑨ 비어두 음절에서 /오/의 분포

현대국어에서와는 달리, 18세기 초의 국어에서는 앞 음절의 모음소가 '/오, 아, ᄋᆞ/'와 이들 모음소를 핵모음소으로 하는 j끝 이중모음소일 때에 그 뒤 음절에 /오/가 분포될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초에 '/아, ᄋᆞ, 애(aj)/'의 뒤음절 모음소 /오/가 /우/로 변하기 시작함으로써, '/오, 아, ᄋᆞ/'와 이들 모음소를 핵모음소으로 하는 j끝 이중모음소 뒤에 /오/의 분포가 어렵게 되었다. '나무(〈 나모, 木), 감추-(〈 ᄀᆞᆷ초-, 藏), 개구리(〈 개고리, 蛙)' 등의 예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⑩ 자음소 뒤에서 /의(ɯj)/의 분포

19세기 초까지 국어에는 자음소 뒤에 이중모음소 /의(ɯj)/가 분포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자음소 뒤의 이중모음소 /의/가 /이/로 변함으로써, 대부분의 형태소 내에서 이중모음소 /의/는 자음소 뒤에 분포될 수 없게 되었다.

⑪ 경구개음소 뒤에서 /으/의 분포

고유어의 경우, 18세기 말까지의 국어에서는 현재의 경구개음소 '/ㅈ, ㅊ, ㅉ/' 뒤에 /으/가 분포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비어두 음절에서 경구개음소 뒤의 /으/가 /이/로 변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 영역을 어두 음절에까지 확대하였다. 그 결과 고유어에서는 경구개음소 뒤에 /으/의 분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3)]

(심)

① 현재의 서북방언과 동북방언은 치 마찰음소와 치경구개음소 '/ㅅ, ㅆ/'와 '/ㅈ, ㅊ, ㅉ/' 뒤의 /으/가 /이/로 되는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표준어 '찢- (裂), 질-(泥)' 등과 '싫-(厭), 싱겁-(淡)' 등은 '쯪-, 즐-' 등과 '슳-, 승겁-' 등으로 사용된다.

② 마찰음소 '/ㅅ, ㅆ/' 뒤의 /으/가 /이/로 되는 변화도 일어났다. 이 변화는 남부방언에서는 강하였지만, 서북방언과 동북방언을 제외한 나머지 방언에서는 약하였다. 그러므로 남부방언에서는 마찰음소 뒤에 /으/의 분포도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위에 제시된 ①~⑪까지의 음소분포의 변화 중 ⑥~⑧의 변화는 모두 같은 시기에 /j/와 관련되어 있으며, /j/ 앞의 자음소들이 모두 그 위치에서 구개음소로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⑥~⑧의 변화는 모두 구개음소화규칙의 발생과 관련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형태소 내부에서의 음소분포 변화와는 달리, 형태소 경계에서의 음소분포의 변화로는 음절말에서 /ㅅ/의 분포 변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형태소 경계'란 기저형에 음운규칙이 적용된 최종 단계, 즉 음성으로 실현되기 직전에서의 형태소 경계이다.

⑫ 음절말에서 /ㅅ/의 분포

현대국어에서와는 달리, 15세기 후기까지의 국어에는, 음절말에 /ㅅ/가 분포되어 /ㄷ/와 대립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곳'(花, 類合上 8)과 '곧'(處, 類合上 24)에서, 그리고 15세기에 중국인에 의해 기록된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의 '花果思'나 '陽別'에서 알 수 있다. '花果思'와 '陽別'의 '果思'와 '別'은 각각 '花'와 '陽'에 대한 국어 '곳'과 '볃'을 표기한 것인데, 표기자는 어말 /ㄷ/와는 달리 /ㅅ/는 반드시 '思'로써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에 음절말에 /ㅅ/가 [ㅅ]로 발음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李基文 1972: 133~34). 그러나 15세기 후기 이후에 음절말에서 이러한 대립이 소멸됨으로써, 음절말에서는 'ㅅ'만

이 표기되었다. 이때의 'ㅅ'는 실제로는 음성 'ㄷ[t]'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5세기 후기 이후로는 그 위치에서 /ㅅ(s)/의 분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9.3 음운규칙의 변화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음운규칙의 변화는 크게 규칙의 생성과 규칙의 소멸로 나눌 수 있다. /ㄷ/ 구개음소화규칙이나 원순모음소화규칙 등은 생성된 규칙에 해당하며 'ㅸ 〉 ㅂ' 규칙이나 어간말 /ㄹ/와 /j/ 뒤에서 /ㄱ/의 탈락규칙 등은 소멸된 규칙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칙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ㅸ → {w, ㅂ}' 규칙

이것은 형태소 내부나 형태소 경계에 있는 /ㅸ/를 /w/나 /ㅂ/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이 규칙이 발생됨으로써 15세기 중기에 /ㅸ/가 소멸되었다. 이 규칙은 'X__(ㅣ$_{Vst}$)VY'와 'X_ㅣ$_{Vst}$ CY'의 환경에서 발생하였다. '셔ᄫᅳᆯ(京)'이 '셔울'로 되고 /Xㅸ-/의 구조를 가진 동사 어간이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X우-/로 된 것(예. 더ᇦ- 〉 더우-, 暑)이 전자의 예라면, /Xㅸ-/의 구조를 가진 동사 어간이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Xㅂ-/로 된 것(예. 더ᇦ- 〉 덥(təp)-, 暑)'은 후자의 예가 된다.

② 'ㅿ → {ø, ㅅ}' 규칙

이것은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 있는 /ㅿ/를 ø나 /ㅅ/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이 규칙이 발생됨으로써, 15세기 후기에 /ㅿ/가 소멸되었다. 이 규칙은 'X__(ǀ $_{Vst}$)VY'와 'X__ǀ $_{Vst}$ CY'의 환경에서 발생하였다. 'ᄆᆞᅀᆞᆯ(村)'이 'ᄆᆞᅀᆞᆯ(>ᄆᆞ을>마을)'로 되고 /Xㅿ-/의 구조를 가진 동사 어간이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Xø-/ > /Xㆆ-/'로 된 것(예. 닛- >니->이-> 잉-, 連)이 전자의 예라면, /Xㅿ-/의 구조를 가진 동사 어간이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Xㅅ-/ > /Xㄷ-/ > /Xㆆ-/'로 된 것(예. 닛->닛-> 잇- > 읻- > 잉-, 連)은 후자의 예가 된다.[쉽]

쉽

특히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 'ㅿ → ø'에서 어간말 음소 ø는 /ㆆ/로 변했는데, 그것은 모음소와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서였다. 동사 '닛-(連)'을 예로 들어보자. 이 동사가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닛ǀ{어, 으}Y'에 규칙 'ㅿ → ø'가 적용되어 어간이 '니->이-'가 되는데, 이 어간은 /이ǀ어도(連)/나 /이ǀ으면(連)/의 경우에 /이어도/나 /이으면/을 거쳐 [이어도]나 [이으면]으로는 실현되지만, 결코 [여도]나 [이면]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러나 정말 /이/로 끝나는 동사 '이-(戴)'는 그 경우에 [여도]([이어도]도 가능)나 [이면]으로는 실현되지만, 결코 [이으면]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한편 동사 '닛-(連)'이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닛ǀ CY/에서 /ㅿ/는 자음소 앞에서 무성음화하여 /ㅅ/가 되며 그 결과 어간은 /닛->잇-/으로 재구조화된다. 그런데 어간말 자음소 /ㅅ/는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ㄷ/로 되며 어떤 환경에서도 표면에 /ㅅ/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 결과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어간 /잇-/은 다시 /읻-/으로 재구조화된다. 그런데 이 재구조화된 어간 /읻-/의 /ㄷ/는 어미초의 자음소를 경음소화시키는 기능만 가진다.

어미초 자음소를 경음소화시키는 기능은 /ㄷ/만이 아니라 /ㆆ/도 가능하다. 그런데 /ㆆ/는 어미초 자음소를 경음소화시킬 뿐 아니라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는 탈락한다. 이러한 사실은 통합하는 어미의 첫 환경에 따라 달리 재구조화된 {이-, 읻-}(<[...]<'닛-)이 모음소나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의 음운현상을 충족시킨다.

다시 말하면, 어간말의 /ㆆ/는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유성음 사이에서 탈락된다. 어간말 자음소가 탈락하는 경우에는 활음화나 어미초 /으/가 탈락되는 환경이 되어도 그러한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잉ㅣ아도(連)/나 /잉ㅣ으면(連)/의 경우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이어도]나 [이으면] 뿐이다. 그리하여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에서 재구조화된 어간 /이-(連)/와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통합에서 재구조화된 /(잇-)) 읻-(連)/은 모두 /잉-(連)/으로 단일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현대국어의 소위 /ㅅ/변칙동사의 기저형을 /Xㆆ-/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동남방언이나 동북방언에서는 그들 규칙이 모두 발생된 것은 아니다. 그들 방언이 중세의 문헌자료의 'ㅿ'에 대해서 'ㅅ'의 대응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15세기 이전의 어느 시기에 모든 환경에 적용되는 'ㅿ → ㅅ'의 규칙이 그들 방언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실(ᄆᆞᅀᆞᆶ, 村), 무시(무ᅀᅮ, 菁), 잇-: 이서도(連)' 등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ㅸ → ㅂ' 규칙과 마찬가지로, 이 규칙도, 동남방언과 동북방언의 경우, 'ㅿ'이 'ㅅ'으로 변동됨과 동시에 소멸되었고, 그 외의 방언의 경우, 15세기 후기에 발생된 'ㅿ'의 소멸과 함께 소멸되었다.

③ 'ᆞ → {으, 아}' 규칙

이것은 비어두 음절과 어두 음절의 /ᆞ/를 /으/와 /아/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즉 15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서 존재하던 /ᆞ/는 16세기와 17세기에 발생된 'ᆞ → {으, 아}'의 규칙에 의해 소멸되었다. 그 중 규칙 'ᆞ → 으'는 16세기에 발생하여 비어두(σ(C)___)에 있는 /ᆞ/에 적용되었고, 규칙 'ᆞ → 아'는 17세기에 발생하여 어두에 있는 /ᆞ/에 적용되었다. '마늘(< 마ᄂᆞᆯ, 蒜), 하늘(< 하ᄂᆞᆯ, 天), 아들(< 아ᄃᆞᆯ, 子), 보드{럽,랍}-(< 보ᄃᆞ랍-, 軟); 까시(< 가ᄉᆡ < 가ᅀᅴ, 荊), 가시-(< 가ᄉᆡ- < 가

싀-, 掃)' 등과 '날(<놇, 刃), {닥, 닭, 달}(< 돍, 鷄), 타-(< ᄐᆞ-, 彈); 배(< 비, 腹), 깨-(< ᄢᅵ-, 覺)' 등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 준다. 이 규칙은 그것이 적용되어 해당되는 /ᆞ/의 변동이 완성됨과 동시에 소멸하였다.

④ 'ㆅ → ㅋ' 규칙

이것은 / j / 앞의 /ㆅ/를 /ㅋ/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이 규칙이 발생됨으로써, 17세기 후기까지 존재했던 'ㆅ/는 /ㅋ/로 변하였다. '{혀, ᄻᅧ}-(引)'나 '니르혀-(使起)' 등에 대한 '켜-'나 '이르키-' 등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ㅅ → (ㄷ →) ㄱ' 규칙

이것은 어간말 자음소군 /ㅺ/에서 /ㅅ/를 /ㄱ/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현대국어에서와는 달리, 17세기까지, 국어에는 어간말 자음소군 /ㅺ/가 존재하였다. 그런데 이 규칙이 발생됨으로써, 어간말 /ㅺ/는 /ㄲ/으로 되었다. '밨(外)'과 '겼-(折)' 등이 '밖'과 '겪-'으로 된 것은 그러한 예가 된다. 이 변화는 'ㅅ'가 'ㄱ' 앞에서 직접 'ㄱ'로 된 것이 아니라 먼저 평파열음소 'ㄷ'로 되고 'ㄷ'가 'ㄱ'에 동화되어 'ㄱ'로 된 것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⑥ /ㄷ/ 구개음소화규칙

이것은 /이/나 / j / 앞의 경구개음소 '/ㄷ, ㅌ, ㄸ/'를 '/ㅈ, ㅊ, ㅉ/'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17세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국어에는 /이/나 / j / 앞에 '/ㄷ, ㄸ, ㅌ/'가 분포될 수 있었다. 그러나 15세기에 이 규칙이 발생되어 처음에는 비어두 음절에 적용되었지만, 17세기 후기에는 어두음절에까지 일반화되었다. '오딕(但), 더디-(投)'나 '디혜(智慧), 둏-(好), 티-(打)' 등이 '오직, 더지-'나 '지혜, 좋-, 치-' 등으로 된 것은

이 규칙의 적용 결과이다.

19세기 초에 자음소 뒤에서 발생된 '의(ɯj) → 이' 규칙에 의해 변화된 '마디(< 마듸, 節), 띠(< 띄, 帶)' 등의 '디'와 '띠'가 구개음소화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 규칙은 17세기 후기와 18세기 말 사이에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⑦ 원순모음소화규칙

이것은 양순음소 뒤의 후설 비원순 고모음소 /으/를 원순모음소 /우/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이 규칙이 발생됨으로써 17세기 후기까지 '{ㅂ, ㅍ, ㅃ, ㅁ}__'에 분포되던 /으/는 모두 /우/로 변동되었으며, 그 결과 양순음소 뒤에서 /으/와 /우/의 대립은 없어지고 말았다. '블(火), 플(草), 믈(水), 븥-(附)' 등이 현대국어에 모두 '불, 풀, 물, 붙-'으로 된 것은 이 규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⑧ /j/ 탈락규칙

이것은 치 마찰음소 '/ㅅ, ㅆ/'와 치경 구개음소 '/ㅈ, ㅊ, ㅉ/' 뒤의 /j/를 탈락시키는 규칙이다. 18세기 초기까지 국어에는 치 마찰음소와 치경 구개음소 뒤에 /j/가 분포될 수 있었는데, 이 규칙이 발생됨으로써 그 위치에 있던 /j/는 탈락되고 말았으며, 그와 함께 그 위치에서 /j/에 의한 대립도 없어지고 말았다. '셤(島)'과 '져(筯)' 등이 '섬'과 '저' 등으로 된 것은 이 규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⑨ 이중모음소의 단모음소화(單母音素化)규칙

이것은 이중모음소를 단모음소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현대국어에 단모음소로 기능하는 '/에(e), 애(ɛ), 외(ö), 위(ü)/'는 18세기 이전만하여도 모두 이중모음소이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 규칙이 발생되어 18

세기 말에 이중모음소 /애(aj)/와 /에(əj)/가 먼저 단모음소 /애(ɛ)/와 /에(e)/로 되었으며, 19세기 후기에는 이중모음소 /외(oj)/와 /위(uj)/도 단모음소 /외(ö)/와 /위(ü)/로 되었다. 이 규칙은 모든 환경에 다 적용되었다.

⑩ /ㄴ/ 탈락규칙

이것은 어두에서 /이/나 /j/ 앞의 /ㄴ/를 탈락시키는 규칙이다. 18세기 전기까지의 국어에는 어두에서 /ㄴ/가 /이/나 /j/ 앞에 분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규칙이 발생됨으로써, 그 위치의 /ㄴ/가 모두 탈락하여 18세기 후기에는, 서북방언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어두에서 /ㄴ/가 /이/나 /j/ 앞에 분포될 수 없게 되었다. '니불(衾), 니맣(額), 닉-(熟)'이나 '녀름(夏), 념통(心), 녀기-(想)' 등이 현대국어에 '이불, 이마, 익-'이나 '여름, 염통, 여기-'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이 규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⑪ '오 → 우' 규칙

이것은 '/X{아, ᄋᆞ, 애(aj)}(C)__/'에 있던 /오/를 /우/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18세기 초까지 국어에는 모음소 '/오, 아, ᄋᆞ/'와 이들 모음소를 핵모음소으로 하는 j끝 이중모음소를 가진 음절 뒤에 /오/가 분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규칙이 발생되어, 초기에는 주로 '/{아, ᄋᆞ, 애(aj)}___/' 위치의 /오/가 /우/로 변하였다. 그 결과 그 위치에 /오/의 분포가 어렵게 되었으며, 형태소 내부에서의 모음소조화가 파괴되었다. '단쵸(鈕子), 아옥(葵), 내죵(終), 가도-(囚), ᄂᆞ초-(使低)' 등이 현대국어에 '단추, 아욱, 나중, 가두-, 낮추-'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이 규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⑫ '의(ɯj) → 이' 규칙

이것은 자음소 뒤의 이중모음소 /의(ɯj)/를 /이/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이 규칙이 발생되기 전에, 국어에는 자음소 뒤에 이중모음소 /의(ɯj)/가 분포될 수 있었지만, 19세기 초에 이 규칙이 발생됨으로써, 자음소 뒤의 이중모음소 /의/는 모두 /이/로 변하였으며, 그 결과 자음소 뒤에 이중모음소 /의/의 분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마듸(節), 띄(帶), 긔-(匍)' 등이 현대국어에 '마디, 띠, 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규칙의 적용 결과이다.

⑬ 전설고모음소화규칙

이것은 치 마찰음소 '/ㅅ, ㅆ/'와 치경 구개음소 '/ㅈ, ㅊ, ㅉ/' 뒤의 후설 비원순 고모음소 /으/를 전설 고모음소 /이/로 변동시키는 규칙이다. 이 규칙은 19세기 초에 발생되어 비어두 음절에 적용되었는데, 뒤에 어두 음절에까지 적용되었다. 이 규칙은 서북방언과 동북방언에서는 발생되지 않았다. 그 외의 방언에서, 이 규칙은 '/ㅈ, ㅊ, ㅉ/' 뒤의 /으/에 대해서는 강하게 적용되었으나 '/ㅅ, ㅆ/' 뒤의 /으/에 대해서는 약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동남방언과 서남방언에서는 '/ㅅ, ㅆ/' 뒤의 /으/에 대해서도 강하게 적용되었다. '(아ᄎᆷ〉) 아츰(朝), 즐-(泥), 승겁-(淡), 슳-(厭)' 등이 '아침, 질-, 싱겁-, 싫-'로 된 것은 이 규칙의 적용 결과이다.

⑭ 'ㄱ → ø' 규칙

이것은 /ㄹ/나 / j /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 뒤에 있는 어미의 초성 /ㄱ/를 탈락시키는 규칙이다. '/믈ㅣ과/ → [믈와](水)'나 '/불ㅣ고/ → [불오](吹), /희ㅣ고/ → [희오](白)' 등에서 이 규칙의 존재가 인정되는데, 이 규칙은 중부방언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중부방언의

'(말이 〉)말리-(仲裁)'와 '(달애 〉)달래-(誘)' 등이 다른 방언에 '말기-'와 '달개-'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1608년과 1632년에 간행된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와 『가례언해(家禮諺解)』에 '살고(살-, 生)〈34a〉, 알고져(알-, 知)〈34a〉'와 '울고(울-, 泣)〈7:1a〉, 술과(술, 酒)〈7:5a〉' 등과 같이 /ㄱ/가 탈락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 16세기 말에 이 규칙이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요약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국어에서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의 음운론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음소목록의 변화

15세기 중기 국어에서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자음소목록과 모음소목록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자음소목록의 변화

/ㅂ, ㅍ, ㅃ, ㅸ, ㅁ; ㄷ, ㅌ, ㄸ, ㅅ, ㅆ, ㅿ, ㄴ, ㄹ; ㅈ, ㅊ; ㄱ, ㅋ, ㄲ, ㆁ(ŋ); ㆆ, ㆅ/(15세기 중기) 〉 /ㅂ, ㅍ, ㅃ, ㅁ; ㄷ, ㅌ, ㄸ, ㅅ, ㅆ, ㄴ, ㄹ; ㅈ, ㅊ, ㅉ; ㄱ, ㅋ, ㄲ, ㆁ(ŋ); ㆆ, ㆅ/(17세기) 〉 /ㅂ, ㅍ, ㅃ, ㅁ; ㄷ, ㅌ, ㄸ, ㅅ, ㅆ, ㄴ, ㄹ; ㅈ, ㅊ, ㅉ; ㄱ, ㅋ, ㄲ, ㆁ(ŋ); ㆆ/(18세기 이후)

② 모음소목록의 변화

ⓐ 단모음소목록의 변화: /이, 으, 어, 우, 오, ᄋᆞ, 아/(15~16세기) 〉 /이, 으, 어, 우, 오, 아/(18세기) 〉 /이, 에, 애, 으, 어, 우, 오, 아/(19세기초) 〉 /이, 에, 애, 외(ö), 위(ü), 으, 어, 우, 오, 아/(19세기 후기 이후)

ⓑ 이중모음소목록의 변화: /에(əj), 애(aj), 위(uj), 외(oj), ᄋᆡ(ʌj), 의(ɯj); 여, 유, 요, 야; 위(wi), 워, 와/(15~18세기) 〉 /위(uj), 외(oj), 의(ɯj); 예, 얘, 여, 유, 요, 야; 위(wi), 웨, 왜, 워, 와/(19세기 초) 〉 /의(ɯj); 예, 얘, 여, 유, 요, 야; 위(wi), 웨, 왜, 워, 와/(19세기 후기 이후)

③ 운소목록의 변화

15세기에서 16세기 중기에 이르는 국어는 운소로서 성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 시기의 성조소목록은 세개의 성조소 '고조소, 저조소, 상승조소'로 구성되었다. 그러던 것이 16세기 중기에 이르러 성조가 소멸되고 그와 함께 '상승조소'가 '장음'이 됨으로써 국어는 음장언어로 바뀌었다.

[2] **음소분포의 변화**

15세기 중기 국어에서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에 일어난 음운론적 변화로 다음과 같은 음소의 분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 어두에 자음소군의 분포 ⓑ 음절말에서 /ㅅ/의 분포 ⓒ 어두 '{이, j}' 앞에서 /ㄴ/의 분포, '___j'에 '/ㄷ, ㅌ, ㄸ/'의 분포 ⓓ /ㅂ, ㅍ, ㅃ, ㅁ/ 뒤에 /으/의 분포와 /ㅈ, ㅊ, ㅉ/ 뒤에 /으/의 분포 ⓔ /ㅅ, ㅆ/와 /ㅈ, ㅊ, ㅉ/ 뒤에 /j/의 분포 ⓕ 자음소 뒤에 이중모음소 /의/의 분포 ⓖ 어간말 자음소군 중 /ㄱ/ 앞에 /ㅅ/의 분포 ⓗ 비어두 음절에서 /오/의 분포

[3] **음운규칙의 변화**

15세기 중기 국어에서 근대국어에 이르기까지에 생성된 음운규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ㅸ → {w, ㅂ}' 규칙, 'ㅿ → {ø, ㅅ}' 규칙, 'ᄋᆞ → {으, 아}' 규칙, 'ㆅ → ㅋ' 규칙, 'ㅅ → ㄱ' 규칙, /ㄷ/ 구개음소화규칙, 원순모음소화규칙, /j/ 탈락규칙, 이중모음소의 단모음소화(單母音素化)규칙, /ㄴ/ 탈락규칙, '오 → 우' 규칙, '의(ɯj) → 이' 규칙, 전설고모음소화규칙, 'ㄱ → ø' 규칙 등.

연습문제 9

1. 15세기 중기 국어에서 17세기 국어에 이르기까지 자음소목록에 일어난 변화는 어떤 것인가?

2. 18세기 중기 국어에서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단(單)모음소목록에 일어난 변화는 어떤 것인가?

3. 15세기 중기 국어에서 19세기 초의 국어에 이르기까지 이중모음소목록에 일어난 변화는 어떤 것인가?

4. 다음 보기에서 A는 15세기 국어이고 B는 그에 대한 현대국어이다. 두 시기의 국어를 대조한 다음, 물음에 적합한 예를 A의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찾아 쓰라.

보기
A (1) 그제ᅀᅡ 舍利弗이 虛空애 올아 거르며 셔며 안ᄌᆞ며 누ᄫᅳ며 ᄒᆞ고 몸 우희 믈 내오 몸 아래 블 내오 東녀긔셔 수므면 西ㅅ녀긔 내ᄃᆞ고 (2) 世尊하 아뫼나 이 經을 디녀 닐거 외오며 ᄂᆞᆷᄃᆞ려 물어 닐어 여러 뵈어나 제 쓰거나 ᄂᆞᆷ 히여 쓰거나 ᄒᆞ고 恭敬ᄒᆞ며 尊重히 너겨 (3) 셔ᄫᅳᆯ 긔벼를 알ᄊᆡ ᄒᆞᄫᆞᅀᅡ 나ᅀᅡ가샤 모딘 도ᄌᆞᄀᆞᆯ 믈리시니이다 스ᄀᆞᄫᆞᆯ 軍馬ᄅᆞᆯ 이길ᄊᆡ ᄒᆞᄫᆞᅀᅡ 믈리조치샤 모딘 도ᄌᆞᄀᆞᆯ 자ᄇᆞ시니이다

보기
B (1) 그제야 사리불이 허공에 올라 걸으며 서며 앉으며 누우며 하고 몸 위에 물 내고 몸 아래 불 내고 동녘에서 숨으면 서녘에 내닫고 (2) 세존아 아무나 이 경을 지녀 읽어 외우며 남더러 물어 일러 열어 뵈거나 제 쓰거나 남 시켜 쓰거나 하고 공경하며 존중히 여겨 (3) 서울 기별을 알므로 혼자 나아가시어 모진 도적을 물리셨습니다. 시골 군마를 이기므로 혼자 물리쫓어시어 모진 도적을 잡으셨습니다.

(1) 'ㅸ → w' 규칙에 의해 변한 단어는?

(2) 'ㅿ → ø' 규칙에 의해 변한 단어는?

(3) 'ᄋᆞ → 으' 규칙에 의해 변한 단어는?

(4) 'ᄋᆞ → 아' 규칙에 의해 변한 단어는?

(5) /ㄷ/ 구개음소화규칙에 의해 변한 단어는?

(6) 원순모음소화규칙에 의해 변한 단어는?

(7) /j/ 탈락규칙에 의해 변한 단어는?

(8) /ㄴ/ 탈락규칙에 의해 변한 단어는?

(9) '오 → 우' 규칙에 의해 변한 단어는?

(10) '의(ɯj) → 이' 규칙에 의해 변한 단어는?

(11) 전설고모음소화규칙에 의해 변한 단어는?

(12) 'ㄱ → ø' 규칙에 의해 변한 단어는?

제10장 표기형 · 음성형 · 기저형

어떤 언어를 공시적으로 연구하거나 통시적으로 연구할 때에, 그 대상이 되는 자료는 본토박이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즉 자연어인 구어(口語, spoken language)이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와 달리, 15세기나 17세기 국어에 대한 공시적 연구를 위해서 당시의 구어를 수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당시 사람들의 말을 녹음해 둔 것이 없고 당시 사람들로서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구어를 바탕으로 한 앞 시기의 국어에 대한 공시적 연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불가능을 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 2차적 언어자료인 문어(文語, written language)다. 오늘날 간행되는 책에 수록된 국어가 현대국어임을 감안하면, 15세기나 19세기에 처음으로 간행된 책에 수록된 국어는 각각 15세기나 19세기 당시의 국어일 것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문자나 그 문자로 표기된 언어는 그것이 기록된 당시의 실제 언어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실은 현

대국어의 경우를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부방언에서 속격어미는 [에]로 발음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의'로 표기한다. 예. [나에 집](나의 집). 또 중부방언에서 30대 이하의 화자들은 '에(e)'와 '애(ɛ)'를 구별하지 못하여 '게(蟹)'와 '개(犬)'를 모두 '[kE]'라고 발음하며 '화(花)'는 [꼬시](주어), [꼬슬](목적어)로 발음하므로 그 기저형이 각각 /kE/(蟹, 犬)와 /꼿/이지만, 문어에서 그것들은 각각 '게(蟹)', '개(犬)'와 '꽃(花)'으로 표기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까닭은 문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표기법의 제약 때문이다. 현재 사용되는 국어 표기 문자에는 '에'와 '애'의 중간음인 [E]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으며 구어에서는 '화(花)'의 기저형이 /꼿/이지만, 표기법에서 그것을 '꽃'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어를 대상으로 음운론적인 연구를 할 때에는 먼저 문자와 음소, 표기형과 기저형의 관계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장의 주요 내용은 문자와 음성과 음소의 관계 및 표기형과 음성형과 기저형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된다.

10.1 문자 · 음성 · 음소

사람은 주로 음성을 사용하여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다. 생각을 담아 전하는 음성을 말이라고 하는데 말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을 가진다. 말은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만 들을 수 있고 상대방의 말이 들리는 공간 내에서만 들을 수 있다. 말이 지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문자다. 문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자는 언제까지나 보존될 수 있으며

어떤 장소에라도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문자라도 그 문자가 사용되는 언어의 모든 언어음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다. 국어를 기록하기 위한 문자인 '한글'은 닭 우는 소리나 바람 소리까지도 적을 수 있다고 하지만, 'ㅂ, ㄷ, ㄱ'만으로는 '배(船), 대(竹), 개(犬)'의 초성 [p], [t], [k]와 '나방(蛾), 마디(節), 베개(枕)'의 둘째 음절의 초성 [b], [d], [g]를 구별하여 적을 수 없다. 그리고 'ㄴ'만으로는 '나라(國), 나비(蝶)'의 초성 [n]와 '자녀(子女), 비뇨기(泌尿器)'의 둘째 음절의 초성 [ɲ]를 구별하여 적을 수 없다. 또 'ㅎ'만으로는 '하늘(天)', '휴가(休暇)', '흙(土)', '활(弓)'의 초성 [h], [ɸ], [x]와 [X]를 구별하여 적을 수 없다.

현대국어의 방언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언어음과 그 언어음을 기록할 문자 사이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표준어 '종(鐘)'의 초성 'ㅈ'는 서북방언에서는 치조 파찰음 [ʦ]로 실현되며 중부방언에서는 치경 경구개 파찰음 [ʧ]로 실현된다. 이러한 방언음의 차이를 문자 'ㅈ'만으로는 구별하여 적을 수 없다. 그리고 표준어 '어제(昨)'의 첫음절 '어'는 중부방언에서는 개방-중 후설 비원순 모음 [ʌ]로 실현되며 동남방언에서는 폐쇄-중 중설 비원순 모음 [ɘ]로 실현된다. 이 경우에도 문자 '어'만으로는 그들 방언음을 구별하여 적을 수 없다.

위의 논의는 모두 동일 음소의 변이음과 문자와의 관계 그리고 동일 음소에 대한 서로 다른 방언 간의 음성적 차이와 문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음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음운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자가 음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음운론적인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부방언의 경우, 30대 이하의 젊은층의 말에서는 모음소 '에'와 '애'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이 경우에 그들은 표준어 '게(蟹)'와 '개(犬)'를 모두 [kE]로 발음하므로 그것들의 기저형은 모

두 /kE/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때의 모음소 E는 모음자 '에'나 '애'만으로는 정확하게 적을 수 없다.

또 동남방언의 경우, 이 방언에서는 모음소 '에'와 '애'뿐 아니라 '으'와 '어'도 변별적 기능을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방언 화자들은 표준어 '게(蟹)'와 '개(犬)', '틀(機)'과 '털(毛)'을 각각 [kE]와 [t^hɜl]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표준어에서 대립짝을 이루는 그들 단어는 동남방언에서 모두 기저형 /kE/와 /t^hɜl/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모음소 E와 ɜ는 문자 '에', '애'나 '으', '어'로는 정확하게 적을 수 없다.

현대국어의 음운론에서 소위 'ㅅ-변칙동사'의 음운현상을 논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 현대국어에서 'ㅅ-정칙동사'의 어간말 기저음소 'ㅅ'는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ㄷ]로 실현되지만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다음과 같이 [ㅅ]로 실현된다. 어간 '웃:-(笑)': [욷:꼬](←/웃: ǀ 고/), [욷:찌](←/웃: ǀ 지/), [우서도](←/웃: ǀ 어도/), [우스니](←/웃: ǀ 으니/).

이와는 달리, 소위 'ㅅ-변칙동사'의 어간말 기저음소 'ㅅ'는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는 'ㅅ-정칙동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ㄷ]로 실현되지만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보듯이 음성으로 실현되지 않다. 어간 '짓:-(作)': [짇:꼬](←/짓: ǀ 고/), [짇:찌](←/짓: ǀ 지/), [지어도](←/짓: ǀ 어도/), [지으니](←/짓: ǀ 으니/).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소위 'ㅅ-변칙동사'의 어간말 기저음소는 'ㅅ'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동사의 어간말 기저음소는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는 어미초의 평음소를 경음소화하고 모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는 탈락하는 음소이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음소는 후두폐쇄음소 'ㆆ(ʔ)'이다. 그러므로 소위 'ㅅ-변칙동사'인 '짓:-(作)'은 '짛:-'으로 적어야한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는 문자 중에 'ㆆ'는 없으므로 그것을 제대로 적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국어의 통시음운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후기 중세국어에서는 치경음소 /ʦ/를 문자 'ㅈ'으로 적었다. 그런데 근대국어 이후로 /ʦ/는 치경구개음소 /ʧ/로 변했다. 그러나 이 음소를 적는 문자는 여전히 'ㅈ'이다. 이 경우에, 중세국어의 치경음소 /ʦ/의 변화는 'ʦ 〉 ʧ'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 음소를 적는 문자는 'ㅈ' 뿐이므로 이 문자만으로는 그러한 변화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다.

한편 중세국어 시기에 이중모음소 /əj, aj, oj/를 적는 문자는 'ㅔ, ㅐ, ㅚ'였다. 근대국어 이후로 그들 이중모음소는 각각 단모음소 /e, ɛ, ö/로 되었으나 그들 모음소를 적는 문자는 여전히 'ㅔ, ㅐ, ㅚ'이다. 이 경우에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소 'ㅔ, ㅐ, ㅚ'의 변화는 'əj〉e, aj〉ɛ, oj〉ö'로 표시되어야 하겠지만, 두 시기에 그들 모음소를 적는 문자는 모두 'ㅔ, ㅐ, ㅚ'이므로 그들 문자로는 그러한 변화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문자는 음성을 적기 위해 창제된 것이며 그것의 창제 목적은 음성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창제된 문자의 주된 기능은 인간이 인식하는 음성, 즉 음소를 적는 것이므로 음소의 변이음까지는 적지 못한다. 그리고 일단 창제된 문자는, 새로운 문자가 추가되지 않는 한, 그 문자가 창제될 당시의 음소에서 변화된 음소(예. /E/나 /Ǝ/나 /ʔ/ 등)도 적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문자와 음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공시 음운론 연구는 음성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되어야 하고 음성 자료는 국제음성기호와 같은 음성기호로 전사(轉寫)되어야 할 것을 알려준다.

10.2 표기형 · 음성형 · 기저형

문자로서 기록된 어형을 표기형이라 하는데, 어형을 표기하는 데에는 대체로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방안은 각 단어를 음성형으로 표기하는 것이고 둘째 방안은 각 단어의 구성요소를 원형을 밝혀 표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준어 동사어간 '쫓-(追)'과 어미 '-는다, -고, -지, -어도'의 통합형을, '쫀는다, 쪼꼬/쫃꼬, 쪼찌/쫃찌, 쪼차도/쫃차도'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 첫째 방안이고, '쫓는다, 쫓고, 쫓지, 쫓아도'와 같이 표기하는 것은 둘째 방안이다. 그리고 동사의 어간 '붙-(附)'과 '잡-(執)'이 합성된 어간이나 명사 '꽃(花)'과 '잎(葉)'의 합성어를 각각 '붇짭-'이나 '꼰닙'과 같이 표기하는 것은 첫째 방안에 해당되고 '붙잡-'과 '꽃잎'과 같이 표기하는 것은 둘째 방안에 해당된다.

첫째 방안의 표기법을 음소적 표기법이라 하고 둘째 방안의 표기법을 형태음소적 표기법이라 한다. 표기법의 목적은 표기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언어는 형태음소적 표기법에 의해 표기된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지금까지 간행된 국어의 문헌은 모두 형태음소적 표기법에 의해 표기되어 있다.

한 언어의 공시음운론적 기술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통합하는 형태소의 기저형과 음운규칙이다. 일반적으로 형태소는 교체형을 가지지 않을 때에는 그 자체가 기저형이 되며 교체형을 가질 때에는 교체형 중의 어느 하나가 기저형이 된다. 그리고 음운규칙은 형태소의 교체형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된다.

이 사실은 공시음운론적 기술이 가능한 언어 자료는 형태소의 기저형과 음운규칙의 설정이 가능한 자료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 점에서

다음의 (1)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는 공시음운론적 기술이 불가능하다. (1ⓐ)의 자료는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은 알려주지만, 음운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1ⓑ)의 자료는 옳은 기저형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1) ⓐ 쫓는다, 쫓고, 쫓지, 쫓아도 [참고] 간다, 가고, 가지, 가도(가-, 去)
ⓑ 붙잡-, 꽃잎, 꽃잎이(주격어미: -이)

(2) ⓐ 쫀는다, 쪼꼬/쫀꼬, 쪼찌/쫀찌, 쪼차도/쫀차도
[참고] 간다, 가고, 가지, 가도(가-, 去)
ⓑ 붇짭-, 꼰닙, 꼰니피(주격어미: -이)

(1)과는 달리, (2)의 자료를 통해서는 공시음운론적 기술이 가능하다. (2ⓐ)의 자료를 통해서는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과 그것들이 통합할 때에 적용되는 음운규칙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간의 교체형 '쫀-, 쪼{C/ㄷ}-, 쫓-'과 어미의 교체형 '-는다, -은다', '-고, -꼬', '-지, -찌', '-아도, -도'에서 어간의 기저형 '쫓-'과 어미의 기저형 '-는다, -고, -지, -아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어간말자음소 'ㅊ'가 자음소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ㄷ'로 되는 평파열음소화규칙과 평파열음소화된 'ㄷ'가 어미초의 'ㄴ' 앞에서 'ㄴ'로 되는 자음소동화규칙, 평파열음소화된 'ㄷ' 뒤에서 어미초의 평음소 'ㄱ'와 'ㅈ'가 각각 'ㄲ'와 'ㅉ'로 되는 경음소화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2ⓑ)의 자료를 통해서는 어간의 기저형 '붙잡-'과 '꼰닢'을 설정할 수 있으며 어간말음소 'ㅍ'가 어간말 위치에서 'ㅂ'로 되는 평파열음소화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현대국어의 문어 자료는 음운규칙이나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 설정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통한 공시음운론적 기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사정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간행된 국어의 모든 문헌 자료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예를 들어, 현대국어에서 가장 일반적인 공시 음운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경음소화와 자음소동화 중 비음소화(鼻音素化)가 15세기 후기에서 19세기 후기까지의 문헌 자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자. 먼저 경음소화가 예상되는 자료는 (3)과 같다.

(3) a. 잡디(執,석6: 10b), 듣디(聞,석6: 6a), 먹디(食,석6: 10b); 곱거늘(麗,석6: 13b), 듣고(석6: 13b), 먹고(석11: 25a) (석=釋譜詳節, 1447)

b. 닙디(着衣,소학2: 7a), 듣디(소학1: 2b), 먹디(소학1: 2a); 닙고(소학1: 2a), 받고(소학2: 51b), 먹거든(소학1: 3b) (소학=小學諺解, 1587)

c. 잡디(박上 37a), 밧디(受,박上 11a), 먹디(박上 38b); 곱고(박上 16a), 먹고(박上 35a) (박=朴通事諺解, 1677)

d. 업디(無,속명1: 36b), 듯디(聞,속명1: 2b), 승복디(承服,속명1: 12a); 놀납고(驚,속명,차즈: 3a), 듯고(속명1: 2b), 먹고(속명1: 6b) (속명=續明義錄諺解, 1778)

e. 굽지(曲,명 31a), 밧지(명 24b), 먹지(명 9b); 잡고(명 10b), 듯고(명 8a), 죽고(死,명 7a) (명=明聖經諺解, 1883)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4세기에 걸친 문헌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그 경우에 한결같이 경음소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국어에는 경음소화가 활용에 없었다는 말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제시하는 것은 (4)와

같은 예들이다.

(4) a. 안ᄶᅩ(坐,석11: 1b), 안찌(석6: 10b)
b. 안ᄶᅵ(소학1: 2a, 2: 20a), 곳ᄶᅵ(揷,소학2: 4a), 넘ᄶᅵ(越,소학2: 30a)
c. 엷ᄶᅩ(薄,박中: 2b), 다ᄃᆞ랏ᄶᅩ나(到,박中: 53b)
d. 안ᄶᅩ(坐,속명1: 38a)
e. 널ᄶᅩ(廣,명 33a), 삼ᄶᅩ(倚,명 32a)

동일한 음운환경에서 해당 문헌이 보여주는 이들 경음소화의 예들은, 경음소화를 보여주지 않는 예들에 비하여 특수한 경우라고 할 정도로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활용에서 경음소화라는 음운과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하게 한다.

다음으로 자음소동화 중 비음소화가 예상되는 자료는 (5)와 같다.

(5) a. 셤기ᅀᆞᆸᄂᆞ니(仕,석24: 30b), 듣ᄂᆞᆫ다(석6: 11a), 먹ᄂᆞ이다(곡 122) (곡=月印千江之曲, 1447)
b. 받ᄌᆞᆸᄂᆞᆫ(소학2: 13b), 받ᄂᆞᆫ(소학2: 13b), 먹ᄂᆞᆫ(소학4: 32a)
c. 갑ᄂᆞᆫ(報,박中 37b), 밧ᄂᆞᆫ다(박中 28b), 먹ᄂᆞᆫ고(박下 32a)
d. 잡ᄂᆞᆫ(속명1: 6b), 듯ᄂᆞᆫ(속명2: 5a), 죽ᄂᆞᆫ(속명2: 7b)
e. 입ᄂᆞᆫ(着衣,명 21b), 잇ᄂᆞᆫ(有,명 16a), 먹ᄂᆞᆫ(명 21b)

무성 폐쇄음소로 끝나는 어간과 비음소(鼻音素)로 시작하는 어미가 통합할 때에, 어미의 비음소 앞에서 평파열음소화 과정을 거친 'ㅂ, ㄷ, ㄱ'가 각각 'ㅁ, ㄴ, ㅇ'로 비음소화하는 것은 보편적인 음운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기 후기에서 19세기 후기까지의 문헌 자료는,

일반적으로 (5)와 같이, 비음소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 자료도 활용에서 국어의 자음소동화 중 비음소화가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그러나 (6)의 자료들은 그러한 생각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6) a. 둔ᄂᆞᆫ(〈둗ᄂᆞᆫ置,소학1: 13b, 2: 44a), 되연ᄂᆞᆫ(〈되엿ᄂᆞᆫ爲,소학2: 8a, 2: 10a), 인ᄂᆞᆫ(〈잇ᄂᆞᆫ有,소학2: 40b), 언ᄂᆞᆫ(〈얻ᄂᆞᆫ得,소학2: 49b), 존ᄂᆞᆫ(〈좇ᄂᆞᆫ追,소학2: 53a)

b. 드런ᄂᆞᆫ다(〈드럿ᄂᆞᆫ다聞,박上 48a), ᄃᆞᆫᄂᆞᆫ(〈ᄃᆞᆮᄂᆞᆫ走,박上 55a), 건ᄂᆞᆫ(〈걷ᄂᆞᆫ步,박中 8a), ᄑᆞ란ᄂᆞᆫ다(〈ᄑᆞ랏ᄂᆞᆫ다賣,박下 26a), 바텬ᄂᆞᆫ(〈바텻ᄂᆞᆫ納,박下 31b), 걸탄ᄂᆞᆫ(〈걸탓ᄂᆞᆫ架,박下 31b)

c. 난ᄂᆞᆫ디라(〈낫ᄂᆞᆫ디라出,속명,차ᄌᆞ: 4b)

(6)의 예들은 완료를 표시하는 '앗' 또는 '엇'이나 존재사 '잇-(有)' 등의 'ㅅ'와 '얻-(得), ᄃᆞᆮ-(走), 걷-(步)' 등 동사의 어간말 'ㄷ', 그리고 동사 '좇-(追)' 등의 'ㅊ'가 어미의 'ㄴ' 앞에서 'ㄴ'로 동화된 것들이다. 이 경우는 문헌에서 대부분 'ㅅㄴ'나 'ㄷㄴ'로 표기되어 있으며 위의 예와 같이 'ㄴ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그 수가 매우 적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에서 우리는 비음소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할 때에, 활용시 어간말 평파열음소가 비음소화하는 음운과정이 일찍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문헌에서 발견되는 비음소화의 예들은 모두 평파열음소화된 'ㄷ'의 경우에만 한정되는데, 평파열음소화된 어간말의 'ㅂ, ㄷ, ㄱ' 중에서 'ㄷ'만이 어미의 비음소 앞에서 비음소화한다는 사실은 음성학적으로나 음운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로는 어간말 'ㅂ'와 'ㄱ'도 같은 환경에서 동일 조음점의 비음소 'ㅁ'와 'ㅇ(ŋ)'로 변동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파열음소화한 'ㄷ'만이 어미의 비음소 앞에서 비음소화한 예를 보이는 것은 그것이, 평파열음소화된 'ㅂ'나 'ㄱ'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ㅅ'로 표기되기 때문이라 하겠다.

위의 서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어형이 음운과정을 거치는 경우에, 형태음소적 표기법에 의한 표기형은 그것의 음성형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우리는 표기형을 분석함으로써 어간이나 어미의 기저형은 알 수 있으나 교체형을 알 수 없으므로 음운과정을 지배하는 음운규칙이 어떤 것인가를 밝힐 수 없다. 이 사실은 형태음소적 표기법에 의한 표기 자료를 가지고는 공시 음운론적 연구가 거의 불가능함을 말해 준다.

한편 형태음소적 표기법은 보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여 어간이나 어미가 겪은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표준어 사용의 주체가 되는 현대 서울의 교양 있는 사람들은, '[흘르구, 홀르지, 흘러두]'에서와 같이, 표준어 동사 '흐르-'와 어미 '-고, -어도'에 대해 각각 '흘르-'와 '-구, -어두'를 사용하지만, '흐르고, 흐르지, 흘러도'에서와 같이, 각각 '흐르-'와 '-고, -어도'라고 표기한다. 또 '[허구]'나 '[읍:써두]'에서와 같이, 표준어 동사 '하-(爲)'나 '없-(無)'에 대해 각각 '허-'와 '읍ㅆ:-'을 사용하지만 '하고'나 '없어도'에서와 같이 각각 '하-'와 '없-'으로 표기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형태음소적 표기법은 어간이나 어미가 겪은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표기법에 의한 표기 자료로는 어간이나 어미의 공시적 기저형을 알 수 없다. 또 그러한 표기 자료로는 어간이나 어미가 겪은 변화도 알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표기 자료로는 공시 음운론적 연구나 통시 음운론적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요약

문자는 말, 즉 음성을 적기 위해 창제된 것이며 그것의 창제 목적은 음성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창제된 문자의 주된 기능은 인간이 인식하는 음성, 즉 음소를 적는 것이므로 음소의 변이음까지는 적지 못한다. 그리고 일단 창제된 문자는, 새로운 문자가 추가 되지 않는 한, 그 문자가 창제될 당시의 음소에서 변화된 음소(예. /E/나 /Ǝ/나 /ʔ/ 등)를 적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문자와 음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공시 음운론 연구는 음성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음성 자료는 국제음성기호와 같은 음성 기호로 전사(轉寫)되어야 할 것을 알려준다.

문자로서 기록된 어형을 표기형이라 하는데, 어형을 표기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각 단어를 음성형으로 표기하는 음소적 표기법과 각 단어의 구성요소를 원형을 밝혀 표기하는 형태음소적 표기법이 있다. 국어의 문헌자료는 일반적으로 형태음소적 표기법으로 표기되어 있다.

형태음소적 표기법에 의해 표기된 어형의 표기형은 어간이나 어미의 교체형이나 어간과 어미가 겪은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표기형은, 음운과정을 거치는 경우에 음성형과 일치하지 않으며, 어간과 어미가 변화를 겪었을 경우에는 실제의 기저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태음소적 표기법에 의해 표기된 자료로는 공시적인 음운론 연구나 통시적인 음운론 연구가 매우 어렵다.

연습문제 10

1. 다음 a와 b의 자료들을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라.

a. 낯(晝,곡16), 낱(個,곡40), 붚(鼓,곡40); 곶(花,용2), 깊고(深,용34)

b. 낫(晝,석9: 22b), 낫(個,석13: 53a), 붑(鼓,석19: 14b); 곳(花,석21: 32a), 깁고(深,석21: 59b)

(1) a와 b의 자료들에 적용된 표기법의 차이를 설명하라.

(2) '팔종성가족용(八終聲可足用)'과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의 원칙에 의해 표기된 것들은 a와 b 중 각각 어느 것인가?

2. 다음 중 a는 표기형이고 b는 음성형이다. 그 단어의 기저형과 그것이 기저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각각 c와 d에 쓰라.

a	b	c	d
표기형	음성형	기저형	이 유
맘(心)	[마암]	/　　/	
값지-	[갑찌-]	/　　/	
냇가	[내까]	/　　/	
해돋이	[해도지]	/　　/	
굵다랗-고	[국따라코]	/　　/	
밝히-	[발키-]	/　　/	
향락(享樂)	[향낙]	/　　/	

3. 다음 a와 b를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라.

a. 이 애는 책또 일꼬 그림도 그린다. 저 애는 챙만 익찌. 두 애가 모두 채글 잉는다.

b. 이 애는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린다. 저 애는 책만 읽지. 두 애가 모두 책을 읽는다.

(1) a와 b 중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것은 어느 것인가?

(2) 제시된 자료를 예로 들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라.

4. 다음 중 a는 현대국어의 문헌 자료이고 b는 그에 대한 음성 자료이다. 자료 a와 b를 대상으로 경음소화와 (자음소동화 중) 비음소화를 설명하라.

a. ① 가고, 가더라, 가지(가-, 去); 잡고, 잡더라, 잡지(잡-, 執);
밀고, 밀더라, 밀지(밀-, 推); 묻고, 묻더라, 묻지(묻-, 埋);
웃고, 웃더라, 웃지(웃-, 笑); 막고, 막더라, 막지(막-, 防)

② 집만, 집에(집, 家); 밑만, 밑에(밑, 底); 맛만, 맛에(맛, 味);
먹만, 먹에(먹, 墨)

b. ① 가고, 가더라, 가지; 잡꼬, 잡떠라, 잡찌;
밀고, 밀더라, 밀지; 묻꼬, 묻떠라, 묻찌;
욷꼬, 욷떠라, 욷찌; 막꼬, 막떠라, 막찌

② 짐만, 지베; 민만, 미테; 만만, 마세; 멍만, 머게

5. 다음에 제시된 자료는 700년 이상을 대대로 서울에서 거주하여 온 토박이 서울 사람의 말이다. 자료를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라.

또 인제 그때 나:가 여기 오기 저네, 먼점 반장 허던 영:감니미 그 두 내우가 이써. 그 영감니미, "박써방! 피란 안 가우? 갑씨다." 그래. "아, 우리 일가

가 읍:써서 몰: 차저 가요." 그래써. 피:란 가는 건 일가 차저 가는 게 아니라 먼:: 데루 가서 아:무 빈: 지비나 이쓰믄 드러가 잠자구 나오구 또 딴 데루 가구. 그러는 거라구. 그래서 인제 수원꺼정 간다구 간는데 가는 길:두 몰:르지. 댕겨 보질 아너서.

〔필자 주: ':'는 긴 소리, '::'는 ':'보다 더 긴 소리〕

(1) 위의 서울말을 표준어로 바꾸라.

(2) (1)의 결과를 참고하여 표준어와 다른 서울말을 모두 찾아 쓰라.

(3) 제시된 자료에서 표준어에 나타나지 않은 음운과정을 찾아 그 음운과정의 이름을 쓰라.

(4) 음운론의 연구 대상 자료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간단히 답하라.

참고논저

강창석(1984), 「국어의 음절구조와 음운현상」, 『국어학』 13.

_____(1985), 「활용과 곡용에서의 형태론과 음운론」, 『울산어문논집』 2.

_____(1988), 「국어의 음운현상과 음운자질(1)」, 『울산어문논집』 4.

_____(1992), 「15세기 음운이론의 연구: 차자표기 전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곽충구(1980), 「18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43.

_____(1982), 「아산 지역어의 이중모음 변화와 이중모음화 : y계이중모음과 ə 〉 wə 변화를 중심으로」, 『방언』 6.

곽충구(1984), 「체언어간말 설단자음의 마찰음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1.

_____(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태학사.

1. 서론, 2. 음성전사와 음운체계, 3. 공시음운론, 4. 통시음운론, 5. 악센트 체계와 그 변동, 6. 결론.

국어연구회 편(1990),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권인한(1987), 「음운론적 기제의 심리적 실재성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76.

김경아(1990), 「활용에 있어서의 기저형 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94.

_____(2000),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국어학총서 38), 태학사.

김성규(1987), 「어휘소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77.

_____(1988), 「비자동적 교체의 공시적 기술」, 『관악어문연구』 13.

_____(1989), 「활용에 있어서의 화석형」, 『주시경학보』 3.

김수곤(1977), 「ㅂ-변칙동사류의 음운론적 의의」, 『언어』 2-2.

_____(1978), 「현대국어의 움라우트현상」, 『국어학』 6.

김영기(Kim-Renaud, Young-Key)(1973), Irregular verbs in Korean revisited, 『어학연구』 9-2.

김영기(Kim-Renaud, Young-Key)(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Tower Press. 재간(1991: Hanshin Publishing Co.) 1974, Ph. D. dissertation, Univ. of Hawaii.

김영기(Kim-Renaud, Young-Key)(1977), Syllable boundary phenomena in Korean, Korean Studies(Honolulu) 1.
김영배(1977), 『평안방언의 음운체계 연구』,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Ⅰ. 서론, Ⅱ. 모음론, Ⅲ. 자음론, Ⅳ. 구개음화와 두음법칙, Ⅴ. 결론.
김영진(1979), 「국어의 모음추이에 대하여」, 『논문집(경남대)』 6.
_____(1991), 「모음체계」,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김완진(1963), 「국어모음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4.
_____(1964), 「중세국어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해석에 대하여」, 『학술원논문집』 4.
_____(1967), 「국어발달사 상 : 음운사」, 『한국문화사대계 Ⅴ』,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_____(1971), 『국어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Ⅰ. 모음체계의 연구, Ⅱ. 상고어 음운문제의 탐구, Ⅲ. 음운규칙 기술의 정밀화를 위한 연구, Ⅳ. 인근어 음운 인식에 바친 최세진·강우성 등의 노력에 대한 고찰.
_____(1971), 「음운현상과 형태론적 제약」, 『학술원논문집』 10.
_____(1972), 「다시 β>w를 찾아서」, 『어학연구』 8-1.
_____(1972), 「음운론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어국문학』 58·59·60.
_____(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동아문화(서울대)』 11.
_____(1974), 「음운변화와 음소의 분포」, 『진단학보』 38.
_____(1978),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14-2.
_____(1986), 「모음조화의 예외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6.
김종규(1989), 「중세국어 모음의 연결제약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90.
김주원(1993), 『모음조화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Ⅰ. 모음체계의 연구, Ⅱ. 모음조화의 연구, Ⅲ. 국어의 계통, Ⅳ. 15세기 이전의 국어사 연구의 방향.
김주필(1985), 「구개음화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국어연구』 68.
김진우(1971), 「국어음운론에 있어서의 공모성」, 『어문연구(충남대)』 7.
_____(1971), 「소위 변격용언의 비변격성에 관하여」, 『한국언어문학』 8·9.

김차균(1976), 「국어의 자음접변」, 『언어학』 1.
______(1987), 「어말 자음군 단순화 원칙에 대한 연구」, 『한남어문학』 13.
도수희(1989), 「음운탈락과 음운규칙의 경쟁성」, 『이정 정연찬선생 회갑기념논총』, 탑출판사.
박창원(1982), 「자음군 분류와 자음자질(I)」, 『관악어문연구(서울대)』 7.
______(1984), 「중세국어의 음절말 자음체계」, 『국어학』 13.
______(1986), 「음운교체와 재어휘화」, 『어문논집(경남대)』 2.
______(1987), 「표면음성제약과 음운현상」, 『국어학』 16.
______(1989), 「통시음운론 연구사와 국어음운사 연구 30년」, 『국어학』 19.
______(1996), 『중세국어 자음 연구』, 한국문화사.
1. 훈민정음과 자음, 2. 자음군, 3. 부록.
배주채(1989), 「음절말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국어연구』 91.
______(1992), 「음절말 평폐쇄음화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서울대)』 17.
______(1993), 「현대국어 매개모음의 연구사 검토」, 『주시경학보』 11.
______(1996),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1. 서론, 2. 음성학적 기초, 3. 음소, 4. 형태음소, 5. 음절, 6. 운소, 7. 자질, 8. 음운과정, 9. 음운규칙, 10. 통시적 관점.
백두현(1991),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1. 서론, 2. 대상문헌의 성격과 특징, 3. 모음변화와 모음체계, 4. 자음변화와 자음체계, 5. 결론.
소강춘(1989),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한신문화사.
1. 서론, 2. 기저음운 목록, 3. 모음조화, 4. 활음 형성 및 탈락과 이중모음의 공시적 연결제약, 5. 모음탈락, 6. 움라우트, 7. 원순모음화, 8. 구개음화, 9. 결론.
송기중(1991), 「이론적 측면에서 본 15세기 국어의 /ㆍ/음, 모음체계, 모음조화」, 『국어학』 21.
송　민(1975), 「18세기 전기 국어의 모음체계」, 「논문집(성심여대)」 6.
______(1986), 『전기근대국어 음운론 연구』, 탑출판사.
Ⅰ. 서론, Ⅱ. 문헌음운론의 방향, Ⅲ. ㄷ구개음화, Ⅳ. 비음운화, Ⅴ. 결론.
송철의(1977), 「파생어형성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38.

송철의(1982), 「국어의 음절문제와 자음의 분포제약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7.
______(1982), 「음운현상의 기술을 정밀화시킨 국어음운론연구에 대하여」, 『한국학보』 27.
______(1985), 「음운」, 『국어국문학연구사』, 도서출판 우석.
______(1990), 「자음동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______(1991), 「국어음운론에 있어서 체언과 용언」,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______(1992), 「국어음운론연구 1세기」, 『국어국문학40년』, 집문당.
______(1993), 「자음의 발음」, 『새국어생활』 3-1.
______(1995), 「국어의 활음화와 관련된 몇 문제」, 『단국어문논집』 창간호.
______(1995), 「곡용과 활용의 불규칙에 대하여」, 『진단학보』 80.
______(1996), 「국어의 음운현상과 변별적 자질」,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안병희(1959), 「15세기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연구』 7. 재간(1978), 탑출판사.
우민섭(1991), 「음운의 변별적 자질과 규칙설정에 대하여」, 『현산 김종훈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집문당.
유창돈(1964), 『이조국어사연구』, 선명문화사.
______(1965/84), 『이조어사전(5판)』, 연세대 출판부.
이기문(1955), 「어두 자음군의 생성 및 발달에 대하여」, 『진단학보』 17.
______(1959), 「16세기 국어의 연구」, 『문리론집(고려대)』 4. 재간(1978), 탑출판사.
______(1960), 「소학언해에 대하여」, 『한글』 127.
______(1962), 「중세국어의 특수 어간교체에 대하여」, 『진단학보』 23.
______(1968), 「모음조화와 모음체계」, 『이숭녕박사 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______(1969), 「중세국어 음운론의 제문제」, 『진단학보』 32.
______(1972), 『국어음운사연구』, 한국문화연구소(서울대). 재간(1977), 탑출판사.
1. 서론, 2. 훈민정음의 초성체계, 3. 후음, 4. ㅿ, 5. ㅸ, 6. 된소리, 7. 어두자음군, 8. 구개음화, 9. 훈민정음의 종성체계, 10. 음절말 자음체계, 11. 고대어의 자음체계, 12. 훈민정음의 중성체계, 13. 모음체계, 14. 이중모음, 15. 모음조화, 16. 훈민정음의 방점체계, 17. 성조체계, 18. 결론.

이기문(1977), 「제주도 방언의 'ㆍ'에 관련된 몇 문제」, 『이숭녕선생고희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_____(1998), 『신개정 국어사개설』, 태학사.

제1장 서론, 제2장 국어의 계통, 제3장 국어의 형성, 제4장 문자체계, 제5장 고대국어, 제6장 전기 중세국어, 제7장 후기 중세국어, 제8장 근대국어, 제9장 현대국어.

이기문 · 김진우 · 이상억(2000), 『증보판 국어음운론』, 학연사.

제1장 서론, 제2장 음성학 약사, 제3장 음운론 약사, 제4장 음성학, 제5장 음소, 제6장 기술 음운론(구조주의 음운론), 제7장 생성 음운론, 제8장 역사 음운론.

이병건(1976), 『현대국어의 생성음운론』, 일지사.

1. 도입, 2. 국어의 모음체계, 3. 국어의 자음체계, 4. 추상적 조건.

_____(1995), 『음운론 논문집』, 한신문화사.

1. 음운론의 전체규칙, 2. 현대 한국어의 구개음화규칙과 그 이론적 함축, 3. 이른바 거꾸로 먹이기 순서, 4. 한국어의 음운변천, 5. 중세 한국어에 있어서의 하나의 음소배열제약, 6. 모음조화의 특성, 7. 한국어의 성조, 8. 한국어의 모음조화.

이병근(1970), 「19세기 후기 국어의 모음체계」, 『학술원논문집』 9.

_____(1970), 「경기지역어의 모음체계와 비원순모음화」, 『동아문화』 9. 이병근(1979)에 "모음체계와 비원순모음화"로 재수록.

_____(1973), 「동해안 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진단학보』 36.

_____(1975), 「음운규칙과 비음운론적 제약」, 『국어학』 3. 이병근(1979)에 재수록.

_____(1976), 「'새뱅이'(土鰕)의 통시음운론」, 『어학(전북대)』 3.

_____(1976), 「파생어형성과 i역행동화규칙들」, 『진단학보』 42. 이병근(1979)에 재수록.

_____(1977), 「자음동화의 제약과 방향」, 『이숭녕선생 고희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이병근(1979)에 재수록.

_____(1978), 「국어의 장모음화와 보상성」, 『국어학』 6. 이병근(1979)에 재수록.

_____(1979),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탑출판사.

Ⅰ. 자음동화의 제약과 방향, Ⅱ. 국어의 장모음화와 보상성, Ⅲ. 음운규칙과 비음운론적 제약, Ⅳ. 파생어 형성과 i역행동화규칙들, Ⅴ. 19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Ⅵ. 모음체계와 비원순모음화.

이병근(1981), 「유음탈락의 음운론과 형태론」, 『한글』 173·174.

이상억(1979), 「성조와 음장」,『어학연구』 15-2.

_____(1984), An Overview of Issues in the Vowel Harmony of Korean, Language Research 20-4.

이숭녕(1954), 「15세기의 모음체계와 이중모음의 Kontraktion적 발달에 대하여」, 『동방학지』 1.

_____(1955), 『음운론연구』, 민중서관.

1. 모음조화 연구, 2. 순음고-특히 순경음「ㅸ」를 중심으로 하여, 3. 소유격과 처격의 비교시도-이두의 연구에서, 4. 15세기의 모음체계와 이중모음의 Kontraktion적 발달에 대하여, 5. 국어의 Hiatus와 자음발달에 대하여.

_____(1957),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동방학지』 3.

_____(1967), 「한국방언사」, 『한국문화사대계 V』,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이승재(1980), 「구례지역어의 음운체계」, 『국어연구』 45.

_____(1982), 「형태소경계의 음운론적 기능에 대하여」,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_____(1990), 「자음체계 및 중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이익섭(1972), 「강릉방언의 suprasegmental phoneme 체계: 특히 문효근 교수의 소론과 관련하여」, 『동대어문』 2.

_____(1972), 「강릉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진단학보』 33.

이현복(1971), 「서울말의 모음체계」, 『어학연구』 7-2.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1. 말소리와 음성학, 2. 말소리의 생성, 3. 국어 음소의 분류, 4. 국어의 자음, 5. 국어의 모음, 6. 국어의 음절, 7. 국어의 음운규칙, 8. 국어의 강세와 리듬, 9. 국어의 억양, 10. 경상도 방언의 성조.

임용기(1986), 「우리말 음절 짜임새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하여」, 『동방학지』 50.

전광현(1967), 「17세기 국어의 연구」, 『국어연구』 19.

전광현(1971a), 「18세기 후기국어의 일고찰」, 『전북대논문집』 13.

_____(1971b), 「18세기 전기국어의 일고찰」, 『어학(전북대)』 13.

전상범(1976), 「현대국어에 있어서의 된소리현상」, 『언어』 1-1.

_____(1977), 『생성음운론』, 탑출판사.

1. SPE 이전, 2. SPE, 3. SPE 이후.

정 국(1994), 『생성음운론의 이해』, 한신문화사.

제1부 서론, 제2부 음성/음운적 기초: 음의 특성과 자질, 제3부 음운론: 음운체계의 이해, 제4부 음운분석: 방법과 실제.

정승철(1988),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국어연구』 84.

_____(1991), 「음소연쇄와 비음운론적 경계: 제주도방언을 중심으로」,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_____(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1. 서론, 2. 모음의 분포와 변화, 3. 자음의 분포와 변화, 4.결론.

정연찬(1974), 『경상도방언 성조연구』, 형설출판사. 재간(1978), 탑출판사.

1. 서론, 2. 운율적 자질로서의 성조, 3. 방언성조의 확인, 4. 복합저고조의 몇 가지 특징, 5. 기능부담에서 본 방언성조의 특징, 6. 방언성조의 공시적 기술(체언부), 7. 방언성조의 공시적 기술(용언부), 8. 방언성조의 역사적 발달, 9. 결론.

_____(1976), 『국어 성조에 관한 연구』, 일조각.

Ⅰ. 진정한 성조언어와 어사성조언어, Ⅱ. 중세국어 성조의 공시적 기술, Ⅲ. 중세성조의 변화와 방언성조, Ⅳ. 한자음에 대한 이해.

_____(1997), 『개정 한국어음운론』, 한국문화사.

一. 서론 二. 음소 三. 음절 四. 현상과 원인, 五. 음운사의 몇몇 문제, 六. 음운론 연구의 실제.

정우택(1987), 「후기근대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음소론적 고찰」, 『국어연구』 79.

최명옥(1976), 「서남경남방언의 부사화접사 '-아'의 음운현상」, 『국어학』 4.

_____(1978), 「ㅸ, ㅿ와 동남방언」, 『어학연구』 14-2.

_____(1978), 「동남방언의 세 음소」, 『국어학』 7.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출판부.

1. 서론, 2. 통시음운론, 3. 공시음운론, 4. 결론.

______(1985),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 p-, s-, t- 변칙동사를 중심으로」, 『국어학』 14.

______(1988), 「국어 UMLAUT의 연구사적 검토 : 공시성과 통시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65.

______(1988),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 li-, lə-, ɛ(jə)-, h-변칙동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24:1.

______(1989), 「국어 움라우트의 연구사적 고찰」, 『주시경학보』 3.

______(1992), 「19세기 후기국어의 연구 : 〈모음음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서울대)』 13.

______(1998), 『국어음운론과 자료』, 태학사.

1. 남한의 음운론 연구, 2. 북한의 어음 연구, 3. p-, s-, t-변칙동사의 음운현상, 4. li-, lə-, ɛ(jə)-, h-변칙동사의 음운현상, 5. 국어 움라우트의 공시성과 통시성, 6. 국어 움라우트의 종합적 고찰, 7. 어미의 재구조화, 8. 어간의 재구조화와 교체형의 단일화 방향, 9. 'X ㅣ] Vst 어Y'의 음운론, 10. 19세기 후기 국어의 음운론.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Ⅰ. 서론, Ⅱ. 표기법과 음운체계, Ⅲ. i-umlaut 현상의 공시성과 내적 발달, Ⅳ. 이중모음의 공시적 분포와 변화, Ⅴ. 원순모음화 현상의 영역과 기능, Ⅵ. 어간말 'ㄷ, ㅌ'자음계 체언의 곡용과 마찰음화, Ⅶ. 구개음화, Ⅷ. 결론.

______(1989), 「국어 i-umlaut 현상의 기원과 전파의 방향」, 『한신언어문학』 27.

최태영(1983), 『방언음운론』, 형설출판사.

Ⅰ. 서론, Ⅱ. 음운체계, Ⅲ. 음운변화, Ⅳ. 결론.

한영균(1988), 「비음절화규칙의 통시적 변화와 그 의미」, 『울산어문논집』 4.

______(1990), 「모음체계의 재정립과 /·/의 제2단계 변화」, 『애산학보』 10.

______(1991), 「불규칙활용」,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______(1991), 「모음체계의 재정립과 현대국어의 비음절화」, 『진단학보』 71·72.

허남렬(1991), 「국어의 어간말 자음군에 대한 연구」, 『경남어문』 25.

허 웅(1968), 「국어의 상승적 이중모음체계에 있어서의 '빈간'」, 『이숭녕박사 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______(1985),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I. 말소리의 일반적 성격, II. 현대국어의 음운학, III. 15세기 국어의 음운학, IV. 국어음운사, V. 음성상징.
홍윤표(1985), 「구개음화에 대한 역사적 연구」, 『진단학보』 60.
Anderson, Stephen(1974), *The Organization of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______(1985), *Phon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Chig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omsky, Noam & Morris Halle(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Durand, Jacques(1990), *Generative and Nonlinear Phonology*. London: Longman. 문양수 역(1994), 『생성·비단선음운론』, 한신문화사.
1. 서론, 2. 변별적 자질 이론, 3. 양분론, 완전명세와 부분명세, 유표성과 제스처, 4. 도출의 문제: 추상성과 구체성 논쟁, 5. 미명세이론과 어휘음운론, 6. 율격구조, 7. 자립분절음운론과 다차원음운론, 8. 의존음운론의 개요.
Hooper, Joan B.(1972), The Syllable in Phonological Theory. *Language* 48.
______(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Hyman, Larry(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Holt, Rinehart and Winston.
Kenstowicz, Michael(1994), *Phonology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Blackwell.
Kenstowicz, Michael & Charles Kisseberth(1979), *Generative Phonology: Description and Theory*. New York: Academic Press.
Kiparsky, Paul(1982), *Explanation in Phonology*. Dordrecht: Foris.
Ladefoged, Peter(1993), *A Course in Phonetics*. 3d e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Lass, Roger(1984), *Phonology: an Introduction to Basic Concepts*. Cam-

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kkai, V. B.(1972), *Phonological Theory: Evolution and Current Practic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Schane, Sanford A.(1973), *Generative Phon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Skousen, R.(1975), *Substantive Evidence in Phonology: The Evidence from Finish and French*, The Hague: Mouton.

Sloat, C., Taylor, S. H. & Hoard, J. E.(1978), *Introduction to Phon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Sommerstein, A.(1977), *Modern Phonology*. London: Arnold.

Tranel, B.(1981), *Concreteness in Generative Phon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Vennemann, T.(1972), On the Theory of Syllabic Phonology. *Linguistische Berichte* 18.

찾아보기

ㄱ

'ㄱ → ø' 규칙 263, 266
'ㄱ'구개음소화 93, 95
/ㄱ/의 탈락규칙 257
『가례언해(家禮諺解)』 264
간접동화 93
강약 13
개모음(소) 42
개별언어 특수자질 53, 54
개음절 127
개음절의 /으/ 150, 157
경구개 36
경구개 활음소 38
경구개음소(硬口蓋音素) 36, 48
경구개음소화 91
경음성 56, 64
경음소(硬音素) 32
경음소화 32, 89, 95, 119, 166~169, 220, 276
경음소화규칙 165, 166, 169, 195, 275
≪계림유사(鷄林類事)≫ 252
계열 관계(系列關係) 208, 243
고모음(소) 38, 42
고설성 58, 60, 64
공명도(degree of sonority) 45
공시음운론 14, 231
과거변형규칙 15
교착어 224
교체 26, 85, 119
교체규칙 161, 165, 195
교체음소 213, 216, 218, 220, 244
교체형(交替形) 18, 21, 215, 217~219, 221, 222, 224, 231, 238, 243, 274, 275, 279
구강성 55, 60, 64
구개범 36
구개음소화 71, 91, 93, 119
구개음소화규칙 256
구개음화 27
구어(口語, spoken language) 269
구어 자료 200, 243
구절구조규칙 15
구조주의 언어학 62
구조주의 음운론 18, 25, 62
국어 20
국어 음소의 변별적 자질도 64
국어음운론 19, 21, 23, 199
국어음운론의 개념 19
국어음운론의 기술방법 199
국어음운론의 대상 19, 23
국어음운론의 목적 19, 23
국어학의 대상 22
규칙의 생성 257
규칙의 설정 222

규칙의 소멸 257
근대국어 104
근대국어의 모음체계 104
기능부담 151
기류(氣流, airstream) 35
기본단위 63
기본문장 15
기술언어학 18, 26
기저음소 244
기저표시 25
기저형(基底形) 18, 25, 83, 85, 106, 211, 217, 222, 224~226, 228, 242, 243, 270, 274, 275, 280
기저형 설정 211~213, 219, 221, 243
길이자질 58, 64

ㄴ

'ㄴ'구개음화 28
/ㄴ/ 삽입 114, 120, 190, 191
/ㄴ/ 삽입규칙 188, 196
/ㄴ/의 분포 254
/ㄴ/의 유음소화 140
/ㄴ/ 탈락규칙 262, 266
남부방언 256
높낮이 13

ㄷ

'ㄷ(t)'구개음화 28
'ㄷ'구개음소화 93, 95
/ㄷ/ 구개음소화규칙 257, 260, 266
/ㄷ, ㅌ, ㄸ/의 분포 254, 266
다중(多重)기저형 225
단(短)모음소 43, 48, 104
단(單)모음(소) 44
단(短)모음소목록 40
단(單)모음소목록 40, 48
단(單)모음소목록의 변화 249, 265
단(短)모음소화 89, 104, 119, 120, 176~179, 250
단(單)모음소화 117
단(短)모음소화규칙 165, 176, 195
단(短)이중모음소 45, 46, 48
단(短)이중모음소목록 45
단일기저형 224, 225
대괄호 131
대단위 방언 21
도치 85, 117, 119, 121
동남방언 22, 259, 263, 271, 272
동북방언 22, 256, 259
동일명사구 탈락규칙 16
동화 88

ㄹ

/ㄹ/ 탈락 110, 120, 141, 149~151, 182, 183

ㅁ

마찰음소(摩擦音素) 37, 48
모음 11, 12
모음의 명칭 44
모음체계 104

모음성 54, 64
모음소 13, 25, 28, 41, 54
모음소의 명칭 44
모음소의 이음 41
모음소교체 89, 119
모음소교체규칙 165, 170, 195
모음소도치 121
모음소동화 93, 119
모음소목록 22, 40, 48
모음소목록의 변화 265
모음소축약 117, 121
모음소탈락 106, 112, 120
모음소탈락규칙 152, 162, 179, 183, 195
모음충돌(히아투스, hiatus) 238
무성 경구개 파찰음소 37
무성 성문 파열음소 37
무성 양순 파열음 27
무성 양순 파열음소 37
무성 양순 폐쇄음 27
무성 연구개 파열음소 37
무성 치경 파열음소 37
무성 파열음 29, 30
무성 파찰음 31
무성 폐쇄음 29
문법형태소 17, 86
문어(文語, written language) 269
문어 자료 200, 243, 275
문자 270, 271, 273, 280
물리학적 정의 77
미파화 119

ㅂ

반개모음(소) 42
반모음소(半母音素) 38
반모음소화 97
반자음소(半子音素) 38
반폐모음(소) 42
발생 빈도수 232
발화순서 169
발화의 최소단위 69, 70
방언 20
방언음 271
변동 51, 83
변별적 기능 28, 33, 271, 272
변별적 자질(辨別的資質, distinctive feature) 53, 61, 64, 94, 98, 100
변별적 자질의 변환 103
변이음 280
변항 17, 126
변형규칙 15, 16
보상적 장음 239
보편적 음절구조 76, 79
보편적 자질 53, 54
복수(複數)기저형 225
복합(複合)기저형 224, 225
분류 18
분절음(分節音, segment) 12, 25
분포 18
분포 제약 13
불완전동화 93
불파화 119
비강 37
비원순모음(소) 43

비원순모음소화(非圓脣母音素化) 89, 103, 119, 120
비음성 56, 64
비음소(鼻音素) 37, 48
비음소화 52, 61, 92, 119, 133, 202, 203, 204, 214, 215, 224, 276, 277, 278
비음소화규칙 61, 132, 161
비음소화의 일반성 62
비음운론적 관계 16
비음절화(非音節化) 97, 119
'ㅸ → {w, ㅂ}' 규칙 257, 266
'ㅸ → ㅂ' 규칙 257, 259
/ㅸ/의 분포 252

ㅅ

'ㅅ → ㄱ' 규칙 260, 266
/ㅅ/의 분포 256, 266
삽입 85, 113, 119, 120
삽입규칙 165, 188, 196
상보적 분포(相補的 分布, complementary distribution) 27
상성화 121
상승이중모음, rising diphthong) 45
상향(上向)이중모음 45
생성문법 15
생성문법론 63
생성음운론 18, 25, 224
서남방언 22, 263
서북방언 22, 254, 256, 271
선택규칙 223~225, 238
설정성 55, 64
설첨(舌尖, 혀끝) 35, 37
성도(聲道, vocal tract) 35
성문 36
성문음소(聲門音素) 36, 48
성조 13
성조소목록 251, 265
성조소축약 117
성조언어 251
소괄호 131
순행동화 93
심층구조 15, 26
'ㅺ'의 분포 253
'ㅿ → {ø, ㅅ}' 규칙 258, 266
'ㅿ → ㅅ'의 규칙 259
/ㅿ/의 분포 252

ㅇ

아랫입술 35
악센트 13
양순 비음소 37
양순음소(兩脣音素) 35, 48, 104
양순음소화 137, 138
양순음소화규칙 137, 161
어간 86
어간말 또는 어미초 /아/나 /어/ 탈락 120
어간말 /아/나 어미초 /어/ 탈락 113
어간말 /으/, /아/, /어/ 탈락규칙 179, 183, 195
어간말 /으/ 탈락 113, 120
어간말자음소군 181
어간말 /ㅎ/ 탈락규칙 241

어간형 230, 232
어두 자음소군의 분포 252
어미 17, 86
어미초 /어/의 /아/화규칙 241
어미초 /으/ 144, 178
어미초 /으/ 탈락 113, 120
어미초 /으/ 탈락규칙 179, 185, 195
어미형 230, 232
/어/ 순행동화규칙 165, 173, 195
어휘부 15
어휘삽입규칙 15
어휘형태소 17, 86
어휘화된 이형태 236
언어능력 228
언어음 11, 12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 264
역행동화 93
연구개 36
연구개 비음소 37
연구개 활음소 38
연구개음소(軟口蓋音素) 36, 48
연구개음소화 136
연구개음소화규칙 134, 136, 161
연속성 56, 60, 64
'오 → 우' 규칙 262, 266
/오/의 분포 255, 266
완전동화 93
완전순행동화 103, 171, 173, 175
완전순행동화규칙 236
운소 13, 25
운소목록의 변화 251, 265
운소축약 117, 121
원순모음(소) 43
원순모음소화 103
원순모음소화규칙 257, 261, 266
원순성 59, 60, 64
윗입술 35
유기성 56, 64
유기음소화 117, 121, 158, 159
유기음소화규칙 158, 159, 163
유성 마찰음 29
유성 파열음 29
유성 파찰음 31
유성음 29
유음소(流音素) 28, 33, 37, 48, 54, 57
유음소목록 33, 48, 57
유음소탈락 106, 109, 120
유음소탈락규칙 149, 162, 179, 195
유음소화 139
유음소화규칙 139, 161
6모음소목록 22
/으/의 분포 253, 255, 266
/으/ 탈락 141, 154, 156, 187
/으/ 탈락규칙 149, 152, 155, 157, 162
음성 270, 273, 280
음성음절구조제약 108
음성적 관계 16
음성적 음절 70, 74, 77
음성적 음절구조의 유형 70, 77
음성층위 63
음성표시 26
음성형(音聲形) 26, 83, 85, 106, 211, 226, 242~244
음소 13, 14, 16, 25, 26, 100, 270,

271, 273, 280
음소의 축약 121
음소적 표기법 274, 280
음소목록 25
음소목록의 변화 247, 265
음소분포의 변화 247, 251, 266
음소층위 63, 211, 243
음소표시 25
음운 13, 25
음운의 변동 119
음운의 변화 119
음운과정 14, 84, 88, 96, 99, 102, 107, 109, 114, 119, 195, 199, 213, 217, 218, 227, 242
음운과정의 설명 226
음운규칙 16, 18, 126, 127, 149, 161, 222, 224, 228, 244, 274, 275, 279
음운규칙의 변화 247, 257, 266
음운론 11, 13, 15, 199
음운론의 개념 15, 23
음운론의 기술 영역 18, 23
음운론의 목적 12, 23
음운론적 관계 16
음운론적 변화 247
음운론적 설명가능성 213
음운론적 음절 71, 74, 75, 77
음운론적 음절구조의 유형 71, 78
음운론적 정보 128
음운론적 정의 77
음운론적 제약 150, 182
음운론적 조건 178
음운목록 12~14, 199
음운배열 12, 14, 199
음운부 15
음운부의 기저형 16
음운부의 심층구조 16
음운부의 음성형 16
음운부의 표면구조 16
음운설정 방법 26
음의 분포 26
음의 연속체 11
음장(音長, length) 25, 43
음장언어 251, 265
음절 13, 25, 70, 77
음절의 구조 77
음절의 구조제약 70, 73, 78
음절의 구조조건 76, 79
음절의 구조조정 70, 75, 186
음절의 정의 77
음절 유형 77
음절구조 70, 72, 73
음절구조제약 150
음절말 74, 78
음절초 74, 78
음절핵 74, 78
음형(音型, sound patterns) 12, 15, 23, 199, 205
'의(ɯj) → 이' 규칙 261, 263, 266
/의(ɯj)/의 분포 255, 266
의문변형규칙 15
의미·통사부 15
의존형태소 86, 191
이음 16, 25
이중모음소(二重母音素) 121, 261, 266
이중모음소의 단(單)모음소화 121

이중모음소의 단(單)모음소화규칙 261, 266
이중모음소목록 40, 45, 48
이중모음소목록의 변화 250, 265
인두벽 36
일반화 131
입 열림(개구 開口) 41
입술모양자질 58, 64
입술의 모양 41, 42
'ᄋ → {으, 아}' 규칙 259, 266

ㅈ

자료 분석 206, 208
자료 정리 206
자료 수집 200, 243
자료 조사 205
자립형태소 86, 191
자연어 269
자유변이 29
자음 11, 12, 39
자음의 명칭 39
자음군단순화규칙 149
자음성 54, 64
자음소 28, 29, 38, 48, 54
자음소의 이음 41
자음소의 명칭 39
자음소교체 89, 119
자음소교체규칙 129, 165, 166, 195
자음소군 108
자음소군의 분포 266
자음소군단순화 108, 109, 120, 144, 147, 168, 169, 180, 181
자음소군단순화규칙 143, 147, 150, 162, 179, 195
자음소도치 121
자음소동화 52, 61, 92, 93, 119, 202, 217
자음소동화규칙 129, 161, 275
자음소목록 28, 48
자음소목록의 변화 247, 265
자음소삽입 113, 114, 120
자음소삽입규칙 188, 196
자음소축약 116, 121
자음소탈락 106, 120
자음소탈락규칙 141, 162, 179, 195
자질 53, 54
자질값 93, 94, 100, 103, 119, 128, 161
자질변환규칙 129, 161
장(長)모음소 25, 26, 44, 48, 104
장(長)모음소목록 40
장음성 59, 64
장(長)이중모음소 45, 46, 48
장(長)이중모음소목록 45
재구조화 258
저모음(소) 42
저설성 59, 60, 64
전방성 55, 64
전설(前舌) 36
전설고모음소화 98, 100
전설고모음소화규칙 263, 266
전설모음(소) 41
접두사 86
접미사 86
접사 86

제주방언 22
조사 항목 204
≪조선관역어(朝鮮館譯語)≫ 256
조음방식 35, 36, 48
조음방식자질 53, 56, 64
조음위치 35, 48
조음위치자질 53, 55, 64
조음음성학적 45
조음음성학적 정의 77
조음체 35
주요부류자질 53, 54, 64
중간단계 17, 226, 236
중간단계형 244
중괄호 131
중모음(소) 42
중부방언 22, 263, 270, 271
중설모음(소) 41
직접동화 93

ㅊ

청각음성학 45
체계적 음성표시 25
체계적 음소표시 25
최대의 음절구조 70, 71
최소대립쌍 26, 28, 33, 69
최소의 음절구조 70, 71
최종단계 17
추상적인 실재 18
축약 85, 116, 119, 121
축약규칙 158, 161, 162
치경 비음소 37
치경음소(齒莖音素) 35, 48, 104
치조 37
치찰성 56, 64
치환검증 18
7모음소목록 22

ㅌ

탈락 83, 85, 105, 119, 120
탈락규칙 140, 161, 162, 165, 179, 195
통사규칙 15
통시음운론 15
통시적인 변화 85
통시적인 활음소탈락 120
통합 관계(統合關係) 208, 243

ㅍ

파열음소(破裂音素) 36, 48
파찰음소(破擦音素) 37, 48
평순모음(소) 43, 103
평음화 119
평파열음소화(平破裂音素化) 89, 91, 119, 127, 129, 136, 145, 168, 195, 204, 214, 215, 217, 220, 224, 277
평파열음소화규칙 129, 161, 275
폐모음(소) 42
폐음절의 /으/ 143, 148, 149, 154, 162
표기법 270
표기법의 제약 270
표기형 118, 270, 274, 279, 280

표면구조 15, 26
표면음성 제약 148, 151
표준어 22, 23, 271
프라그언어학 18, 26

ㅎ

/ㅎ/ 탈락 107, 120, 141, 142
'ㅎ' 탈락 239
/ㅎ/ 탈락규칙 141, 162
하강이중모음(falling diphthong) 45
혀의 높이 38, 41, 42
혀의 위치 41
현재변형규칙 15
혓몸자질 53, 58, 64
형태 분석 207, 243
형태론적 제약 128, 173, 178, 181, 185, 187, 191, 194, 195
형태론적 정보 128
형태소 13, 25, 86, 274
형태소 경계 110, 119, 256
형태소 종류 86
형태음소 14, 17
형태음소의 교체 17
형태음소적 표기법 274, 279, 280
형태음운 12, 14
형태음운규칙 16, 127, 128, 153, 161, 165, 169, 173, 175, 178, 181, 183, 185, 191, 194, 195, 222, 228, 244
활음끝 이중모음(소) 45, 47
활음소(滑音素) 28, 38, 48, 54, 58
활음소목록 48, 58
활음소삽입 113, 115, 120
활음소삽입규칙 188, 192, 196
활음소탈락 106, 110, 111, 120
활음소화 88, 97, 110, 112, 119, 171, 172, 201, 228, 230, 239, 241
활음소화규칙 165, 170, 173, 195, 228, 241
활음시작 이중모음(소) 45, 47
후설(後舌) 36
후설모음(소) 41
후설성 58, 60, 64
'ㆅ → ㅋ' 규칙 260, 266

j끝 이중모음소 45, 250
/j/ 삽입 194
/j/ 삽입규칙 188, 192, 196, 238, 241
j시작 이중모음소 45, 250
/j/의 분포 254, 266
j-이중모음소 45
-j이중모음소 45
/j/ 탈락 120
/j/ 탈락규칙 261, 266
w시작 이중모음소 45, 250
w-이중모음소 45
/w/ 탈락 120